

# 목 차

## 요 약

<b>제1장 과업의 개요 .....</b>	<b>1</b>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과업의 범위 / 4	
<b>제2장 여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 .....</b>	<b>7</b>
제1절 설문조사 개요 / 9	
제2절 사전 설문조사 수행 결과 / 12	
제3절 수요예측 방법론 및 수요예측 결과 / 32	
제4절 사후 설문조사 수행 결과 / 39	
제5절 사후평가 / 48	
<b>제3장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 .....</b>	<b>49</b>
제1절 설문조사 개요 / 51	
제2절 사전/간이 설문조사 수행 결과 / 55	
제3절 수요예측 방법론 및 수요예측 결과 / 71	
제4절 사후 설문조사 수행 결과 / 78	
제5절 사후평가 / 87	
<b>제4장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 .....</b>	<b>93</b>
제1절 설문조사 개요 / 95	
제2절 사전 설문조사 수행 결과 / 100	
제2절 수요예측 방법론 및 수요예측 결과 / 115	
제4절 사후 설문조사 수행 결과 / 122	
제5절 사후평가 / 133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	139
제1절 결론 / 141	
제2절 향후 과제 / 143	
부 록 .....	146

## 표 목 차

<표 2- 1> 지역별 조사 세대수 .....	11
<표 2- 2> 출발지역별 하계 휴가시 여행 지역(2008년) .....	14
<표 2- 3> 하계 휴가시 총 휴가 비용(2008년)-국내/해외여행별 .....	16
<표 2- 4> 하계 휴가시 출발 예정 일자(2009년) .....	19
<표 2- 5> 하계 휴가시 이용 예정 도로(연도별) .....	22
<표 2- 6> 하계 여행시 고속도로 이용 예정 노선 - 중복(2009년) .....	23
<표 2- 7> 하계 휴가시 총 예상 휴가 비용(2009년) - 국내/해외여행별 .....	23
<표 2- 8> 하계 휴가시 폭염 또는 무더위 기상상태일 경우 대체방법 - 주 이용 교통수단별 .....	25
<표 2- 9> 하계 휴가시 폭우 또는 장마같은 기상상태일 경우 대체방법 - 주 이용 교통수단별 .....	27
<표 2-10> 평소 하계 휴가시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여부 - 주 이용 교통수단별	28
<표 2-11> 교통상황 안내정보 획득 경로 - 주 이용 교통수단별 .....	29
<표 2-12> 심각한 교통정체 안내정보시 대체방법 .....	31
<표 2-13> 2009년도 여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수요 예측결과(전국) .....	35
<표 2-14> 여름휴가기간 중 피크시('09.7.26~8.8: 2주) 수요 집중도 .....	35
<표 2-15> 2009년 하계 휴가기간 중 통행행태 사전/사후조사 결과 비교 .....	41
<표 2-16> 하계 휴가기간 중 총 휴가 비용 .....	47
<표 2-17> 여름휴가 특별교통대책 사후평가 .....	48
<표 3- 1> 추석 연휴 지역별 조사 세대수(연도별) .....	53
<표 3- 2> 추석 연휴 지역별 조사 세대수(사전조사, 간이조사) .....	54
<표 3- 3> 출발지역별 작년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 .....	56
<표 3- 4> 작년 추석 연휴시 귀성 및 귀가 시기 .....	57
<표 3- 5>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교통수단(연도별) .....	58

<표 3- 6>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연도별) .....	58
<표 3- 7> 귀성일자별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예정 시간대(2009년) .....	62
<표 3- 8> 귀가일자별 추석 귀가 또는 여행후 출발예정 시간대(2009년) .....	63
<표 3- 9>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대중교통 표 예매 여부 .....	66
<표 3-10>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대중교통 표 예매 여부 - 교통 수단별 .....	67
<표 3-11>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대중교통 표 예매를 못할 경우 대체 교통수단 - 교통 수단별 .....	67
<표 3-12> 추석 귀성 및 귀가시 교통비용 - 연도별 .....	68
<표 3-13> 추석 귀성 및 귀가시 교통비용(2009년) - 귀성/여행별 .....	68
<표 3-14> 추석 연휴기간 이외에 추가적인 휴가 계획일 수 .....	69
<표 3-15> 2009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수요 예측결과(전국) .....	72
<표 3-16> 추석 연휴 권역간 귀성 기종점통행량 .....	73
<표 3-17> 추석 연휴 권역간 귀경 기종점통행량 .....	74
<표 3-18> 추석 연휴 통행량 예측 결과 비교 .....	86
<표 3-19> 추석 연휴 통행량 예측 결과 비교 .....	87
<표 3-20> 추석 연휴 귀성통행량 예측치(승용차 개방식 요금소 제외) .....	88
<표 3-21> 추석 연휴 귀경통행량 예측치(승용차 개방식 요금소 제외) .....	88
<표 3-22> 추석 연휴 귀성통행량 실측치(승용차 개방식 요금소 제외) .....	89
<표 3-23> 추석 연휴 귀경통행량 실측치(승용차 개방식 요금소 제외) .....	89
<표 3-24> 추석 연휴 귀성통행량 평가(예측치/실측치_승용차 개방식 요금소 제외) ..	90
<표 3-25> 추석 연휴 귀경통행량 평가(예측치/실측치_승용차 개방식 요금소 제외) ..	90
<표 4- 1> 설 연휴 지역별 조사 세대수(연도별) .....	98
<표 4- 2> 지역별 조사 세대수(사전조사, 간이조사) .....	99
<표 4- 3>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연도별) .....	101
<표 4- 4> 작년 설 연휴시 귀성 및 귀가 시기 .....	101
<표 4- 5>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연도별) .....	102
<표 4- 6>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예정 시간대 .....	106

<표 4- 7>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예정 시간대 .....	107
<표 4- 8> 설 귀성 또는 여행시 대중교통 표 예매 여부 - 교통 수단별 .....	111
<표 4- 9> 설 귀성 또는 여행시 대중교통 표 예매를 못할 경우 대체 교통수단 ....	112
<표 4-10> 설 연휴중 강설/강우 예보에 의한 계획 변화 여부 .....	112
<표 4-11> 설 귀성 및 귀가시 왕복 교통비용(연도별) .....	113
<표 4-12> 설 연휴기간 이외에 추가적인 휴가 계획일 수 .....	113
<표 4-13> 2010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수요 예측결과(전국) .....	116
<표 4-14> 설 연휴 권역간 귀성 기종점통행량 .....	117
<표 4-15> 설 연휴 권역간 귀경 기종점통행량 .....	118
<표 4-16> 설 귀성 및 귀가시 교통비용 .....	129
<표 4-17> 설 연휴기간 이외에 추가적인 휴가 계획일 수 .....	130
<표 4-18>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여부 - 교통수단별 .....	132
<표 4-19> 설 연휴 통행량 예측 결과 비교 .....	134
<표 4-20> 설 연휴 귀성통행량 예측치(승용차 개방식 요금소 제외) .....	135
<표 4-21> 설 연휴 귀경통행량 예측치(승용차 개방식 요금소 제외) .....	135
<표 4-22> 설 연휴 귀성통행량 실측치(승용차 개방식 요금소 제외) .....	136
<표 4-23> 설 연휴 귀경통행량 실측치(승용차 개방식 요금소 제외) .....	136
<표 4-24> 설 연휴 귀성통행량 평가(예측치/실측치_승용차 개방식 요금소 제외) ·	137
<표 4-25> 설 연휴 귀경통행량 평가(예측치/실측치_승용차 개방식 요금소 제외) ·	137

## 그림목차

<그림 2- 1> 표본 추출 프로그램 이용과정 .....	11
<그림 2- 2> 하계 휴가시 여행 여부의 분포(2008년) .....	13
<그림 2- 3> 하계 휴가시 여행 지역의 분포(2008년) .....	13
<그림 2- 4> 하계 휴가시 해외여행 지역의 분포(2008년) .....	14
<그림 2- 5> 하계 휴가시 여행 시기의 분포(2008년) .....	15
<그림 2- 6> 하계 휴가시 이용 교통수단의 분포(2008년) .....	15
<그림 2- 7> 하계 휴가시 여행 여부의 분포(2009년) .....	17
<그림 2- 8> 2008년과 2009년 하계 휴가시 여행 여부 비교의 분포 .....	17
<그림 2- 9> 하계 휴가를 안 가는 이유의 분포(2009년) .....	18
<그림 2-10> 하계 휴가시 여행 예정 지역의 분포(2009년) .....	18
<그림 2-11> 하계 휴가시 해외여행 예정 지역의 분포(2009년) .....	19
<그림 2-12> 하계 휴가시 출발 예정 일자의 분포(2009년) .....	20
<그림 2-13> 하계 휴가시 예정 여행 기간의 분포(2009년) .....	20
<그림 2-14> 하계 휴가시 예정 이용 교통수단의 분포(2009년) .....	21
<그림 2-15> 하계 휴가시 예정 동행인 수의 분포(2009년) .....	21
<그림 2-16> 하계 여행시 고속도로 이용 예정 노선의 분포(2009년) .....	22
<그림 2-17> 하계 휴가시 폭염 또는 무더위 기상상태일 경우 대체방법(2009년) ...	24
<그림 2-18> 하계 휴가시 폭우 또는 장마같은 기상상태일 경우 대체방법 .....	26
<그림 2-19> 평소 하계 휴가시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여부 .....	27
<그림 2-20> 교통상황 안내정보 획득 경로 .....	28
<그림 2-21> 심각한 교통정체 안내정보시 대체방법 .....	30
<그림 2-22> 여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요예측방법 .....	32
<그림 2-23> 여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이동인원 추이(1일 평균) .....	36
<그림 2-24> 여름휴가 교통수단별 분담률(예상) .....	36

<그림 2-25> 여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일자별 예정인원 비율 .....	37
<그림 2-26> 국내여행 예정지역 분포(전망) .....	37
<그림 2-27> 고속도로별 이용차량 비율(전망) .....	38
<그림 2-28> 하계 휴가기간 중 여행 여부의 분포 .....	40
<그림 2-29> 하계 휴가시 여행 여부 변경 이유(휴가감→휴가안감/미정) .....	41
<그림 2-30> 하계 휴가기간 중 여행 지역의 분포 .....	42
<그림 2-31> 하계 휴가기간 중 해외여행 지역의 분포 .....	42
<그림 2-32> 하계 휴가기간 중 출발 일자의 분포 .....	43
<그림 2-33> 하계 휴가기간 중 여행 기간의 분포 .....	44
<그림 2-34> 하계 휴가기간 중 이용 교통수단의 분포 .....	44
<그림 2-35> 하계 휴가기간 중 동행인 수의 분포 .....	45
<그림 2-36> 하계 휴가기간 중 이용 도로의 분포(연도별) .....	45
<그림 2-37> 하계 여행시 고속도로 이용 노선의 분포 .....	46
<그림 2-38> 하계 여행시 고속도로 이용 노선의 분포(중복) .....	46
<그림 3- 1>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의 분포(2008년) .....	56
<그림 3- 2> 작년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교통수단의 분포 .....	57
<그림 3- 3>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의 분포(사전/간이 교차분석) .....	59
<그림 3- 4>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예정 지역의 분포(2009년) .....	60
<그림 3- 5> 수도권 거주자의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예정 지역의 분포(2009년) .....	60
<그림 3- 6> 수도권 지역으로의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예정 응답자의 거주지 분포 (2009년) .....	61
<그림 3- 7>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예정일자의 분포(2009년) .....	61
<그림 3- 8> 추석 귀가 또는 여행후 출발예정일자의 분포(2009년) .....	62
<그림 3- 9>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이용 교통수단의 분포(2009년) .....	63
<그림 3-10>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의 분포(2009년) .....	64
<그림 3-11>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도로의 분포(2009년) .....	64
<그림 3-12>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고속도로 이용 예정 노선의 분포(2009년) .....	65

<그림 3-13> 추석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없는 이유의 분포(2009년) .....	66
<그림 3-14> 추석 연휴기간 이외에 추가적인 휴가 계획 여부의 분포(2009년) .....	69
<그림 3-15> 추석 연휴기간 중 성묘 여부의 분포(2009년) .....	70
<그림 3-16>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예측 방법 .....	71
<그림 3-17> 추석 연휴 귀성·귀경시 지역간 통행량(예측) .....	73
<그림 3-18> 추석 연휴 목적별 이동인원 비율 .....	74
<그림 3-19> 연도별 추석연휴 1일 평균 이동인원 추이(수도권 내 이동인원 제외) ·	75
<그림 3-20> 추석 연휴기간 중 교통수단별 분담률 .....	75
<그림 3-21> 추석 연휴 일자별 귀성 및 귀경객 비율(전망) .....	76
<그림 3-22> 추석 연휴 출발일, 출발시간대별 귀성객 비율(전망) .....	76
<그림 3-23> 추석 연휴 출발일, 출발시간대별 귀경객 비율(전망) .....	77
<그림 3-24> 추석 연휴 고속도로별 이용객 비율(전망) .....	77
<그림 3-25>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의 분포 .....	79
<그림 3-26> 추석 귀성 또는 여행 계획 취소된 이유 .....	79
<그림 3-27>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지역의 분포 .....	80
<그림 3-28>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일자의 분포 .....	81
<그림 3-29>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시간대의 분포 .....	81
<그림 3-30> 추석 귀가 또는 여행후 출발 일자의 분포 .....	82
<그림 3-31> 추석 귀가 또는 여행후 출발 시간대의 분포 .....	82
<그림 3-32>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교통수단의 분포 .....	83
<그림 3-33>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동행인 수의 분포 .....	83
<그림 3-34>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도로의 분포 .....	84
<그림 3-35>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고속도로 이용 노선의 분포(단일선택) .....	84
<그림 3-36>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고속도로 이용 노선의 분포(중복선택) .....	85
<그림 3-37> 추석 귀성 또는 여행을 다녀오지 않은 이유 .....	85
<그림 3-38> 추석 연휴기간 중 성묘 여부의 분포 .....	86
<그림 3-39> 추석 연휴 일자별 차량대수 분포(지역간 이동 기준) .....	91

<그림 4- 1> 작년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교통수단의 분포 .....	102
<그림 4- 2>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의 분포(사전조사/간이조사) .....	103
<그림 4- 3> 설 귀성 또는 여행 예정 지역의 분포 .....	104
<그림 4- 4> 수도권 거주자의 설 귀성 또는 여행 예정 지역의 분포(2010년) .....	104
<그림 4- 5> 수도권 지역으로의 설 귀성 또는 여행 예정 응답자의 거주지 분포 (2010년) .....	105
<그림 4- 6>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예정일자의 분포(2010년) .....	105
<그림 4- 7> 설 귀성 또는 여행후 출발예정일자의 분포(2010년) .....	106
<그림 4- 8>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이용 교통수단의 분포(2010년) .....	107
<그림 4- 9>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의 분포(2010년) .....	108
<그림 4-10>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도로의 분포(2010년) .....	108
<그림 4-11> 설 귀성 또는 여행시 고속도로 이용 예정 노선의 분포(2010년) .....	109
<그림 4-12> 설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없는 이유의 분포 .....	110
<그림 4-13> 명절 3일 연휴인 경우 5일 연휴 제도화 방안 인식 .....	114
<그림 4-14>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예측 방법 .....	115
<그림 4-15> 설 연휴 귀성·귀경시 지역간 통행량(예측) .....	117
<그림 4-16> 설 연휴 목적별 이동인원 비율 .....	118
<그림 4-17> 연도별 설연휴 1일 평균 이동인원 추이(수도권 내 이동인원 제외) ...	119
<그림 4-18> 설 연휴기간 중 교통수단별 분담률 .....	119
<그림 4-19> 설 연휴 일자별 귀성 및 귀경객 비율(전망) .....	120
<그림 4-20> 설 연휴 출발일, 출발시간대별 귀성객 비율(전망) .....	120
<그림 4-21> 설 연휴 출발일, 출발시간대별 귀경객 비율(전망) .....	121
<그림 4-22> 설 연휴 고속도로별 이용객 비율(전망) .....	121
<그림 4-23>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의 분포 .....	123
<그림 4-24>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의 분포(사전+간이/사후 교차분석) .....	124
<그림 4-25> 설 귀성 또는 여행 지역의 분포 .....	124
<그림 4-26>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일자의 분포 .....	125

<그림 4-27>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시간대의 분포 .....	126
<그림 4-28> 설 귀가 또는 여행후 출발 일자의 분포 .....	126
<그림 4-29> 설 귀가 또는 여행후 출발 시간대의 분포 .....	127
<그림 4-30>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교통수단의 분포 .....	127
<그림 4-31>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도로의 분포 .....	128
<그림 4-32> 설 귀성 또는 여행시 고속도로 이용 노선의 분포 .....	128
<그림 4-33> 설 귀성 또는 여행시 고속도로 이용 노선의 분포(중복) .....	129
<그림 4-34> 설 연휴기간 중 성묘여부 .....	131
<그림 4-35> 설 귀성 및 귀가시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	131

요약

---



## 요 약

### 1. 과업의 개요

#### 가.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과업은 매년 여름휴가, 추석연휴, 설 연휴 기간 동안 폭증하는 수송수요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주관 하에 수립되는 특별교통대책의 기초자료를 조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정부는 매년 설, 추석 등 명절기간과 여름휴가 기간 동안 장거리 이동 통행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특별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처, 관리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설정하여 교통수단별 교통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 효과적인 특별교통대책은 지역간 이동수요, 침두일자 및 시간대 등 특별교통수요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수립될 수 있음
- 따라서, 2009년도 사업에서는 여름휴가기간, 추석 연휴기간, 설 연휴기간 약 25일 전 후에 통행수요 및 통행행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최근 년도의 교통수단별 수송실적현황 등을 고려하여 각 연휴기간의 통행수요를 분석·예측함으로써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나. 과업의 범위

##### 1) 시간적 범위

- 특별교통대책기간
  - 2009년 여름휴가 : 2009년 7월 18일 ~ 8월 16일(30일간)
  - 2009년 추석연휴 : 2009년 10월 1일 ~ 10월 5일(5일간)
  - 2010년 설연휴 : 2010년 2월 12일 ~ 2월 16일(5일간)
- 조사계획 수립(설문내용 설계 및 수요예측방법론)
  - 2009년 여름휴가 : 2009년 5월 1일 ~ 2009년 6월 14일
  - 2009년 추석연휴 : 2009년 8월 10일 ~ 2009년 9월 9일
  - 2010년 설연휴 : 2010년 12월 1일 ~ 2010년 12월 24일

- 기초자료 수집 및 기초분석 : 2009년 5월 ~ 2010년 2월
- 설문조사 업체 선정 : 2009년 6월 1일 ~ 2009년 6월 20일
  - 여름휴가, 추석 및 설 연휴기간 설문조사 일괄 경쟁입찰
-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
  - 2009년 여름휴가 : 2009년 6월 15일 ~ 2009년 7월 8일
  - 2009년 추석연휴 : 2009년 9월 1일 ~ 2009년 9월 25일
  - 2010년 설연휴 : 2010년 1월 18일 ~ 2010년 2월 5일

## 2) 공간적 범위

-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함

## 3) 내용적 범위

- 여름휴가, 추석 및 설 연휴기간 동안의 수송수요 및 수송분담률 예측을 위한 통행계획 및 통행특성조사
- 특별교통대책수립을 위한 교통수요예측
- 교통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특별교통대책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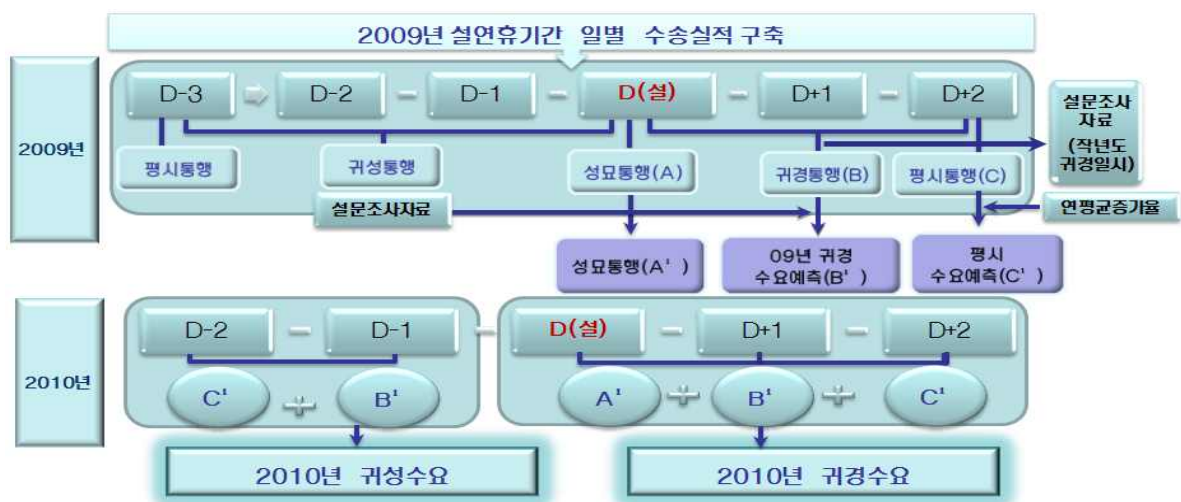
## 2. 수송실적 자료조사 및 수요예측 방법론

### 가. 수송실적 자료조사

- 전년도 수송실적인 2008년 하계휴가, 추석 및 2009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의 각 수단별 수송실적 자료는 담당기관에 공문을 통하여 취득하고 있으며, 협조유관기관으로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해운조합,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전세버스조합 등이 있음

### 나. 수요예측 방법론(2010년 설)

- 09년도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의 통행수요는 설연휴 이전일인 D-3일은 평상시 통행과 귀성통행이 혼재하며, D-2일부터 D일까지 귀성통행과 설 당일의 성묘통행과 귀경통행, D+1일은 귀경통행, D+2일은 귀경과 평시통행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D+2일은 귀경통행과 평상시 통행이 혼재하는데, 설문조사에서 산출되는 일자별 귀경비율을 이용하여 D+2일의 귀경통행을 산출하며, 나머지 통행을 평상시 통행인 것으로 가정함
- 이와 같이, 전년도 일별 수송실적과 설문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전년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의 평상시 통행, 귀성·귀경통행(역귀성 포함), 성묘통행, 친지방문통행 등으로 세분화한 후, 평상시 통행은 전년도 대비 올해의 연평균 증감률을 적용하며, 귀성 및 귀경통행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산출된 전년도 대비 올해의 귀성비율을 적용하고, 성묘통행 및 친지방문통행은 설문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산출함



<그림 1>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예측 방법

### 3.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

#### 가. 설문조사 수행 및 결과

##### 1) 사전·간이 설문조사 결과 분석

- 2009년 하계 휴가기간 중 여행 계획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n=4,000), 하계 휴가를 다녀올 계획이 있는 가구는 22.2%로 예상되며(미정이 16.1%로 실제 하계 휴가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전년도에는 28.3%가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하계 휴가시 여행 예정 지역은 동해안이 2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남해안이 15.7%, 서해안이 11.4%, 강원내륙이 11.0%로 나타남
- 하계 휴가기간 중 여행시 출발 예정 일자(n=888)는 7월 26일에서 8월 1일까지가 33.9%, 그리고 8월 2일에서 8월 8일까지가 30.0%, 8월 9일부터 8월 15일까지가 10.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하계 휴가시 이용 예정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가 70.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용수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행기가 9.3%, 승합차가 8.2%, 기차 3.5%, 고속버스 3.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이용 예정 도로는 고속도로(고속도로만 이용+고속도로와 국도/지방도 동시이용)가 전체의 88.9%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고속도로 이용자 중 영동고속도로가 27.3%로 가장 많이 이용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경부선이 20.1%, 서해안선이 18.6%로 나타남

##### 2) 사후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사후 설문조사 결과의 세부분석에서는 항목별 사후조사결과(n=800)와 사전조사결과(n=4000)를 비교하여 제시함
- 하계 휴가기간 중 여행 여부에 대하여 특별교통대책 기간 이후 시점인 8월18일~8월 19일 사후설문 결과(n=800), 55.0%가 하계 휴가기간 중 여행을 갔다고 응답하였으며 44.9%는 여행 안감, 0.1%는 조사 참여 시점에서 하계 여행에 대하여 미정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하계 휴가기간 중 여행 지역(n=440)은 동해안이 1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영남내륙권이 15.7%, 강원내륙권이 13.2% 순으로 나타남
- 하계 휴가기간 중 출발 일자(n=440)는 7월 26일에서 8월 1일까지가 35.0%, 그리고 8월2일~8월8일이 30.2%, 8월 9일부터 8월 15일까지가 18.0%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하계 휴가기간 중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88.9%(440명 중 391명)가 특별교통대책 기간(7.19~8.15) 중 출발했다고 응답함
- 2009년 하계 휴가기간 중 이용 교통수단(n=440)으로는 승용차가 75.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용수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승합차가 7.3%, 비행기가 7.0%, 열차 2.7%, 고속버스 1.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고속도로 이용자의 주 이용노선(n=312)은 영동선이 23.7%로 가장 많이 이용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해안선이 17.6%, 경부선이 16.0%의 순으로 나타남

#### 나. 여름휴가 특별교통대책 수요예측 결과

- 금년 여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09.7.18~8.16, 30일간) 중 전국의 지역간 이동인원은 9,366만명(19,950만 통행), 1일 평균 312만 명(665만 통행)이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313만 명/일)에 비해 0.2% 감소, 평시(296만 명)보다 5.6% 증가한 수치임

<표 1> 2009년도 여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수요 예측결과(전국)

단위: 천통행

구분		평시 1일 수송량	휴가기간('09.7.18~8.16)			평시대비 (%)	전년도 대비(%)
			일평균 교통량	30일 총수송량	분담률 (%)		
교통수단							
도로	승용차	4,591	4,799	143,956	72.2	104.5	98.7
	버스	고속버스	109	128	3,845	1.9	117.6
		시외·전세	1,219	1,267	38,009	19.1	103.9
		버스계	1,328	1,395	41,854	21.0	105.0
	도로계	5,919	6,194	185,810	114.2	104.7	99.5
철도		290	321	9,641	4.8	111.0	102.9
항공		46	55	1,652	0.8	118.7	103.4
해운		40	80	2,393	1.2	198.3	102.4
합계		6,295	6,650	199,497	100.0	105.6	99.8

- 주: 1) 승용차의 경우 고속도로로 한정하며, 평시 평균 재차인원은 1.71명(2005년 전국교통조사 결과 중 평일 평균재차인원 적용), 휴가차량 재차인원은 3.66명임  
 2) 수단별 수송실적 자료는 각 기관에서 수집하여 사용함  
 3) 수단별 수송인원 산정시 2009년 여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설문조사의 통행패턴을 사용함

&lt;표 2&gt; 여름휴가기간 중 피크시('09.7.26~8.8: 2주) 수요 집중도

단위: 천통행

구분		평시 1일 수송량	휴가 피크기간 중 일 평균수송량	평시대비(%)
교통수단				
도로	승용차	4,591	5,662	123.3
	버스	고속버스	109	138.5
		시외·전세	1,219	122.6
		버스계	1,328	123.9
	도로계	7,247	8,954	123.6
철도		290	379	130.7
항공		46	65	141.3
해운		40	94	235.0
합계		6,295	7,846	124.6

## 다. 여름휴가 특별교통대책 사후평가

## 1) 사후평가

- 사후평가: 특별교통대책용 교통수요예측결과와 특별교통대책기간 실적자료 간의 비교를 의미함
  - 특별교통대책 수송실적자료
    - 특별교통대책기간 완료 이후 집계 가능한 수단 실적을 활용
    - 승용차를 대상(TCS 일별 자료 활용-30일간): 수단분담률 약 70% 차지
- 사후평가 결과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승용차 대수는 4.6% 작게 예측됨
- 수송실적 측면
  - 전년도 대비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 피크 14일의 일평균 수송실적이 12.6% 증가함

&lt;표 3&gt; 여름휴가 특별교통대책 사후평가

단위: 만대

구분		실적			예측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가율	2009년	실적대비 수요 예측 오차율
하계 일평균	30일 일평균	287	325	13.2%	310	-4.6%
	피크기간 일평균	302	340	12.6%	365	7.4%
	하계기간 중 피크 집중도	105.23	104.62	-	117.74	-
하계기간 누계	30일	8,621	9,757	13.2%	9,287	-4.8%
	피크 14일	4,226	4,762	12.7%	5,110	7.3%
	하계기간 중 피크율	49.02	48.81	-	55.02	-

#### 4.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

##### 가. 설문조사 수행 및 결과

##### 1) 사전·간이 설문조사 결과 분석

- 2009년도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 계획에 대한 사전조사와 간이조사를 취합한 결과(n=6,800), 귀성 및 여행 계획이 있는 가구는 17.6%(귀성 17.3%, 여행 0.3%, 귀성 및 여행객 0.1%미만(0.04%))로 나타남. 이는 사전조사(n=6,800)의 귀성 또는 여행 예정 응답자 17.6%와 대등한 결과임
-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예정 지역(n=1,202)으로는 영남권이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수도권이 23.0%, 충청권이 18.3%, 호남권이 17.7%로 나타남
-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예정일자(n=1,202)는 추석 전날인 10월 2일(금)이 5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추석 당일인 10월 3일(토)이 18.4%, 10월 4일(일)이 13.9%로 나타남
- 추석 귀가시 출발예정일자(n=1,202)는 추석 다음날인 10월 4일(일)이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추석 당일인 10월 3일(토)이 40.1%로 나타남.
-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교통수단(n=1,202)은 자가용이 84.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용수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열차(KTX 포함)가 6.8%, 버스(고속버스, 시외버스, 전세/관광버스)가 5.8%로 나타남
-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주 이용 예정 노선(n=748)으로 경부선이 32.0%로 가장 많이 이용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서해안선 15.8%, 중부선 11.5% 순으로 나타남

##### 2) 사후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사후 설문조사 결과의 세부분석에서는 항목별 사후조사결과(n=600)와 사전조사결과(n=6800)를 비교하여 제시함
- 추석 연휴기간 동안 실제로 귀성을 다녀온 경우는 17.5%, 여행을 다녀온 경우는 0.3%, 귀성 및 여행을 같이 다녀온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귀성 및 여행을 다녀오지 않은 경우는 82.2%로 나타났음
-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지역 살펴본 결과 영남권이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충청권이 19.6%, 수도권이 18.7%, 호남권이 16.8% 순으로 나타남

-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일자를 살펴본 결과, 추석 전날인 10월 2일(금) 출발한 경우가 47.7%로 높게 나타났으며, 추석 당일인 10월 3일(토) 출발이 26.2%, 10월 1일(목) 추석 연휴 이전에 출발한 경우가 17.8% 순으로 나타남
- 추석 귀가 또는 여행후 출발 일자는 추석 당일인 10월 3일(토) 출발했다고 한 응답이 44.9%, 추석 다음날인 10월 4일(일) 출발이 40.2%, 추석연휴 이후인 10월 5일(월) 출발이 13.1%, 10월 2일(금) 출발이 1.9%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한 교통수단은 승용차를 주 교통수단으로 이용해서 추석 귀성 및 여행을 다녀왔다는 응답이 91.6%로 높게 나타났으며, 버스(고속버스, 시외버스)를 주 교통수단으로 이용한 경우가 3.7%, 열차(KTX포함)이 2.8% 순으로 나타남
-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고속도로 이용 노선은 경부선을 주 이용 고속도로 노선으로 이용했다는 응답이 26.7%로 높게 나타났으며, 서해안선이 14.7%, 중부선이 10.7% 순으로 나타남

#### 나.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수요예측 결과

- 올해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전국의 지역간 이동인원은 2,566만명(5,286만 통행), 1일 평균 513만명(1,057만 통행)이며, 수도권내 이동인원 포함시는 3,432만명(7,070만 통행), 일평균 686만 통행인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전년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에 비해 0.8% 감소, 평시보다 98.1% 증가(1일 평균 기준)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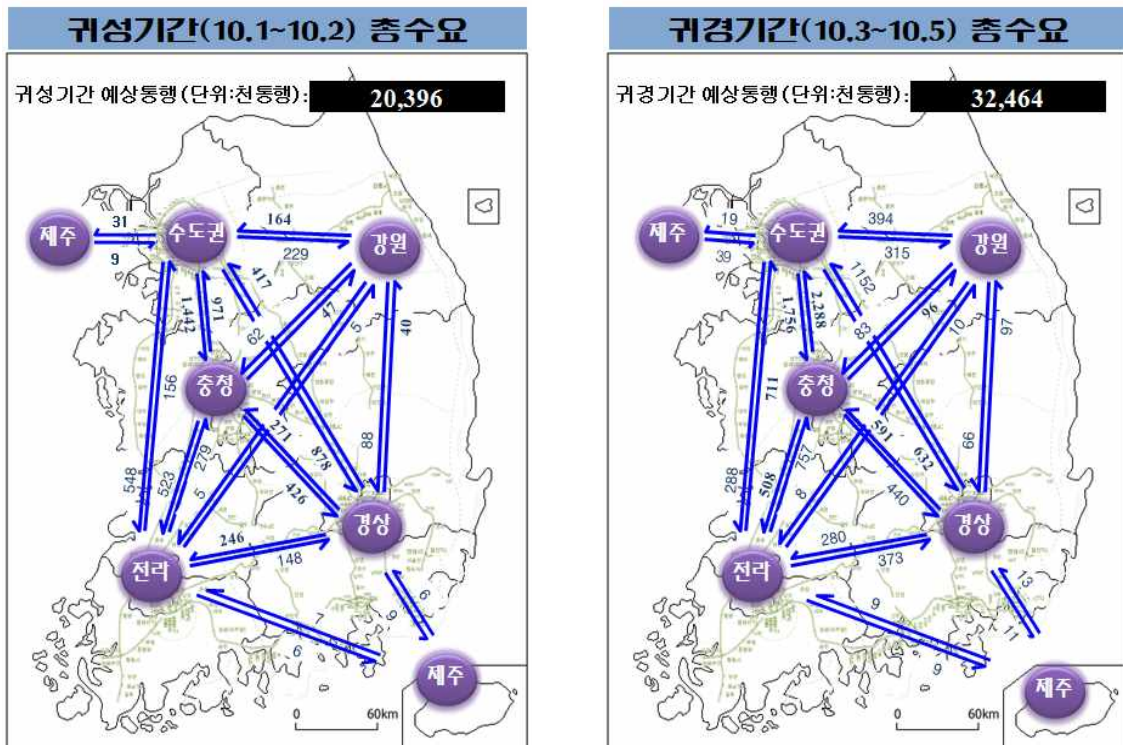
<표 4> 2009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수요 예측결과(전국)

단위: 천통행

구 분 교통수단	평시 1일 통 행 량	10.1~10.5 (5일간) 통행량			평시대비 (%)	전년대비 (%)
		1일 평균	총 통행	분담률(%)		
승 용 차	3,614	8,420	42,100	79.6	233.0	99.2
고속버스	104	196	980	1.9	188.9	97.1
시외·전세	1,245	1,385	6,923	13.1	111.2	99.1
철 도	287	455	2,275	4.3	158.3	98.6
항 공 기	48	50	251	0.5	103.7	98.8
여 객 선	40	66	332	0.6	167.6	108.8
합 계	5,338	10,572	52,860	100.0	198.1	99.2

- 주: 1) 승용차의 경우 고속도로로 한정하며, 평시 평균 재차인원은 1.71명(2005년 전국교통조사 결과 중 평일 평균재차인원 적용), 2009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평균 재차인원은 3.67명임
- 2) 수단별 수송실적 자료는 각 기관에서 수집하여 사용함
- 3) 전국의 통행수요를 산정하기 위해 2008년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9.12~9.16)의 수송실적현황과 추석연휴 통행패턴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계산한 통행량임

- 추석 연휴기간 동안 예상되는 지역간 이동은 귀성시 2,040만 통행, 귀경시 3,246만 통행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및 충청권 내부통행이 귀성시 474만 통행으로 전체 귀성 통행의 23.2%이며 귀경시 744만 통행으로 전체 귀경 통행의 22.9%인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및 충청권역의 고속도로 혼잡이 예상됨
- 귀성통행은 10월 1, 2일 2일간 발생하는 통행이며, 귀경통행은 10월 3, 4, 5일 3일간 발생하는 통행임



<그림 2> 추석 연휴 귀성·귀경시 지역간 통행량(예측)

#### 다.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사후평가

- 추석연휴기간 총 이동인원을 산출한 결과, 2008년 실적 대비 2009년 실적은 1.8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총 이동인원을 2009년 예측결과와 실적결과를 비교하면, 2.6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lt;표 5&gt; 추석 연휴 통행량 예측결과 비교

단위: 천통행

구분	실적			예측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가율	2009년	실적대비 수요 예측 오차율
총통행량	53,281,012	54,268,406	1.9%	52,860,205	-2.6%
총이동인원	25,864,569	26,343,886	1.9%	25,660,294	-2.6%
대중교통	10,859,508	9,724,575	-10.5%	10,760,321	10.7%
대중교통 (시외전세제외)	3,874,663	3,678,553	-5.1%	3,837,059	4.3%
승용차대수	11,333,408	12,351,056	9.0%	11,471,358	-7.1%

주: 대중교통 중 시외·전세버스 실적은 수집이 불가능하여 TCS 3종 결과를 활용하여 추정

## 5.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

### 가. 설문조사 수행 및 결과

#### 1) 사전·간이 설문조사 결과 분석

- 2010년도 설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 여부 결과(n=6,800), 귀성 및 여행 예정자 비율은 19.9%(귀성:19.6%, 여행:0.3%, 귀성 및 여행:0.1%미만)로 나타남 이는 2009년 대비 증가(+1.9%)한 결과임
- 귀성 또는 여행 예정 지역 조사 결과(n=1,361), 영남권이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충청권이 19.4%, 호남권 17.3%로 나타남. 이는 2009년 대비 서울시(+3.0%), 경기도(인천포함)(+2.4%) 다소 증가한 반면, 영남권 경우 다소 감소(-5.7%)한 결과임
-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예정 일자 조사 결과(n=1,361), 설전날인 2월 13일(토) 출발이 5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월 12일(금) 출발 22.0%, 설 당일인 2월 14일(일) 출발 17.3%로 설 전날에 귀성길 이동을 계획중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년 조사 또한 설 전날 출발이 높게 나타남
- 귀성 또는 여행후 출발예정 일자 조사 결과(n=1,361), 설 다음날인 2월 15일(월) 출발이 4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설 당일인 2월 14일(일) 출발이 38.4%로 설 전날에 귀성길 이동을 계획중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년 조사 또한 설 당일과 다음날 출발이 높게 나타남

-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교통수단 조사 결과(n=1,361), 자가용이 84.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용수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버스(고속버스, 시외버스)가 6.6%, 열차(KTX 포함)가 6.0%로 나타남 이는 2009년 대비 자가용의 경우 다소 감소(-3.2%)한 반면, 다른 교통수단(고속버스(+1.4%), 시외버스(+0.6%), 열차(KTX 포함)(+0.6%), 비행기(+0.2%), 기타교통수단(+0.5%))의 경우 다소 증가한 결과임
- 고속도로 이용시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고속도로 노선 조사 결과(n=844), 경부선이 28.3%로 가장 많이 이용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해안선이 16.5%, 호남선 8.6%의 순으로 나타남

## 2) 사후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사후 설문조사는 사전설문조사에서 귀성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사후변화율을 고려하기 위하여 귀성을 한다는 사람, 미정인 사람, 귀성을 하지 않는 사람 순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사후 설문조사 수행결과에서는 사후조사결과(n=800)와 사전조사 전체 응답자 중 사후조사에 응답한 표본결과(n=800)를 비교하여 작성하였음
- 올해(2010년) 설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을 다녀온 여부에 대하여 사후조사(n=800)을 통해 알아본 결과, 귀성의 경우는 71.0%, 여행의 경우 0.9%, 귀성 및 여행의 경우 0.3%로 나타남
  - 사전+간이 조사결과 : 귀성 77.5%, 여행 1.0%, 귀성 및 여행 0.4%
- 귀성 또는 여행 지역에 대한 사후조사 결과(n=577),영남권이 3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충청권이 19.9%, 호남권이 15.9% 순으로 나타남
  - 사전+간이 조사결과 : 영남권 29.2%, 충청권 20.3%, 호남권 17.3%
-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일자에 대한 사후조사 결과, 설 연휴 시작인 2월 13(토)에 출발한다는 응답이 53.6%로 높게 나타났으며, 2월 12일(금)에 출발한다는 응답이 23.7%, 설 당일인 2월 14일(일)에 출발한다는 응답이 18.4%로 나타남
  - 사전+간이 조사결과 : 설 전날인 2월 13일이 53.6%, 2월 12일(금) 23.6%, 설 당일인 2월 14일이 15.5%

- 귀가 또는 여행후 출발 일자에 대한 사후조사 결과, 설 다음날인 2월 15일(월)에 출발했다고 한 응답이 48.4%, 설 당일인 2월 14일(일) 출발이 38.3% 순으로 나타남
  - 사전+간이 조사결과 : 설 다음날인 2월 15일이 48.4%, 설 당일인 2월 14일이 37.6%
-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교통수단에 대한 사후조사 결과, 자가용이 85.4%로 이외 교통수단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외 교통수단의 경우 대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사전+간이 조사결과 : 승용차 84.0%, 버스 7.4%, 열차(KTX 포함) 5.9%
- 귀성 또는 여행시 고속도로 이용 노선에 대한 사후조사 결과, 경부선의 경우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해안선의 경우 16.8%, 중부선의 경우 11.5% 순으로 나타남
  - 사전+간이 조사결과 : 경부선 27.3%, 서해안선 17.9%, 중부선 8.9%

#### 나. 설연휴 특별교통대책 수요예측 결과

- 올해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2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중 총 2,546만명(5,245만 통행), 1일평균 509만명(1,049만 통행)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 수도권내 이동인원 포함시는 4,113만명(7,259만 통행), 일평균 705만명(1,452만 통행)인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전년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에 비해 9.1% 감소, 평시보다 100.9% 증가(1일 평균 기준)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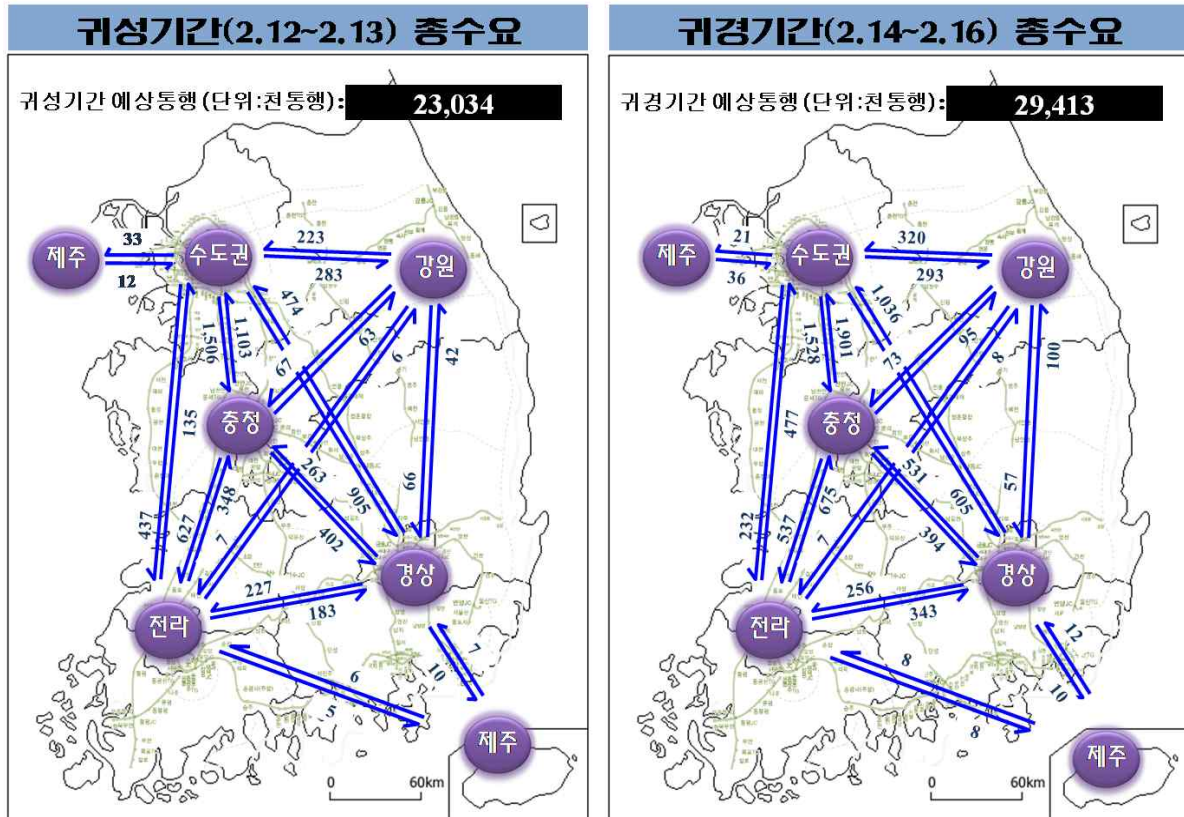
<표 6> 2010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수요 예측결과(전국)

단위: 천통행

구 분 교통수단	평시 1일 통 행 량	2.12~2.16 (5일간) 통행량			평시대비 (%)	전년대비 (%)
		1일 평균	총 통행	분담률(%)		
승 용 차	3,597	8,108	40,542	77.3	225.4	88.7
고속버스	105	178	888	1.7	169.5	94.2
시외·전세	1,146	1,651	8,257	15.7	144.1	100.3
철 도	282	463	2,313	4.4	164.2	91.9
항 공 기	50	52	258	0.5	104.0	95.5
여 객 선	41	38	188	0.4	92.7	101.8
합 계	5,221	10,489	52,446	100.0	200.9	90.9

- 주: 1) 승용차의 경우 고속도로로 한정하며, 평시 평균 재차인원은 1.71명(2005년 전국교통조사 결과 중 평일 평균재차인원 적용), 2010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평균 재차인원은 3.67명임
- 2) 수단별 수송실적 자료는 각 기관에서 수집하여 사용함
- 3) 전국의 통행수요를 산정하기 위해 2009년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1.23~1.28)의 수송실적현황과 설 연휴 통행패턴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계산한 통행량임

- 설 연휴기간 동안 예상되는 지역간 이동은 귀성시 2,303만 통행, 귀경시 2,941만 통행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및 충청권 권역내 내부통행이 귀성시 544만 통행으로 전체 귀성통행의 23.6%이며, 귀경시 630만 통행으로 전체 귀경통행의 21.4%인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및 충청권역의 고속도로 혼잡이 예상됨



<그림 3> 설 연휴 귀성·귀경시 지역간 통행량(예측)

#### 다. 설연휴 특별교통대책 사후평가

- 사후평가결과
  - 2008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약 4,419만 통행(시외전세버스 제외)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제 약 4,858만 통행(시외전세버스 제외)이 이동하여 약 9.0%의 오차율을 보임
  - 수단별로 살펴보면 해운의 경우 22.4%로 가장 큰 오차율을 보였으며, 항공의 경우 12.5%의 오차율을 보였으나, 전체 대중교통수단의 분담율은 실측치 기준 7.5%로서 실제 통행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치는 영향은 적었음

## &lt;표 7&gt; 설 연휴 통행량 예측 결과 비교

구분	실적(천통행)			수요예측(천통행)			오차율(%)
	승용차	대책기간	분담율	일평균	대책기간	분담율	
승용차	8,982	44,912	92.5	8,108	40,542	91.7	-9.7
고속버스	180	900	1.9	178	888	2.0	-1.4
철도	446	2,229	4.6	463	2,313	5.2	3.8
항공기	59	295	0.6	52	258	0.6	-12.5
여객선	48	242	0.5	38	188	0.4	-22.4
합계	9,716	48,579	100.0	8,838	44,190	100.0	-9.0

주: 1) 승용차 통행량에는 수도권 개방식 요금소 통행량 제외

2) 전세버스 및 시외버스의 경우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료 수집에 기한이 소요되어 수송실적을 수집하지 못함

## 6.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 가. 결론

## ○ 특별수송기간별 교통수요특성

- 여름휴가 기간은 주5일근무제의 확대, 고부가가치 산업화에 따른 휴가기간의 증가 등에 따라 여행인구가 전년대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추석연휴 기간에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전년 대비하여 귀성 목적통행뿐 아니라 여행인구가 다소 감소하여 연휴기간동안의 총 수송수요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함
- 설연휴 기간은 전년도에는 귀성시 폭설의 여파로 통행량이 다소 감소되었고, 올해는 강원도 및 충청도 일부지역에만 폭설의 영향이 있어 전체적인 통행량은 다소 증가되었으나 갓길차로 운행 추가허용, 휴게소 진출입 관리강화, 우회도로 이용유도 등으로 교통소통은 대체로 원활하였음

## ○ 수요예측 평가결과

- 특별교통대책기간 이후 특별교통대책 추진결과보고에서 특별교통수요예측결과와 각 수단별 수송실적 집계자료에 의거한 총 수송인원 및 이용차량대수를 비교하여 평가함
- 여름휴가의 경우 승용차 대수 기준 4.6%의 오차율을 보였으며, 추석연휴의 경우는 대중교통(시외전세버스 제외) 기준 4.1%, 승용차 대수 기준 7.7%의 오차율을, 설 연휴의 경우 시외전세버스를 제외한 전체수단 기준 9.0%의 오차율을 보임

- 보다 세분화된 교통수요예측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교통수단 중 분담률이 가장 높은 승용차의 예측치와 연휴기간동안 TCS 통행량 자료를 실측치로 활용하여 분석함
- 설연휴기간 대상으로 귀성의 경우 2.5%의 오차율, 귀경의 경우 17.2%의 오차율을 보임

#### 나. 향후 과제

- 효과적인 특별교통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통행특성 예측이 필수적임. 이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설문조사(sample size)의 한계 및 짧은 조사시기의 한계 등을 극복할 수 있는 통행수요 예측모형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특별교통수요에서 발견되는 통행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요 예측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초자료를 상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 고속도로 및 국도 교통량조사 자료를 활용한 새로운 수요예측방법을 개발하여 기존 수요예측방법론을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과거의 통행수요 예측치와 고속도로 TCS 자료와 같은 수송실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예측모형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 특별교통대책기간별 설문조사 중 사전 및 간이조사로 구분된 방법을 수정하여 보다 유의미한 표본추출이 가능하도록 조사방법론을 합리화 하며,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경우 항목을 조정함
- 예측된 통행수요를 보다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특별교통대책 수립시 활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및 활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또한, 통행예측 및 교통대책에 대한 피드백(feed back)과정을 통해 수요예측방법론 및 기초자료 조사방법에 대한 업데이트가 요구됨

## 제1장 과업의 개요

---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과업의 범위



## 제1장 과업의 개요

###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과업은 매년 여름휴가, 추석연휴, 설 연휴 기간 동안 폭증하는 수송수요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주관 하에 수립되는 특별교통대책의 기초자료를 조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정부는 매년 설, 추석 등 명절기간과 여름휴가 기간 동안 장거리 이동 통행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특별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처, 관리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설정하여 교통수단별 교통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 효과적인 특별교통대책은 지역간 이동수요, 침두일자 및 시간대 등 특별교통수요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수립될 수 있음
- 따라서, 2009년도 사업에서는 여름휴가기간, 추석 연휴기간, 설 연휴기간 약 25일 전 후에 통행수요 및 통행행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최근 년도의 교통수단별 수송실적현황 등을 고려하여 각 연휴기간의 통행수요를 분석·예측함으로써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설문조사는 특별교통수요가 집중될 시간대, 지역 및 도로축에 대한 통행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요관리 및 교통시설 공급확대 방안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음. 또한, 지역간 이동수요를 예측함으로써, 혼잡이 예상되는 교통축 또는 노선을 파악하여 교통수요를 사전에 분산시키는 등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제2절 과업의 범위

### 1. 시간적 범위

- 특별교통대책기간
  - 2009년 여름휴가 : 2009년 7월 18일 ~ 8월 16일(30일간)
  - 2009년 추석연휴 : 2009년 10월 1일 ~ 10월 5일(5일간)
  - 2010년 설연휴 : 2010년 2월 12일 ~ 2월 16일(5일간)
- 조사계획 수립(설문내용 설계 및 수요예측방법론)
  - 2009년 여름휴가 : 2009년 5월 1일 ~ 2009년 6월 14일
  - 2009년 추석연휴 : 2009년 8월 10일 ~ 2009년 9월 9일
  - 2010년 설연휴 : 2010년 12월 1일 ~ 2010년 12월 24일
- 기초자료 수집 및 기초분석 : 2009년 5월 ~ 2010년 2월
- 설문조사 업체 선정 : 2009년 6월 1일 ~ 2009년 6월 20일
  - 여름휴가, 추석 및 설 연휴기간 설문조사 일괄 경쟁입찰
-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
  - 2009년 여름휴가 : 2009년 6월 15일 ~ 2009년 7월 8일
  - 2009년 추석연휴 : 2009년 9월 1일 ~ 2009년 9월 25일
  - 2010년 설연휴 : 2010년 1월 18일 ~ 2010년 2월 5일

### 2. 공간적 범위

-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함

### 3. 내용적 범위

- 여름휴가, 추석 및 설 연휴기간 동안의 수송수요 및 수송분담률 예측을 위한 통행계획 및 통행특성조사
  -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사회경제지표, 도로·철도·해운·항만 등의 교통시설 및 수송실적 현황 등을 수집 및 분석(과거년도 및 해당년도 월별 수송실적, 특별교통대책기간 일별 수송실적)
  - 조사표본 선정 및 수요예측을 위한 전화설문조사
  - 설문조사 결과분석 : 연휴기간동안 통행행태 분석(목적지, 이용교통수단, 출발일자, 출발시간대 등)
  - 인터넷 설문조사 병행
- 특별교통대책수립을 위한 교통수요예측
  -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는 기초교통수송실적 자료 및 설문조사결과를 이용
  - 교통수요산정방법론을 이용하여 연휴기간 교통수요예측
  - 특별교통대책기간(여름휴가, 추석, 설) 교통수요 및 수단별 수송분담률을 예측
- 교통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특별교통대책 수립
  -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예측결과를 근거로 특별교통대책 수립(국토해양부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 설치)

## 제2장 여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

---

제1절 설문조사 개요

제2절 사전 설문조사 수행 결과

제3절 수요예측 방법론 및 수요예측 결과

제4절 사후 설문조사 수행 결과

제5절 사후평가



## 제2장 여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

### 제1절 설문조사 개요

#### 1. 조사개요

##### 가. 조사목적 및 개요

- 2009년 여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09.7.18~8.16일(30일간))의 통행특성 분석 및 수요 예측결과를 제시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함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5대 광역권(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의 증화무작위추출법에 의해 추출된 세대에 대해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함
- 조사개요
  - 사전설문조사
    - 조사시기 : 2009년 6월 27일(토)~30일(화)(3일간, 28일(일) 제외)
    - 조사지역 : 서울, 경기 및 6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조사방법 : 전화조사 및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
    - 조사표본 : 4,000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pm 1.55\%$ )
  - 사후설문조사
    - 조사시기 : 2009년 8월 18일(화)~19일(수)(2일간)
    - 조사방법 : 전화 사전설문조사 응답자 및 인터넷 사전설문조사 응답자 중 사후 설문조사 동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조사표본 : 800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pm 3.46\%$ )

##### 나. 조사내용

- 사전조사 주요조사항목
  - 작년(2008년) 하계 휴가기간 중 여행 관련
    - 여행 여부, 하계 휴가 여행을 안 가는 또는 가지 않는 이유, 출발날짜, 기간, 동행인수, 여행 지역, 이용교통수단, 승용차 이용노선, 총 휴가 비용

- 올해(2009년) 하계 휴가기간 중 여행 관련
  - 여행 계획 여부, 하계 휴가 여행을 안 가는 이유, 출발날짜, 기간, 동행인수, 여행 지역, 이용교통수단, 승용차 이용노선, 총 휴가 예상 비용. 폭염/무더위로 인한 여행 변경 내역, 하계 휴가시 교통정보 이용 내역, 심각한 교통정체시 여행 변경 내역
- 개인 속성 : 성별, 연령, 직업

○ 사후조사 주요조사항목

- 올해(2009년) 하계 휴가기간 중 여행 관련
  - 여행 이행 또는 변경 여부, 하계 휴가 변경시 가는/안가는 이유, 출발날짜, 출발 날짜 변경시 이유, 여행 기간, 여행 기간 변경 이유, 동행인수, 동행인수 변경 이유, 여행지역, 여행지역 변경 이유, 이용교통수단, 이용교통수단 변경 이유, 승용차 이용노선, 승용차 이용노선 변경 이유, 총 휴가 예상 비용, 총 휴가비용 변경 이유

다. 조사표본 선정

- 지난해 동기간의 조사 표본수를 참고로 하여 서울, 경기 및 6대 광역시의 대상 세대수를 기준으로 표본율 0.021%로 총 4,000세대를 표본으로 선정하였음
- 전국 규모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08년도 기준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비례 할당하여, 서울, 경기 및 6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총 4,000여개의 동 단위(읍·면 단위 제외)로 조사대상을 전화번호 등록대장에서 무작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함
- 단, 설문대상을 전화번호 등록대장에서 무작위 선정하므로 가구특성 및 개인특성은 반영되지 않음

&lt;표 2-1&gt; 지역별 조사 세대수

단위 : 세대(수), 비율(%)

구 분	전체 세대수 <sup>1)</sup>	2008년 하계				전체 세대수 <sup>2)</sup>	2009년 하계			
		표본		유효표본			표본		유효표본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서울특별시	4,035,578	1,360	31.6	373	30.6	4,097,562	1,260	31.5	270	30.4
부산광역시	1,297,533	440	10.2	124	10.2	1,311,724	410	10.3	77	8.7
대구광역시	881,872	300	7.0	75	6.2	894,969	280	7.0	57	6.4
인천광역시	991,248	320	7.4	100	8.2	1,014,755	310	7.8	69	7.8
광주광역시	502,121	170	4.0	48	3.9	513,021	160	4.0	26	2.9
대전광역시	524,516	180	4.2	44	3.6	531,682	160	4.0	37	4.2
울산광역시	379,133	130	3.0	48	3.9	389,735	120	3.0	32	3.6
경 기 도	4,160,453	1,400	32.6	406	33.3	4,284,475	1,300	32.5	320	36.0
전 국 <sup>3)</sup>	18,620,203	4,300	100.0	1,218	100.0	19,005,339	4,000	100	88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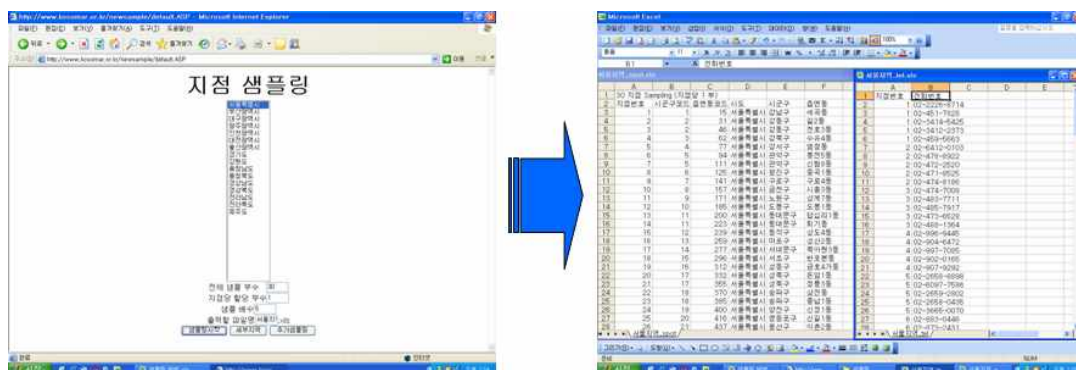
주: 1) 행정안전부 2007년 기준

2) 행정안전부 2008년 기준

3) 서울, 경기 및 6대 광역시 대상 세대수 기준으로 전국 세대수 중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지역의 세대수는 제외됨

## 라. 조사표본 추출

- 전화조사의 경우 조사 표본인 4,000세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10배수의 리스트를 2008년도 세대수 기준으로 시도/시군구별 비례할당된 비율에 맞게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최종 설문조사된 비율은 전국 세대수 비율과 근사치로 조사됨
- 리스트 추출은 사단법인 한국조사협회(KORA)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사들이 전화조사 샘플링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유된 DB 및 리스트 추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본 조사는 이를 이용하여 진행하였음
- 전국 16개 시·도 중 해당 조사 지역을 선택하여 표본수를 입력하면 시·군·구·동 단위의 실제 세대수와 동일한 비율로 무작위 추출한 후 조사 진행함



&lt;그림 2-1&gt; 표본 추출 프로그램 이용과정

## 제2절 사전 설문조사 수행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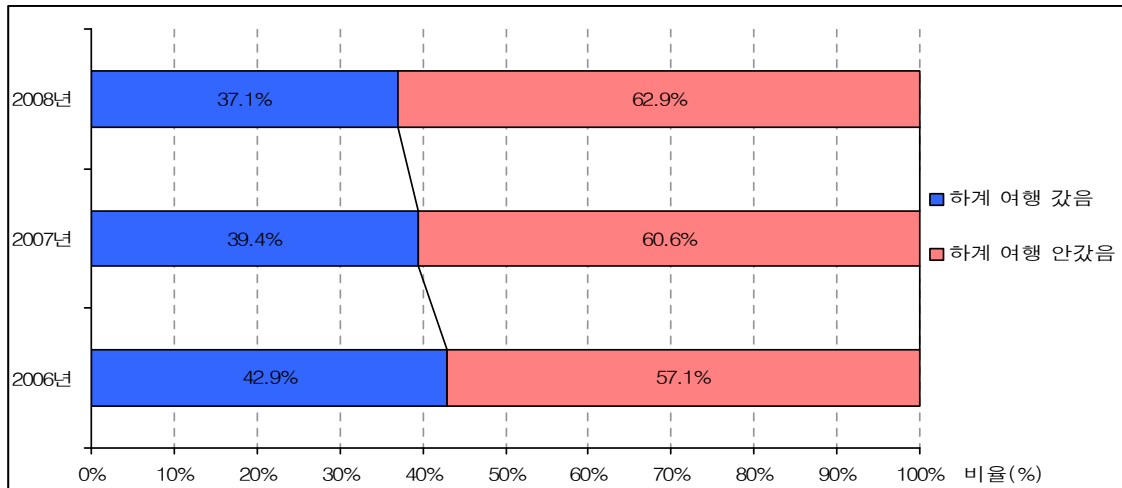
### 1. 사전 설문조사 수행 결과

#### <결과 요약>

- 2009년 하계 휴가기간 중 여행 계획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n=4,000), 하계 휴가를 다녀올 계획이 있는 가구는 22.2%로 예상되며(미정이 16.1%로 실제 하계 휴가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전년도에는 28.3%가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하계 휴가시 여행 예정 지역은 동해안이 2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남해안이 15.7%, 서해안이 11.4%, 강원내륙이 11.0%로 나타남
- 하계 휴가기간 중 여행시 출발 예정 일자(n=888)는 7월 26일에서 8월 1일까지가 33.9%, 그리고 8월 2일에서 8월 8일까지가 30.0%, 8월 9일부터 8월 15일까지가 10.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하계 휴가시 이용 예정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가 70.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용수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행기가 9.3%, 승합차가 8.2%, 기차 3.5%, 고속버스 3.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이용 예정 도로는 고속도로(고속도로만 이용+고속도로와 국도/지방도 동시이용)가 전체의 88.9%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고속도로 이용자 중 영동고속도로가 27.3%로 가장 많이 이용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경부선이 20.1%, 서해안선이 18.6%로 나타남

## 1) 2008년 하계 휴가시 여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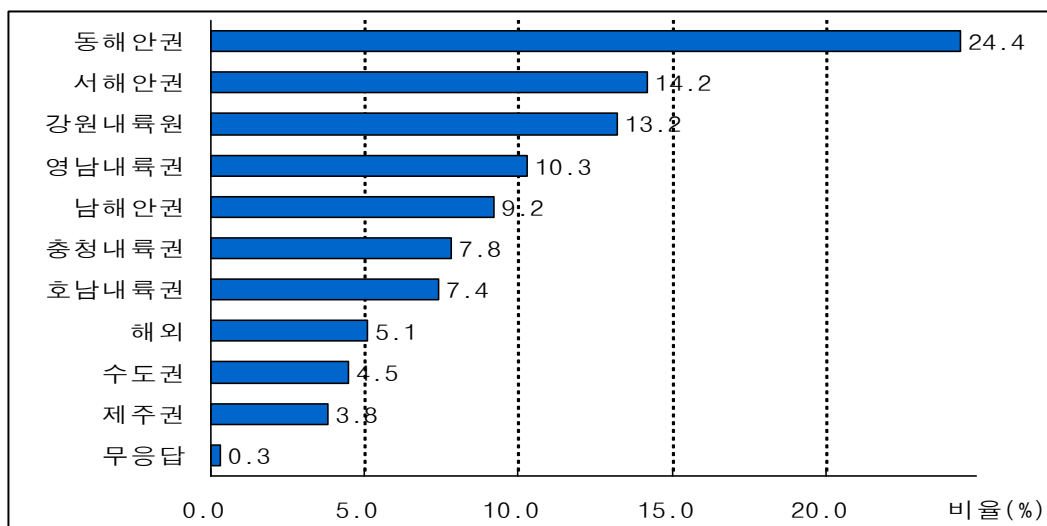
- 2008년 하계 휴가시 전체 응답자의 37.1%가 여행을 다녀왔으며, 이중 광주(41.9%)와 울산(41.7%) 거주자의 여행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2006년 이후 하계 휴가시 여행 경험률을 살펴보면 2006년 여행 경험률(42.9%)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에는 37.1%로 나타남



&lt;그림 2-2&gt; 하계 휴가시 여행 여부의 분포(2008년)

## 2) 2008년 하계 휴가시 여행 지역

- 2008년 하계 휴가시 여행 지역은 동해안이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서해안이 14.2%, 강원내륙지방이 13.2%, 영남내륙지방이 10.3%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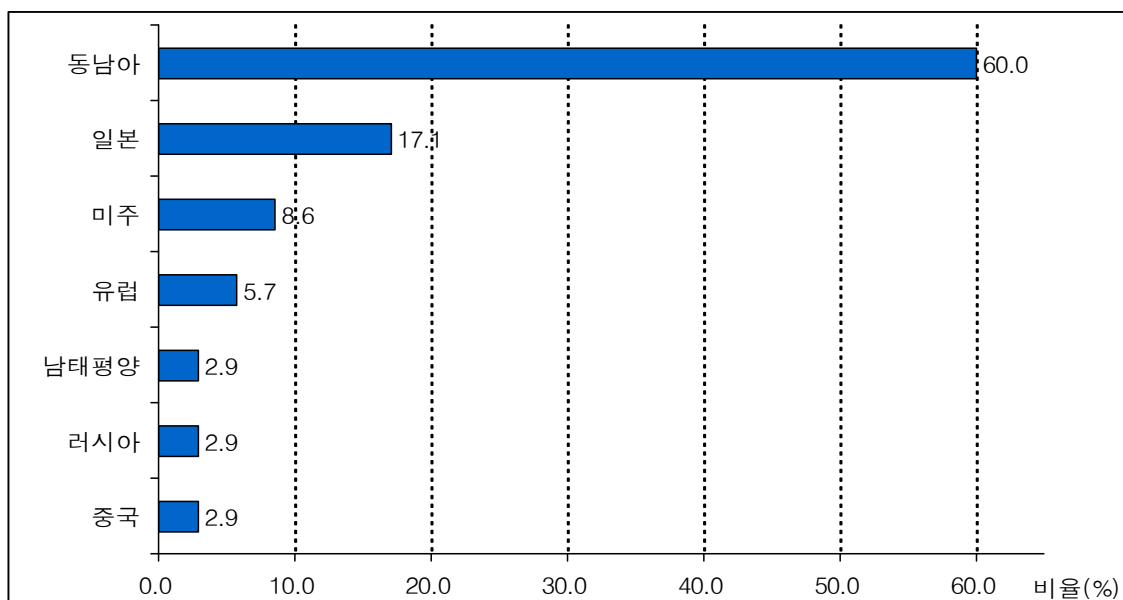
&lt;그림 2-3&gt; 하계 휴가시 여행 지역의 분포(2008년)

&lt;표 2-2&gt; 출발지역별 하계 휴가시 여행 지역(2008년)

단위: %, 명

구 분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강원내륙	충청내륙	영남내륙	호남내륙	수도권	제주권	해외	모름/ 무응답	합계
수 도 권	서울시	비율	27.6	16.2	6.2	11.9	8.6	8.1	5.2	7.1	3.8	5.2	0.0	100.0
		빈도	58	34	13	25	18	17	11	15	8	11	0	210
	인천시	비율	20.3	18.6	6.8	20.3	6.8	5.1	3.4	10.2	1.7	6.8	0.0	100.0
		빈도	12	11	4	12	4	3	2	6	1	4	0	59
	경기도	비율	25.9	17.0	7.7	18.2	8.9	4.9	6.1	2.0	3.6	5.3	0.4	100.0
		빈도	64	42	19	45	22	12	15	5	9	13	1	247
부산광역시		비율	12.7	5.5	21.8	7.3	5.5	25.5	12.7	1.8	0.0	7.3	0.0	100.0
		빈도	7	3	12	4	3	14	7	1	0	4	0	55
대구광역시		비율	30.6	4.1	12.2	4.1	2.0	30.6	6.1	2.0	2.0	6.1	0.0	100.0
		빈도	15	2	6	2	1	15	3	1	1	3	0	49
광주광역시		비율	4.8	4.8	23.8	4.8	9.5	0.0	33.3	0.0	19.0	0.0	0.0	100.0
		빈도	1	1	5	1	2	0	7	0	4	0	0	21
대전광역시		비율	29.6	18.5	11.1	3.7	11.1	3.7	11.1	0.0	7.4	0.0	3.7	100.0
		빈도	8	5	3	1	3	1	3	0	2	0	1	27
울산광역시		비율	16.7	0.0	8.3	4.2	4.2	37.5	12.5	12.5	4.2	0.0	0.0	100.0
		빈도	4	0	2	1	1	9	3	3	1	0	0	24
전 국		비율	24.4	14.2	9.2	13.2	7.8	10.3	7.4	4.5	3.8	5.1	0.3	100.0
		빈도	169	98	64	91	54	71	51	31	26	35	2	6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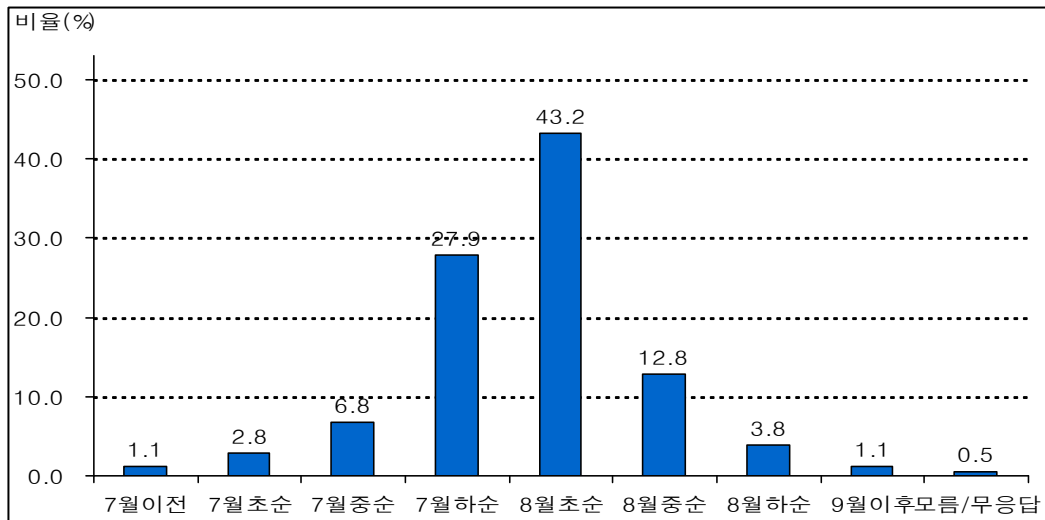
- 해외여행 지역은 동남아시아 지역이 6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본이 17.1%, 미주 8.6% 순으로 높게 나타남



&lt;그림 2-4&gt; 하계 휴가시 해외여행 지역의 분포(2008년)

## 3) 2008년 하계 휴가시 여행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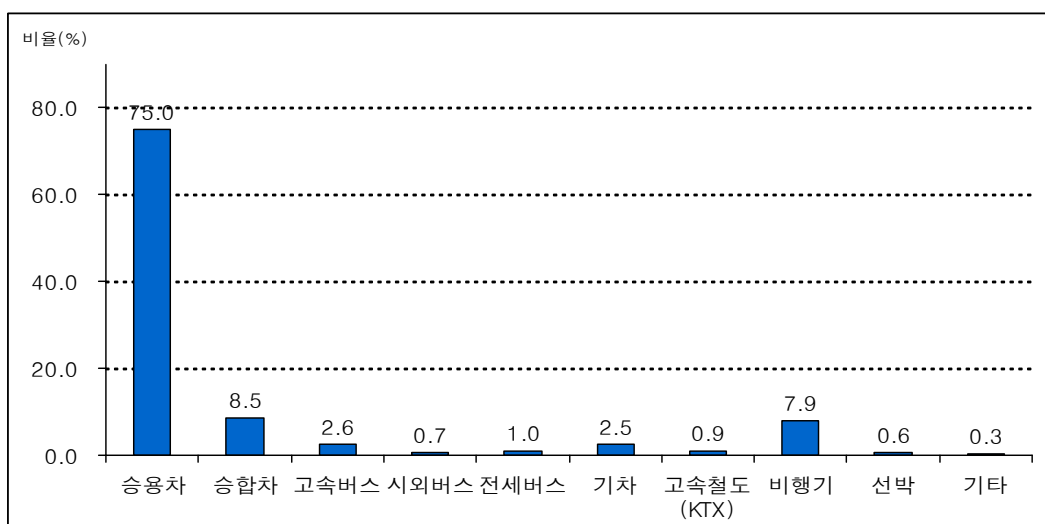
- 2008년 하계 휴가시 여행 시기는 8월 초순이 43.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7월 하순이 27.9%, 8월 중순이 12.8% 순으로 나타남



&lt;그림 2-5&gt; 하계 휴가시 여행 시기의 분포(2008년)

## 4) 2008년 하계 휴가시 이용 교통수단

- 2008년 하계 휴가시 이용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이 75.0%로 다른 수단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승합차 8.5%, 비행기 7.9%, 고속버스 2.6%, 기차 2.5% 순으로 나타남



&lt;그림 2-6&gt; 하계 휴가시 이용 교통수단의 분포(2008년)

## 5) 2008년 하계 휴가시 총 휴가 비용

- 2008년 하계 휴가시 총 휴가 비용은 평균 약 59만원이며, 국내/해외여행별로 살펴보면, 국내여행은 평균 약 43만원, 해외여행은 약 354만원으로 국내 여행의 경우 30만원~40만원의 휴가비용 비율이 2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해외 여행의 경우 100~200만원(31.4%), 500만원 이상(28.6%)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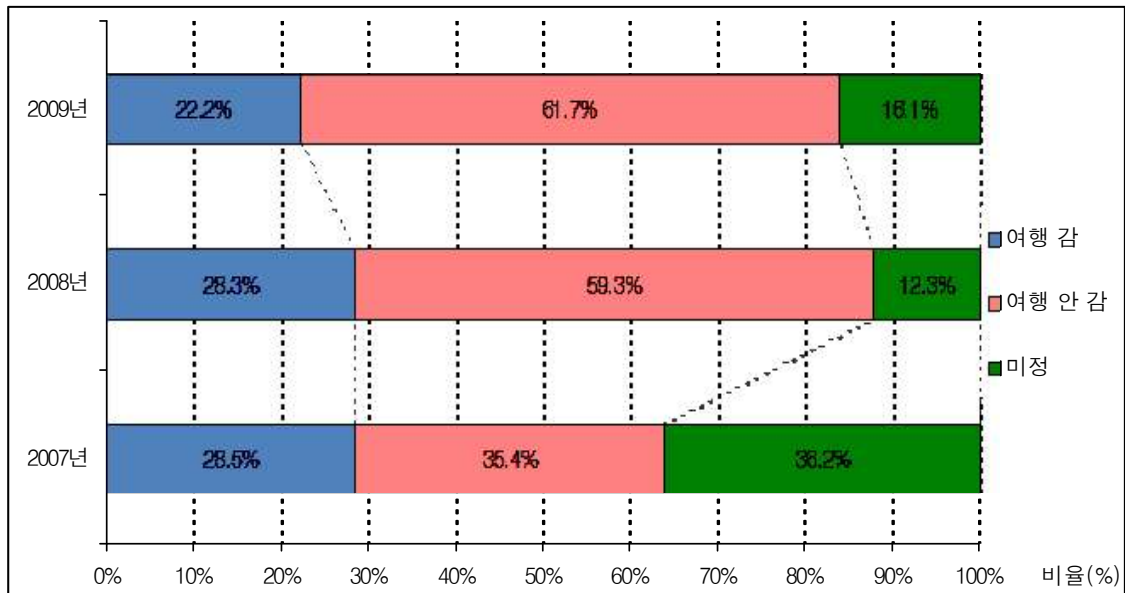
&lt;표 2-3&gt; 하계 휴가시 총 휴가 비용(2008년) - 국내/해외여행별

단위: %, 명, 만원

구 분		10 만원 미만	10 만원 이상~ 20 만원 미만	20 만원 이상~ 30 만원 미만	30 만원 이상~ 40 만원 미만	40 만원 이상~ 50 만원 미만	50 만원 이상~ 60 만원 미만	60 만원 이상~ 70 만원 미만	70 만원 이상~ 80 만원 미만	80 만원 이상~ 90 만원 미만	90 만원 이상~ 100 만원 미만	100 만원 이상~ 200 만원 미만	200 만원 이상~ 300 만원 미만	300 만원 이상~ 400 만원 미만	400 만원 이상~ 500 만원 미만	500 만원 이상	모름/ 무응답	합계	평균
국내 여행	비율	3.8	11.1	14.4	20.6	13.0	14.7	2.7	3.4	1.5	0.3	7.8	0.6	0.2	0.2	-	5.8	100.0	43
	빈도	25	73	94	135	85	96	18	22	10	2	51	4	1	1	-	38	655	
해외 여행	비율	-	-	-	-	-	-	2.9	5.7	-	-	31.4	8.6	11.4	5.7	28.6	5.7	100.0	354
	빈도	-	-	-	-	-	-	1	2	-	-	11	3	4	2	10	2	35	
전체	비율	3.6	10.5	13.6	19.5	12.3	13.9	2.7	3.5	1.4	0.3	9.0	1.0	0.7	0.4	1.4	6.1	100.0	59
	빈도	25	73	94	135	85	96	19	24	10	2	62	7	5	3	10	42	6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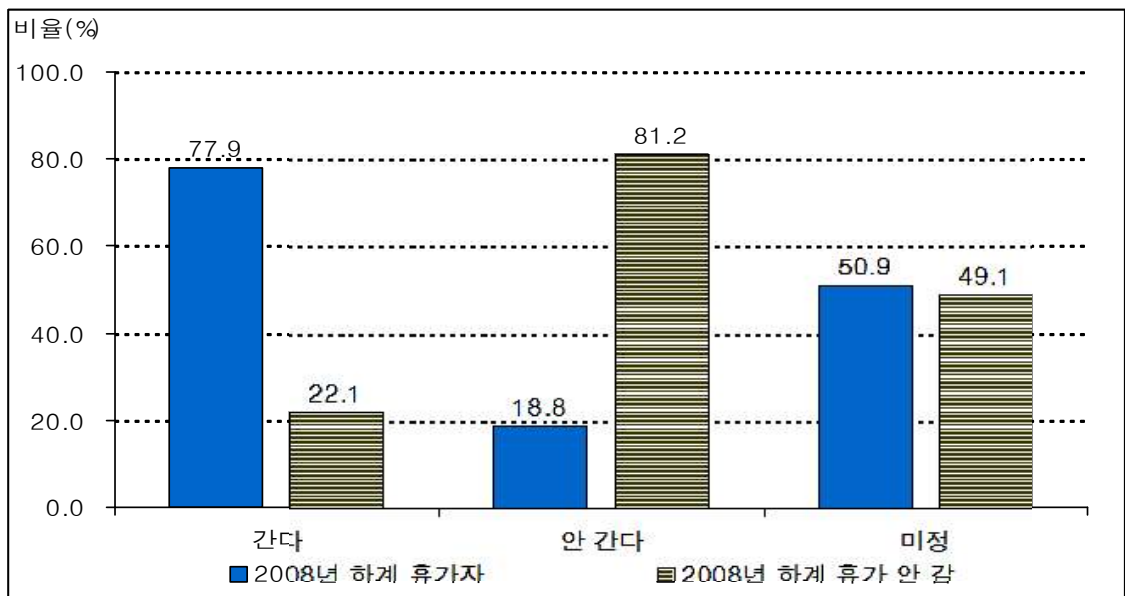
## 6) 2009년 하계 휴가시 여행 여부

- 2009년 하계 휴가시 22.2%가 여행을 갈 예정이라고 응답하였음
- 이 결과는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기간이 시작되기 약 20일 전인 6월 27일~6월 30일 기준의 결과임. 따라서 실제 하계 휴가를 다녀온 결과와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하계 휴가를 가지 않는 비율은 59.3%에서 61.7%로 2.4% 증가되었음
- 2009년 하계 휴가 미정율은 2007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2008년과 비교하여 3.8% 증가하여 하계 여행 미정률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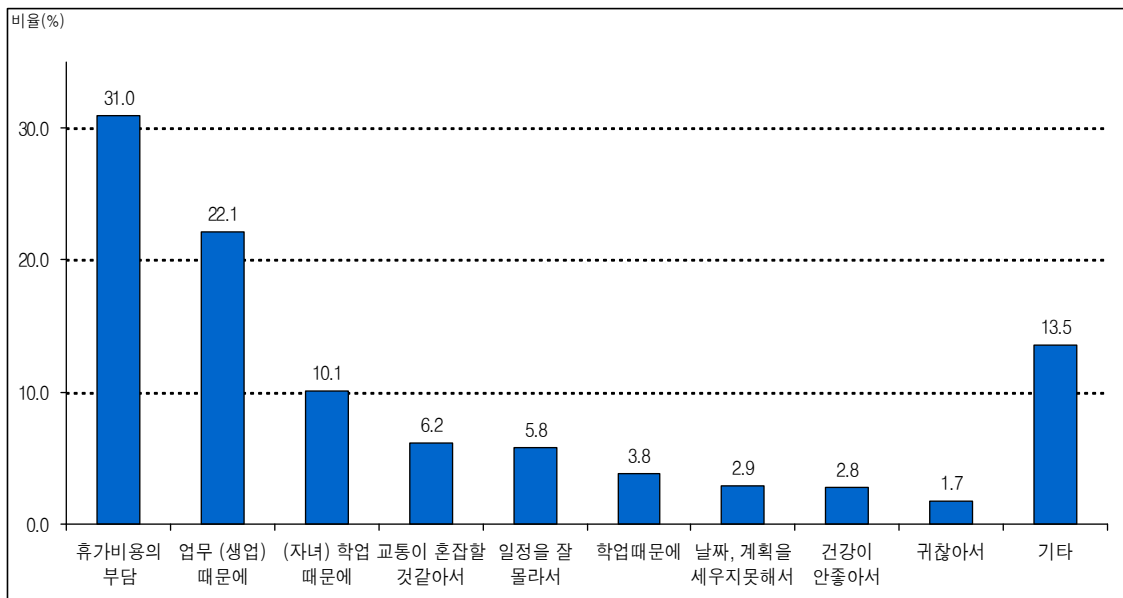
&lt;그림 2-7&gt; 하계 휴가시 여행 여부의 분포(2009년)

- 2008년도에 휴가를 다녀온 사람 중에 2009년에도 휴가 계획이 있는 사람은 77.9%이고, 2008년도에 다녀오지 않은 사람 중에 올해 휴가 계획이 있는 사람은 22.1%로 나타남



&lt;그림 2-8&gt; 2008년과 2009년 하계 휴가시 여행 여부 비교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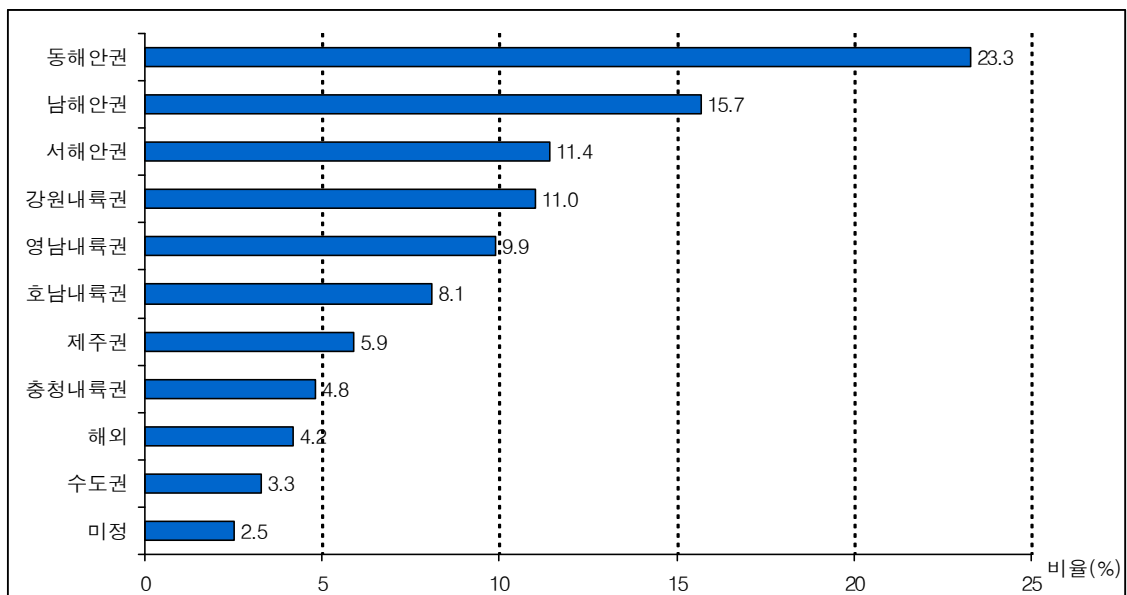
- 하계 휴가를 안 가는 이유로는 휴가비용의 부담이 3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업무(생업) 때문에(22.1%), (자녀)학업 때문에(10.1%) 순으로 나타남



<그림 2-9> 하계 휴가를 안 가는 이유의 분포(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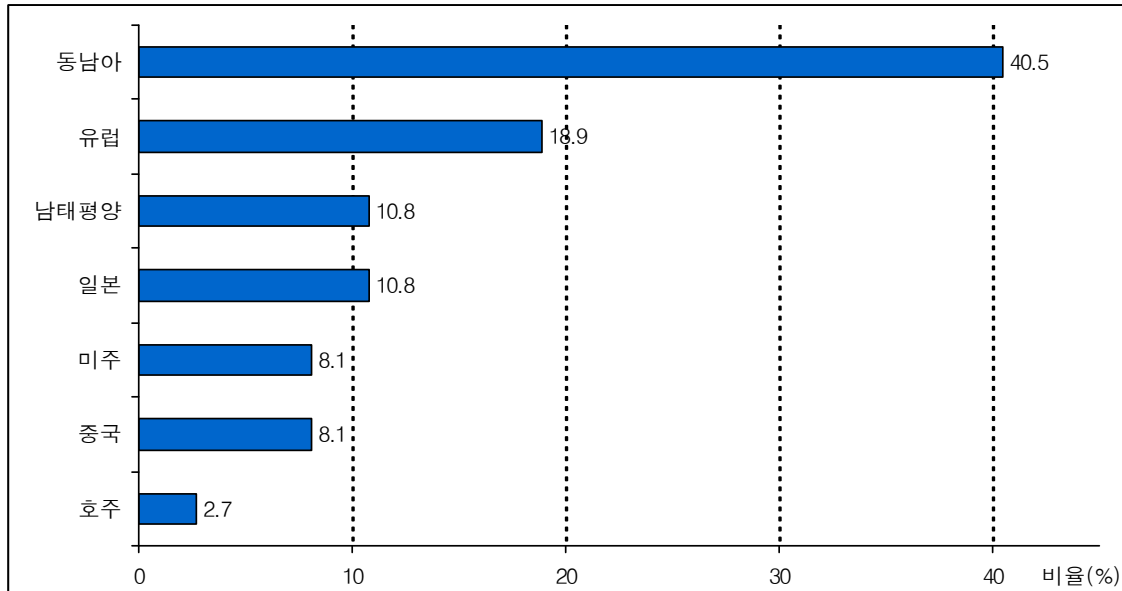
#### 7) 2009년 하계 휴가시 여행 지역

- 2009년 하계 휴가시 여행 예정 지역은 동해안이 2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남해안이 15.7%, 서해안이 11.4%, 강원내륙이 11.0%로 나타남



<그림 2-10> 하계 휴가시 여행 예정 지역의 분포(2009년)

- 해외로 여행을 예정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해외여행 예정 지역은 동남아 지역이 40.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유럽 18.9%, 남태평양과 일본이 각 10.8%로 나타남



<그림 2-11> 하계 휴가시 해외여행 예정 지역의 분포(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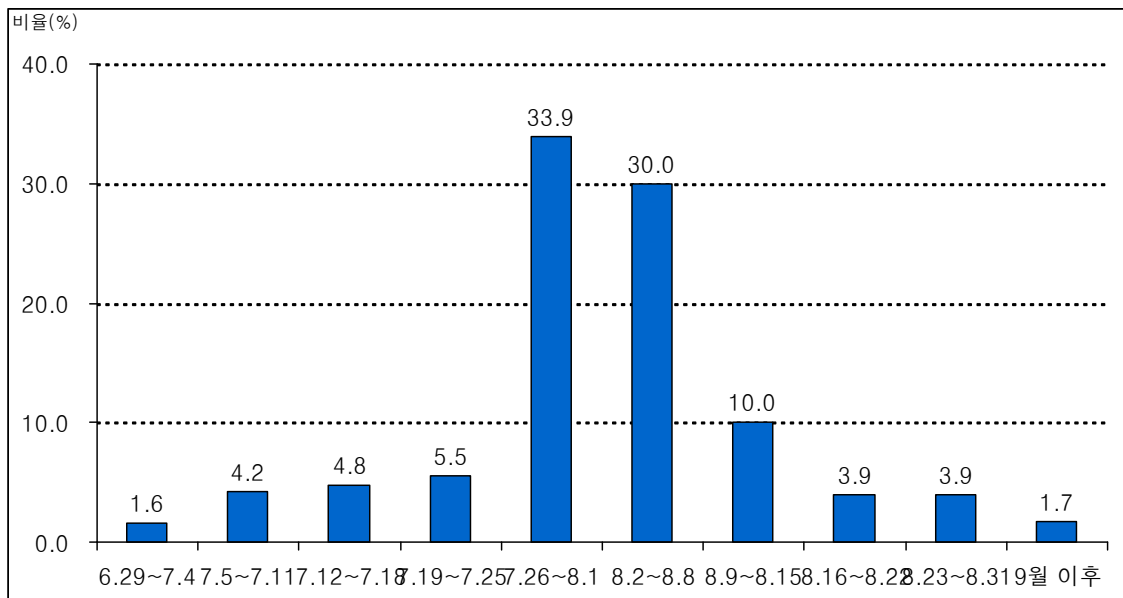
#### 8) 2009년 하계 휴가시 출발 예정 일자

- 하계 휴가시 출발 예정 일자는 7월 26일에서 8월 1일까지가 33.9%, 그리고 8월 2일에서 8월 8일까지가 30.0%, 8월 9일부터 8월 15일까지가 10.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특별교통대책기간 내에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은 전체 888명 중 705명으로 79.4%를 차지 하며, 이들 중 대부분이 7월 26일에서 8월 8일 사이에 출발 예정으로 나타남

<표 2-4> 하계 휴가시 출발 예정 일자(2009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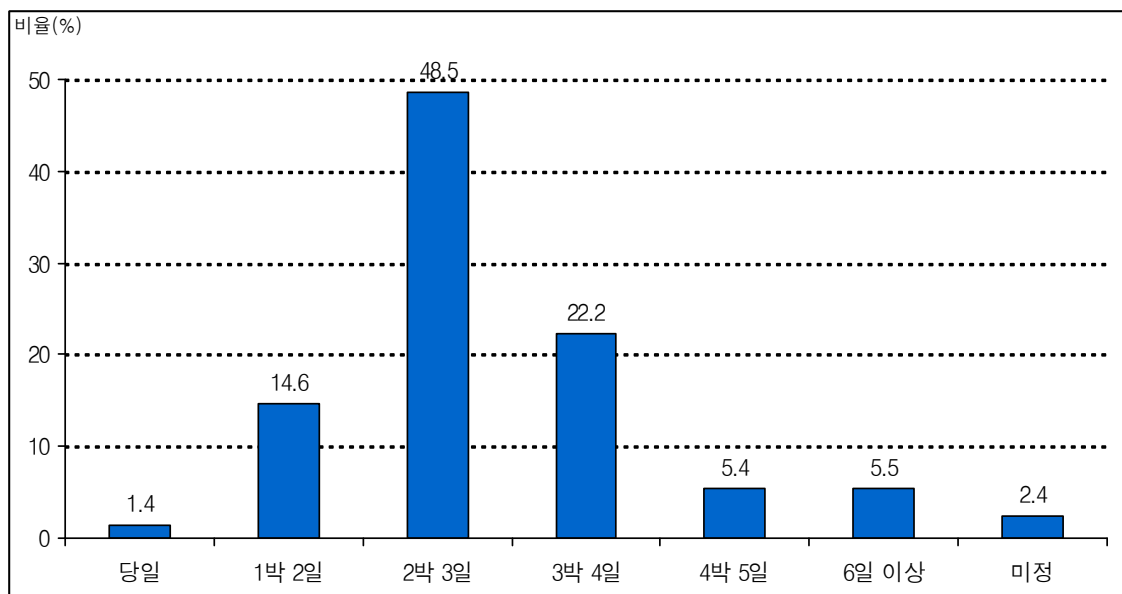
구 분		6.29 ~7.4	7.5~ 7.11	7.12~ 7.18	7.19~ 7.25	7.26~ 8.1	8.2~ 8.8	8.9~ 8.15	8.16~ 8.22	8.23~ 8.31	9월 이후	미정	합 계
전 국	비율	1.6	4.2	4.8	5.5	33.9	30.0	10.0	3.9	3.9	1.7	0.5	100.0
	빈도	14	37	43	49	301	266	89	35	35	15	4	888



<그림 2-12> 하계 휴가시 출발 예정 일자의 분포(2009년)

9) 2009년 하계 휴가시 예정 여행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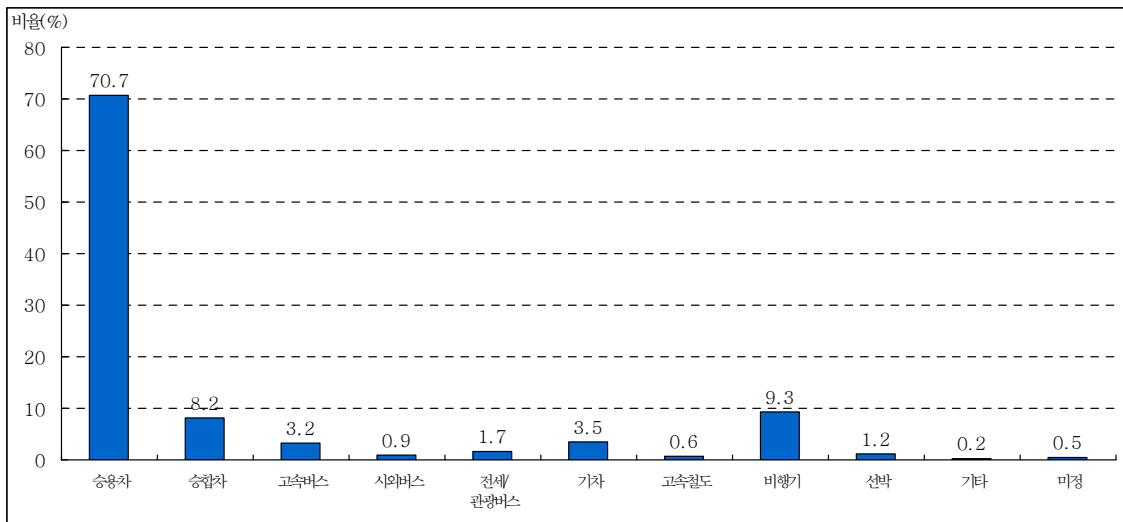
- 하계 휴가시 여행 기간은 2박 3일이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3박 4일이 22.2%, 1박 2일이 14.6% 순으로 나타남



<그림 2-13> 하계 휴가시 예정 여행 기간의 분포(2009년)

## 10) 2009년 하계 휴가시 이용 예정 교통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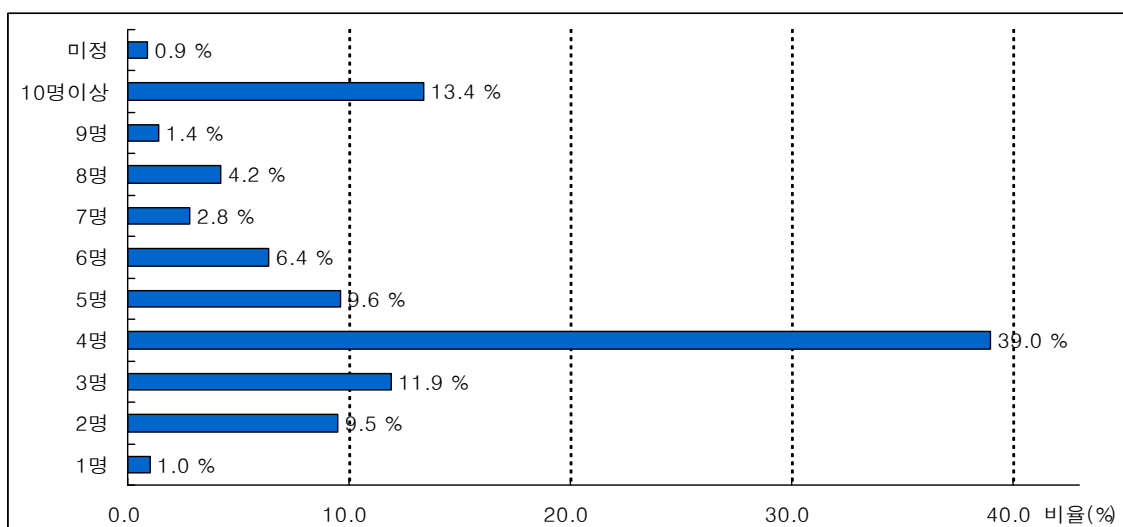
- 2009년 하계 휴가시 이용 예정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가 70.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용수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행기가 9.3%, 승합차가 8.2%, 기차 3.5%, 고속버스 3.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lt;그림 2-14&gt; 하계 휴가시 예정 이용 교통수단의 분포(2009년)

## 11) 2009년 하계 휴가시 예정 동행인 수

- 2009년 하계 휴가시 예정 동행인 수(본인포함)는 4명이 3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명 이상이 13.4%, 3명이 11.9%, 5명이 9.6%의 순으로 나타남



&lt;그림 2-15&gt; 하계 휴가시 예정 동행인 수의 분포(2009년)

## 12) 하계 휴가시 이용 예정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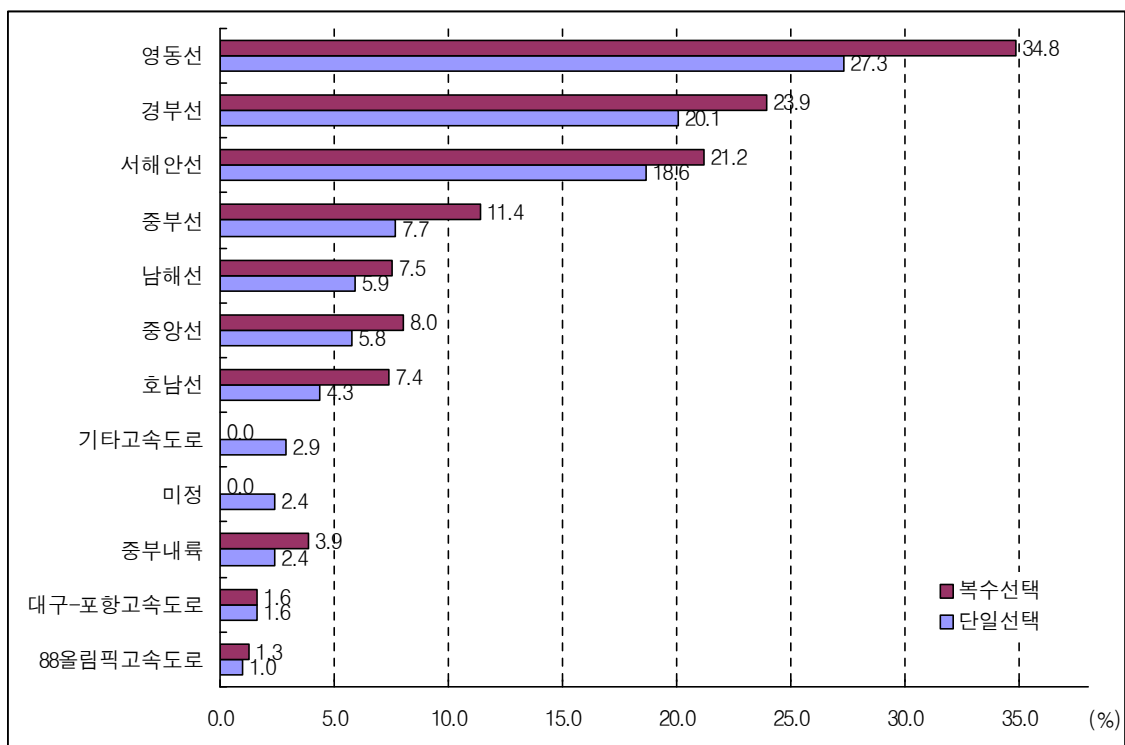
- 2009년 하계 휴가시 이용 예정도로는 고속도로만 이용할 경우가 39.7%, 국도/지방도는 9.7%, 둘 다 이용할 경우는 49.2%로 나타남

&lt;표 2-5&gt; 하계 휴가시 이용 예정 도로(연도별)

단위: %, 명

구분	고속도로만 이용	국도/지방도만 이용	고속도로와 국도/지방도 동시이용	미정	합계
비율	39.7	9.7	49.2	1.4	100.0
빈도	278	68	345	10	701

- 고속도로 이용자의 주 이용노선(단일선택)은 영동선이 27.3%로 가장 많이 이용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부선이 20.1%, 서해안선이 18.6%의 순으로 나타남
- 또한 고속도로 이용노선 설문시 주 이용도로 뿐만 아니라, 이용할 모든 도로에 대해 복수 응답할 경우 영동선, 경부선, 서해안선이 각각 34.8%, 23.9%, 21.2%순으로 높게 나타남



&lt;그림 2-16&gt; 하계 여행시 고속도로 이용 예정 노선의 분포(2009년)

&lt;표 2-6&gt; 하계 여행시 고속도로 이용 예정 노선 - 중복(2009년)

단위 : %, 명

구 분		경부선	중부선	영동선	호남선	서해안선	중부내륙	중앙선	남해선	대구-포항고속도로	88올림픽고속도로	기타고속도로	미정	합계
전 국	비율	23.9	11.4	34.8	7.4	21.2	3.9	8.0	7.5	1.6	1.3	4.5	2.4	100.0
	빈도	149	71	217	46	132	24	50	47	10	8	28	15	797

## 13) 2009년 하계 휴가시 총 예상 휴가 비용

- 하계 휴가시 총 예상 휴가 비용은 평균 약 61만원 정도이며 국내/해외여행별로 살펴보면, 국내여행은 평균 약 45만원, 해외여행은 약 429만원이며, 2008년 평균 국내여행 비용(59만원)과 비교하여 14만원이 감소됨
- 국내 여행의 경우 30만원~40만원의 휴가비용 비율이 2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해외 여행의 경우 100~200만원(27.0%), 500만원 이상(27.0%)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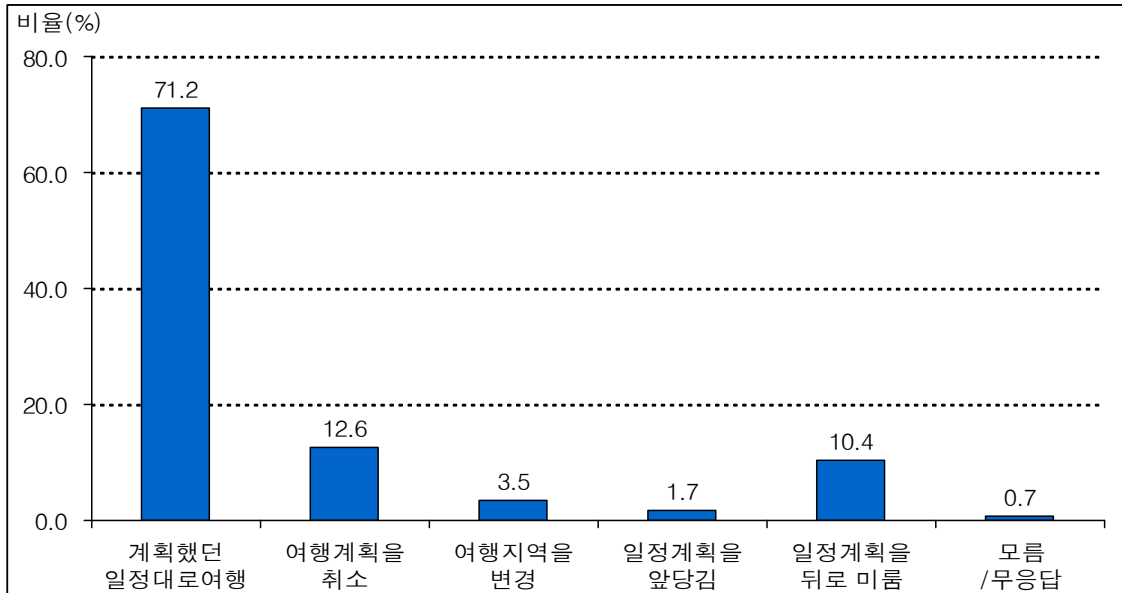
&lt;표 2-7&gt; 하계 휴가시 총 예상 휴가 비용(2009년) - 국내/해외여행별

단위: %, 명, 만원

구 분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60만원 미만	60만원 이상~70만원 미만	70만원 이상~80만원 미만	80만원 이상~90만원 미만	9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합계	평균
국내 여행	비율	4.9	10.5	15.0	21.1	11.1	13.5	3.7	2.9	0.8	0.6	9.3	0.8	0.2	0.2	0.2	4.9	100	45
	빈도	41	87	124	175	92	112	31	24	7	5	77	7	2	2	2	41	829	
해외 여행	비율	-	-	-	-	-	-	-	2.7	-	-	27.0	13.5	10.8	5.4	27.0	13.5	100	429
	빈도	-	-	-	-	-	-	-	1	-	-	10	5	4	2	10	5	37	
미정	비율	-	4.5	22.7	9.1	13.6	18.2	-	-	-	-	4.5	-	-	-	4.5	22.7	100	89
	빈도	-	1	5	2	3	4	-	-	-	-	1	-	-	-	1	5	22	
전체	비율	4.6	9.9	14.5	19.9	10.7	13.1	3.5	2.8	0.8	0.6	9.9	1.4	0.7	0.5	1.5	5.7	100	61
	빈도	41	88	129	177	95	116	31	25	7	5	88	12	6	4	13	51	888	

#### 14) 2009년 하계 휴가시 기상 상태에 따른 대체 방법

- 하계 휴가시 폭염 또는 무더위 기상 상태일 경우 계획했던 여행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응답률이 7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행계획을 취소하거나 일정 계획을 뒤로 미루겠다는 응답률이 각 12.6%, 10.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17> 하계 휴가시 폭염 또는 무더위 기상상태일 경우 대체방법(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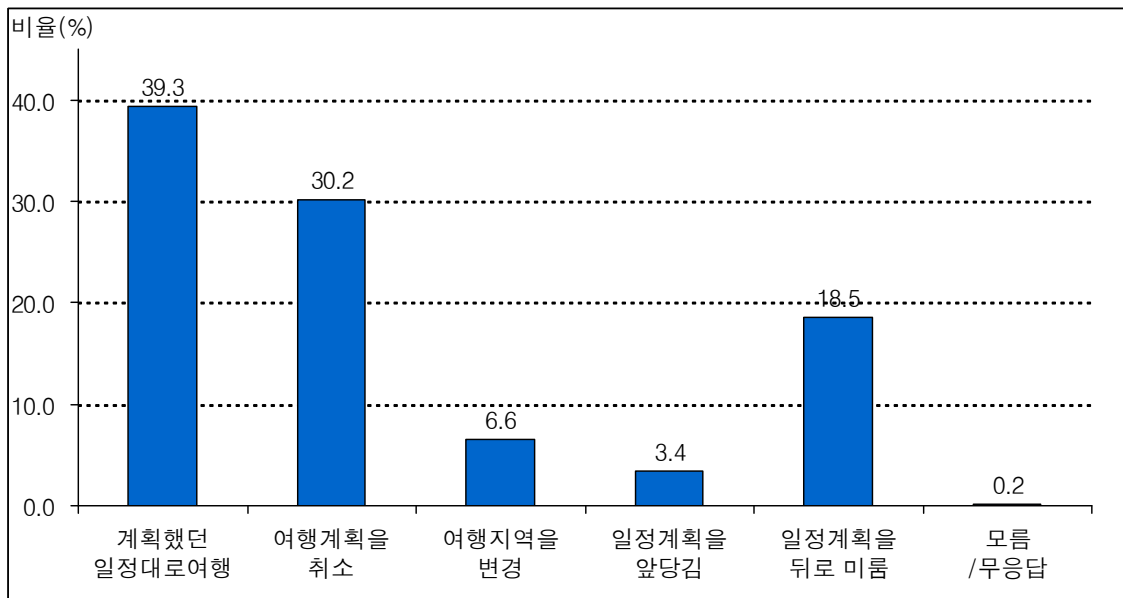
- 주 이용 교통수단별로는 승합차, 승용차 이용 여행 예정자는 계획했던 일정대로 진행 하겠다는 응답률이 76.7%, 70.4%로 높게 나타남
- 시외버스, 고속버스, 전세관광버스 및 기차 이용 예정자의 경우 폭염 또는 무더위 기상상태일 경우 여행계획을 취소하겠다는 응답률이 각 37.5%, 21.4%, 20.0%, 16.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lt;표 2-8&gt; 하계 휴가시 폭염 또는 무더위 기상상태일 경우 대체방법 - 주 이용 교통수단별

단위: %, 명

구 분		계획했던 일정대로 여행	여행계획을 취소	여행지역을 변경	일정계획을 앞당김	일정계획을 뒤로 미룸	모름 /무응답	합 계
승용차	비율	70.4	12.7	3.8	1.4	10.8	0.8	100.0
	빈도	442	80	24	9	68	5	628
승합차	비율	76.7	8.2	2.7	4.1	8.2	-	100.0
	빈도	56	6	2	3	6	-	73
고속버스	비율	57.1	21.4	3.6	3.6	10.7	3.6	100.0
	빈도	16	6	1	1	3	1	28
시외버스	비율	50.0	37.5	-	-	12.5	-	100.0
	빈도	4	3	-	-	1	-	8
전세 관광	비율	66.7	20.0	6.7	-	6.7	-	100.0
	빈도	10	3	1	-	1	-	15
기차	비율	64.5	16.1	-	3.2	16.1	-	100.0
	빈도	20	5	-	1	5	-	31
고속철도	비율	80.0	20.0	-	-	-	-	100.0
	빈도	4	1	-	-	-	-	5
비행기	비율	79.5	8.4	3.6	1.2	7.2	-	100.0
	빈도	66	7	3	1	6	-	83
선박	비율	81.8	9.1	-	-	9.1	-	100.0
	빈도	9	1	-	-	1	-	11
기타	비율	50.0	-	-	-	50.0	-	100.0
	빈도	1	-	-	-	1	-	2
미정	비율	100.0	-	-	-	-	-	100.0
	빈도	4	-	-	-	-	-	4
전체	비율	71.2	12.6	3.5	1.7	10.4	0.7	100.0
	빈도	632	112	31	15	92	6	888

- 2009년 하계 휴가시 폭우 또는 장마같은 기상상태일 경우 계획했던 일정대로 여행하겠다는 응답률이 39.3%, 여행계획을 취소하겠다는 30.2%, 일정계획을 뒤로 미루는 18.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하계 휴가시 폭염 또는 무더위 기상상태일 경우의 계획했던 일정대로 여행하겠다는 응답률(71.2%)과 비교하여 폭우 또는 장마같은 기상상태일 경우 일정대로 여행하겠다고 한 응답은 전체의 39.3%로 크게 낮아졌으며, 여행계획 자체를 취소(30.2%)한다거나 일정을 뒤로 미루겠다(18.5%)는 비율이 높아 악천우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됨



<그림 2-18> 하계 휴가시 폭우 또는 장마같은 기상상태일 경우 대체방법

- 하계 휴가시 폭우 또는 장마같은 기상상태일 경우 고속철도, 비행기, 승용차, 전세관 광버스 이용 예정자의 경우 계획했던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응답률이 60.0%, 53.0%, 40.0%, 40.0%로 높게 나타나 사전예약이 필요한 수단의 경우 변경율이 낮은 편임
- 시외버스, 기차, 고속버스 이용 예정자의 경우 여행계획을 취소하겠다는 응답률이 각 50.0%, 48.4%, 46.4%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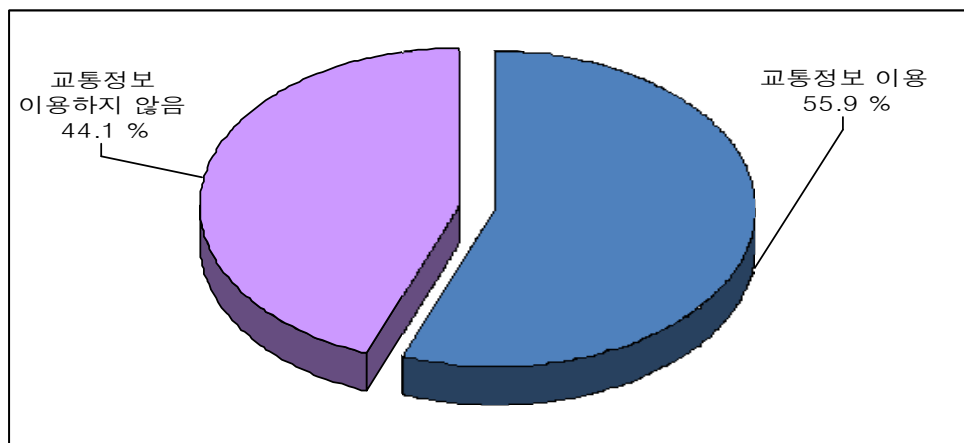
&lt;표 2-9&gt; 하계 휴가시 폭우 또는 장마같은 기상상태일 경우 대체방법 - 주 이용 교통수단별

단위: %, 명

구 분		계획했던 일정대로 여행	여행계획을 취소	여행지역을 변경	일정계획을 앞당김	일정계획을 뒤로 미룸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	모름/ 무응답	합 계
승용차	비율	40.0	29.3	7.0	3.5	17.8	0.3	2.1	100.0
	빈도	251	184	44	22	112	2	13	628
승합차	비율	32.9	37.0	5.5	5.5	19.2	-	-	100.0
	빈도	24	27	4	4	14	-	-	73
고속버스	비율	17.9	46.4	3.6	-	32.1	-	-	100.0
	빈도	5	13	1	-	9	-	-	28
시외버스	비율	25.0	50.0	-	-	25.0	-	-	100.0
	빈도	2	4	-	-	2	-	-	8
전세 관광	비율	40.0	26.7	13.3	-	20.0	-	-	100.0
	빈도	6	4	2	-	3	-	-	15
기차	비율	25.8	48.4	-	3.2	22.6	-	-	100.0
	빈도	8	15	-	1	7	-	-	31
고속철도	비율	60.0	20.0	-	20.0	-	-	-	100.0
	빈도	3	1	-	1	-	-	-	5
비행기	비율	53.0	20.5	8.4	-	15.7	-	2.4	100.0
	빈도	44	17	7	-	13	-	2	83
선박	비율	27.3	27.3	9.1	18.2	18.2	-	-	100.0
	빈도	3	3	1	2	2	-	-	11
기타	비율	50.0	-	-	-	50.0	-	-	100.0
	빈도	1	-	-	-	1	-	-	2
미정	비율	50.0	-	-	-	25.0	-	25.0	100.0
	빈도	2	-	-	-	1	-	1	4
전체	비율	39.3	30.2	6.6	3.4	18.5	0.2	1.8	100.0
	빈도	349	268	59	30	164	2	16	888

## 15) 2009년 하계 휴가시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 평소 하계 휴가시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여부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55.9%가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이용하고 있음



&lt;그림 2-19&gt; 평소 하계 휴가시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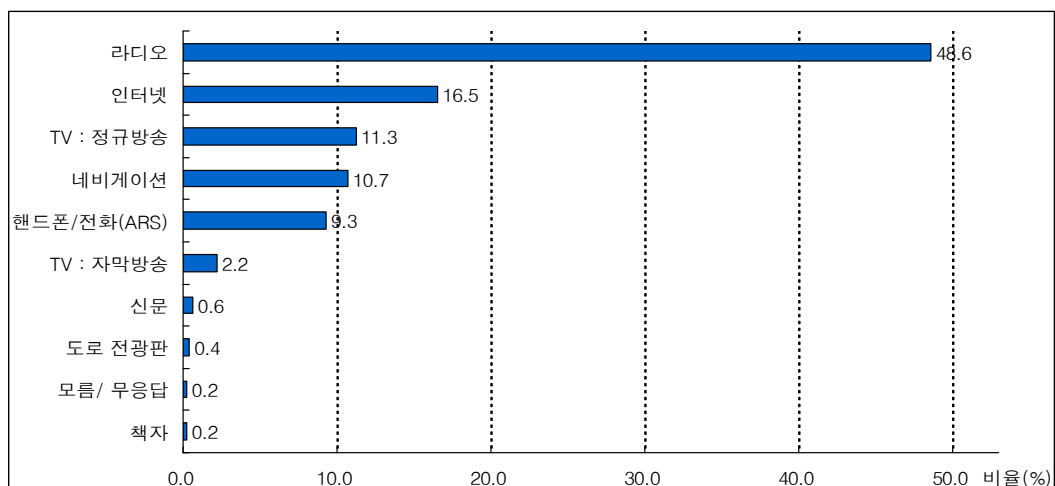
- 주 이용 교통수단별로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여부는 승용차(59.1%), 비행기(57.8%), 승합차(57.5%)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2-10> 평소 하계 휴가시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여부 - 주 이용 교통수단별

단위: %, 명

구 분		예	아니오	합 계
승용차	비율	59.1	40.9	100.0
	빈도	371	257	628
승합차	비율	57.5	42.5	100.0
	빈도	42	31	73
고속버스	비율	42.9	57.1	100.0
	빈도	12	16	28
시외버스	비율	25.0	75.0	100.0
	빈도	2	6	8
전세/관광	비율	40.0	60.0	100.0
	빈도	6	9	15
기차	비율	19.4	80.6	100.0
	빈도	6	25	31
고속철도	비율	40.0	60.0	100.0
	빈도	2	3	5
비행기	비율	57.8	42.2	100.0
	빈도	48	35	83
선박	비율	36.4	63.6	100.0
	빈도	4	7	11
기타	비율	50.0	50.0	100.0
	빈도	1	1	2
미정	비율	50.0	50.0	100.0
	빈도	2	2	4
전체	비율	55.9	44.1	100.0
	빈도	496	392	888

-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획득하는 경로는 라디오(48.6%), 인터넷(16.5%), TV 정규방송(11.3%), 네비게이션(10.7%), 핸드폰/전화(ARS)(9.3%)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20> 교통상황 안내정보 획득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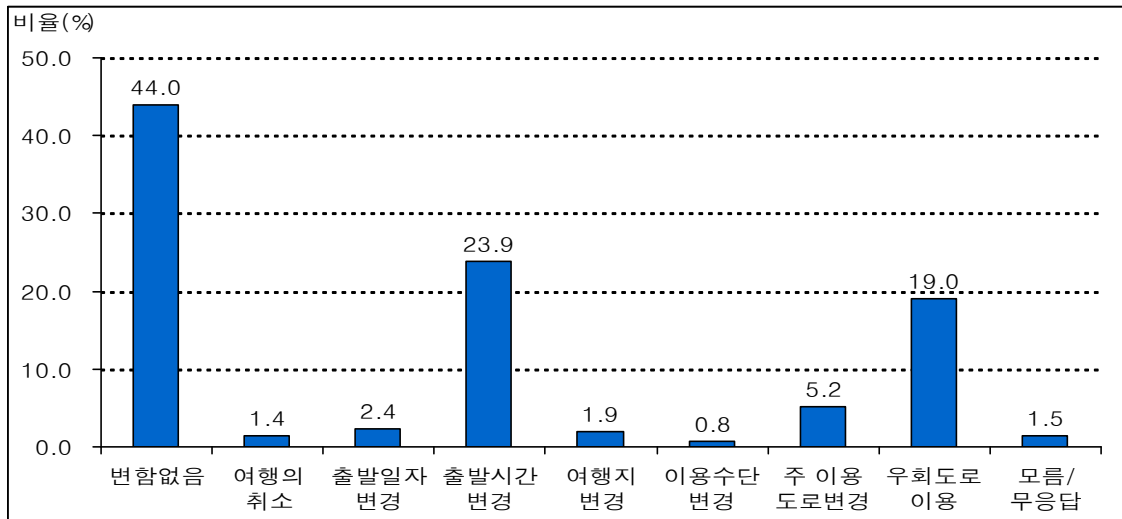
- 주 이용 교통수단별 교통상황 안내정보 획득 경로는 고속버스(58.3%), 승합차(16.7%), 승용차(12.9%)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획득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속철도(100.0%), 선박(50.0%), 전세관광버스(33.3%), 기차(33.3%)의 경우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라디오를 통해 주로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남

&lt;표 2-11&gt; 교통상황 안내정보 획득 경로 - 주 이용 교통수단별

단위: %, 명

구 분		인터넷	핸드폰/ 전화 (ARS)	라디오	TV : 자막 방송	TV : 정규 방송	신문	도로 전광판	네비게 이션	책자	모름/ 무응답	합 계
승용차	비율	12.9	9.2	51.5	2.2	11.3	0.3	0.3	12.1	-	0.3	100.0
	빈도	48	34	191	8	42	1	1	45	-	1	371
승합차	비율	16.7	9.5	47.6	7.1	9.5	-	-	9.5	-	-	100.0
	빈도	7	4	20	3	4	-	-	4	-	-	42
고속버스	비율	58.3	-	16.7	-	25.0	-	-	-	-	-	100.0
	빈도	7	-	2	-	3	-	-	-	-	-	12
시외버스	비율	50.0	-	-	-	-	-	50.0	-	-	-	100.0
	빈도	1	-	-	-	-	-	1	-	-	-	2
전세 관광	비율	-	16.7	33.3	-	33.3	16.7	-	-	-	-	100.0
	빈도	-	1	2	-	2	1	-	-	-	-	6
기차	비율	33.3	-	33.3	-	16.7	-	-	16.7	-	-	100.0
	빈도	2	-	2	-	1	-	-	1	-	-	6
고속철도	비율	-	-	100.0	-	-	-	-	-	-	-	100.0
	빈도	-	-	2	-	-	-	-	-	-	-	2
비행기	비율	29.2	12.5	39.6	-	8.3	2.1	-	6.3	2.1	-	100.0
	빈도	14	6	19	-	4	1	-	3	1	-	48
선박	비율	25.0	25.0	50.0	-	-	-	-	-	-	-	100.0
	빈도	1	1	2	-	-	-	-	-	-	-	4
기타	비율	100.0	-	-	-	-	-	-	-	-	-	100.0
	빈도	1	-	-	-	-	-	-	-	-	-	1
미정	비율	50.0	-	50.0	-	-	-	-	-	-	-	100.0
	빈도	1	-	1	-	-	-	-	-	-	-	2
전체	비율	16.5	9.3	48.6	2.2	11.3	0.6	0.4	10.7	0.2	0.2	100.0
	빈도	82	46	241	11	56	3	2	53	1	1	496

- 심각한 교통정체 안내정보시 하계 휴가 예정 사항의 대체 방법에 대하여, 여행계획을 변함없이 추진함 44.0%, 출발시간의 변경 23.9%, 우회도로 이용 19.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21> 심각한 교통정체 안내정보시 대체방법

- 심각한 교통정체 안내정보시 기차(77.4%), 전세관광버스(73.3%), 선박(72.7%), 비행기(62.7%)의 경우 여행계획에 변함없음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승용차(38.9%), 승합차(34.2%)와 같이 도로상황에 따라 출발시간 및 노선 등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수단은 출발시간 변경과 우회도로이용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lt;표 2-12&gt; 심각한 교통정체 안내정보시 대체방법

단위: %, 명

구 분		변함 없음	여행의 취소	출발 일자 변경	출발 시간 변경	여행지 변경	이용수 단 변경	주 이용 도로 변경	우회 도로 이용	모름/ 무응답	합 계
승용차	비율	38.9	1.3	2.4	26.9	2.4	0.6	5.7	20.5	1.3	100.0
	빈도	244	8	15	169	15	4	36	129	8	628
승합차	비율	34.2	-	1.4	28.8	-	-	8.2	26.0	1.4	100.0
	빈도	25	-	1	21	-	-	6	19	1	73
고속버스	비율	60.7	3.6	3.6	10.7	-	7.1	-	10.7	3.6	100.0
	빈도	17	1	1	3	-	2	-	3	1	28
시외버스	비율	37.5	12.5	-	50.0	-	-	-	-	-	100.0
	빈도	3	1	-	4	-	-	-	-	-	8
전세 관광	비율	73.3	-	-	6.7	6.7	-	-	13.3	-	100.0
	빈도	11	-	-	1	1	-	-	2	-	15
기차	비율	77.4	3.2	3.2	9.7	-	-	-	6.5	-	100.0
	빈도	24	1	1	3	-	-	-	2	-	31
고속철도	비율	60.0	-	-	-	-	20.0	-	-	20.0	100.0
	빈도	3	-	-	-	-	1	-	-	1	5
비행기	비율	62.7	1.2	3.6	9.6	1.2	-	4.8	14.5	2.4	100.0
	빈도	52	1	3	8	1	-	4	12	2	83
선박	비율	72.7	-	-	18.2	-	-	-	9.1	-	100.0
	빈도	8	-	-	2	-	-	-	1	-	11
기타	비율	-	-	-	50.0	-	-	-	50.0	-	100.0
	빈도	-	-	-	1	-	-	-	1	-	2
미정	비율	100.0	-	-	-	-	-	-	-	-	100.0
	빈도	4	-	-	-	-	-	-	-	-	4
전체	비율	44.0	1.4	2.4	23.9	1.9	0.8	5.2	19.0	1.5	100.0
	빈도	391	12	21	212	17	7	46	169	13	888

### 제3절 수요예측 방법론 및 수요예측 결과

#### 1.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요예측 방법

- 올해 여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은 '09.7.18~8.16일(30일간)이며, 여름휴가기간은 추석 및 설 특별교통대책기간과는 달리 평상시 통행과 휴가통행이 혼재되어 있음
- 여름휴가기간 동안의 교통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의 여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의 수송실적을 수집하여 평상시 통행과 휴가통행을 구분하여 구축함. 전년도 1년간의 연평균 수송실적을 평상시 통행으로 가정하고, 여름휴가기간 동안에 수송실적과 평상시 통행간의 차이를 휴가통행으로 가정함
- 원칙적으로 여름휴가기간의 휴가수요는 전국 단위의 설문조사를 통해 전수화하여 산출함이 바람직하나, 조사기간 및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설문조사를 통하여 전년도 대비 올해 휴가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올해 여름휴가기간 동안의 휴가수요를 예측하도록 함
- <그림 2-22>와 같이, 전년도의 수송실적에 근거하여 평상시수요와 휴가수요를 구분하여 자료를 구축한 후, 평상시 수요는 작년 대비 올해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구축하며, 휴가수요는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전년 대비 올해 휴가통행 증감률을 반영하여 구축함
- 올해의 수단별 수송분담률은 전년도 대비 올해 여름휴가시 이용수단 변화율을 반영하여 산출함. 설문조사에서 전년도 여름휴가시 이용수단과 올해 여름휴가시 예상 이용교통수단을 질문하여, 전년대비 올해년도 예상 수단분담율을 조사하여 이를 올해의 수단별 수송분담률의 변화 예측을 위한 기초데이터로 활용함



<그림 2-22> 여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요예측방법

## 2. 교통수단별 수송실적 수집

- 2008년 각 수단별 수송실적 자료는 담당기관에 공문을 통하여 취득하고 있으며, 협조 유관기관으로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해운조합,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이 있음

### 가. 고속도로(승용차)

- 고속도로 통행량 자료로서 과거년도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의 영업소 기준 일별 자료와 평시 월별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영업소 기준 자료는 운전자의 실제 출발지-목적지 파악 및 차종구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고속도로 정체구간의 경우 고속도로를 빠져나가 국도를 운행하다가 고속도로가 원활해지면 다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행태를 보임. 따라서, 영업소 통과차량의 자료만으로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최초 출발지와 최종 도착지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음
  - 현행 요금체제에서는 도착지 기준의 승용차, 승합차(9인 이상), 소형트럭이 모두 1종으로 되어있어 실질적인 승용차 통행량과 승합차 통행량을 알 수 없고, 버스의 경우도 화물차와 함께 분류되어 있어 구분이 불가능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수단별 통행량을 파악하기에는 최선의 자료로 판명되어 수요예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본 과업에서는 현행 고속도로 TCS 자료를 기준으로 1종과 2종을 승용차로 간주하여 통행량을 산정함
- 한국도로공사에서 취합되지 않는 서울춘천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와 같은 민자 고속도로는 각 기관에서 자료를 수집함

### 나. 고속버스

- 현재 고속버스 자료는 전산화가 이루어져 데이터 수집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며, 일별 자료, 평상시 월별 자료를 수집함

### 다. 시외버스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의 시외버스부분은 전산화 되어 있지 않고 정확한 터미널간 수송인원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각 지역 조합 자료를 취합하여 특별교통대책기간 관련 자료를 제공받고 있음

- 취합과정에서의 오차가 발생할 확률이 높지만 현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의 협조에 의한 취합자료 이외엔 자료 취득이 불가능하며,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빠른 시일에 전산발매 시스템이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바. 전세버스

- 전세버스 또한 시외버스와 같이 전산화가 미흡한 실정이며, 현행 전세버스는 지입제 형태의 차량이 전체 차량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특별교통대책기간 중에 개별 업체별로 운행 후 결과를 각 시·도별로 보고하고, 이를 각 시·도 지부는 다시 전세버스연합회에 보고하게 되어있으나,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운행되는 차량의 절반 이상이 지입제 차량으로 이들 차량이 성실히 운행실적을 보고하지 않으며, 일부 시·도지부에서는 전세버스연합회에 운행실적 보고를 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통행량과 운행구간의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전세버스는 근본적인 제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정확한 데이터 수집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차선택으로 현 체제에서 데이터 수집을 위해 해당 관련기관인 전세버스조합에 의존하여 자료를 취득함

#### 라. 항공

-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전산화가 모두 이루어져 한국공항공사의 협조를 받아 취득하고 있으며, 항공수송수요의 일별 자료, 평시 월별 자료는 공문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마. 철도

- 철도 관련자료는 철도공사에 요청하여 수송실적을 수집하고 있으며, 전산화 자료가 잘 구축되어 특별교통대책기간에 일자별 전산발매분과 수발매분을 포함한 총 수송수요에 대한 자료를 취득함

#### 바. 해운

- 해운 관련자료는 한국해운조합에 요청하여 수송실적을 수집하고 있으며, 특별교통대책기간에 일자별 총 수송수요에 대한 자료를 취득함

### 3. 수요예측 결과

#### 가. 수요예측 결과

- 금년 여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09.7.18~8.16, 30일간) 중 전국의 지역간 이동인원은 9,366만명(19,950만 통행), 1일 평균 312만 명(665만 통행)이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313만 명/일)에 비해 0.2% 감소, 평시(296만 명)보다 5.6% 증가한 수치임

<표 2-13> 2009년도 여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수요 예측결과(전국)

단위: 천통행

구분  교통수단			평시 1일 수송량	휴가기간('09.7.18~8.16)			평시대비 (%)	전년도 대비(%)
				일평균 교통량	30일 총수송량	분담률 (%)		
도 로	승용차		4,591	4,799	143,956	72.2	104.5	98.7
	버 스	고속버스	109	128	3,845	1.9	117.6	101.3
		시외·전세	1,219	1,267	38,009	19.1	103.9	102.7
		버스계	1,328	1,395	41,854	21.0	105.0	102.6
	도로계		5,919	6,194	185,810	114.2	104.7	99.5
철도			290	321	9,641	4.8	111.0	102.9
항공			46	55	1,652	0.8	118.7	103.4
해운			40	80	2,393	1.2	198.3	102.4
합계			6,295	6,650	199,497	100.0	105.6	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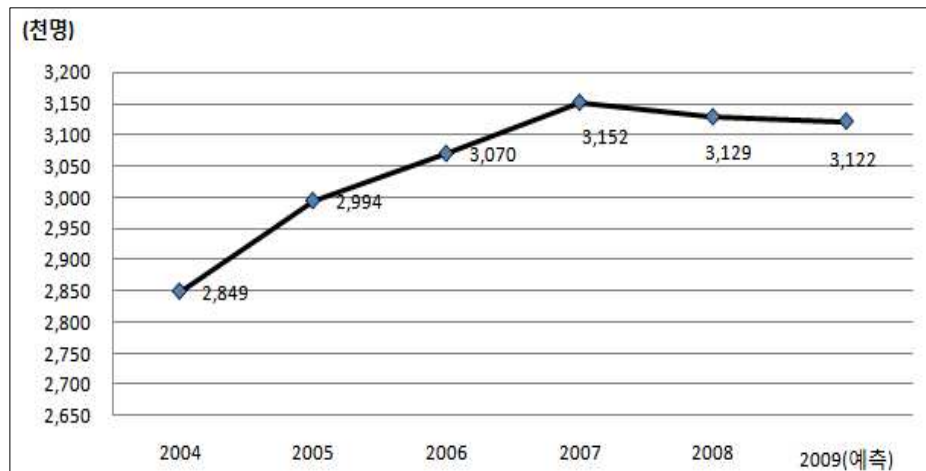
- 주: 1) 승용차의 경우 고속도로로 한정하며, 평시 평균 재차인원은 1.71명(2005년 전국교통조사 결과 중 평일 평균재차인원 적용), 휴가차량 재차인원은 3.66명임  
 2) 수단별 수송실적 자료는 각 기관에서 수집하여 사용함  
 3) 수단별 수송인원 산정시 2009년 여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설문조사의 통행패턴을 사용함

<표 2-14> 여름휴가기간 중 피크시('09.7.26~8.8: 2주) 수요 집중도

단위: 천통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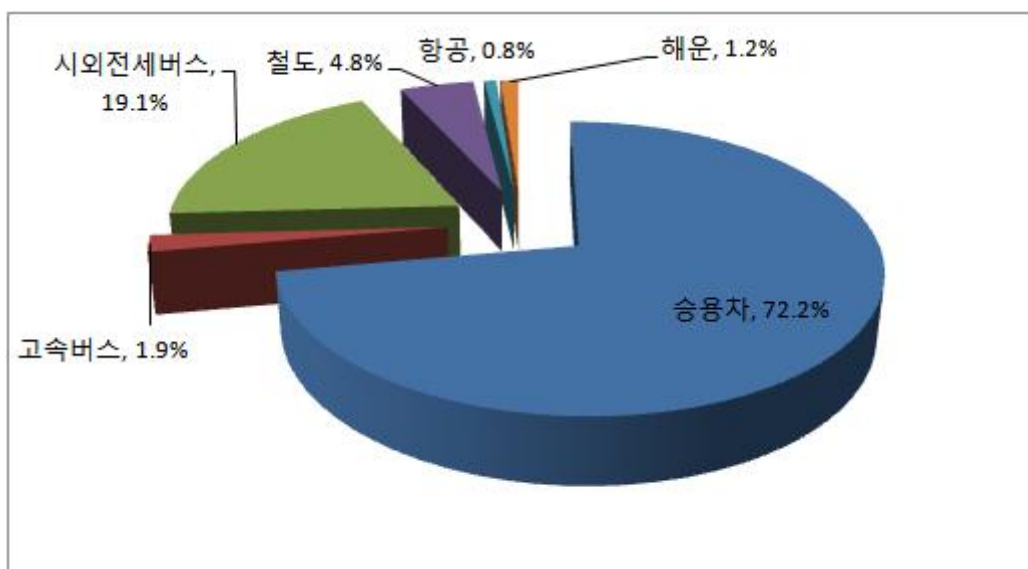
구분 교통수단			평시 1일 수송량	휴가 피크기간 중 일 평균수송량	평시대비(%)
도 로	승용차		4,591	5,662	123.3
	버 스	고속버스	109	151	138.5
		시외·전세	1,219	1,495	122.6
		버스계	1,328	1,646	123.9
	도로계		7,247	8,954	123.6
철도			290	379	130.7
항공			46	65	141.3
해운			40	94	235.0
합계			6,295	7,846	124.6

- 금년 하계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이동인원은 경제위기 및 고용불안 등으로 인한 심리 때문에 휴가를 가지 않는 현상이 반영되어 다소 감소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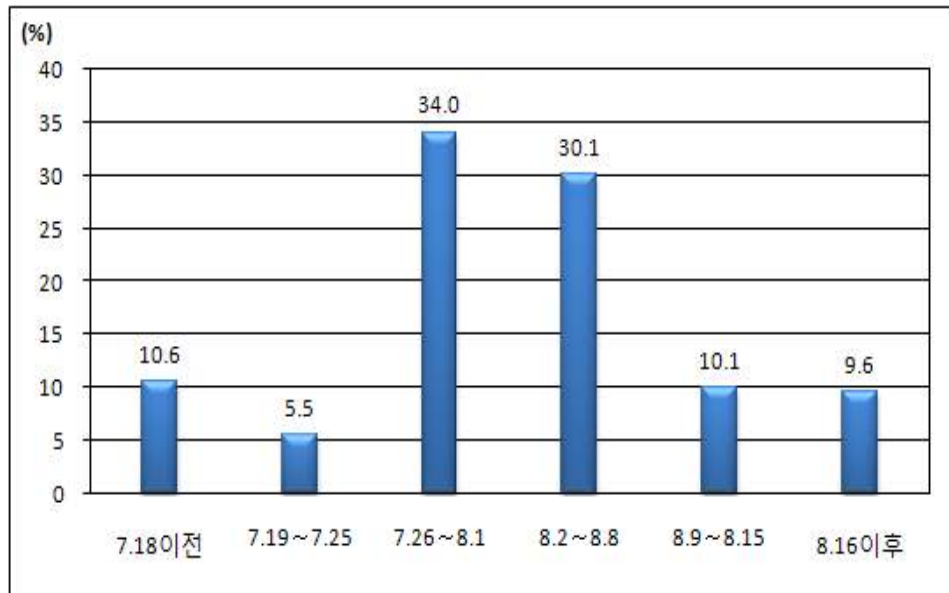
<그림 2-23> 여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이동인원 추이(1일 평균)

- 금년 여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국민들이 이용할 교통수단을 보면 승용차 72.2%, 시외·전세버스 19.1%, 철도 4.8%, 고속버스 1.9%서 대부분이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나타남
- 전년도의 수송 분담률과 비교하면 승용차의 수송 분담률이 0.7% 감소하고 승용차를 제외한 대중교통수단의 수송 분담률이 0.7%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됨. 이는 고유가 로 인하여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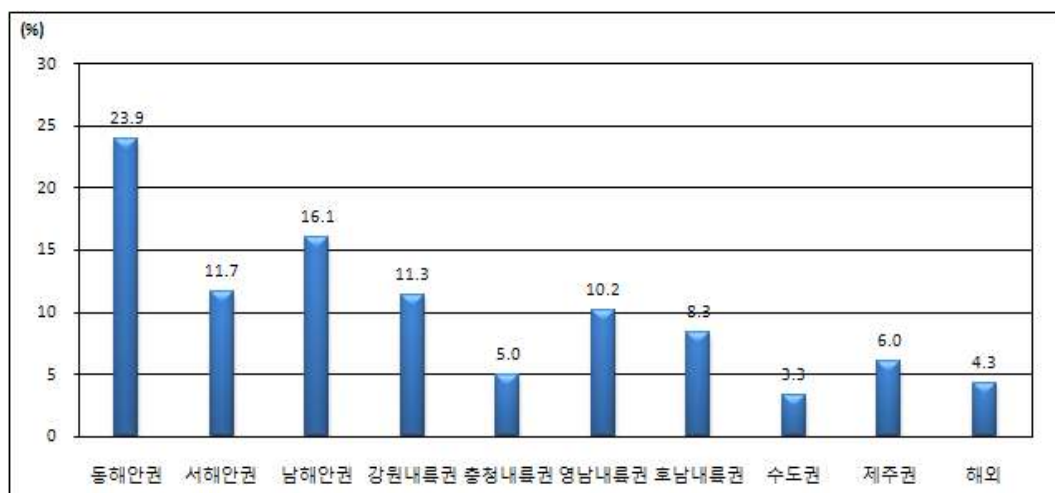
<그림 2-24> 여름휴가 교통수단별 분담률(예상)

- 금년 하계의 경우 휴가여행 출발예정일자는 7월 26일부터 8월 1일 사이가 34.0%로 가장 많고, 8월 2일부터 8월 8일 사이가 30.1% 등으로 나타나 이 기간에 평상시 대비 1일 평균통행량이 24.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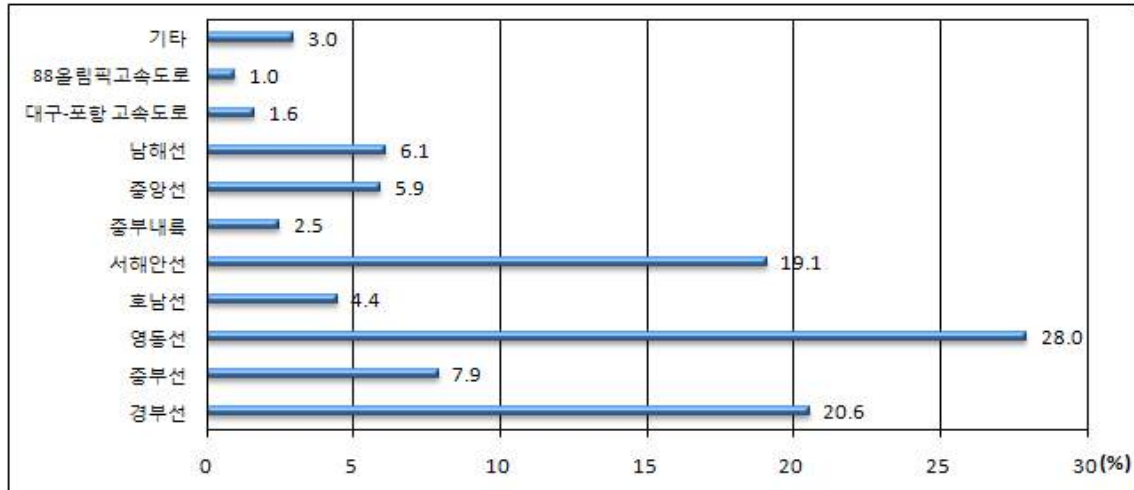
<그림 2-25> 여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일자별 예정인원 비율

- 여행지역은 동해안이 23.9%로 가장 많고, 영남·호남내륙 18.5%, 강원·충청내륙 16.3%, 남해안 16.1%, 서해안 11.7%, 제주권 6.0%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해외여행객 비율이 6.7%에서 4.3%로 감소



<그림 2-26> 국내여행 예정지역 분포(전망)

- 하계 특별대책기간 중 전국 고속도로별로 이용 비율은 영동선이 28.0%, 경부선이 20.6%, 서해안선 19.1%, 중부선 7.9%, 남해안선 6.1% 순임



<그림 2-27> 고속도로별 이용차량 비율(전망)

## 제4절 사후 설문조사 수행 결과

### 1. 사후 설문조사 수행 결과<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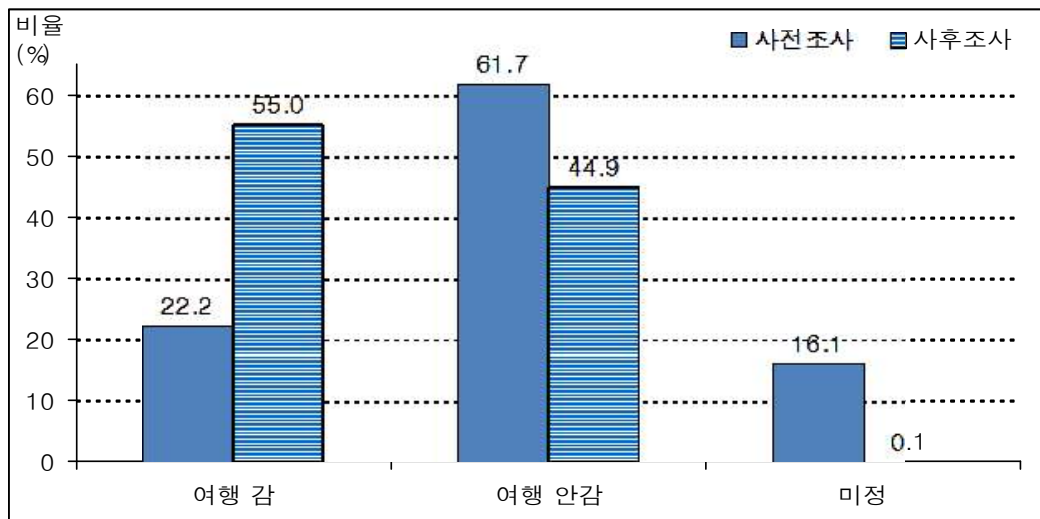
#### <결과 요약>

- 하계 휴가기간 중 여행 여부에 대하여 특별교통대책 기간 이후 시점인 8월18일~8월19일 사후설문 결과(n=800), 55.0%가 하계 휴가기간 중 여행을 갔다고 응답하였으며 44.9%는 여행 안감, 0.1%는 조사 참여 시점에서 하계 여행에 대하여 미정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사전조사결과(n=4000) : 여행 22.2%(미정 16.1%)
- 하계 휴가기간 중 여행 지역(n=440)은 동해안이 1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영남내륙권이 15.7%, 강원내륙권이 13.2% 순으로 나타남
  - 사전조사결과 : 동해안 23.3%, 남해안 15.7%, 서해안 11.4%, 강원내륙 11.0%
- 하계 휴가기간 중 출발 일자(n=440)는 7월 26일에서 8월 1일까지가 35.0%, 그리고 8월2일~8월8일이 30.2%, 8월 9일부터 8월 15일까지가 18.0%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하계 휴가기간 중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88.9%(440명 중 391명)가 특별교통대책 기간(7.19~8.15) 중 출발했다고 응답함
  - 사전조사결과 : 7월 26일~8월 1일 33.9%, 8월 2일~8월 8일 30.0%, 8월 9일~8월 15일 10.0%
- 2009년 하계 휴가기간 중 이용 교통수단(n=440)으로는 승용차가 75.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용수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승합차가 7.3%, 비행기가 7.0%, 열차 2.7%, 고속버스 1.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사전조사결과 : 승용차 70.7%, 비행기 9.3%, 승합차 8.2%, 기차 3.5%, 고속버스 3.2%
- 고속도로 이용자의 주 이용노선(n=312)은 영동선이 23.7%로 가장 많이 이용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해안선이 17.6%, 경부선이 16.0%의 순으로 나타남
  - 사전조사결과 : 영동선 27.3%, 경부선 20.1%, 서해안선 18.6%

1) 사후 설문조사 결과의 세부분석에서는 항목별 사후조사결과(n=800)와 사전조사결과(n=4000)를 비교하여 제시함

### 1) 하계 휴가기간 중 여행 여부

- 사후조사 결과 하계 휴가기간 중 여행 여부를 살펴보면, 55.0%가 하계 휴가기간 중 여행을 갔다고 응답하였으며 44.9%는 여행 안감, 0.1%는 조사 참여 시점에서 하계 여행에 대하여 미정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아래 그림 2-29에서 보이듯, 사전 조사와 사후조사 결과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후조사에 포함된 응답자는 사전조사에서 하계휴가계획이 미정(34.6%) 이거나, 안간다는 응답자(7.5%)가 포함되었기 때문임



<그림 2-28> 하계 휴가기간 중 여행 여부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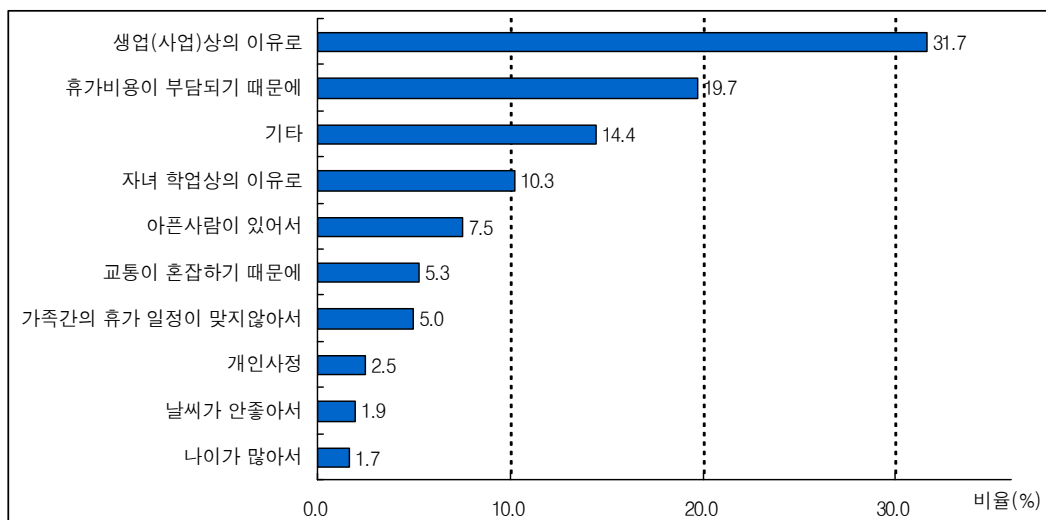
- 사후설문조사 대상자를 기준으로 사전설문조사와 사후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휴가계획 일치율은 75.5%(523명 중 395명)이며 사전조사에서 휴가를 간다고 응답한 사람 중 사후조사에서 휴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은 26.8%였으며, 사전조사에서 휴가를 다녀오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 중 6.7%는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남. 휴가를 간다고 계획한 사람이 휴가를 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전조사에서 미정이었던 사람이 사전조사시 휴가를 간다는 비율 22.2%보다 높은 35.0%가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남

&lt;표 2-15&gt; 2009년 하계 휴가기간 중 통행행태 사전/사후조사 결과 비교

단위: %, 명

구분			사후조사			
			갔다	안갔다	미정	합계
사전조사	간다	비율	73.2	26.8	0.0	100.0
		빈도	339	124	0	463
	안간다	비율	6.7	93.3	0.0	100.0
		빈도	4	56	0	60
	미정	비율	35.0	64.6	0.4	100.0
		빈도	97	179	1	277
	합계	비율	55.0	44.9	0.1	100.0
		빈도	440	359	1	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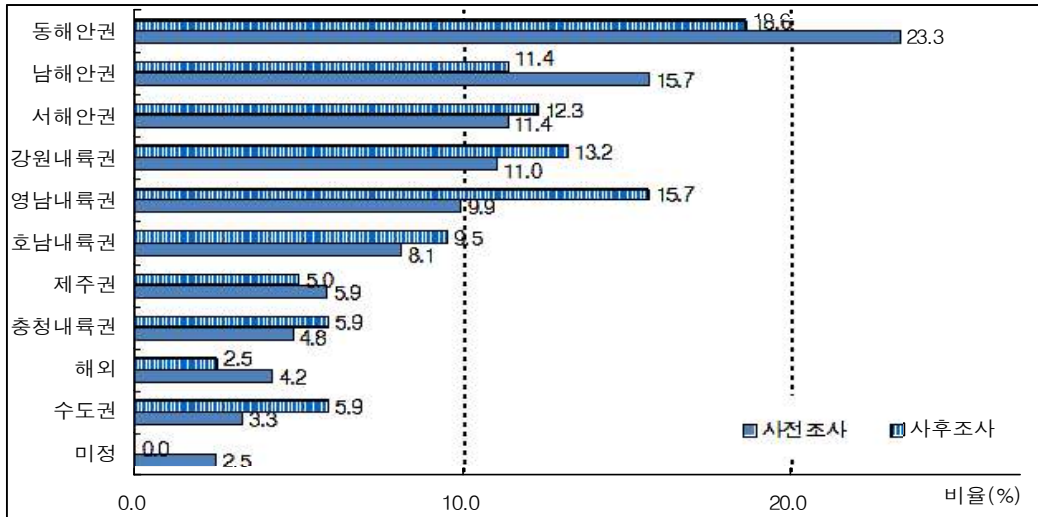
- 사전조사시 휴가 예정이었으나, 사후 조사의 경우 하계 휴가를 가지 않거나 미정으로 응답한 이유로는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31.7%, 휴가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19.7%, 자녀 학업상의 이유로 10.3% 순으로 나타남



&lt;그림 2-29&gt; 하계 휴가시 여행 여부 변경 이유(휴가감→휴가안감/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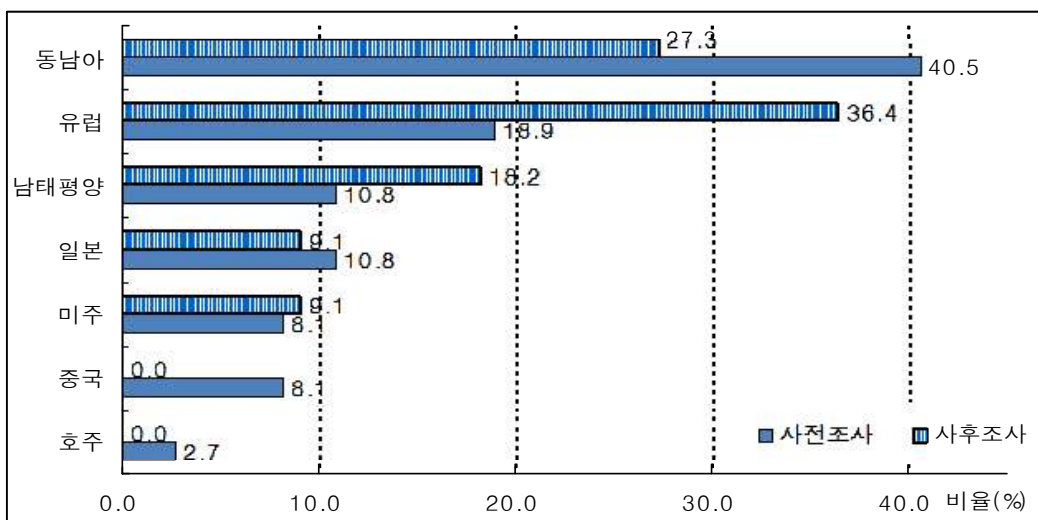
## 2) 하계 휴가기간 중 여행 지역

- 2009년 하계 휴가기간 중 여행 지역은 사전조사시 동해안권이 23.3%, 남해안권이 15.7%, 서해안권이 11.4%로 조사되었으나 사후조사 결과 동해안이 18.6%, 영남내륙권이 15.7%, 강원내륙권이 13.2%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전조사시 동해안권과 남해안권으로 편중되었던 여행지가 고루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2-30> 하계 휴가기간 중 여행 지역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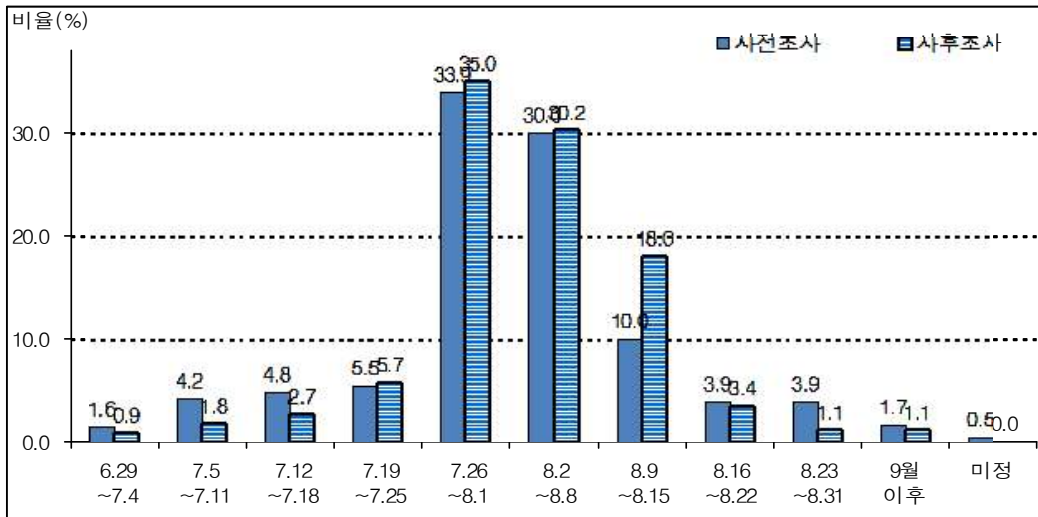
- 하계 휴가시 해외로 여행을 다녀왔다는 응답자를 살펴보면, 사전조사시 동남아 지역이 40.5%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사후조사 결과 유럽 지역이 36.4%, 동남아 지역이 27.3%, 미주 18.2%, 일본 및 남태평양이 각각 9.1% 순으로 나타나 편중되었던 여행지가 고루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2-31> 하계 휴가기간 중 해외여행 지역의 분포

## 3) 하계 휴가기간 중 출발 일자

- 하계 휴가기간 중 출발 일자는 7월 26일에서 8월 1일까지가 사전조사에서는 33.9%였던 것이 사후조사에서는 35.0%, 8월2일에서 8월8일이 사전조사에서는 30.0%에서 사후조사에서는 30.2%, 8월 9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사전조사에서는 10.0%에서 사후조사에서는 18.0%로 나타나 하계 휴가기간의 집중도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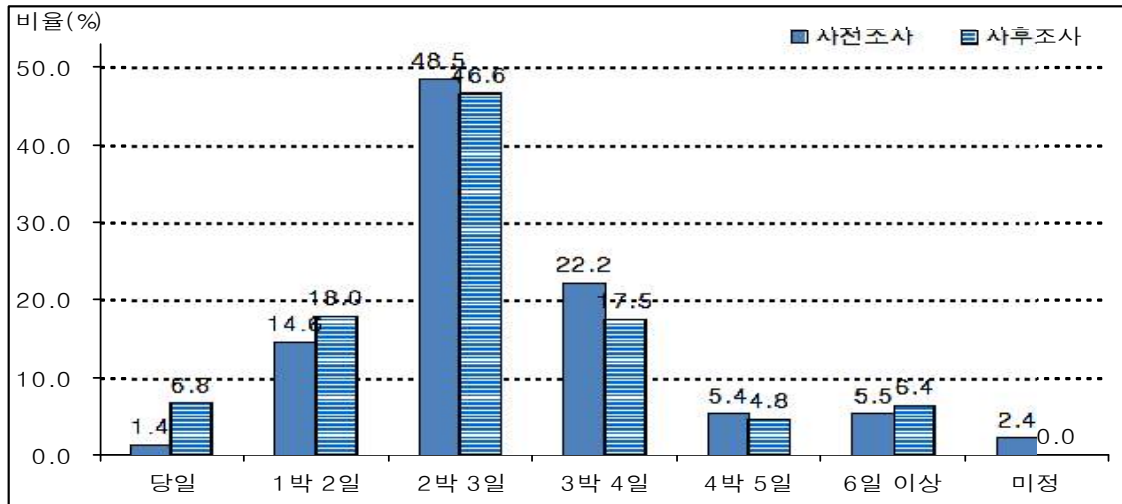


&lt;그림 2-32&gt; 하계 휴가기간 중 출발 일자의 분포

- 사전조사에서는 하계 휴가기간 중 여행 계획인 사람들의 79.4%(888명 중 705명), 사후 조사에서는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88.8%(440명 중 391명) 이 특별교통대책 기간인 7월 19일부터 8월 15일 사이에 하계휴가를 계획 또는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음

#### 4) 하계 휴가기간 중 여행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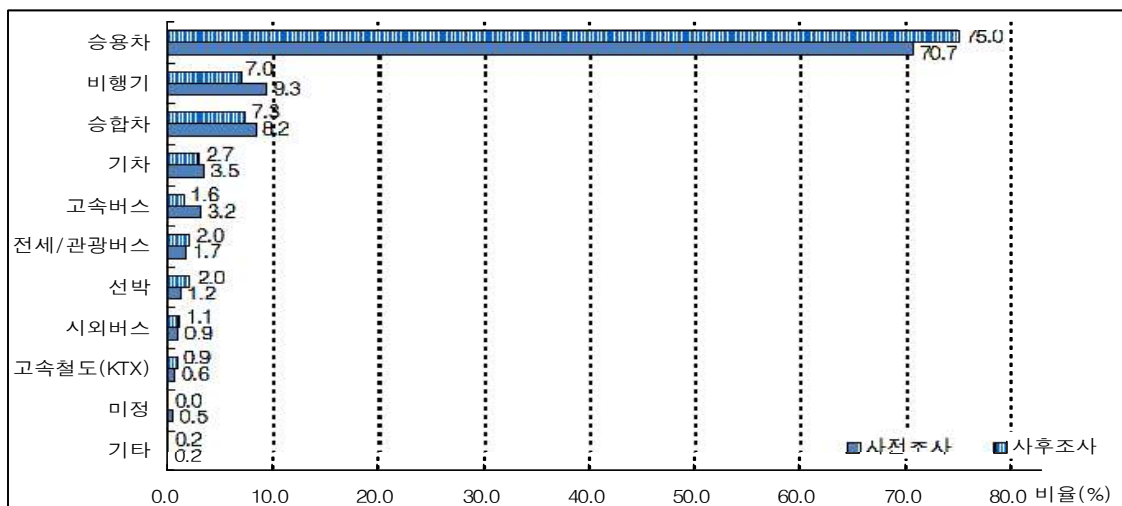
- 사후조사 결과 하계 휴가기간 중 여행 기간은 당일에서 1박 2일의 비율이 소폭 증가하였고, 2박 3일에서 4박 5일의 비율은 소폭 감소하였음



<그림 2-33> 하계 휴가기간 중 여행 기간의 분포

#### 5) 하계 휴가기간 중 이용 교통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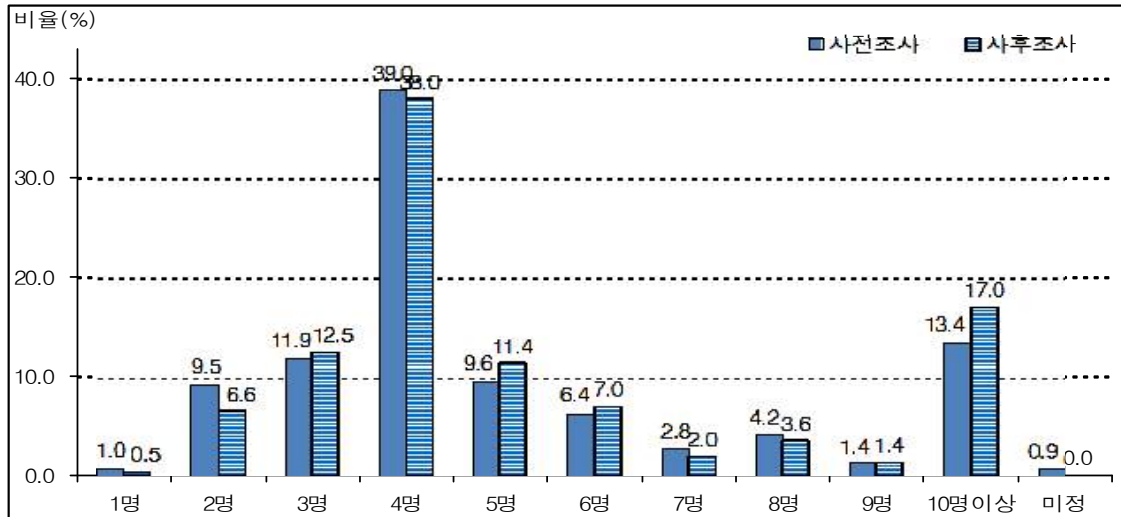
- 2009년 하계 휴가기간 중 이용 교통수단으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모두 승용차가 70% 이상을 차지하며 사후조사에서는 비행기와 승합차, 기차, 고속버스를 이용했다는 응답이 소폭 감소하였음



<그림 2-34> 하계 휴가기간 중 이용 교통수단의 분포

## 6) 하계 휴가기간 중 동행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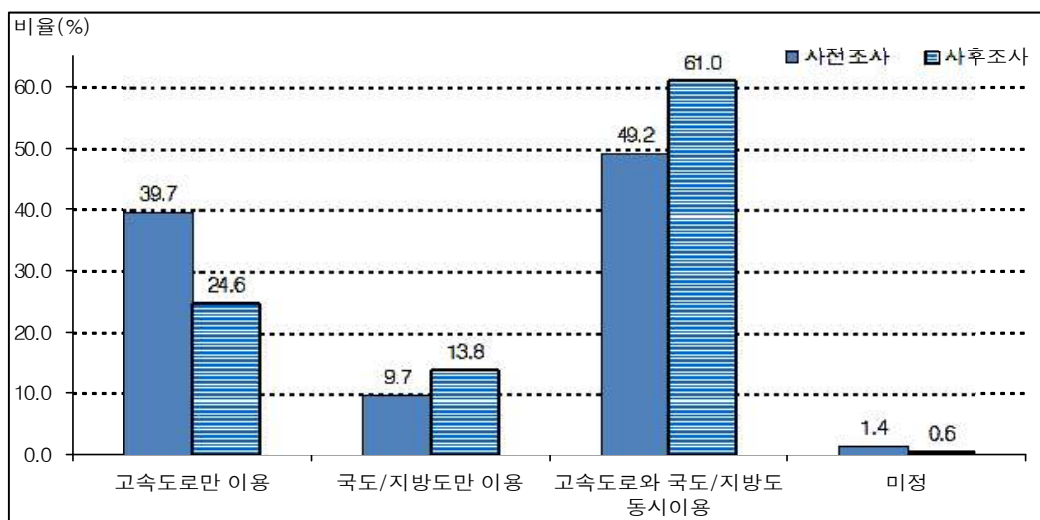
- 하계 휴가기간 중 동행인 수는 사전/사후조사 모두 4명이 가장 많은 사전조사 39.0%, 사후조사 38.0%를 차지하였으며, 10명 이상, 3명, 5명, 2명의 순으로 나타났음



&lt;그림 2-35&gt; 하계 휴가기간 중 동행인 수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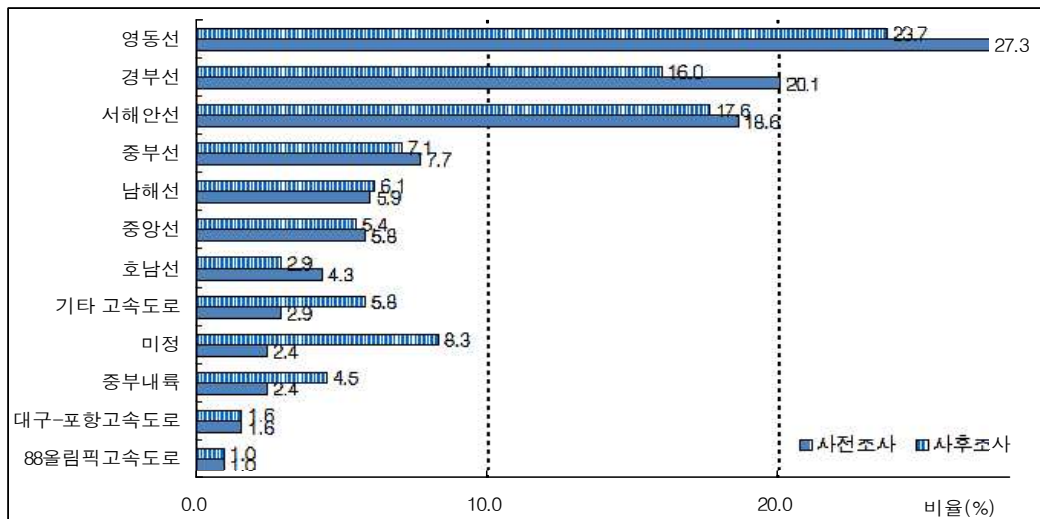
## 7) 하계 휴가기간 중 이용 도로

- 하계 휴가기간 중 이용 도로는 국도/지방도만 이용 및 고속도로와 국도/지방도를 동시에 이용한다는 비율은 증가하였고, 고속도로만 이용한다는 비율은 15%가량 감소하여 고속도로 정체로 우회도로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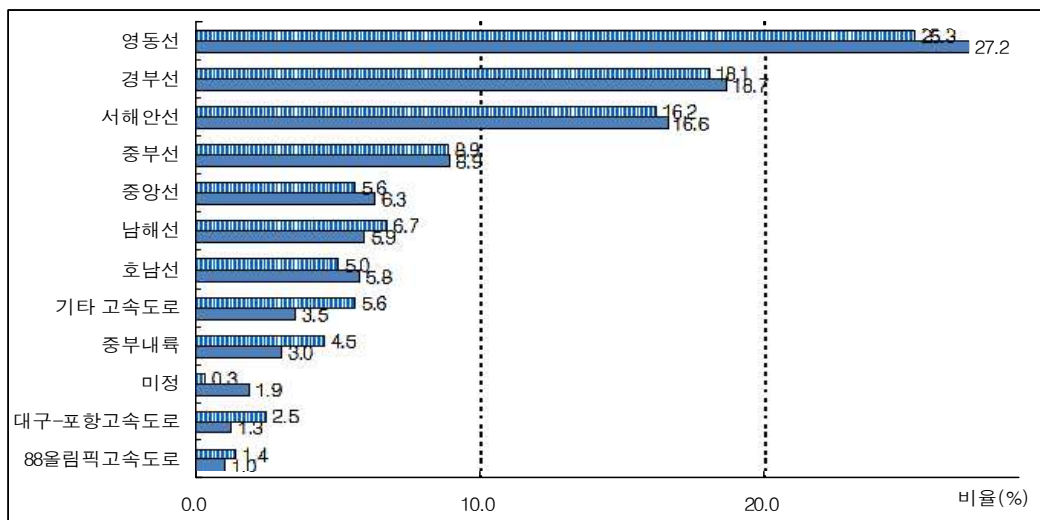
&lt;그림 2-36&gt; 하계 휴가기간 중 이용 도로의 분포(연도별)

- 고속도로 이용자의 주 이용노선은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서 모두 영동선, 경부선, 서해안 순으로 나타났으나, 사후조사에서는 영동선, 경부선, 서해안선 이용비율이 감소하고 타 노선으로 분산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37> 하계 여행시 고속도로 이용 노선의 분포

- 고속도로 이용자의 모든 이용노선을 중복선택하여 살펴본 결과 단일선택과 마찬가지로 노선선택의 편중이 다소 완화된 것(영동선 27.2%→25.3%, 경부선 18.7%→18.1%, 서해안선 16.6%→16.2%)으로 나타났음



<그림 2-38> 하계 여행시 고속도로 이용 노선의 분포(중복)

## 8) 하계 휴가기간 중 총 휴가 비용

- 하계 휴가기간 중 총 휴가 비용으로 30~40만원이 사전조사 19.9%, 사후조사 18.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50~60만원을 사용했다는 응답이 사전조사 13.1%, 사후조사 13.9%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계 휴가기간 중 61만원을 예상하였으나 실제 사용금액은 53만 9천원으로 7만 1천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lt;표 2-16&gt; 하계 휴가기간 중 총 휴가 비용

단위: %, 명, 만원

구 분		10 만원 미만	10 만원 이상 ~20 만원 미만	20 만원 이상 ~30 만원 미만	30 만원 이상 ~40 만원 미만	40 만원 이상 ~50 만원 미만	50 만원 이상 ~60 만원 미만	60 만원 이상 ~70 만원 미만	70 만원 이상 ~80 만원 미만	80 만원 이상 ~90 만원 미만	90 만원 이상 ~100 만원 미만	100 만원 이상 ~200 만원 미만	200 만원 이상 ~300 만원 미만	300 만원 이상 ~400 만원 미만	400 만원 이상 ~500 만원 미만	500 만원 이상	모름 / 무응 답	합계	평균
사전 조사	비율	4.6	9.9	14.5	19.9	10.7	13.1	3.5	2.8	0.8	0.6	9.9	1.4	0.7	0.5	1.5	5.7	100.0	61.0
	빈도	41	88	129	177	95	116	31	25	7	5	88	12	6	4	13	51	888	
사후 조사	비율	3.0	6.6	13.6	18.0	10.5	13.9	5.7	3.0	1.6	0.5	7.7	1.6	2.0	0.0	0.2	12.3	100.0	53.9
	빈도	13	29	60	79	46	61	25	13	7	2	34	7	9	-	1	54	440	

## 제5절 사후평가

### 1. 수송실적 자료 수집

- 수송실적 자료 수집 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해운조합,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 수송실적 자료 수집 : 2009년 8월 17일(월)~8월 24일(월)
- 수송실적 수집 자료
  - 2009년 여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09.7.18~8.16일(30일간))의 일별 출발·도착지별 여객 수송실적 및 일별 총 수송실적

### 2. 사후평가

- 사후평가는 특별교통대책용 교통수요예측결과와 특별교통대책기간 실적자료 간의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교통대책기간 완료 이후 집계 가능한 수단별 수송실적을 활용함
  - 본 과업에서는 전체 수단분담률의 약 70%를 차지하는 승용차 수단을 평가수단으로 선택하였으며 고속도로 TCS 수집자료에 근거하여 작년과 올해의 수송실적 비교와 실제수송실적과 수요예측비교를 실시함. TCS자료는 일별 자료를 활용하여췌며 30일간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함
- 수요예측결과와 수송실적치 비교 사후평가 결과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승용차 대수는 4.6% 적게 예측된 반면, 피크기간동안의 일평균 통행수요는 7.4% 과다 추정되었음
- 수송실적 측면에서는 전년도 대비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 피크 14일의 일평균 수송실적이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작년의 경기침체이후 하계 휴가 이동수요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표 2-17> 여름휴가 특별교통대책 사후평가

단위: 만대

구분		실적			예측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가율	2009년	실적대비 수요 예측 오차율
하계 일평균	30일 일평균	287	325	13.2%	310	-4.6%
	피크기간 일평균	302	340	12.6%	365	7.4%
	하계기간 중 피크 집중도	105.23	104.62	-	117.74	-
하계기간 누계	30일	8,621	9,757	13.2%	9,287	-4.8%
	피크 14일	4,226	4,762	12.7%	5,110	7.3%
	하계기간 중 피크율	49.02	48.81	-	55.02	-

## **제3장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

---

**제1절 설문조사 개요**

**제2절 사전/간이 설문조사 수행 결과**

**제3절 수요예측 방법론 및 수요예측 결과**

**제4절 사후 설문조사 수행 결과**

**제5절 사후평가**



## 제3장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

### 제1절 설문조사 개요

#### I. 조사개요 및 조사표본 선정

##### 가. 조사 목적 및 개요

- 2009년도 추석 특별수송대책기간(10.1(목)~10.5(월); 5일간)의 교통수요 분석 및 예측 결과를 제시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함
- 2009년도 추석 특별교통수요를 분석 및 예측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사전조사와 간이조사, 사후조사의 단계로 가구설문조사를 실시함
  - 사전설문조사 : 추석 연휴 귀성 및 여행 계획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 추출을 통해 6,800세대를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 실시
  - 간이설문조사 : 추석 연휴 귀성 및 여행 계획의 변경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설문조사 대상자 중 1,200세대에 대하여 설문조사 실시
  - 사후설문조사 : 추석 연휴 귀성 및 여행 계획과 실제 귀성 및 여행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간이설문조사 대상자 중 600세대를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 실시
- 조사개요
  - 사전/간이 설문조사
    - 조사시기 : 사전조사(2009년 6월 27일(토)~30일(화)(3일간, 28일(일) 제외))  
간이조사(2009년 9월 11일(금)~12일(토)(2일간))
    - 조사지역 : 전국 단위 세대(16개 시·도)
    - 조사방법 : 전화조사 및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
    - 조사표본 : 6,800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pm 1.19\%$ )
    - 유효표본 : 사전조사(1,333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pm 2.68\%$ ))  
사전+간이조사(1,294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pm 2.72\%$ ))

- 사후 설문조사

- 조사시기 : 2009년 10월 7일(수) ~ 8일(목) (2일간)
- 조사지역 : 전국 단위 세대(16개 시·도)
- 조사방법 : 전화조사 및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
- 조사표본 : 600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pm 4.00\%$ )
- 유효표본 : 107세대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pm 9.47\%$ )

## 나. 조사내용

### ○ 사전조사 주요항목

- 작년 귀성 또는 여행 여부 및 내용
  - 귀성 또는 여행 여부, 귀성 및 귀가 시기, 이용교통수단
- 올해 귀성 또는 여행 여부 및 내용
  - 귀성 또는 여행 여부, 귀성 계획이 없는 이유, 다른 가족들의 역귀성 지역, 귀성 또는 여행 출발 및 귀가 일정, 동행 인원, 귀성 또는 여행 지역, 주 이용 교통수단 및 이용 노선, 대중교통 이용시 표 예매 여부 및 대체 수단, 교통비용, 추가적인 휴가 계획 등
- 개인 속성(성, 연령, 가족 인원)

### ○ 간이조사 주요항목

- 올해 귀성 또는 여행 여부 및 내용
  - 귀성 또는 여행 여부, 귀성 계획이 없는 이유, 귀성 또는 여행 출발시기 및 귀가 일정, 귀성 또는 여행 지역, 주이용 교통수단 및 이용 노선, 대중교통 표 예매 여부
- 개인 속성(성, 연령)

### ○ 사후조사 주요항목

- 올해 귀성 또는 여행 여부 및 내용
  - 귀성 또는 여행 여부, 귀성 계획이 없는 이유, 부모(또는 친지)들의 역귀성 출발 지역, 귀성 또는 여행 출발시기 및 귀가일정, 귀성 또는 여행 지역, 주이용 교통수단 및 이용 노선, 추석 성묘 여부, 교통비용.
- 개인 속성(성, 연령)

#### 다. 조사표본 선정

- 이번 조사는 지난해 동기간의 조사 표본수를 참고로 하여, 전국의 대상 세대수를 기준으로 표본율 0.037%로 총 6,800세대를 표본선정 하였음
- 전국규모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08년도 전국 세대수를 기준으로 비례할당 하여, 16개 시·도 6,800개 구·동 단위(대도시 위주, 군단위 이하 제외)로 조사대상을 무작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 지역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서울 및 광역시
  - 경기도 - 세대수 30만가구 이상 도시(군단위 이하 제외)
  - 그 외 지역 - 해당 도의 세대수 상위 10% 이상 도시(군단위 이하 제외)

<표 3-1> 추석 연휴 지역별 조사 세대수(연도별)

단위: 세대수, %

구 분	전체 세대수 <sup>1)</sup>	2008년 추석(사전+간이조사)				전체 세대수 <sup>2)</sup>	2009년 추석(사전+간이조사)			
		표본		유효표본			표본		유효표본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서울특별시	4,035,578	1,473	21.7	273	21.1	4,097,562	1,473	21.7	274	22.8
부산광역시	1,297,533	474	7.0	101	7.8	1,311,724	474	7.0	79	6.6
대구광역시	881,872	322	4.7	69	5.3	894,969	322	4.7	79	6.6
인천광역시	991,248	362	5.3	78	6.0	1,014,755	362	5.3	90	7.5
광주광역시	502,121	183	2.7	33	2.6	513,021	183	2.7	43	3.6
대전광역시	524,516	192	2.8	56	4.3	531,682	192	2.8	53	4.4
울산광역시	379,133	138	2.0	48	3.7	389,735	138	2.0	38	3.2
경 기 도	4,160,453	1,518	22.3	348	26.9	4,284,475	1,518	22.3	303	25.2
강 원 도	592,867	217	3.2	16	1.2	606,950	217	3.2	17	1.4
충 청 북 도	571,953	209	3.1	38	2.9	587,411	209	3.1	32	2.7
충 청 남 도	791,620	289	4.3	57	4.4	812,871	289	4.3	46	3.8
전 라 북 도	699,669	256	3.8	20	1.5	710,550	256	3.8	13	1.1
전 라 남 도	764,626	280	4.1	26	2.0	773,087	280	4.1	17	1.4
경 상 북 도	1,042,747	381	5.6	68	5.3	1,058,099	381	5.6	49	4.1
경 상 남 도	1,172,597	429	6.3	61	4.7	1,203,767	429	6.3	65	5.4
제 주 도	211,670	77	1.1	2	0.2	214,681	77	1.1	4	0.3
전 국	18,620,203	6,800	100.0	1,294	100.0	19,005,339	6,800	100.0	1,202	100.0

주: 1) 행정자치부 2007년 기준

2) 행정자치부 2008년 기준

- 사전조사의 지역별 조사 세대수 비율 및 간이조사, 사전+간이조사에 대한 지역별 조사 세대수 표본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음

<표 3-2> 추석 연휴 지역별 조사 세대수(사전조사, 간이조사)

단위: 세대수, %

구 분	전체 세대수 <sup>1)</sup>	2009년 추석(사전조사)				2009년 추석(간이조사)				2009년 추석(사전+간이조사)			
		표본		유효표본		표본		유효표본		표본		유효표본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서울특별시	4,097,562	1,473	21.7	273	22.8	230	19.2	38	17.5	1,473	21.7	274	22.8
부산광역시	1,311,724	474	7.0	76	6.3	66	5.5	19	8.8	474	7.0	79	6.6
대구광역시	894,969	322	4.7	79	6.6	56	4.7	18	8.3	322	4.7	79	6.6
인천광역시	1,014,755	362	5.3	90	7.5	73	6.1	16	7.4	362	5.3	90	7.5
광주광역시	513,021	183	2.7	43	3.6	47	3.9	11	5.1	183	2.7	43	3.6
대전광역시	531,682	192	2.8	55	4.6	40	3.3	14	6.5	192	2.8	53	4.4
울산광역시	389,735	138	2.0	38	3.2	23	1.9	5	2.3	138	2.0	38	3.2
경 기 도	4,284,475	1,518	22.3	301	25.1	271	22.6	53	24.4	1,518	22.3	303	25.2
강 원 도	606,950	217	3.2	17	1.4	36	3.0	2	0.9	217	3.2	17	1.4
충청 북도	587,411	209	3.1	32	2.7	24	2.0	4	1.8	209	3.1	32	2.7
충청 남도	812,871	289	4.3	46	3.8	51	4.3	10	4.6	289	4.3	46	3.8
전라 북도	710,550	256	3.8	13	1.1	58	4.8	4	1.8	256	3.8	13	1.1
전라 남도	773,087	280	4.1	17	1.4	48	4.0	2	0.9	280	4.1	17	1.4
경상 북도	1,058,099	381	5.6	48	4.0	83	6.9	7	3.2	381	5.6	49	4.1
경상 남도	1,203,767	429	6.3	65	5.4	86	7.2	14	6.5	429	6.3	65	5.4
제 주 도	214,681	77	1.1	4	0.3	8	0.7	0	0.0	77	1.1	4	0.3
전 국	19,005,339	6,800	100.0	1,197	100.0	1,200	100.0	217	100.0	6,800	100.0	1,202	100.0

주: 1) 행정자치부, 2008년 기준

- 조사표본 추출방법은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 자료조사의 방법과 동일함

## 제2절 사전/간이 설문조사 수행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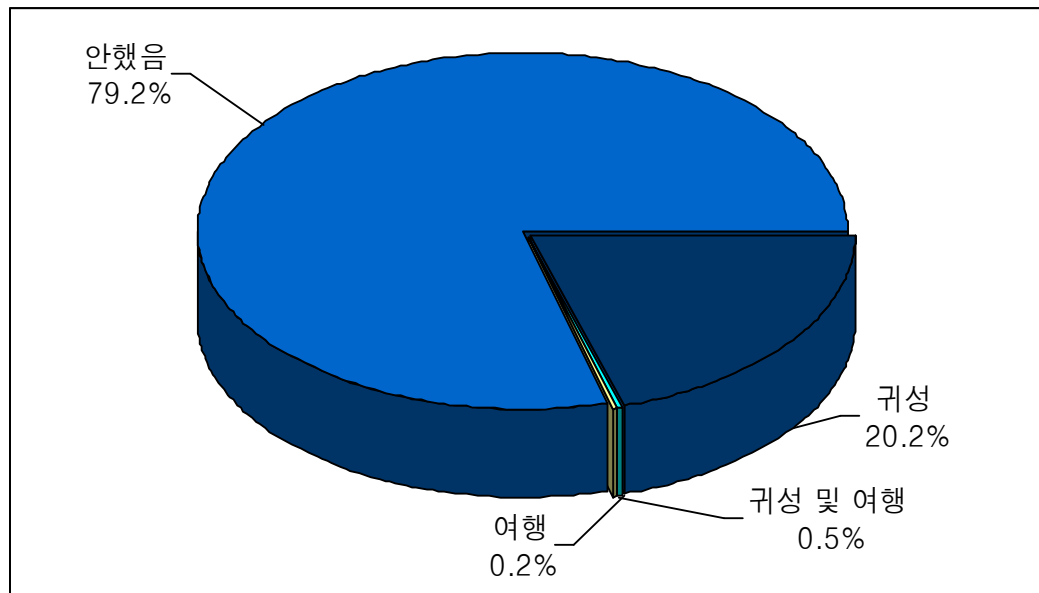
### 1. 사전/간이 설문조사 수행 결과

#### <결과 요약>

- 2009년도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 계획에 대한 사전조사와 간이조사를 취합한 결과(n=6,800), 귀성 및 여행 계획이 있는 가구는 17.6%(귀성 17.3%, 여행 0.3%, 귀성 및 여행객 0.1%미만(0.04%))로 나타남. 이는 사전조사(n=6,800)의 귀성 또는 여행 예정 응답자 17.6%와 대등한 결과임
-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예정 지역(n=1,202)으로는 영남권이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수도권이 23.0%, 충청권이 18.3%, 호남권이 17.7%로 나타남
-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예정일자(n=1,202)는 추석 전날인 10월 2일(금)이 5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추석 당일인 10월 3일(토)이 18.4%, 10월 4일(일)이 13.9%로 나타남
- 추석 귀가시 출발예정일자(n=1,202)는 추석 다음날인 10월 4일(일)이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추석 당일인 10월 3일(토)이 40.1%로 나타남
-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교통수단(n=1,202)은 자가용이 84.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용수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열차(KTX 포함)가 6.8%, 버스(고속버스, 시외버스, 전세/관광버스)가 5.8%로 나타남
-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주 이용 예정 노선(n=748)으로 경부선이 32.0%로 가장 많이 이용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서해안선 15.8%, 중부선 11.5% 순으로 나타남

#### 1) 작년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

- 2009년 설문조사 대상자의 작년도 추석 귀성/여행 여부를 묻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0.9%가 귀성 또는 여행을 다녀왔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인천 포함)와 충청남도가 각각 24.9%와 24.3%로 높게 나타남



<그림 3-1>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의 분포(2008년)

<표 3-3> 출발지역별 작년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

단위: %, 명

구 분		귀성	여행	귀성 및 여행	안했음	모름/무응답	합계
서울특별시	비율	20.3	0.7	0.1	78.8	0.1	100.0
	빈도	299	11	2	1,160	1	1,473
경기도 (인천 포함)	비율	24.6	0.2	0.1	75.1	-	100.0
	빈도	462	4	2	1,412	-	1,880
강원도	비율	11.5	-	-	88.5	-	100.0
	빈도	25	-	-	192	-	217
충청북도	비율	17.2	-	0.5	82.3	-	100.0
	빈도	36	-	1	172	-	209
충청남도 (대전 포함)	비율	24.1	0.2	-	75.7	-	100.0
	빈도	116	1	-	364	-	481
전라북도	비율	5.9	-	0.4	93.8	-	100.0
	빈도	15	-	1	240	-	256
전라남도 (광주 포함)	비율	15.3	0.4	0.2	84.0	-	100.0
	빈도	71	2	1	389	-	463
경상북도 (대구 포함)	비율	20.8	0.1	0.1	78.9	-	100.0
	빈도	146	1	1	555	-	703
경상남도 (부산, 울산 포함)	비율	20.0	0.5	0.4	79.2	-	100.0
	빈도	208	5	4	824	-	1,041
제주도	비율	2.6	-	-	97.4	-	100.0
	빈도	2	-	-	75	-	77
전국	비율	20.3	0.4	0.2	79.2	0.1	100.0
	빈도	1,380	24	12	5,383	1	6,800

## 2) 작년 추석 연휴시 귀성 및 귀가 시기

- 2008년 추석 연휴시 귀성/여행 및 귀가 시기는 연휴기간 내에 출발(귀성/여행)하는 사람 중 연휴기간 내에 귀가했다는 응답이 97.7%(전체 1,281명 중 1,25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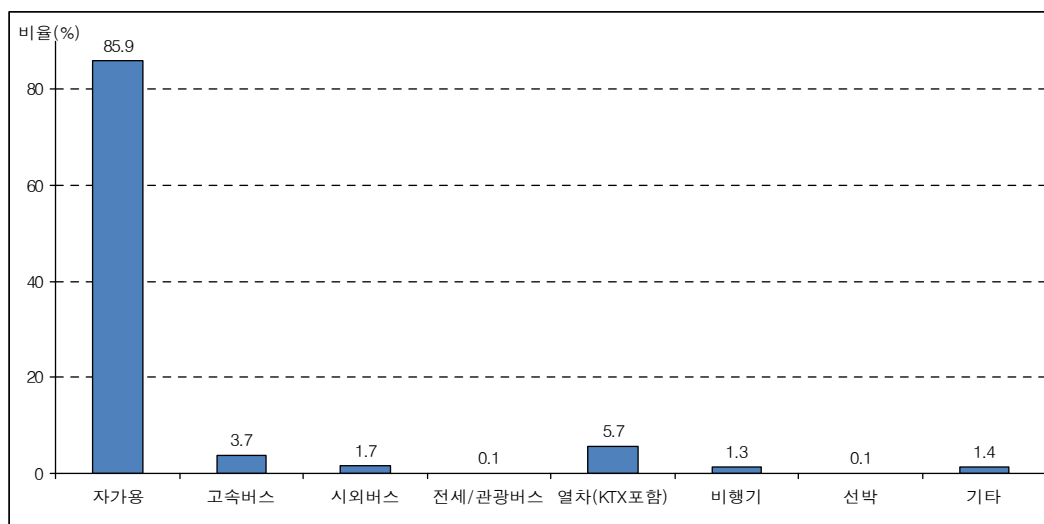
&lt;표 3-4&gt; 작년 추석 연휴시 귀성 및 귀가 시기

단위: %, 명

구 분			귀 가			합 계
			연휴기간 이전	연휴기간 내	연휴기간 이후	
귀성/여행	연휴기간 이전	비율	16.5	52.2	31.3	100.0
		빈도	19	60	36	115
	연휴기간 내	비율	0.2	97.7	2.1	100.0
		빈도	2	1,252	27	1,281
	연휴기간 이후	비율	-	10.0	90.0	100.0
		빈도	-	2	18	20
합 계		비율	1.5	92.8	5.7	100.0
		빈도	21	1,314	81	1,416

## 3) 작년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교통수단

- 2008년 추석 연휴기간의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이 85.9%로 다른 수단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열차(KTX 포함)가 5.7%, 버스(고속버스, 시외버스, 전세/관광버스)가 5.5%로 나타남



&lt;그림 3-2&gt; 작년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교통수단의 분포

-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교통수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자가용과 고속버스의 비율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열차(고속철도 포함)의 비율은 다소 증가함

<표 3-5>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교통수단(연도별)

단위: %, 명

구 분		자가용	고속 버스	시외 버스	전세/ 관광 버스	열차 (KTX 포함)	비행기	선박	기타	모름/ 무응답	합계
08년	비율	85.9	3.7	1.7	0.1	5.7	1.3	0.1	1.4	-	100.0
	빈도	1,217	52	24	2	81	19	1	20	-	1,416
07년	비율	86.6	4.6	1.8	0.2	4.7	1.3	0.2	0.6	-	100.0
	빈도	1,369	73	28	3	75	21	3	9	-	1,581
06년	비율	86.6	3.5	1.9	0.1	5.1	0.9	0.1	1.7	0.1	100.0
	빈도	1,117	45	25	1	66	12	1	22	1	1,290

#### 4) 2009년 추석 귀성 또는 여행 계획

- 2009년 추석 연휴기간동안 17.6%가 귀성 또는 여행할 예정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귀성객이 17.3%, 여행객이 0.3%, 귀성 및 여행객이 0.1%미만(0.04%)으로 나타남
- 올해 귀성 또는 여행 예정자 비율은 17.6%로, 2007년 24.0%, 작년 19.0%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이는 짧은 연휴기간(3일)과 경기침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표 3-6>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연도별)

단위: %, 명

구 분		귀성	여행	귀성 및 여행	안감	미정	합계
09년 사전+간이	비율	17.3	0.3	0.1	80.0	2.4	100.0
	빈도	1,179	20	3	5,437	161	6,800
08년 사전+간이	비율	18.6	0.3	0.1	79.0	2.0	100.0
	빈도	1,268	22	4	5,370	136	6,800
07년	비율	23.6	0.4	0.1	73.5	2.5	100.0
	빈도	1,178	22	1	3,673	125	5,000

- 사전조사 응답 대비 간이조사의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귀성의 경우 약 0.5%(17.3% → 17.8%) 증가하였으며, 안감의 경우 약 1.5%(79.7% → 8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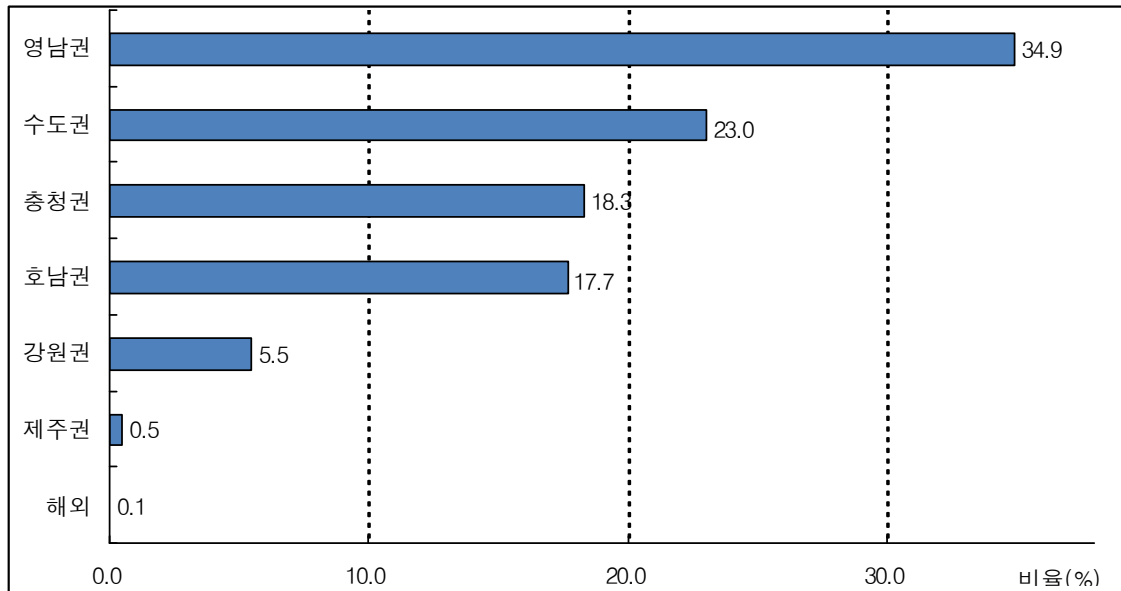
- 사전조사와 간이조사의 응답 일치율은 약 96.3%(1,200명 중 1,155명이 동일한 응답을 함)로 사전조사와 간이조사에서의 귀성여부에 대한 변화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의 분포(사전/간이 교차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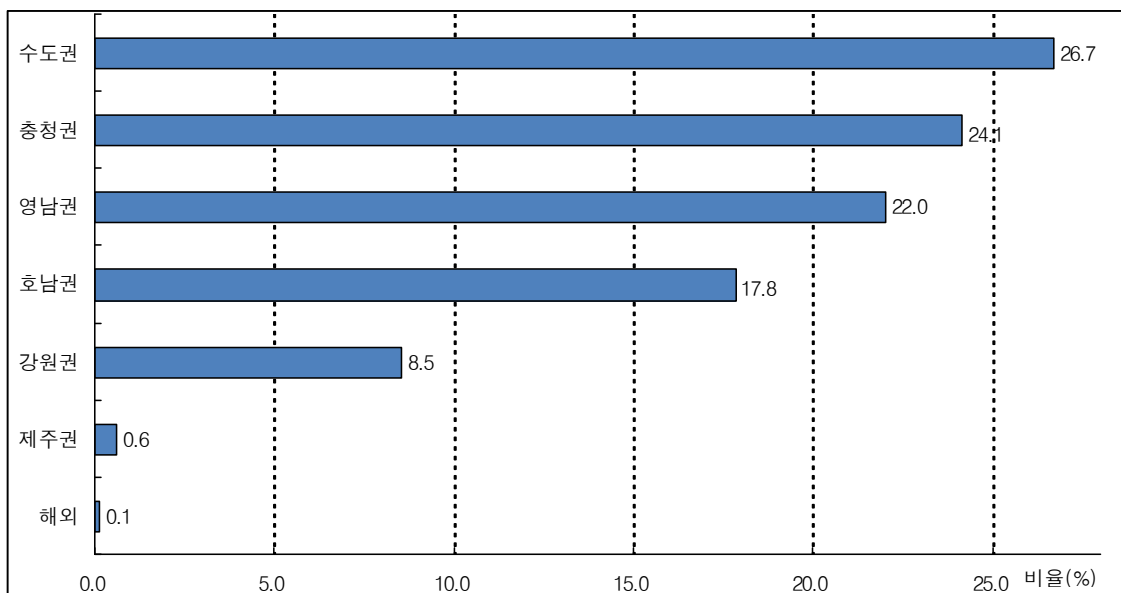
### 5) 2009년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예정 지역

- 2009년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 예정 지역은 영남권이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수도권이 23.0%, 충청권이 18.3%, 호남권이 17.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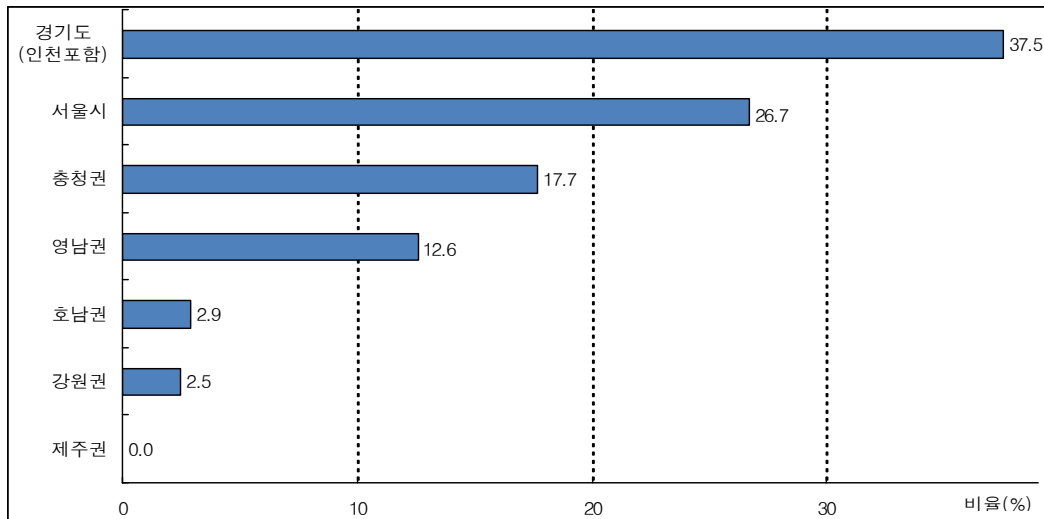
<그림 3-4>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예정 지역의 분포(2009년)

- 수도권 지역 거주자의 귀성 또는 여행 예정 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충청권이 2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남권이 22.0%, 호남권이 17.8%로 나타남



<그림 3-5> 수도권 거주자의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예정 지역의 분포(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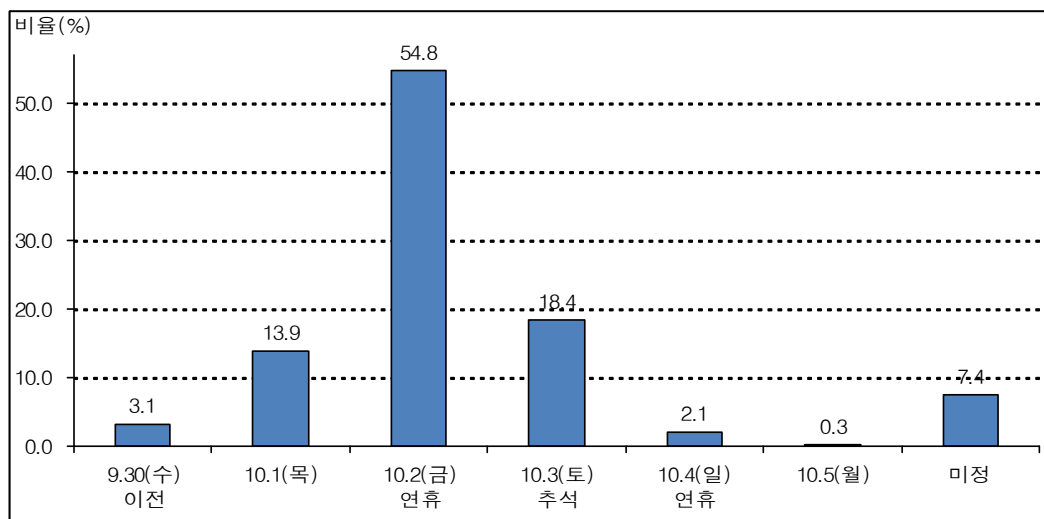
-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으로 귀성 또는 여행을 갈 예정이라는 응답자의 거주지 분포는 수도권이 64.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충청권이 17.7%, 영남권이 12.6%로 나타남



<그림 3-6> 수도권 지역으로의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예정 응답자의 거주지 분포(2009년)

#### 6) 2009년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예정일자

- 2009년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예정일자는 추석 전날인 10월 2일(금) 출발이 5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추석 당일인 10월 3일(토) 출발이 18.4%, 10월 1일(목) 출발이 13.9%로 추석 전날에 귀성길 교통체증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그림 3-7>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예정일자의 분포(2009년)

### 7) 10월 2일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예정 시간대

-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일자가 비율이 가장 높은 10월 2일(추석전날)의 출발 시간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오전 6시~9시(25.5%)와 오전 9시~12시(24.6%)에 출발하겠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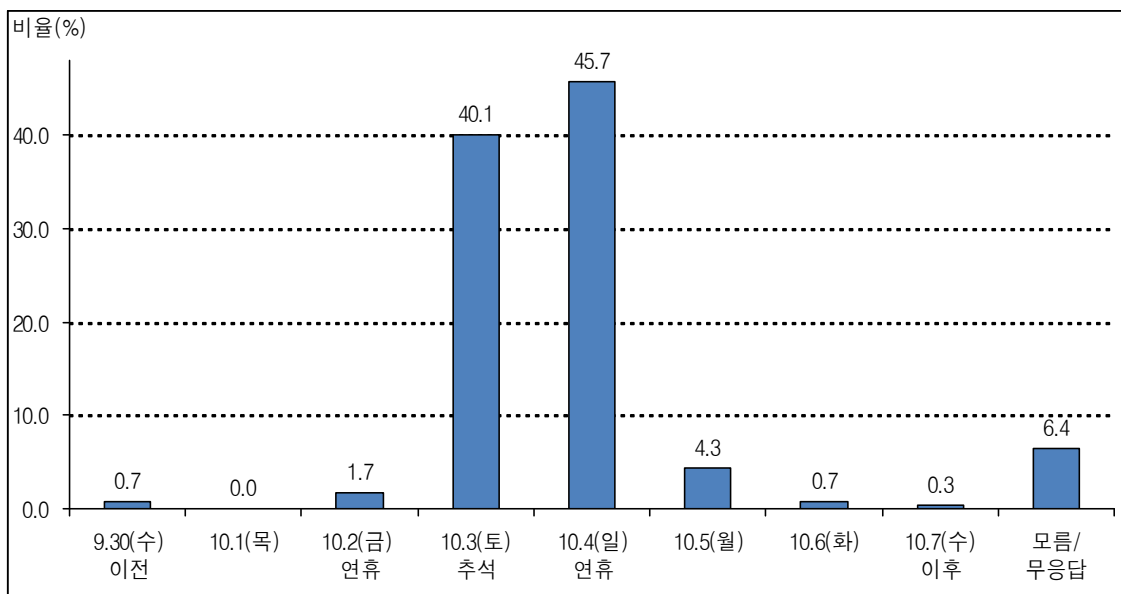
<표 3-7> 귀성일자별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예정 시간대(2009년)

단위: %, 명

구분		0시- 오전6시	오전6시-오 전9시	오전9시-오 후12시	오후12시- 오후6시	오후6시-오 후9시	오후9시-자 정	미정	합 계
10.2 (금, 연휴)	비율	12.7	25.5	24.6	14.7	5.8	4.2	12.4	100.0
	빈도	84	168	162	97	38	28	82	659

### 8) 2009년 추석 귀성 또는 여행후 출발예정일자

- 2009년 추석 연휴기간 중 귀가 또는 여행후 출발예정일자는 추석 다음날인 10월 4일(일) 출발이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추석 당일인 10월 3일(토) 출발이 40.1%로 나타남



<그림 3-8> 추석 귀가 또는 여행후 출발예정일자의 분포(2009년)

## 9) 10월 4일 추석 귀가 또는 여행후 출발예정 시간대

- 귀성 또는 여행후 출발일자가 비율이 가장 높은 10월 4일(추석 당일)의 출발 시간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정오~오후 6시(35.3%)와 오후 6시~오후 9시(11.8%)에 출발하겠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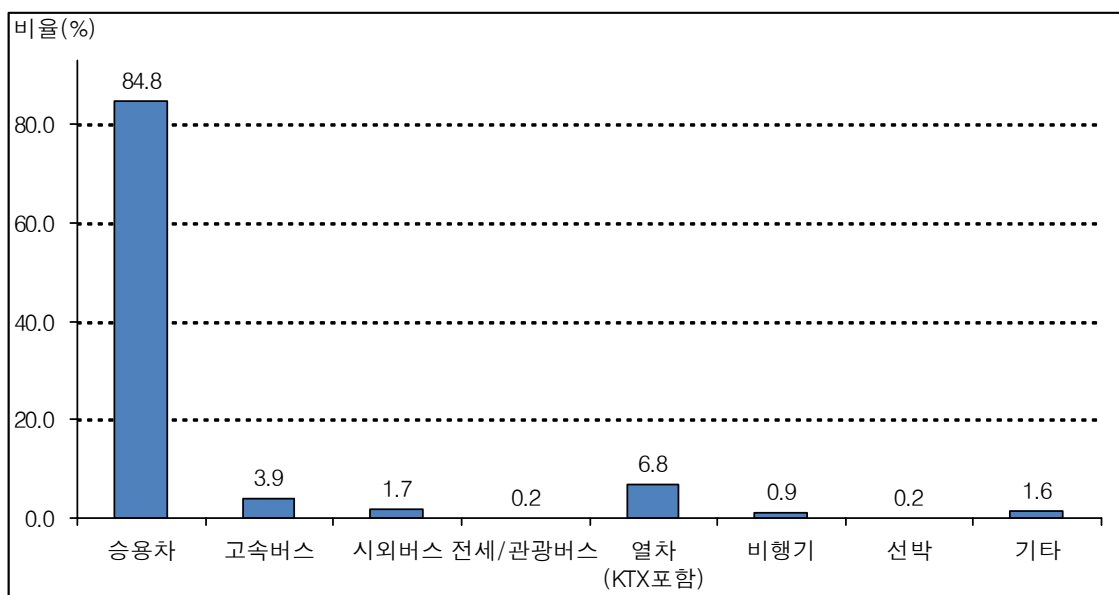
&lt;표 3-8&gt; 귀가일자별 추석 귀가 또는 여행후 출발예정 시간대(2009년)

단위: %, 명

구분	자정 ~오전6시	오전6시 ~오전9시	오전9시 ~정오	정오 ~오후6시	오후6시 ~오후9시	오후9시 ~자정	미정	합계
비율	4.4	8.2	17.1	35.3	11.8	8.2	14.9	100.0
빈도	24	45	94	194	65	45	82	549

## 10) 2009년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교통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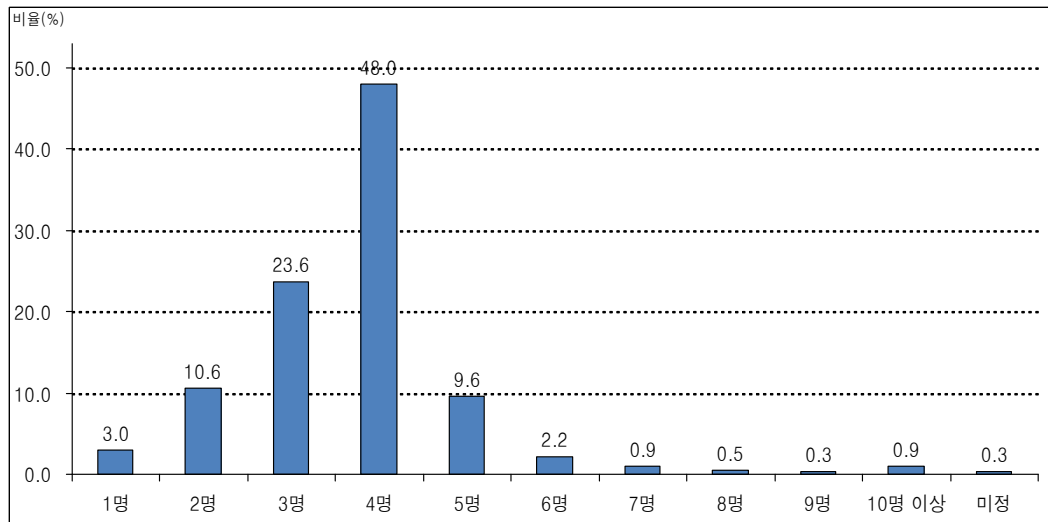
- 2009년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이 84.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용수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열차(KTX 포함)가 6.8%, 버스(고속버스, 시외버스, 전세/관광버스)가 5.8%로 나타남



&lt;그림 3-9&gt;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이용 교통수단의 분포(2009년)

## 11) 2009년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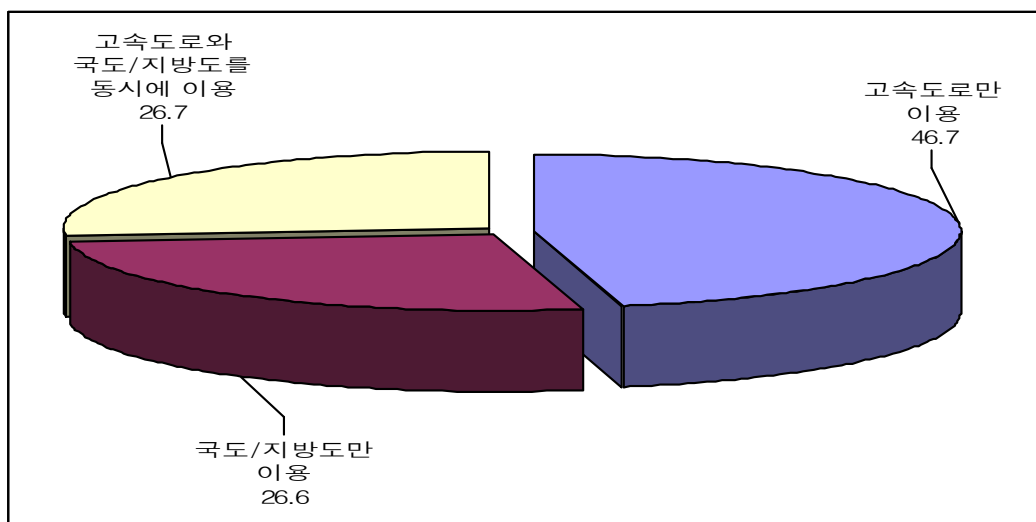
- 2009년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본인 포함)는 4명이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명이 23.6%, 2명이 10.6%로 나타남



&lt;그림 3-10&gt;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의 분포(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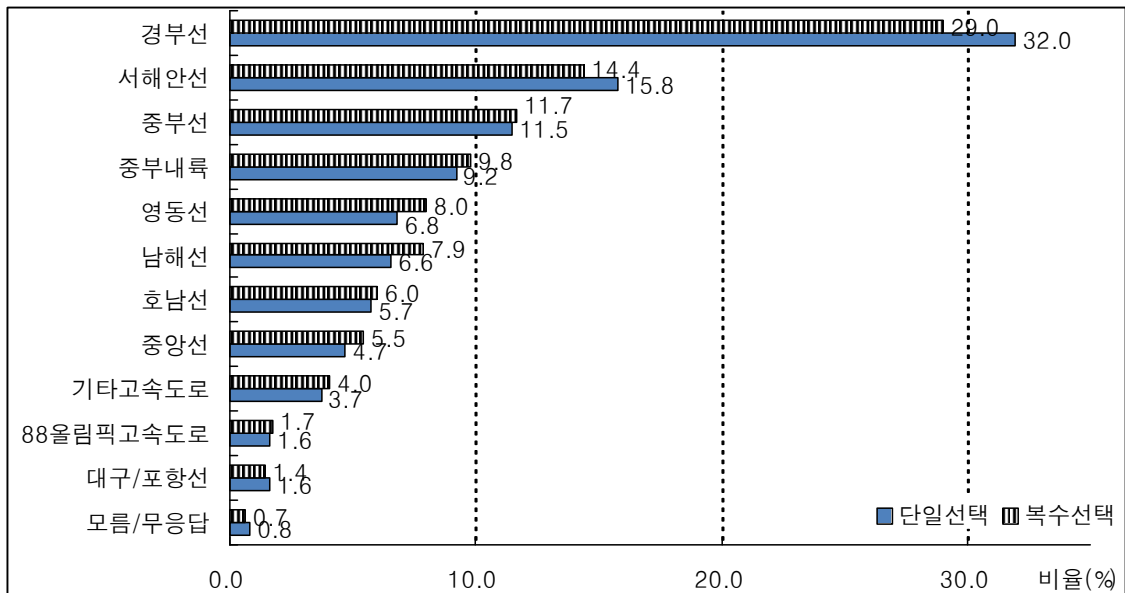
## 12) 2009년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도로

- 2009년 추석 연휴기간의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도로는 고속도로만 이용할 경우가 46.7%, 국도/지방도는 26.6%, 둘 다 이용할 경우는 26.7%로 나타남



&lt;그림 3-11&gt;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도로의 분포(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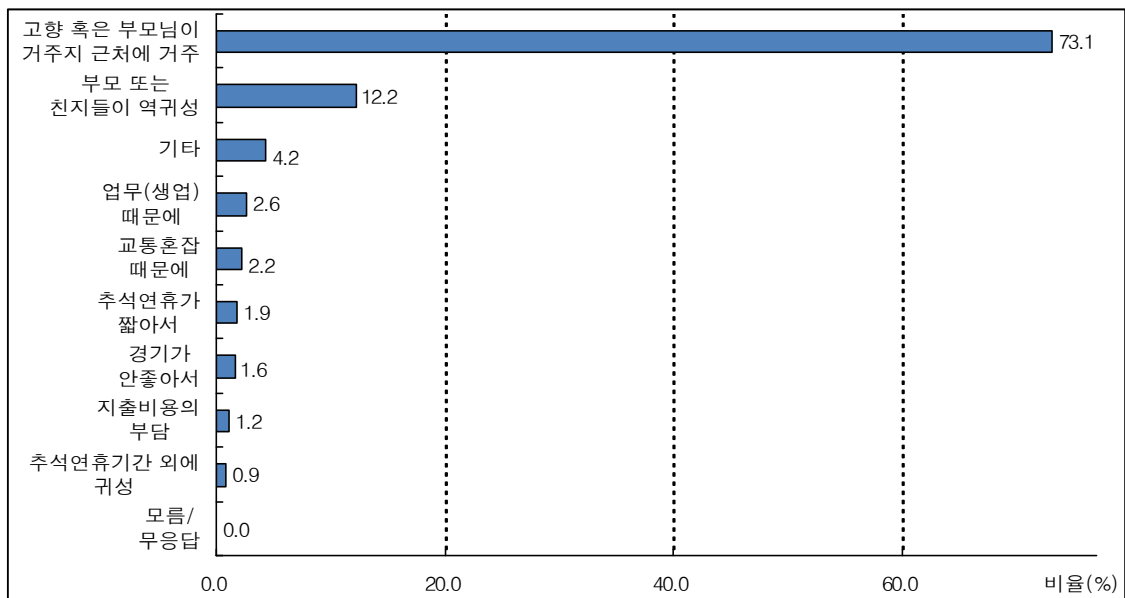
- 고속도로 이용자의 주 이용노선(단일선택)은 경부선이 32.0%로 가장 많이 이용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해안선이 15.8%, 중부선 11.5%의 순으로 나타남
- 또한 고속도로 이용노선 설문시 주 이용도로 뿐만 아니라, 이용할 모든 도로에 대해 복수 응답할 경우 경부선, 서해안선, 중부선이 각각 29.0%, 14.4%, 11.7%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12>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고속도로 이용 예정 노선의 분포(2009년)

## 13) 2009년 추석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없는 이유

- 2009년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없는 이유는 응답자의 73.1%가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 거주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현재 거주지가 고향은 아니지만, 부모님(또는 친지들)이 역귀성이 12.2%, 업무(생업) 때문이 2.6%로 나타남



&lt;그림 3-13&gt; 추석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없는 이유의 분포(2009년)

## 14) 2009년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대중교통 표 예매 여부

- 2009년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대중교통 표 예매 여부는 모두 예매 못함이 57.9%, 귀성, 귀가 모두 예매가 30.6%로 나타남

&lt;표 3-9&gt;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대중교통 표 예매 여부

단위: %, 명

구분	귀성, 귀가 모두 예매	귀성만 예매	모두 예매 못함	표 필요 없음	미정	합계 <sup>1)</sup>
비율	30.6	3.3	57.9	7.7	0.5	100.0
빈도	56	6	106	14	1	183

주: 1)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대중교통 표 예매 여부에 대한 설문은 대중교통 이용 예정자 한정 문항임

&lt;표 3-10&gt;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대중교통 표 예매 여부 - 교통 수단별

단위: %, 명

구 분		귀성, 귀가 모두 예매	귀성만 예매	모두 예매 못함	표 필요 없음	미정	합계 <sup>1)</sup>
고속버스	비율	14.9	4.3	80.9	-	-	100.0
	빈도	7	2	38	-	-	47
시외버스	비율	10.0	-	80.0	10.0	-	100.0
	빈도	2	-	16	2	-	20
전세/ 관광버스	비율	50.0	-	50.0	-	-	100.0
	빈도	1	-	1	-	-	2
열차 (KTX포함)	비율	48.8	4.9	46.3	-	-	100.0
	빈도	40	4	38	-	-	82
비행기	비율	45.5	-	45.5	-	9.1	100.0
	빈도	5	-	5	-	1	11
선박	비율	-	-	100.0	-	-	100.0
	빈도	-	-	2	-	-	2
기타	비율	5.3	-	31.6	63.2	-	100.0
	빈도	1	-	6	12	-	19
합 계	비율	30.6	3.3	57.9	7.7	0.5	100.0
	빈도	56	6	106	14	1	183

주: 1)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대중교통 표 예매 여부에 대한 설문은 대중교통 이용 예정자 한정 문항임

## 15) 2009년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대중교통 표 예매를 못할 경우 대체 교통수단

- 2009년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대중교통 표 예매를 못할 경우 대체 교통수단으로는 시외/전세 버스, 승용차가 각각 2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lt;표 3-11&gt;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대중교통 표 예매를 못할 경우 대체 교통수단 - 교통 수단별

단위: %, 명

구 분		시외/전세 버스	승용차	귀성/귀가를 포기	기타	미정	합계
고속버스	비율	27.7	34.0	10.6	23.4	4.3	100.0
	빈도	13	16	5	11	2	47
시외버스	비율	25.0	15.0	15.0	40.0	5.0	100.0
	빈도	5	3	3	8	1	20
전세/ 관광버스	비율	-	50.0	50.0	-	-	100.0
	빈도	-	1	1	-	-	2
열차 (KTX포함)	비율	32.9	31.7	12.2	15.9	7.3	100.0
	빈도	27	26	10	13	6	82
비행기	비율	-	9.1	45.5	18.2	27.3	100.0
	빈도	-	1	5	2	3	11
선박	비율	-	50.0	50.0	-	-	100.0
	빈도	-	1	1	-	-	2
기타	비율	15.8	-	10.5	73.7	-	100.0
	빈도	3	-	2	14	-	19
합 계	비율	26.2	26.2	14.8	26.2	6.6	100.0
	빈도	48	48	27	48	12	183

## 16) 2009년 추석 귀성 및 귀가시 교통비용

- 추석 귀성 및 귀가시 예상 교통비용은 09년이 10만 4천원 08년 9만 7천원에 비해 다소 증가되었음
- 귀성/여행별로는 귀성이 평균 10만 1천원, 여행이 27만 9천원, 귀성 및 여행이 12만 7천원임

&lt;표 3-12&gt; 추석 귀성 및 귀가시 교통비용 - 연도별

단위: %, 명, 원

구 분		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합계	평균
09년	비율	20.1	25.2	31.1	13.2	10.4	100.0	104,000
	빈도	241	302	372	158	124	1,197	
08년	비율	20.9	25.2	30.8	11.2	11.9	100.0	97,000
	빈도	226	272	333	121	129	1,0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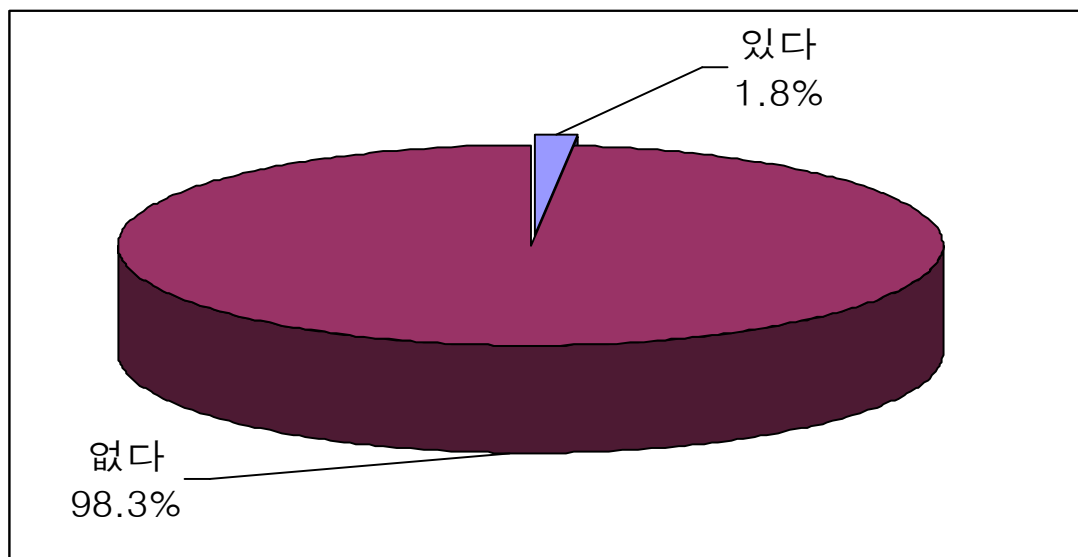
&lt;표 3-13&gt; 추석 귀성 및 귀가시 교통비용(2009년) - 귀성/여행별

단위: %, 명, 원

구 분		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합계	평균
귀성	비율	20.4	25.3	31.5	12.6	10.2	100.0	101,000
	빈도	239	297	369	148	120	1,173	
여행	비율	9.5	19.0	9.5	42.9	19.0	100.0	279,000
	빈도	2	4	2	9	4	21	
귀성 및 여행	비율	-	33.3	33.3	33.3	-	100.0	127,000
	빈도	-	1	1	1	-	3	

## 17) 2009년 추석 연휴기간 이외에 추가적인 휴가 계획 여부 및 휴가일 수

- 추석 연휴기간 이외에 추가적인 휴가 계획이 있는 응답자는 1.8%(전체 6,800명 중 119명)으로 상당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추석연휴와 연관된 추가 휴가 사용이 보편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됨
- 추석 연휴 이전이 평균 1.1일, 추석 연휴 이후가 평균 1.1일로 추석 연휴 이전과 이후의 휴가일 수를 모두 고려한다면 평균 2일 정도의 추가적인 휴가를 계획하는 것으로 분석됨



&lt;그림 3-14&gt; 추석 연휴기간 이외에 추가적인 휴가 계획 여부의 분포(2009년)

## &lt;표 3-14&gt; 추석 연휴기간 이외에 추가적인 휴가 계획일 수

단위: %, 명,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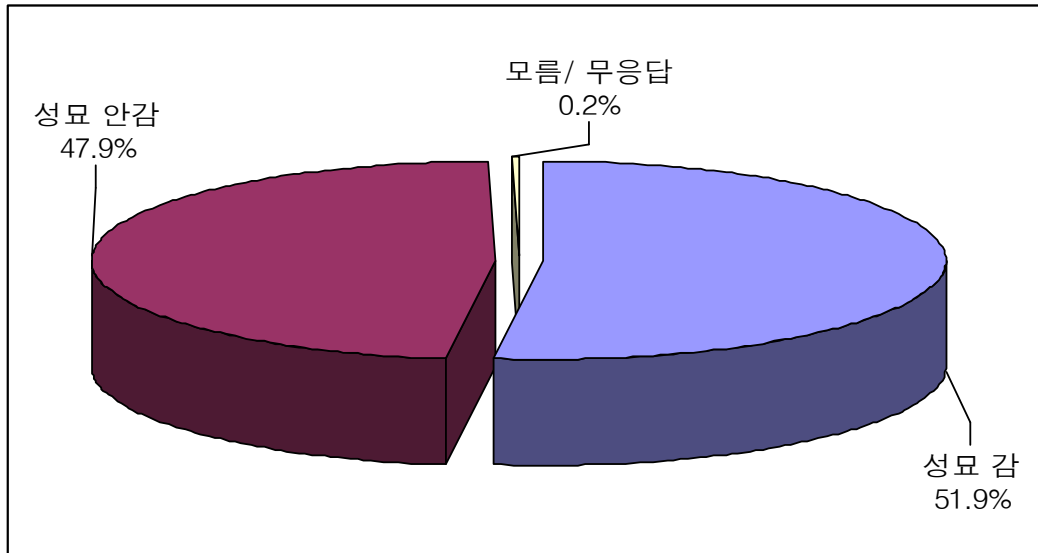
구 분 <sup>1)</sup>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이상	합계	평균
추석 연휴 이전	비율	45.5	23.6	12.7	1.8	7.3	1.8	7.3	100.0	1.1
	빈도	25	13	7	1	4	1	4	55	
추석 연휴 이후	비율	52.7	24.3	17.6	4.1			1.4	100.0	1.1
	빈도	39	18	13	3			1	74	
추석 연휴 이전+이후 <sup>2)</sup>	비율	39.5	31.9	16.0	3.4	3.4	1.7	9.2	100.0	1.1
	빈도	47	38	19	4	4	2	5	119	

주: 1) 추석 연휴기간 이외에 추가적인 휴가 계획일 수에 대한 설문은 사전조사에서만 조사됨

2) 추가적인 휴가 계획일 수는 추석 연휴 이전, 추석 연휴 이후, 추석 연휴 이전+이후 모두 응답한 경우로 구분됨. 따라서 상기 교차분석표의 추석 연휴 이전+이후의 휴가 계획일 수는 추석 연휴 이전과 추석 연휴 이후의 합계와는 별개의 결과로 해석해야 함

## 18) 2009년 추석 연휴기간 중 성묘 여부

- 전체 응답자(6,800명) 중 추석 연휴기간 중 성묘를 계획하고 있는 응답자는 51.9%였으며 성묘를 계획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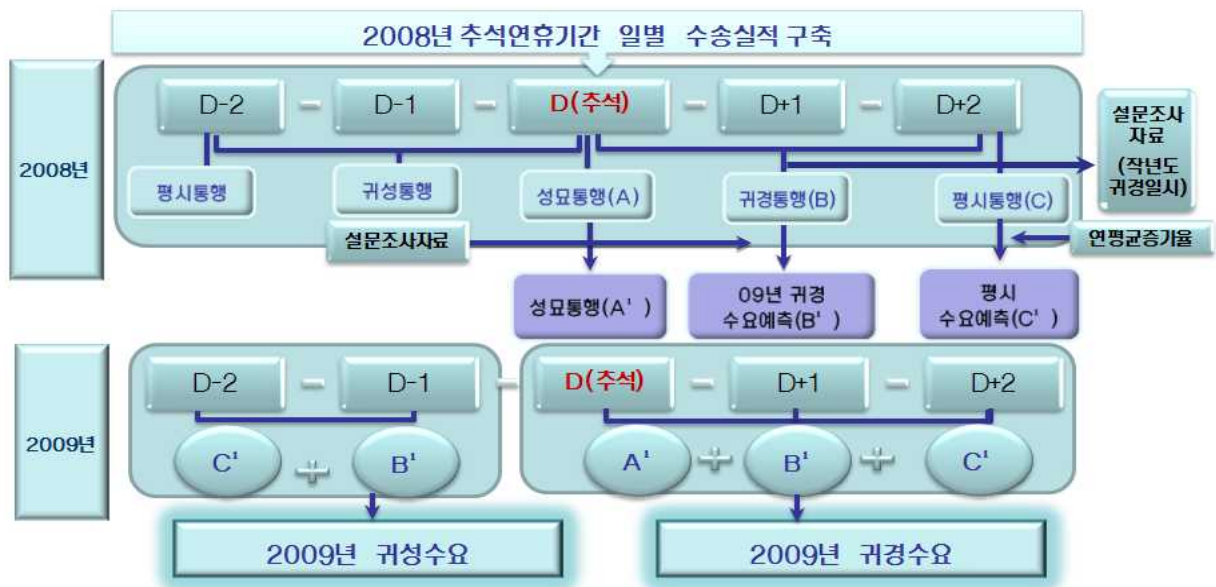


<그림 3-15> 추석 연휴기간 중 성묘 여부의 분포(2009년)

### 제3절 수요예측 방법론 및 수요예측 결과

#### 1. 수요예측 방법론

-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의 교통수단별 수송실적 수집 및 수요예측기법은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과 동일하며 올해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의 귀성 및 귀경수요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 '08년도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의 통행수요는 추석연휴 이전일인 D-2일은 평상시 통행과 귀성통행이 혼재하며, D-1일부터 D일까지 귀성통행과 추석 당일의 성묘통행과 귀경통행, D+1일은 귀경통행, D+2일은 귀경과 평시통행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함
  - D+2일은 귀경통행과 평상시 통행이 혼재하는데, 설문조사에서 산출되는 일자별 귀경비율을 이용하여 D+2일의 귀경통행을 산출하며, 나머지 통행을 평상시 통행인 것으로 가정함
- 이와 같이, 전년도 일별 수송실적과 설문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전년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의 평상시 통행, 귀성·귀경통행(역귀성 포함), 성묘통행, 친지방문통행 등으로 세분화한 후, 평상시 통행은 전년도 대비 올해의 연평균 증감률을 적용하며, 귀성 및 귀경통행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산출된 전년도 대비 올해의 귀성비율을 적용하고, 성묘통행 및 친지방문통행은 설문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산출함



<그림 3-16>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예측 방법

## 2. 수요예측 결과

- 올해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전국의 지역간 이동인원은 2,566만명(5,286만 통행), 1일 평균 513만명(1,057만 통행)이며, 수도권내 이동인원 포함시는 3,432만명(7,070만 통행), 일평균 686만 통행인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전년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에 비해 0.8% 감소, 평시보다 98.1% 증가(1일 평균 기준)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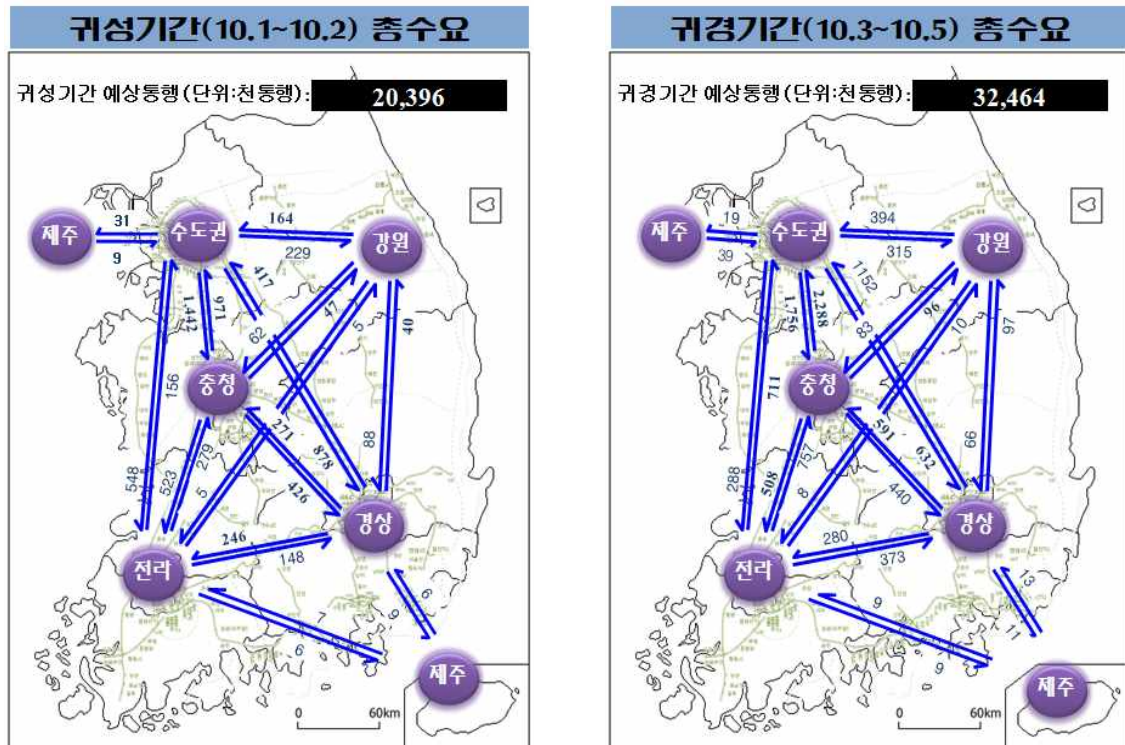
<표 3-15> 2009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수요 예측결과(전국)

단위: 천통행

구 분 교통수단	평시 1일 통 행 량	10.1~10.5 (5일간) 통행량			평시대비 (%)	전년대비 (%)
		1일 평균	총 통행	분담률(%)		
승 용 차	3,614	8,420	42,100	79.6	233.0	99.2
고속버스	104	196	980	1.9	188.9	97.1
시외·전세	1,245	1,385	6,923	13.1	111.2	99.1
철 도	287	455	2,275	4.3	158.3	98.6
항 공 기	48	50	251	0.5	103.7	98.8
여 객 선	40	66	332	0.6	167.6	108.8
합 계	5,338	10,572	52,860	100.0	198.1	99.2

- 주: 1) 승용차의 경우 고속도로로 한정하며, 평시 평균 재차인원은 1.71명(2005년 전국교통조사 결과 중 평일 평균재차인원 적용), 2009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평균 재차인원은 3.67명임  
 2) 수단별 수송실적 자료는 각 기관에서 수집하여 사용함  
 3) 전국의 통행수요를 산정하기 위해 2008년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9.12~9.16)의 수송실적현황과 추석연휴 통행패턴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계산한 통행량임

- 추석 연휴기간 동안 예상되는 지역간 이동은 귀성시(10월 1일~2일, 2일간) 2,040만 통행, 귀경시(10월 3일~5일, 3일간) 3,246만 통행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및 충청권 내부통행이 귀성시 474만 통행으로 전체 귀성 통행의 23.2%이며 귀경시 744만 통행으로 전체 귀경 통행의 22.9%인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및 충청권역의 고속도로 혼잡이 예상됨



&lt;그림 3-17&gt; 추석 연휴 귀성·귀경시 지역간 통행량(예측)

&lt;표 3-16&gt; 추석 연휴 권역간 귀성 기종점통행량

단위: 천통행, %

출발지 \ 도착지	수도권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합계
수도권	3,603	229	1,442	548	878	31	6,732
	53.5	3.4	21.4	8.1	13.0	0.5	100.0
강원	164	499	62	5	88	0	819
	20.0	61.0	7.6	0.7	10.7	0.0	100.0
충청	971	47	1,134	523	426	3	3,104
	31.3	1.5	36.5	16.8	13.7	0.1	100.0
전라	156	5	279	1,348	148	6	1,943
	8.0	0.3	14.4	69.4	7.6	0.3	100.0
경상	417	40	271	246	6,790	9	7,774
	5.4	0.5	3.5	3.2	87.4	0.1	100.0
제주	9	0	1	7	6	1	24
	38.8	1.1	5.0	28.0	24.9	2.2	100.0
합계	5,321	821	3,189	2,677	8,337	51	20,396

주: 귀성통행은 9월 12일,13일(2일간) 통행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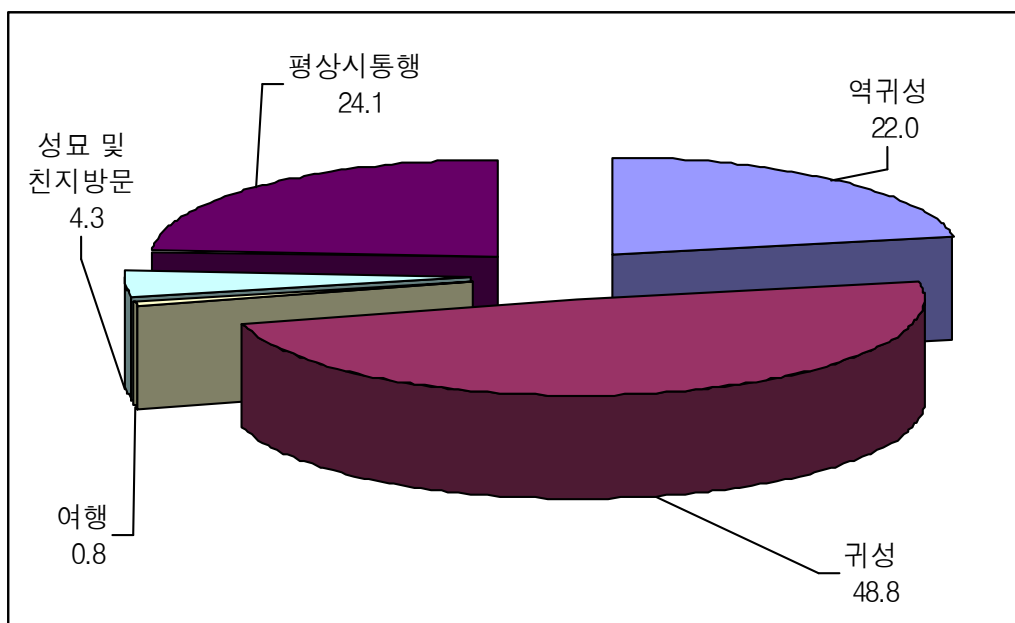
&lt;표 3-17&gt; 추석 연휴 권역간 귀경 기종점통행량

단위: 천통행, %

출발지 \ 도착지	수도권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합계
수도권	5,528	315	1,762	288	632	19	8,544
	64.7	3.7	20.6	3.4	7.4	0.2	100.0
강원	394	823	83	8	66	0	1,374
	28.7	59.9	6.1	0.6	4.8	0.0	100.0
충청	2,288	96	1,908	508	440	2	5,243
	43.6	1.8	36.4	9.7	8.4	0.0	100.0
전라	711	10	757	2,267	373	9	4,127
	17.2	0.2	18.3	54.9	9.0	0.2	100.0
경상	1,159	97	591	280	10,972	11	13,111
	8.8	0.7	4.5	2.1	83.7	0.1	100.0
제주	39	0	4	9	13	1	66
	59.2	0.6	6.3	13.1	19.4	1.4	100.0
합계	10,118	1,341	5,106	3,360	12,496	43	32,4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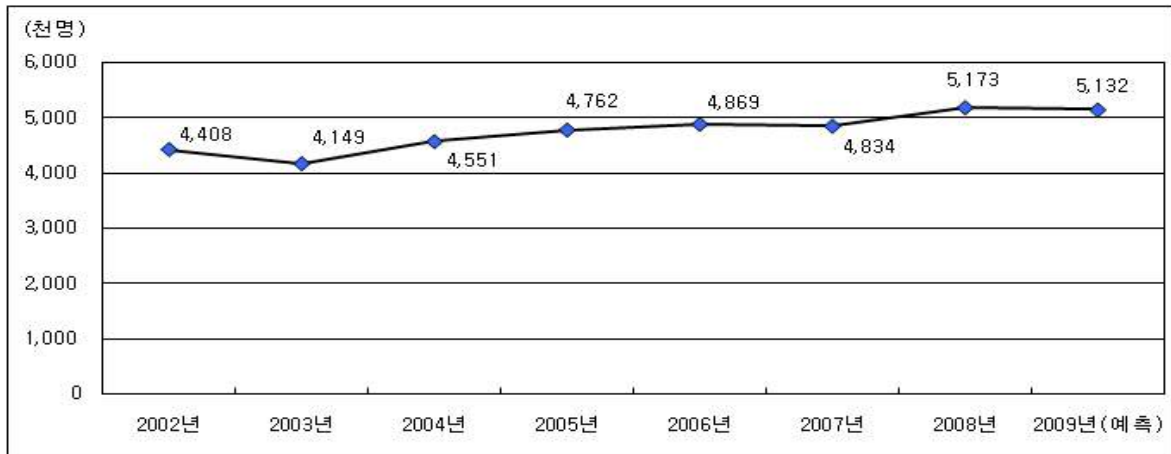
주: 귀경통행은 9월 14일~16일(3일간) 통행임

- 이동목적별로는 귀성 2,579만 통행(48.8%), 평상시 통행 1,276만 통행(24.1%), 역귀성 1,161만 통행(22.0%), 친지방문 및 성묘통행 226만 통행(4.3%), 여행 44만 통행(0.8%)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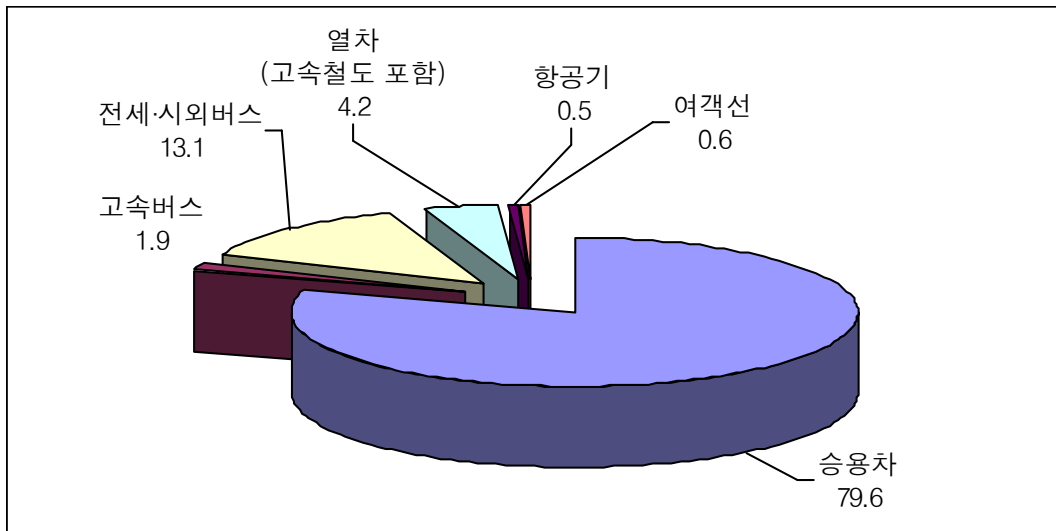
&lt;그림 3-18&gt; 추석 연휴 목적별 이동인원 비율

-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이동인원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이나 올해는 전년대비 약 0.8%의 감소가 예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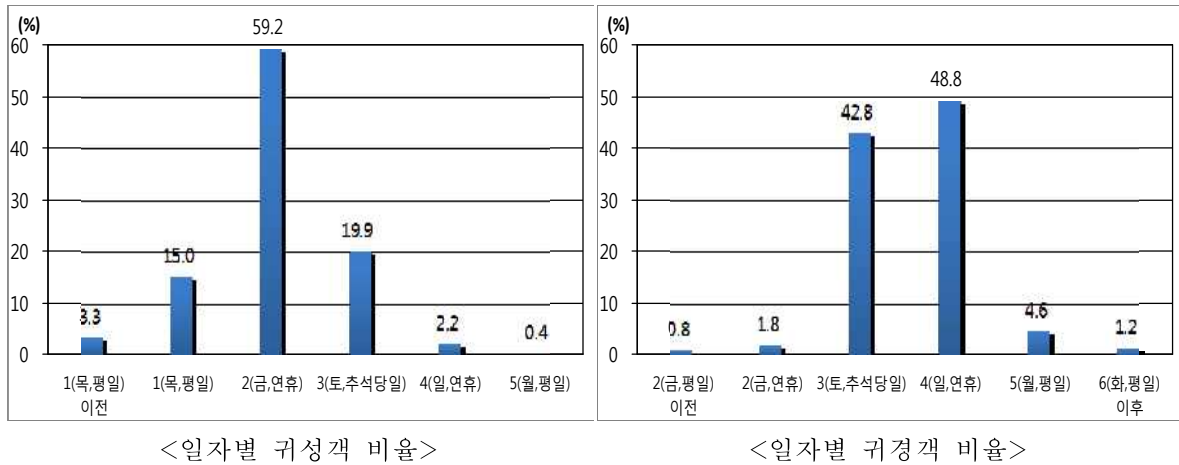
<그림 3-19> 연도별 추석연휴 1일 평균 이동인원 추이(수도권 내 이동인원 제외)

- 추석연휴기간 중 귀성객 등이 이용할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가 79.6%, 시외·전세버스 13.1%, 철도 4.2%, 고속버스 1.9%, 항공기와 여객선이 각각 0.5%와 0.6%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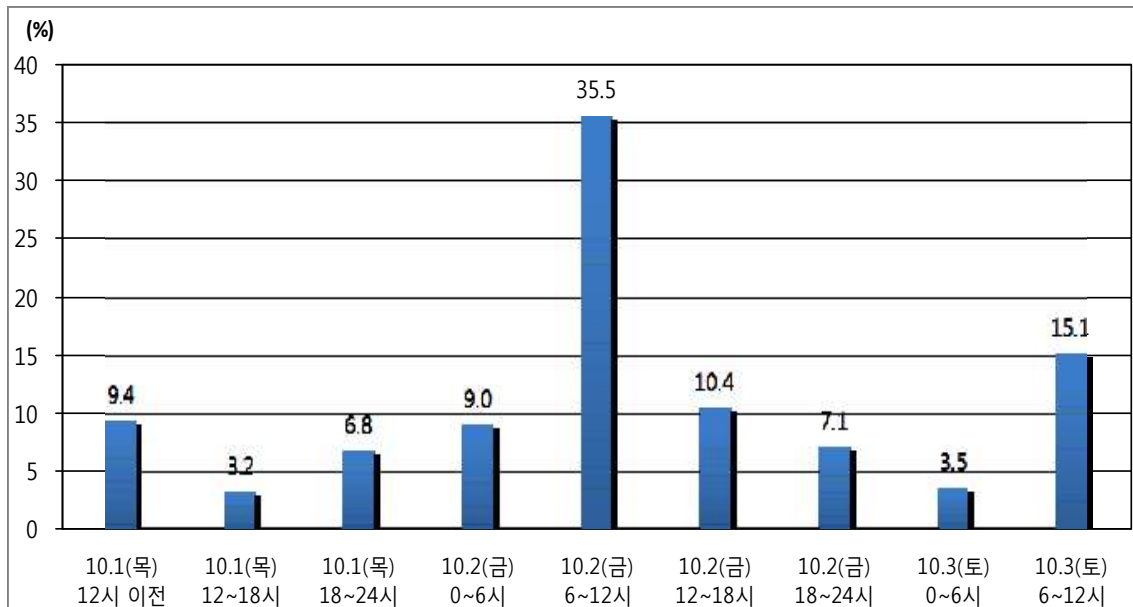
<그림 3-20> 추석 연휴기간 중 교통수단별 분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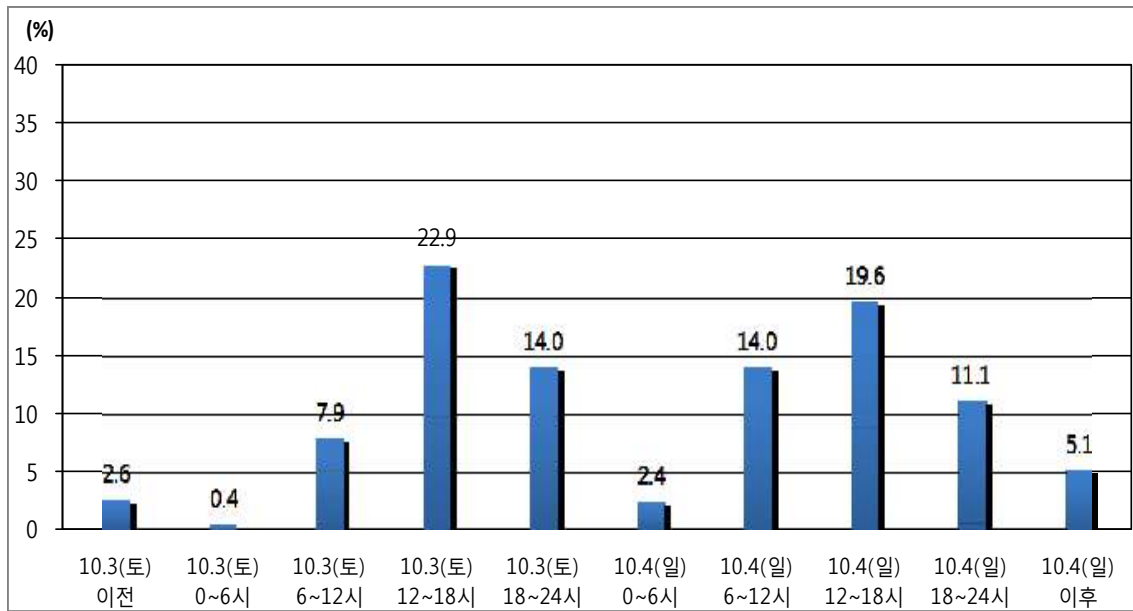
- 금년 추석은 연휴기간(3일)이 짧아 귀성길 및 귀경길의 교통 혼잡이 매우 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날짜별로 보면 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10.2(금)이, 귀경길은 추석 다음날인 10.4(일)이 귀성·귀경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시간대별 귀성·귀경 통행량의 집중도를 감안하면 10.2일(금) 오전과 10.3일(토) 오후 시간대의 교통 혼잡이 예상됨



<그림 3-21> 추석 연휴 일자별 귀성 및 귀경객 비율(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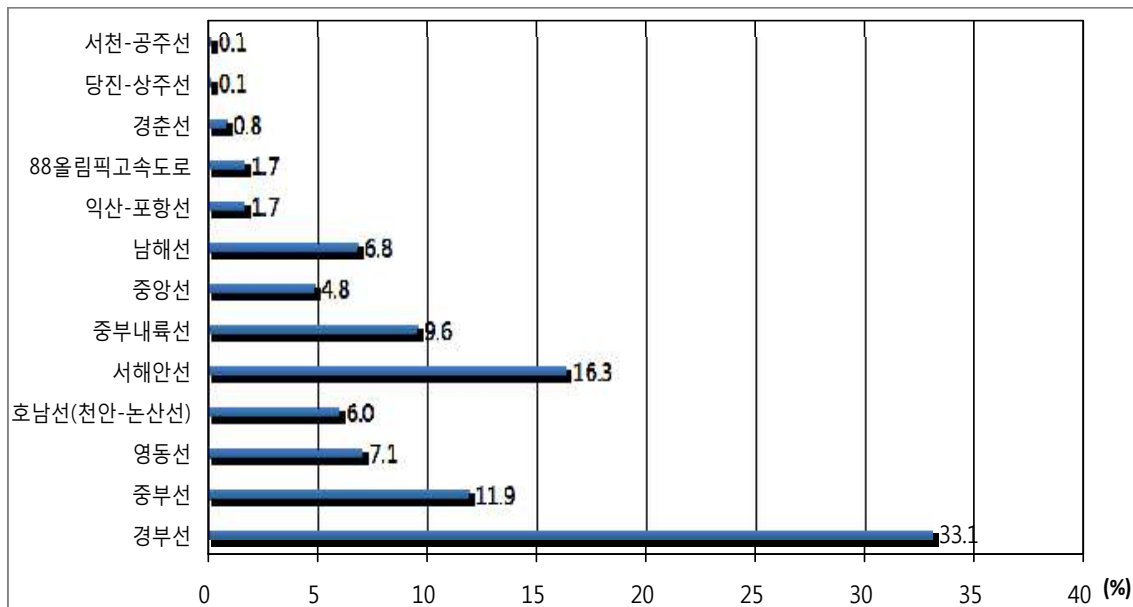
- 출발일·출발시간대별 분포도를 보면 귀성시에는 추석 하루전인 10월 2일 06:00~12:00에 출발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35.5%로 추석 전날 오전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며, 귀경시에는 추석 당일 12:00~18:00에 출발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22.9%로 조사되어 추석날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3-23> 추석 연휴 출발일, 출발시간대별 귀경객 비율(전망)

- 고속도로별로는 경부선이 33.1%로 가장 많이 이용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해안선 16.3%, 중부선 11.9%, 중부내륙선 9.6% 순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4> 추석 연휴 고속도로별 이용객 비율(전망)

## 제4절 사후 설문조사 수행 결과

### 1. 사후 설문조사 수행 결과<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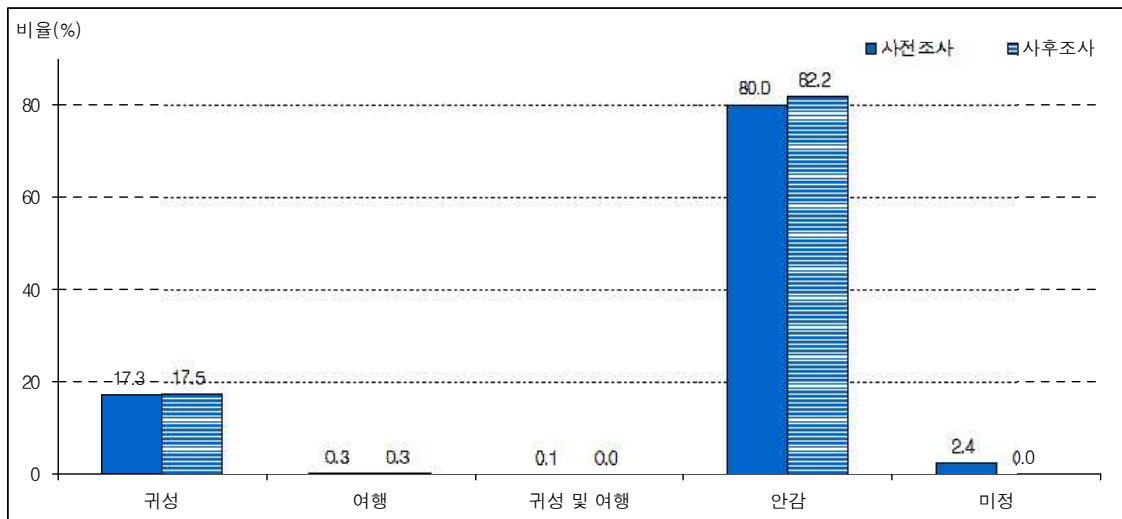
#### <결과 요약>

- 추석 연휴기간 동안 실제로 귀성을 다녀온 경우는 17.5%, 여행을 다녀온 경우는 0.3%, 귀성 및 여행을 같이 다녀온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귀성 및 여행을 다녀오지 않은 경우는 82.2%로 나타났음
  - 사전+간이 조사결과 : 귀성 17.3%, 여행 0.3%, 귀성 및 여행 0.1% 미만
-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지역 살펴본 결과 영남권이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충청권이 19.6%, 수도권이 18.7%, 호남권이 16.8% 순으로 나타남
  - 사전+간이 조사결과 : 영남권 34.9%, 수도권 23.0%, 충청권 18.3%, 호남권 17.7%
-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일자를 살펴본 결과, 추석 전날인 10월 2일(금) 출발한 경우가 47.7%로 높게 나타났으며, 추석 당일인 10월 3일(토) 출발이 26.2%, 10월 1일(목) 추석 연휴 이전에 출발한 경우가 17.8% 순으로 나타남
  - 사전+간이 조사결과 : 추석 전날 54.8%, 추석 당일 18.4%, 추석 다음날 13.9%
- 추석 귀가 또는 여행후 출발 일자는 추석 당일인 10월 3일(토) 출발했다고 한 응답이 44.9%, 추석 다음날인 10월 4일(일) 출발이 40.2%, 추석연휴 이후인 10월 5일(월) 출발이 13.1%, 10월 2일(금) 출발이 1.9%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사전+간이 조사결과 : 추석 다음날 45.7%, 추석 당일 40.1%
-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한 교통수단은 승용차를 주 교통수단으로 이용해서 추석 귀성 및 여행을 다녀왔다는 응답이 91.6%로 높게 나타났으며, 버스(고속버스, 시외버스)를 주 교통수단으로 이용한 경우가 3.7%, 열차(KTX포함)이 2.8% 순으로 나타남
  - 사전+간이 조사결과 : 승용차 84.8%, 열차(KTX 포함) 6.8%, 버스 5.8%
-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고속도로 이용 노선은 경부선을 주 이용 고속도로 노선으로 이용했다는 응답이 26.7%로 높게 나타났으며, 서해안선이 14.7%, 중부선이 10.7% 순으로 나타남
  - 사전+간이 조사결과 : 경부선 32.0%, 서해안선 15.8%, 중부선 11.5%

1) 사후 설문조사 결과의 세부분석에서는 항목별 사후조사결과(n=600)와 사전조사결과(n=6800)를 비교하여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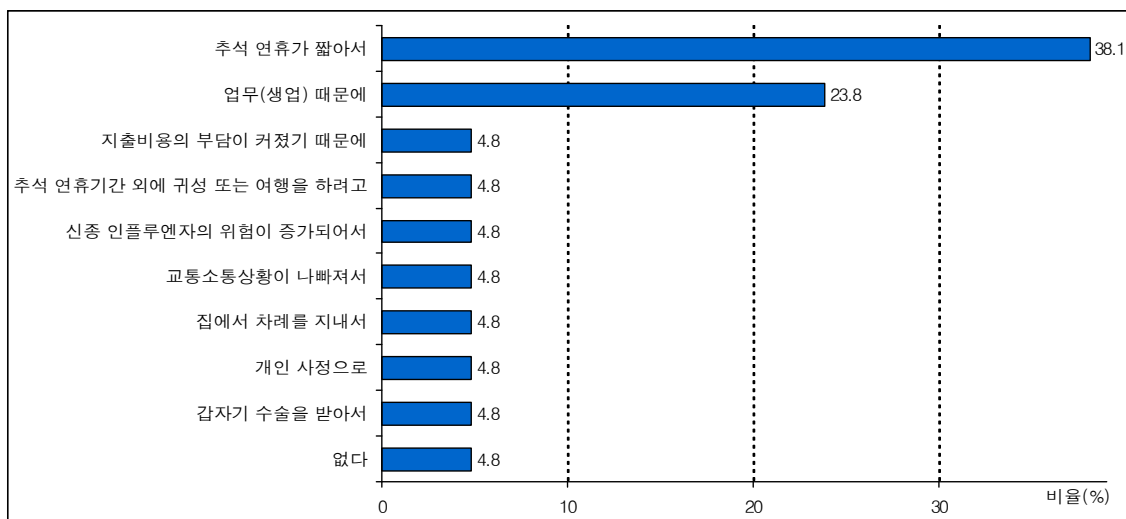
## 1)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

- 추석 연휴기간 동안 실제로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에 대한 사후조사 결과, 귀성을 다녀왔다는 응답이 17.5%로 사전조사시 17.3%에서 증가(+0.2%)했으며, 여행을 다녀온 응답은 사전조사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귀성 및 여행을 다녀오지 않았다는 응답은 82.2%로 사전조사시 80.0%에서 증가(+2.2%)한 것으로 나타남



&lt;그림 3-25&gt;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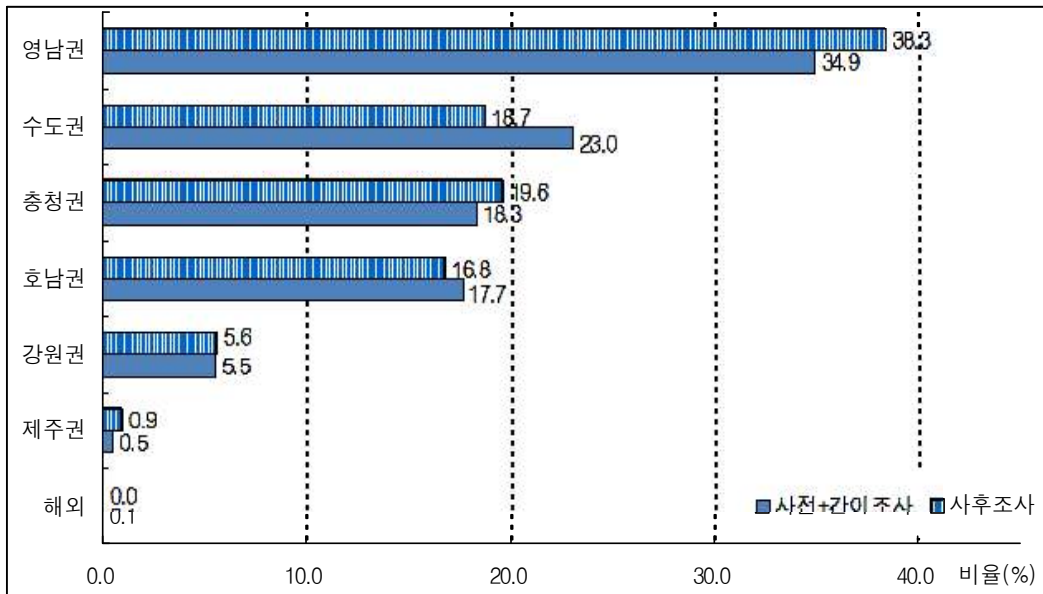
- 사전조사시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있었으나 사후조사 결과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취소된 이유로 추석 연휴가 짧아서가 38.1%, 업무(생업)때문에 23.8% 순으로 나타났음



&lt;그림 3-26&gt; 추석 귀성 또는 여행 계획 취소된 이유

## 2)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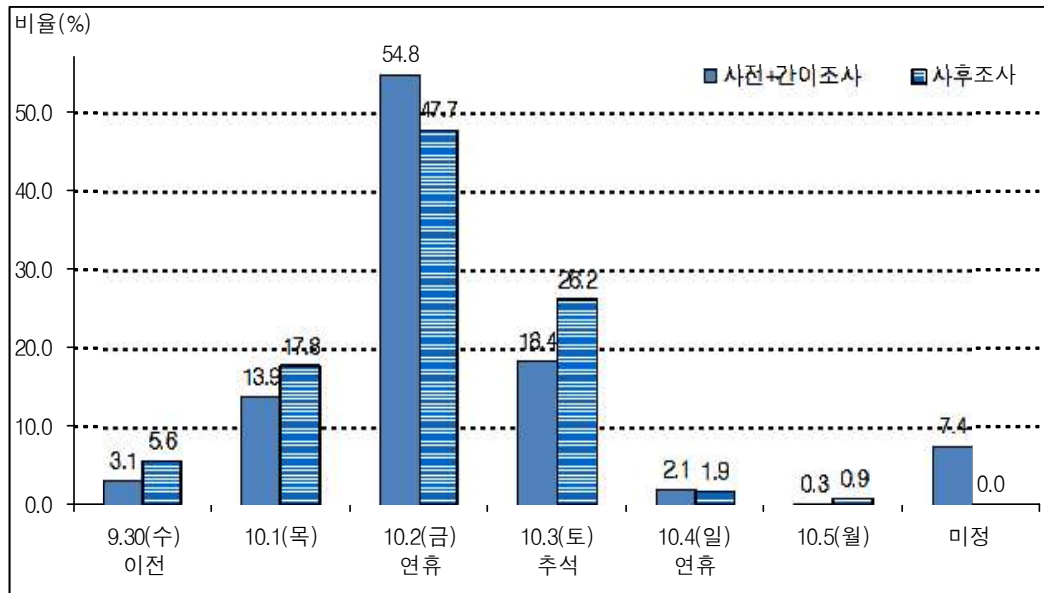
-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지역에 대한 사후조사 결과 영남권이 34.9%에서 38.3%로 증가(+3.4%)하였으며, 충청권 18.3%에서 19.6%로 증가(+1.3%), 수도권은 23.0%에서 18.7%로 감소(-5.3%), 호남권은 17.7%에서 16.8%로 감소(-0.9%)하였음



<그림 3-27>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지역의 분포

## 3)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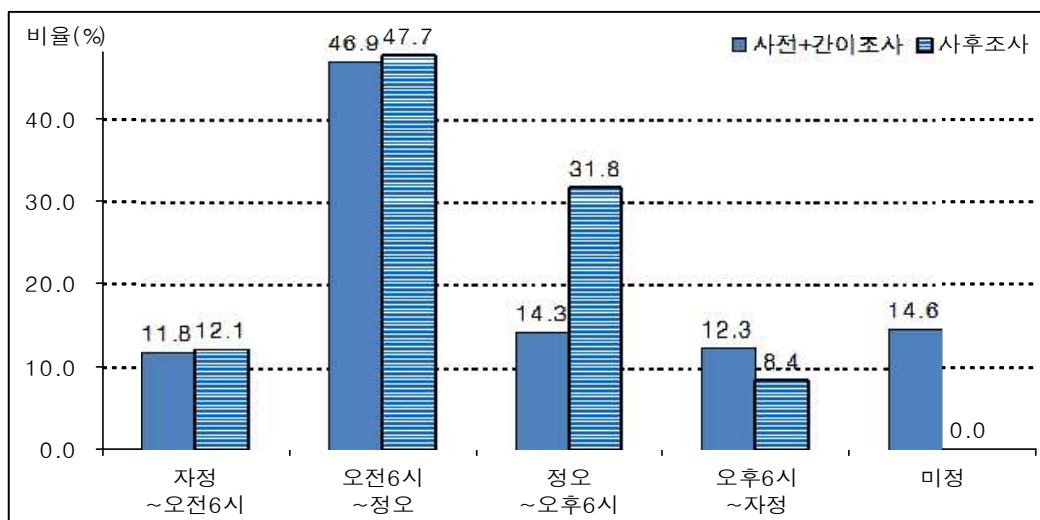
- 출발일자에 대한 조사결과 사전조사에서는 10월 2일 5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10월 3일이 18.4%를 차지하였으나 사후조사에서는 10월 2일에 집중되었던 사람들이 10월 1일과 10월 3일로 분산되면서 10월 2일 출발했다는 응답은 감소, 10월 1일과 10월 3일 출발했다는 응답은 증가하여 사전조사 대비 사후조사에서 분산되어 출발한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3-28>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일자의 분포

#### 4)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시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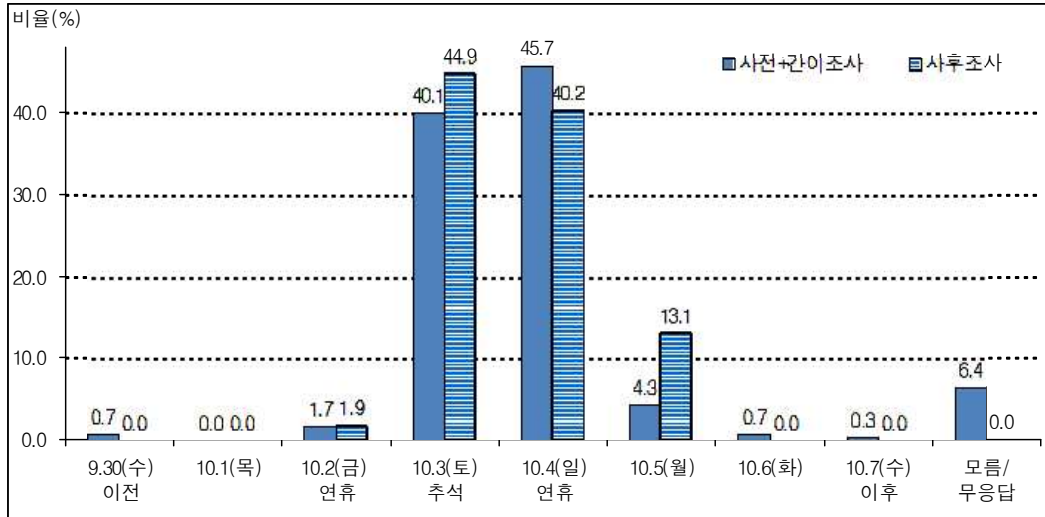
-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시간을 살펴본 결과,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모두 오전 6시 ~ 정오의 비율이 46.9%, 4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조사에서는 정오~오후 6시에 출발한 사람의 비율이 큰폭으로 증가하였음



<그림 3-29>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시간대의 분포

### 5) 추석 귀가 또는 여행후 출발 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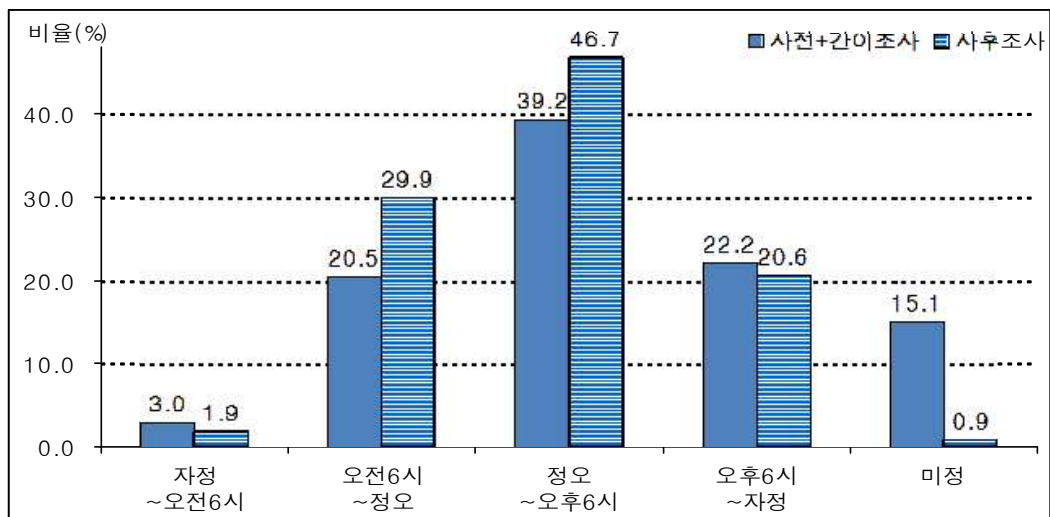
- 추석 귀가 또는 여행후 출발 일자를 살펴본 결과, 추석 당일인 10월 3일 출발했다는 응답은 증가, 추석 다음날인 10월 4일 출발했다는 응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0> 추석 귀가 또는 여행후 출발 일자의 분포

### 6) 추석 귀가 또는 여행후 출발 시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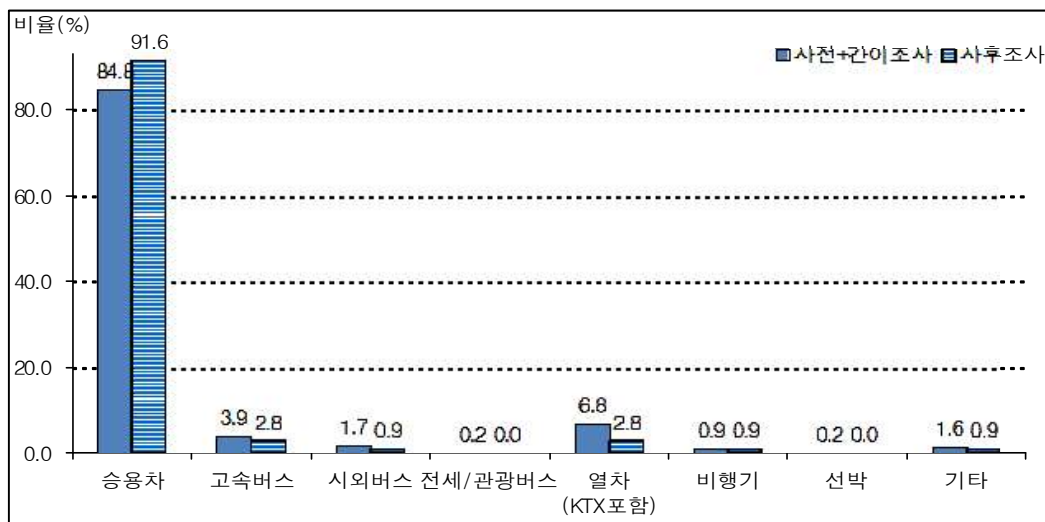
- 추석 귀가 또는 여행후 출발 시간대를 살펴본 결과, 정오 ~ 오후 6시에 출발한다는 응답이 사전·사후조사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조사에서 출발시간대의 집중도는 더욱 높아져 정오~오후 6시는 46.7%, 오전 6시~정오는 29.9%로 나타났음



<그림 3-31> 추석 귀가 또는 여행후 출발 시간대의 분포

## 7)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교통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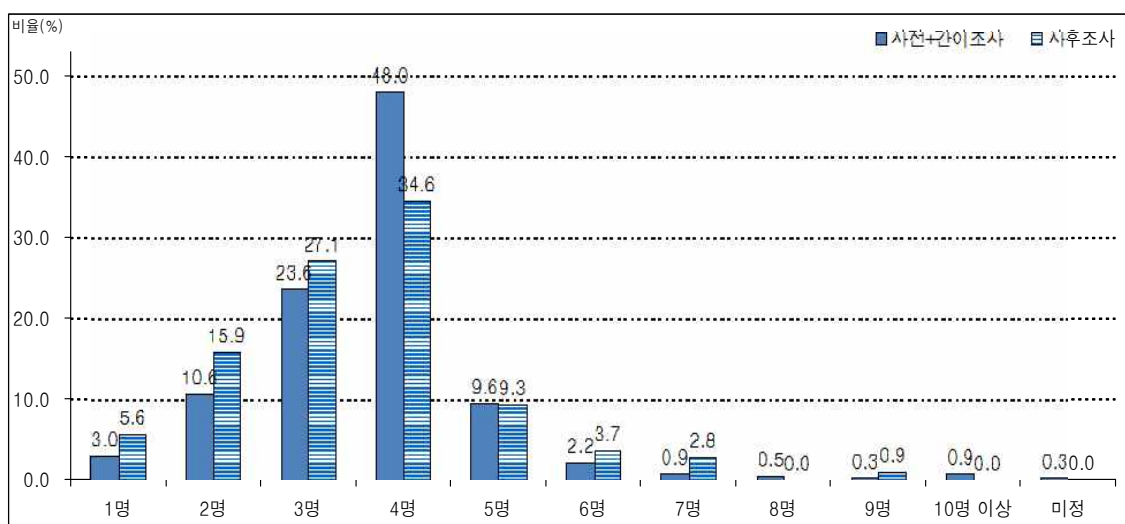
-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한 교통수단을 살펴본 결과, 승용차를 주 교통수단으로 이용해서 추석 귀성 및 여행을 다녀왔다는 응답이 사전·사후조사 모두 84.8%, 91.6%로 높게 나타났음



&lt;그림 3-32&gt;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교통수단의 분포

## 8)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동행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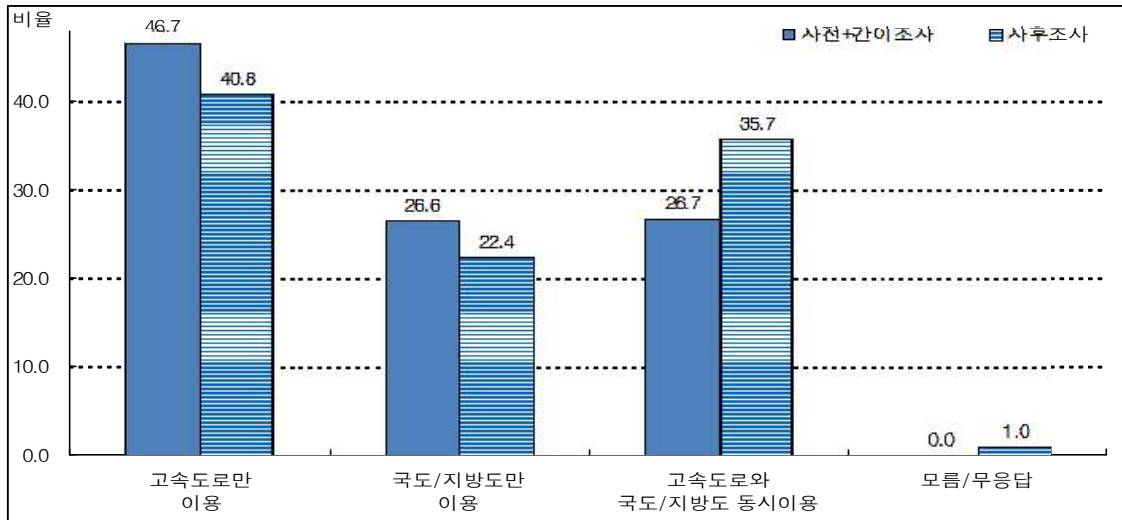
-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동행인수를 살펴본 결과, 사후조사 결과 사전조사 대비 1명 ~ 3명의 경우 소폭 증가하였으며, 4명의 경우는 13.4% 감소하였음



&lt;그림 3-33&gt;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동행인 수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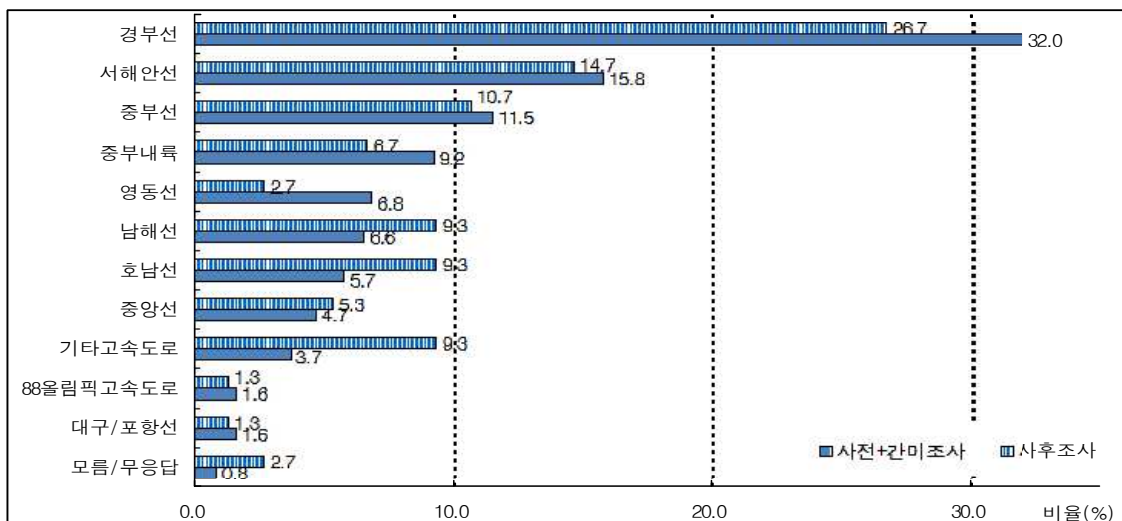
### 9)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도로

-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도로를 살펴본 결과, 사전조사에서는 고속도로만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높았으나 사전조사에서 26.7%를 차지하던 고속도로와 국도/지방도를 동시에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사후조사 결과 35.7%로 나타나 고속도로 상황에 따라 우회도로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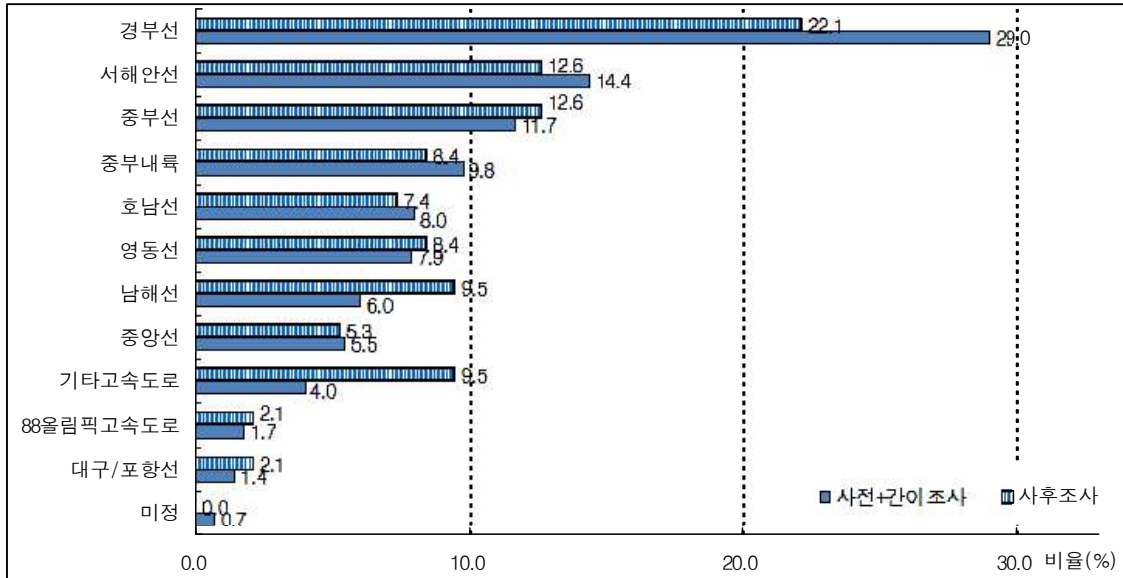
<그림 3-34>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도로의 분포

- 고속도로 이용자의 주 이용노선(단일선택)은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모두 경부선, 서해안선, 중부선순으로 나타났으며, 남해선, 호남선, 중앙선, 기타고속도로의 이용비율이 증가하였음



<그림 3-35>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고속도로 이용 노선의 분포(단일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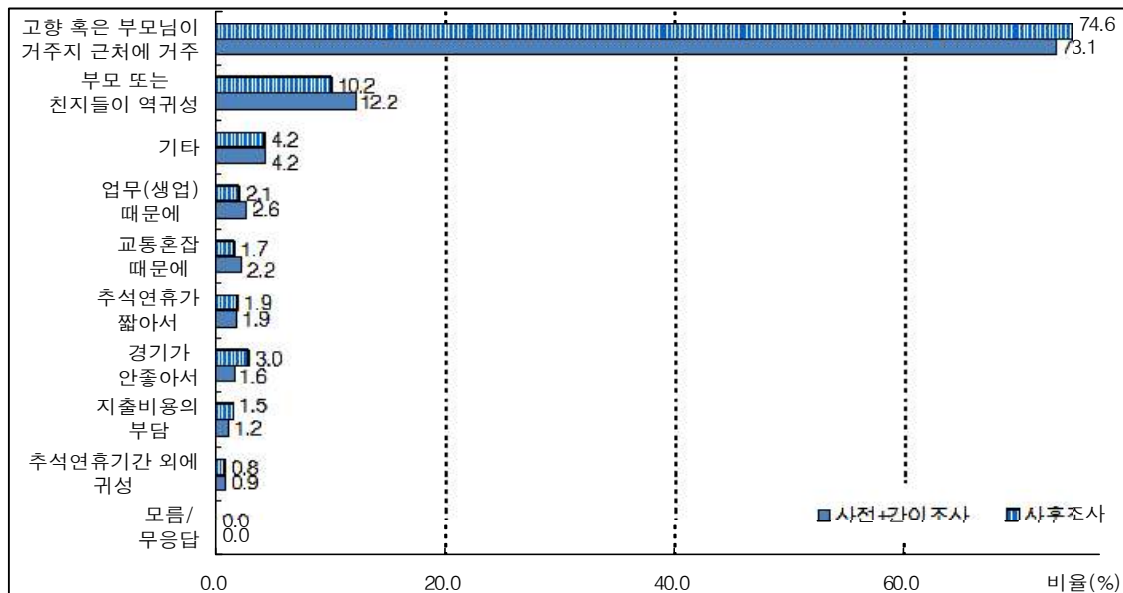
- 고속도로 이용자의 모든 이용노선을 중복선택하여 살펴본 결과 노선선택의 편중이 다소 완화된 것(경부선 29.0%→22.1%, 서해안선 14.4%→12.6%, 중부내륙선 9.8%→8.4%)으로 나타났음



<그림 3-36>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고속도로 이용 노선의 분포(중복선택)

#### 11) 추석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없는 이유

-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을 가지 않은 이유로는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 거주해서가 사전·사후조사 모두 73.1%, 7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그림 3-37> 추석 귀성 또는 여행을 다녀오지 않은 이유

## 11) 추석 귀성 및 귀가시 교통비용

- 추석 귀성 및 귀가시 지출된 교통비용은 사전조사에서는 평균 10만 4천원으로 조사되었으나 사후조사에서는 사전조사보다 9천원 감소한 평균 9만 5천원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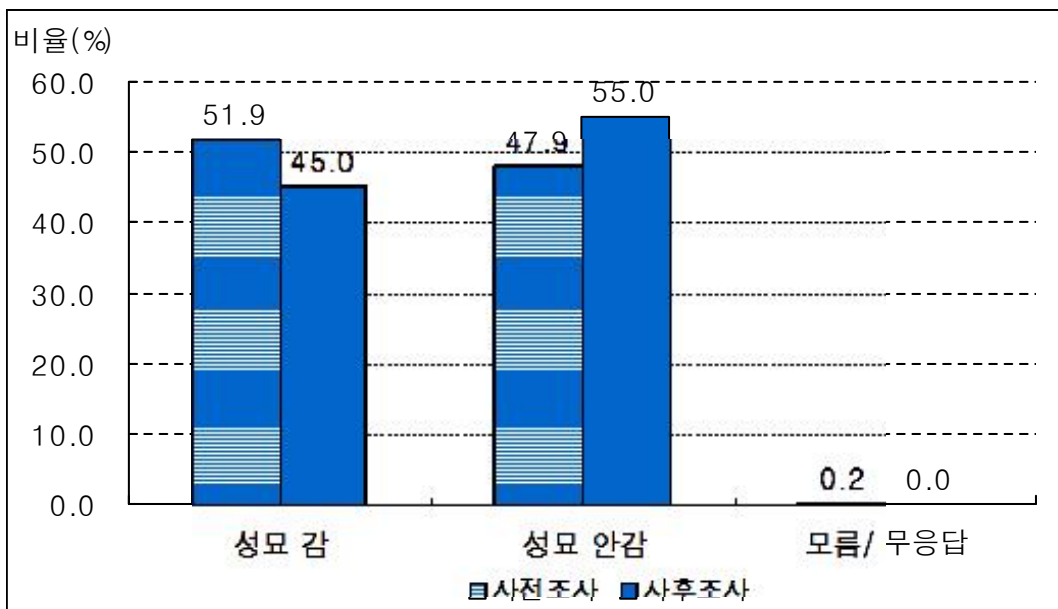
&lt;표 3-18&gt; 추석 연휴 통행량 예측 결과 비교

단위: %, 명, 원

구분		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합계	평균
사전+간이조사	비율	20.1	25.2	31.1	13.2	10.4	100.0	104,000
	빈도	241	302	372	158	124	1,197	
사후조사	비율	22.4	29.0	27.1	10.3	11.2	100.0	95,000
	빈도	24	31	29	11	12	107	

## 12) 추석 연휴기간 중 성묘 여부

- 추석 연휴기간 중 성묘 여부의 경우 사전조사에서는 51.9%가 성묘를 다녀올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로 성묘를 다녀온 응답은 45.0%로 나타남



&lt;그림 3-38&gt; 추석 연휴기간 중 성묘 여부의 분포

## 제5절 사후평가

### 1. 수송실적 자료 수집

- 수송실적 자료 수집 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해운조합,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 수송실적 자료 수집 : 2009년 10월 6일(화)~10월 12일(월)
- 2009년 추석연휴 수송실적자료 수집
  - 7가지 수단 중 승용차부문-TCS 자료 수집(일자별 OD 자료), 단 신규 개통된 민자 고속도로 교통량이 제외되어 있음
  - 고속도로, 철도, 항공, 해운 자료 일별 수송실적자료 수집 (단, 일자별 총량 자료임)

### 2. 사후평가

- 추석연휴기간 총이동인원을 수송실적 자료를 집계하여 산출한 결과, 2009년에는 1.8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2009년 예측결과와 실적결과를 비교하면, 예측치가 2.66%정도 과소추정된 것으로 나타남
  - 대중교통(시외전세버스 제외)의 경우 4.13% 과대추정, 승용차 대수의 경우 7.67% 과소추정되었음
- 예측 교통량보다 실제 교통량이 크게 나타난 것은 미정 응답자가 실제 귀성을 하여 귀성비율이 약간 증가한 설문조사 결과와 현실의 결과에서의 차이에 기인한 것과 2008년 대비 2009년의 평시 교통량이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평상시 통행량 자체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표 3-19> 추석 연휴 통행량 예측 결과 비교

구분	실적			예측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가율	2009년	실적대비 수요 예측 오차율
총통행량	53,281,012	54,268,406	1.9%	52,860,205	-2.6%
총이동인원	25,864,569	26,343,886	1.9%	25,660,294	-2.6%
대중교통	10,859,508	9,724,575	-10.5%	10,760,321	10.7%
대중교통 (시외전세버스 제외)	3,874,663	3,678,553	-5.1%	3,837,059	4.3%
승용차대수	11,333,408	12,351,056	9.0%	11,471,358	-7.1%

주: 대중교통 중 시외·전세버스 실적은 수집이 불가능하여 TCS 3종 결과를 활용하여 추정

### 가. TCS 자료를 이용한 승용차 통행의 예측·실측 결과 비교

- 교통수요예측 결과를 세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수송실적 기준 분담율이 가장 높은 승용차 수단의 통행수요 예측결과와 한국도로공사의 TCS 자료를 비교 검토함

#### 1) 통행수요 예측치

##### ○ 귀성통행량(승용차)

- 승용차의 귀성 통행량은 전국 약 435만대로 예측되었으며, 전체 통행량 중 경상권에 출발하는 통행량이 40.7%, 경상권으로 도착하는 통행량이 4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각 권역별 발생통행량 대비 내부통행량의 비율을 살펴보면 타 권역에 비해 경상권이 90.1%로 내부통행량이 높게 나타남

<표 3-20> 추석 연휴 귀성통행량 예측치(승용차 개방식 요금소 제외)

단위: 대

구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합계
수도권	806,249	43,909	286,072	90,970	135,225	1,362,425
강원권	27,480	112,992	14,694	1,081	20,865	177,112
충청권	173,960	10,657	255,574	112,334	92,699	645,224
전라권	21,178	946	46,446	295,808	30,231	394,610
경상권	55,243	8,705	55,844	55,391	1,593,943	1,769,126
합계	1,084,109	177,208	658,630	555,585	1,872,964	4,348,496

주: 귀성통행량은 10월 1일~2일 2일간의 통행량을 의미

##### ○ 귀경통행량(승용차)

- 승용차의 귀경 통행량은 전국 약 712만대로 예측되었으며, 전체 통행량 중 경상권에 출발하는 통행량이 42.6%, 경상권으로 도착하는 통행량이 6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각 권역별 발생통행량 대비 내부통행량의 비율을 살펴보면 타 권역에 비해 경상권이 87.1%로 내부통행량이 높게 나타남

<표 3-21> 추석 연휴 귀경통행량 예측치(승용차 개방식 요금소 제외)

단위: 대

구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합계
수도권	1,254,982	59,010	336,027	45,092	89,289	1,784,400
강원권	80,140	189,810	19,712	1,446	14,320	305,427
충청권	466,136	22,689	442,322	94,545	96,402	1,122,093
전라권	116,301	1,819	161,331	512,997	86,110	878,558
경상권	178,559	21,538	130,106	61,809	2,640,221	3,032,233
합계	2,096,118	294,866	1,089,498	715,888	2,926,341	7,122,710

주: 귀경통행량은 10월 3일~5일 3일간의 통행량을 의미

## 2) 수송실적 실측치

## ○ 귀성통행량(승용차)

- 승용차의 귀성 통행량은 전국 약 472만대로 추정되었으며, 전체 통행량 중 경상권에 출발하는 통행량이 39.3%, 경상권으로 도착하는 통행량이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각 권역별 발생통행량 대비 내부통행량의 비율을 살펴보면 타 권역에 비해 경상권이 90.8%로 내부통행량이 높게 나타남

&lt;표 3-22&gt; 추석 연휴 귀성통행량 실측치(승용차 개방식 요금소 제외)

단위: 대

구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합계
수도권	830,155	93,829	294,015	91,515	142,254	1,451,768
강원권	42,085	135,648	10,381	1,127	24,164	213,405
충청권	187,747	11,152	411,305	118,238	89,613	818,055
전라권	20,556	881	50,754	278,142	31,025	381,358
경상권	56,597	8,130	53,226	53,119	1,681,843	1,852,915
합계	1,137,140	249,640	819,681	542,141	1,968,899	4,717,501

주: 귀성통행량은 10월 1일~2일 2일간의 통행량을 의미

## ○ 귀경통행량(승용차)

- 승용차의 귀경 통행량은 전국 약 786만대로 추정되었으며, 전체 통행량 중 경상권에 출발하는 통행량이 41.7%, 경상권으로 도착하는 통행량이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각 권역별 발생통행량 대비 내부통행량의 비율을 살펴보면 타 권역에 비해 경상권이 87.6%로 내부통행량이 높게 나타남

&lt;표 3-23&gt; 추석 연휴 귀경통행량 실측치(승용차 개방식 요금소 제외)

단위: 대

구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합계
수도권	1,341,417	94,727	344,345	42,404	91,547	1,914,440
강원권	132,633	207,925	13,856	1,506	14,932	370,852
충청권	506,381	21,784	696,873	99,022	97,398	1,421,458
전라권	118,378	1,879	181,813	488,975	86,693	877,738
경상권	196,732	17,705	130,920	61,936	2,866,616	3,273,909
합계	2,295,541	344,020	1,367,807	693,843	3,157,186	7,858,397

주: 귀경통행량은 10월 3일~5일 3일간의 통행량을 의미

## 3) 평가결과

## ○ 귀성통행량 평가(예측치/실측치)

- 귀성통행량의 실측치 대비 예측치는 전국 기준 7.8%의 오차율을 보임
- 실측치 대비 예측치를 살펴보면 수도권 → 강원권이 46.8%, 강원권 → 수도권이 65.3%로 타 지역간에 오차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수도권 → 강원권 통행량이 분산된 결과로 판단됨

&lt;표 3-24&gt; 추석 연휴 귀성통행량 평가(예측치/실측치\_승용차 개방식 요금소 제외)

단위: %

구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합계
수도권	97.1	46.8	97.3	99.4	95.1	93.8
강원권	65.3	83.3	141.5	95.9	86.3	83.0
충청권	92.7	95.6	62.1	95.0	103.4	78.9
전라권	103.0	107.3	91.5	106.4	97.4	103.5
경상권	97.6	107.1	104.9	104.3	94.8	95.5
합계	95.3	71.0	80.4	102.5	95.1	92.2

## ○ 귀경통행량 평가(예측치/실측치)

- 귀경통행량의 실측치 대비 예측치는 전국 기준 9.4%의 오차율을 보임
- 수도권 → 강원권의 예측치가 실측치보다 39.6% 작게 예측되어 실측치와 큰 차이를 보였으나, 이 또한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개통의 영향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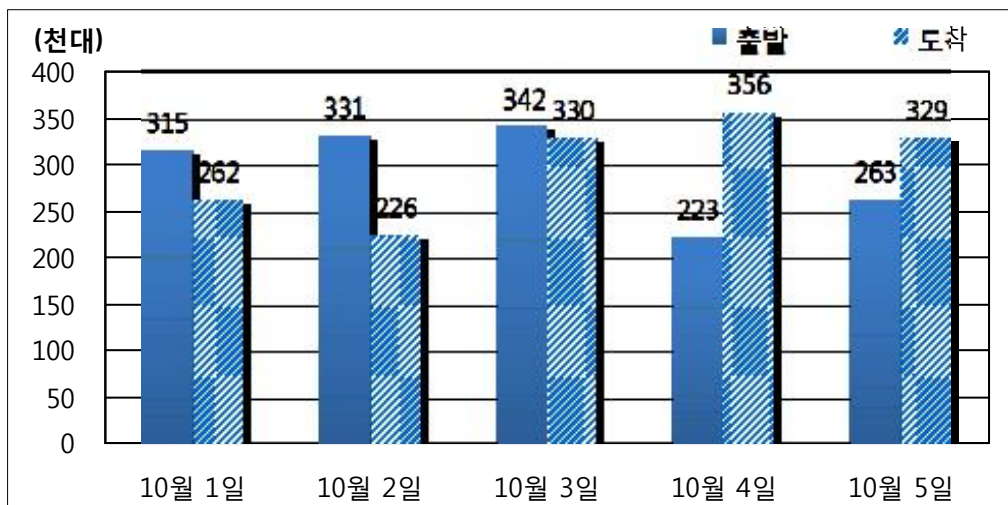
&lt;표 3-25&gt; 추석 연휴 귀경통행량 평가(예측치/실측치\_승용차 개방식 요금소 제외)

단위: %

구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합계
수도권	93.6	62.3	97.6	106.3	97.5	93.2
강원권	60.4	91.3	142.3	96.0	95.9	82.4
충청권	92.1	104.2	63.5	95.5	99.0	78.9
전라권	98.2	96.8	88.7	104.9	99.3	100.1
경상권	90.8	121.7	99.4	99.8	92.1	92.6
합계	91.3	85.7	79.7	103.2	92.7	90.6

## 나. 사후평가

- 2009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10월 1일~5일)은 고속도로 승용차 통행량(전국 지역간 이동기준)이 08년 1,156만대(일평균 231만대)에서, 09년 1,258만대(일평균 252만대)로 전년대비 8.8% 증가하고, 대중교통 통행량은 08년 388만명에서 09년 368만명으로 전년대비 5.1%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고속도로 차량대수가 증가하였음에도 추석(D)을 기준으로 교통량이 일자별로 분산되었으며, 서울-춘천, 서울-용인 등 구간이 신규개통하여 노선대가 다양해지고,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및 이용 증가로 인한 시간대 노선대 분산효과로 분석됨
- 추석연휴 기간 일자별 차량대수 분포를 보면, 귀성, 귀경 통행량이 3일에 걸쳐 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사후설문조사에서도 유사하게 조사되었음 보통 이틀에 집중되던 교통량이 3일로 분산되어 소통이 원활하였음



<그림 3-39> 추석 연휴 일자별 차량대수 분포(지역간 이동 기준)

## 제4장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

---

제1절 설문조사 개요

제2절 사전/간이 설문조사 수행 결과

제3절 수요예측 방법론 및 수요예측 결과

제4절 사후 설문조사 수행 결과

제5절 사후평가



## 제4장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

### 제1절 설문조사 개요

#### 1. 조사개요 및 조사표본 선정

##### 가. 조사 목적 및 개요

- 2010년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10.28(월)~10.216(화); 9일간)의 교통수요 분석 및 예측 결과를 제시함
- 2009년도 설 특별교통수요를 분석 및 예측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사전조사와 간이조사, 사후조사의 단계로 가구설문조사를 실시함
  - 사전설문조사 : 설 연휴 귀성 및 여행 계획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 추출을 통해 6,800세대를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 실시
  - 간이설문조사 : 설 연휴 귀성 및 여행 계획의 변경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설문조사 대상자 중 1,200세대에 대하여 설문조사 실시
  - 사후설문조사 : 설 연휴 귀성 및 여행 계획과 실제 귀성 및 여행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간이설문조사 대상자 중 800세대를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 실시
- 조사개요
  - 사전/간이 설문조사
    - 조사시기 : 사전조사(2010년 1월 15일(금)~19일(화)(4일간, 17일(일) 제외))  
간이조사(2010년 1월 26일(화)~27일(수)(2일간))
    - 조사지역 : 전국 단위 세대(16개 시·도)
    - 조사방법 : 전화조사
    - 조사표본 : 6,800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pm 1.19\%$ )
    - 유효표본 : 사전조사(1,377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pm 2.64\%$ ))  
사전+간이조사(1,361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pm 2.66\%$ ))

- 사후 설문조사

- 조사시기 : 2010년 2월 18일(목) ~ 2월 19일(금) (2일간)
- 조사지역 : 전국 단위 세대(16개 시·도)
- 조사방법 : 전화조사
- 조사표본 : 800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pm 3.46\%$ )
- 유효표본 : 577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pm 4.08\%$ )

## 나. 조사내용

### ○ 사전조사 주요항목

- 작년(2009) 귀성 또는 여행 여부 및 내용

귀성 또는 여행 여부, 귀성 또는 여행을 다녀오지 않은 이유, 귀성 및 귀가 시기, 귀성 및 귀가시 이용 교통수단

- 올해(2010) 귀성 또는 여행 여부 및 내용

귀성 또는 여행 여부, 귀성 계획이 없는 이유, 부모/친지/자녀의 역귀성 지역, 귀성 또는 여행 출발 및 귀가 일정, 귀성/여행 또는 귀가시 출발 시간이 미정인 이유, 귀성 또는 여행 지역, 귀성 또는 여행시 동행 인원, 주 이용 교통수단 및 이용 노선, 대중교통 이용시 표 예매 여부 및 대체 수단, 강설/강우 예보에 의한 계획 변화 여부, 작년/올해 귀성 및 여행 교통비용, 추가적인 휴가 계획 및 일수, 설 연휴 기간 중 성묘 여부 및 지역, 설/설 연휴기간이 주말포함 3일인 경우 최소 5일이 되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 개인 속성(성, 연령, 세대주 연령, 직업)

### ○ 간이조사 주요항목

- 올해(2010) 귀성 또는 여행 여부 및 내용

귀성 또는 여행 여부, 귀성 계획이 없는 이유, 부모/친지/자녀의 역귀성 지역, 귀성 또는 여행 출발 및 귀가 일정, 귀성/여행 또는 귀가시 출발 시간이 미정인 이유, 귀성 또는 여행 지역, 귀성 또는 여행시 동행 인원, 주 이용 교통수단 및 이용 노선, 대중교통 이용시 표 예매 여부 및 대체 수단

- 개인 속성(성, 연령)

○ 사후조사 주요항목

- 올해(2010) 귀성 또는 여행 여부 및 변경 이유

귀성 또는 여행 여부, 귀성 또는 여행을 하지 않은 이유,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을 취소한 이유,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생겨난 이유, 부모/친지/자녀의 역귀성 지역, 귀성 또는 여행 지역, 귀성 또는 여행 지역이 변경된 이유,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및 귀가 일정,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및 귀가 일정이 변경된 이유, 귀성 또는 여행시 주 이용 교통수단 및 이용 노선, 귀성 또는 여행시 주 이용 교통수단 및 이용 노선이 변경된 이유, 설 연휴기간 이외에 추가적인 휴가 계획 및 일수, 귀성 및 귀가를 위한 교통비용, 귀성 및 귀가를 위한 교통비용 변경 이유, 귀성 또는 귀가시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여부, 귀성 또는 귀가시 교통상황 안내정보 도움 정도, 귀성 또는 귀가시 교통상황 안내정보 수신채널, 설 연휴기간 중 성묘 여부 및 지역

- 개인 속성(성, 연령)

다. 조사표본 선정

- 이번 조사는 작년 동기간의 조사 표본수를 참고로 하여, 전국의 대상 세대수를 기준으로 표본율 0.037%로 총 6,800세대를 표본선정 하였음
- 전국규모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08년도 전국 세대수를 기준으로 비례할당 하여, 16개 시·도 6,800개 구·동 단위(대도시 위주, 군단위 이하 제외)로 조사대상을 무작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 지역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① 서울 및 광역시
  - ② 경기도 - 세대수 30만가구 이상 도시(군단위 이하 제외)
  - ③ 그 외 지역 - 해당 도의 세대수 상위 10% 이상 도시(군단위 이하 제외)

&lt;표 4-1&gt; 설 연휴 지역별 조사 세대수(연도별)

단위: 세대, %

구 분	전체 세대수 <sup>1)</sup>	2009년 설(사전조사)				전체 세대수 <sup>2)</sup>	2010년 설(사전조사)			
		표본		유효표본			표본		유효표본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서울특별시	4,035,578	1,473	21.7	271	21.0	4,097,562	1,473	21.7	311	22.6
부산광역시	1,297,533	474	7.0	78	6.0	1,311,724	474	7.0	90	6.5
대구광역시	881,872	322	4.7	98	7.6	894,969	322	4.7	65	4.7
인천광역시	991,248	362	5.3	81	6.3	1,014,755	362	5.3	84	6.1
광주광역시	502,121	183	2.7	48	3.7	513,021	183	2.7	49	3.6
대전광역시	524,516	192	2.8	54	4.2	531,682	192	2.8	59	4.3
울산광역시	379,133	138	2.0	43	3.3	389,735	138	2.0	36	2.6
경 기 도	4,160,453	1,518	22.3	326	25.2	4,284,475	1,518	22.3	403	29.3
강 원 도	592,867	217	3.2	23	1.8	606,950	217	3.2	19	1.4
충 청 북 도	571,953	209	3.1	30	2.3	587,411	209	3.1	33	2.4
충 청 남 도	791,620	289	4.3	70	5.4	812,871	289	4.3	65	4.7
전라 북 도	699,669	256	3.8	22	1.7	710,550	256	3.8	27	2.0
전 라 남 도	764,626	280	4.1	29	2.2	773,087	280	4.1	23	1.7
경 상 북 도	1,042,747	381	5.6	54	4.2	1,058,099	381	5.6	57	4.1
경 상 남 도	1,172,597	429	6.3	62	4.8	1,203,767	429	6.3	55	4.0
제 주 도	211,670	77	1.1	3	0.2	214,681	77	1.1	1	0.1
전 국	18,620,203	6,800	100.0	1,292	100.0	19,005,339	6,800	100.0	1,377	100.0

주: 1) 행정안전부 2007년 기준

2) 행정안전부 2008년 기준

- 사전조사의 지역별 조사 세대수 표본 및 비율, 간이조사, 사전+간이조사에 대한 지역별 조사 세대수 표본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음

<표 4-2> 지역별 조사 세대수(사전조사, 간이조사)

단위 : %, 세대

구 분	전체 세대수 <sup>1)</sup>	2010년 설(사전조사)				2010년 설(간이조사)				2010년 설(사전+간이조사)			
		표본		유효표본		표본		유효표본		표본		유효표본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서울특별시	4,097,562	1,473	21.7	311	22.6	234	19.5	148	20.8	1,473	21.7	309	22.7
부산광역시	1,311,724	474	7.0	90	6.5	85	7.1	52	7.3	474	7.0	90	6.6
대구광역시	894,969	322	4.7	65	4.7	63	5.3	37	5.2	322	4.7	65	4.8
인천광역시	1,014,755	362	5.3	84	6.1	73	6.1	45	6.3	362	5.3	85	6.2
광주광역시	513,021	183	2.7	49	3.6	33	2.8	23	3.2	183	2.7	48	3.5
대전광역시	531,682	192	2.8	59	4.3	46	3.8	35	4.9	192	2.8	58	4.3
울산광역시	389,735	138	2.0	36	2.6	32	2.7	20	2.8	138	2.0	36	2.6
경 기 도	4,284,475	1,518	22.3	403	29.3	314	26.2	201	28.3	1,518	22.3	393	28.9
강 원 도	606,950	217	3.2	19	1.4	25	2.1	9	1.3	217	3.2	20	1.5
충 청 북 도	587,411	209	3.1	33	2.4	26	2.2	14	2.0	209	3.1	31	2.3
충 청 남 도	812,871	289	4.3	65	4.7	67	5.6	44	6.2	289	4.3	65	4.8
전 라 북 도	710,550	256	3.8	27	2.0	36	3.0	12	1.7	256	3.8	27	2.0
전 라 남 도	773,087	280	4.1	23	1.7	28	2.3	5	0.7	280	4.1	21	1.5
경 상 북 도	1,058,099	381	5.6	57	4.1	62	5.2	33	4.6	381	5.6	56	4.1
경 상 남 도	1,203,767	429	6.3	55	4.0	71	5.9	33	4.6	429	6.3	56	4.1
제 주 도	214,681	77	1.1	1	0.1	5	0.4	0	0.0	77	1.1	1	0.1
전 국	19,005,339	6,800	100.0	1,377	100.0	1,200	100.0	711	100.0	6,800	100.0	1,361	100.0

주: 1) 행정안전부, 2008년 기준

- 조사표본 추출방법은 하계휴가 및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자료조사의 방법과 동일함

## 제2절 사전 설문조사 수행 결과

### 1. 사전/간이 설문조사 수행 결과

#### <결과요약>

- 2010년도 설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 여부 결과(n=6,800), 귀성 및 여행 예정자 비율은 19.9%(귀성:19.6%, 여행:0.3%, 귀성 및 여행:0.1%미만)로 나타남 이는 2009년 대비 증가(+1.9%)한 결과임
- 귀성 또는 여행 예정 지역 조사 결과(n=1,361), 영남권이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충청권이 19.4%, 호남권 17.3%로 나타남 이는 2009년 대비 서울시(+3.0%), 경기도(인천포함)(+2.4%) 다소 증가한 반면, 영남권 경우 다소 감소(-5.7%)한 결과임
-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예정 일자 조사 결과(n=1,361), 설전날인 2월 13일(토) 출발이 5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월 12일(금) 출발 22.0%, 설 당일인 2월 14일(일) 출발 17.3%로 설 전날에 귀성길 이동을 계획중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년 조사 또한 설 전날 출발이 높게 나타남
- 귀성 또는 여행후 출발예정 일자 조사 결과(n=1,361), 설 다음날인 2월 15일(월) 출발이 4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설 당일인 2월 14일(일) 출발이 38.4%로 설 전날에 귀성길 이동을 계획중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년 조사 또한 설 당일과 다음날 출발이 높게 나타남
-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교통수단 조사 결과(n=1,361), 자가용이 84.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용수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버스(고속버스, 시외버스)가 6.6%, 열차(KTX 포함)가 6.0%로 나타남 이는 2009년 대비 자가용의 경우 다소 감소(-3.2%)한 반면, 다른 교통수단(고속버스(+1.4%), 시외버스(+0.6%), 열차(KTX포함)(+0.6%), 비행기(+0.2%), 기타교통수단(+0.5%))의 경우 다소 증가한 결과임
- 고속도로 이용시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고속도로 노선 조사 결과(n=844), 경부선이 28.3%로 가장 많이 이용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해안선이 16.5%, 호남선 8.6%의 순으로 나타남

## 1) 작년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

- 연도별 설 귀성, 여행, 귀성 및 여행 비율을 살펴보면, 2008년도(20.4%) 대비 2009년도(12.5%)에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lt;표 4-3&gt;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연도별)

구 분		귀성	여행	귀성 및 여행	안했음	모름/ 무응답	합계
09년	비율(%)	22.5	0.6	0.1	76.8	-	100.0
	빈도(명)	1,531	42	3	5,224	-	6,800
08년	비율(%)	20.4	0.5	0.1	79.0	-	100.0
	빈도(명)	1,389	36	4	5,371	-	6,800
07년	비율(%)	24.4	0.6	-	75.0	-	100.0
	빈도(명)	1,218	32	-	3,749	-	5,000

## 2) 작년 설 연휴시 귀성 및 귀가 시기

- 2009년 설 연휴시 귀성/여행 및 귀가 시기는 연휴기간 내에 출발(귀성/여행)하는 사람 중 연휴기간 내에 귀가했다는 응답이 95.8%(전체 1,299명 중 1,24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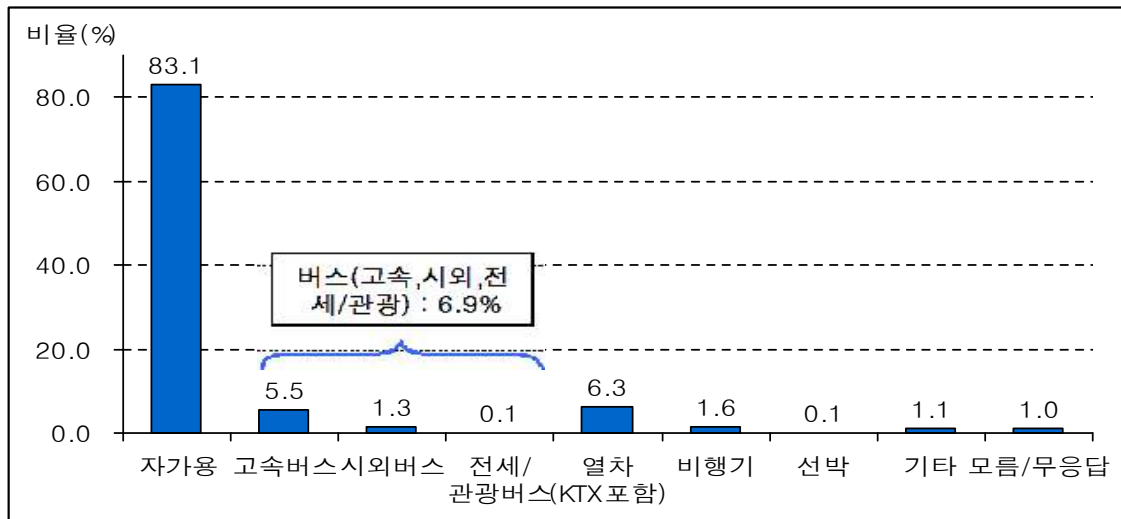
&lt;표 4-4&gt; 작년 설 연휴시 귀성 및 귀가 시기

단위: %, 명

구 분			귀 가				합 계
			연휴기간 이전	연휴기간 내	연휴기간 이후	모름/ 무응답	
귀성/ 여행	연휴기간 이전	비율	17.3	51.6	31.1	-	100.0
		빈도	44	131	79	-	254
	연휴기간 내	비율	-	95.8	4.2	-	100.0
		빈도	-	1,245	54	-	1,299
	연휴기간 이후	비율	-	-	100.0	-	100.0
		빈도	-	-	16	-	16
	모름/ 무응답	비율	-	14.3	14.3	71.4	100.0
		빈도	-	1	1	5	7
합 계		비율	2.8	87.4	9.5	0.3	100.0
		빈도	44	1,377	150	5	1,576

### 3) 작년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교통수단

- 2009년 설 연휴기간의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이 83.1%로 다른 수단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버스(고속버스, 시외버스, 전세/관광버스)이 6.9%, 열차(KTX 포함)이 6.3%로 나타남



<그림 4-1> 작년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교통수단의 분포

### 4) 2010년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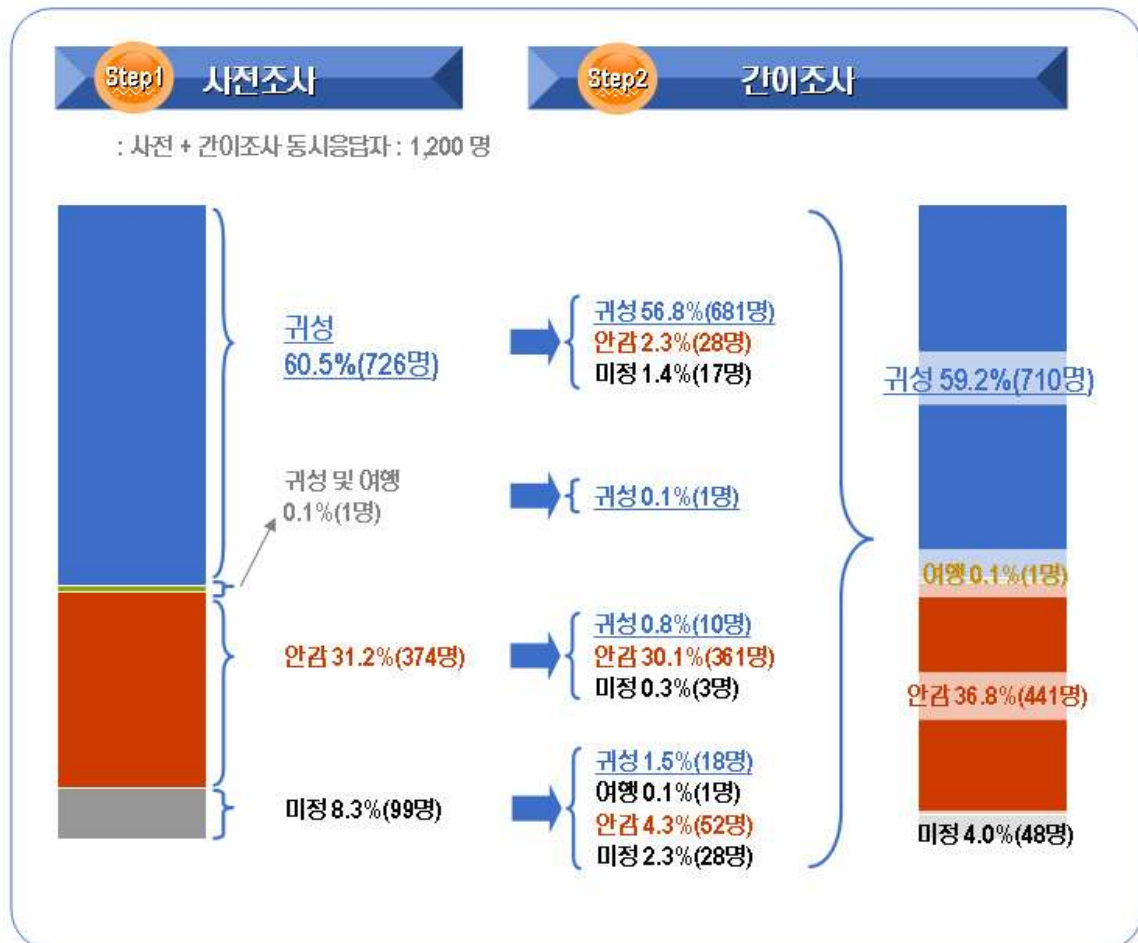
- 올해(2010년) 귀성 또는 여행 예정자 비율은 19.9%로, 작년(2009년) 18.0%에 비해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4-5>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연도별)

단위: %, 명

구 분		귀성	여행	귀성 및 여행	안감	미정	합계
10년 사전+간이	비율	19.6	0.3	0.1	77.8	2.2	100.0
	빈도	1,335	23	3	5,288	151	6,800
09년 사전+간이	비율	17.8	0.2	-	79.3	2.6	100.0
	빈도	1,212	15	-	5,395	178	6,800
08년	비율	22.9	0.7	0.1	73.7	2.7	100.0
	빈도	1,144	34	1	3,687	134	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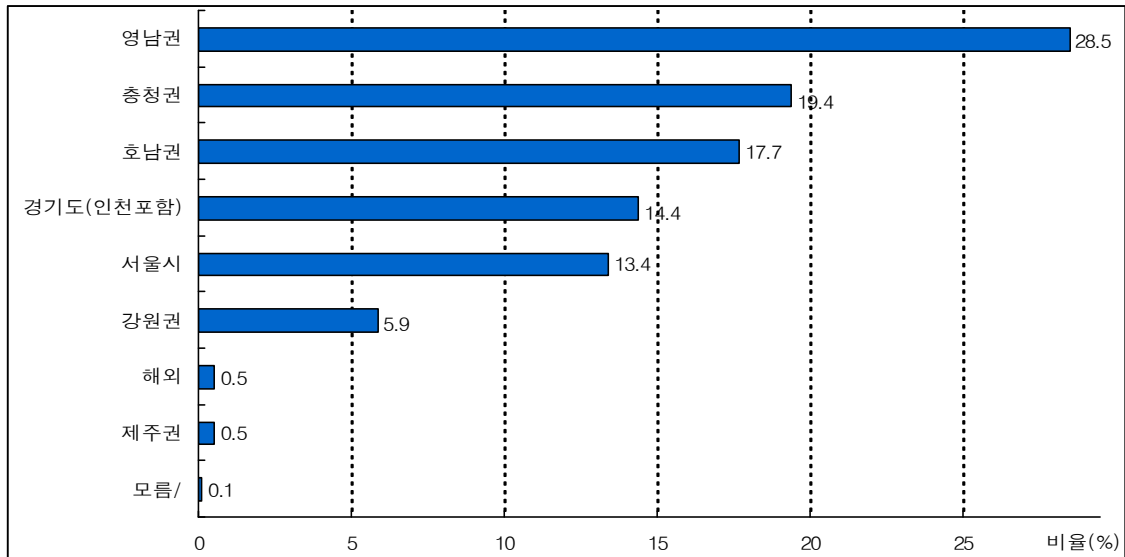
- 사전조사 응답 대비 간이조사의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귀성의 경우 약 1.3%(60.5% → 59.2%) 감소하였으며, 안감의 경우 약 5.6%(31.2% → 3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사전조사와 간이조사의 응답 일치율은 약 89.2%(1,200명 중 1,070명이 동일한 응답을 함)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변화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2>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의 분포(사전조사/간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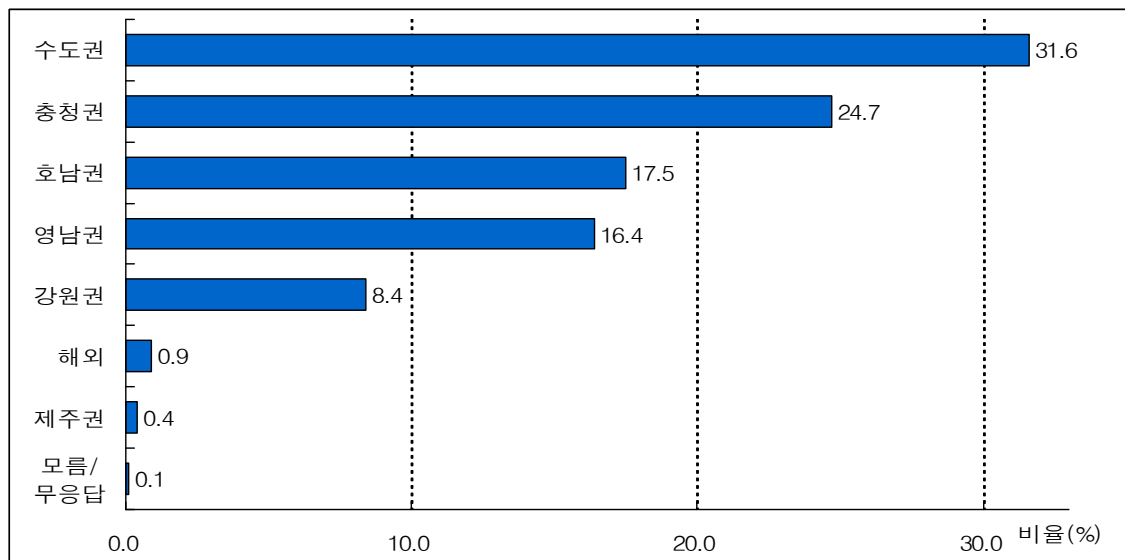
### 5) 2010년 설 귀성 또는 여행 예정 지역

- 2010년 설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 예정 지역은 영남권이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충청권이 19.4%, 호남권 17.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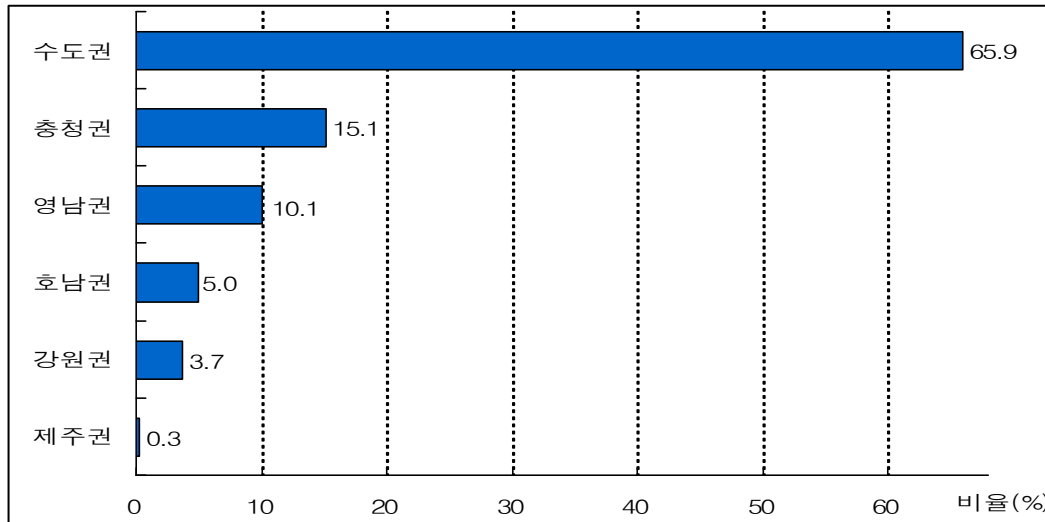
<그림 4-3> 설 귀성 또는 여행 예정 지역의 분포

- 수도권 지역 거주자의 귀성 또는 여행 예정 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충청권이 2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호남권이 17.5%, 영남권이 16.4%로 나타남



<그림 4-4> 수도권 거주자의 설 귀성 또는 여행 예정 지역의 분포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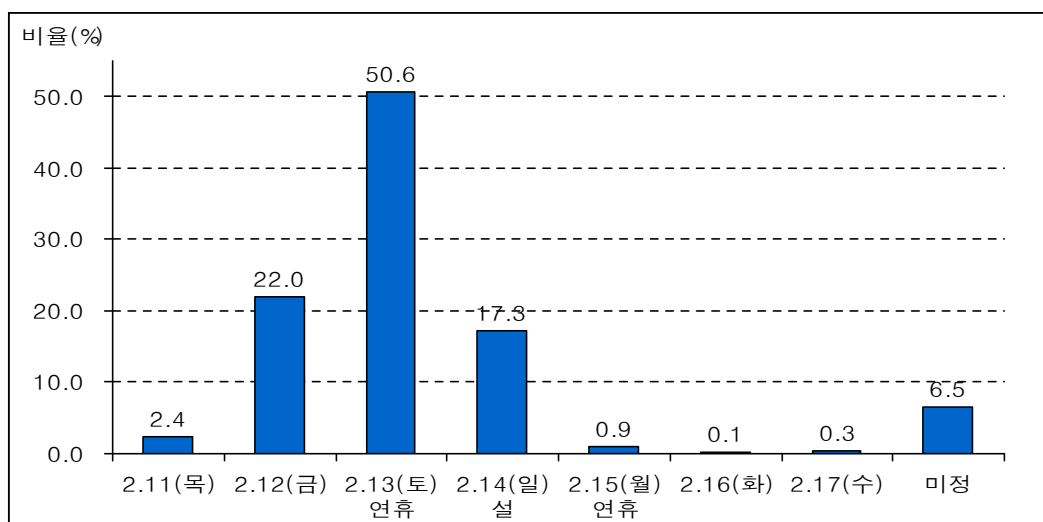
-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으로 귀성 또는 여행을 갈 예정이라는 응답자의 거주지 분포는 수도권이 65.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충청권이 15.1%, 영남권 10.1%로 나타남



<그림 4-5> 수도권 지역으로의 설 귀성 또는 여행 예정 응답자의 거주지 분포(2010년)

#### 6) 2010년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예정일자

- 2010년 설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예정 일자는 설 전날인 2월 13일(토) 출발이 5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월 12일(금) 출발이 22.0%로 설 전날에 귀성길 이동을 계획 중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6>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예정일자의 분포(2010년)

## 7) 2월 13일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예정 시간대

-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일자 중 비율이 가장 높은 1월 13일(설 전날)의 출발 시간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오전 9시~정오(29.8%)와 오전 6시~9시(24.7%)에 출발하겠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귀성시에는 설 전날 오전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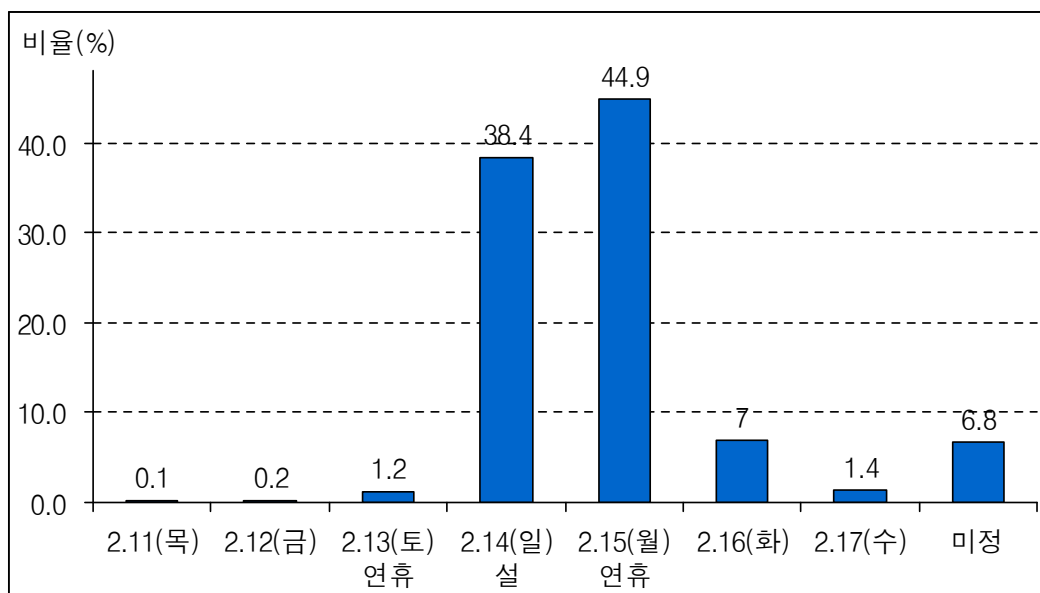
&lt;표 4-6&gt;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예정 시간대

단위: %, 명

구분	자정 ~오전3시	오전3시 ~오전6시	오전6시 ~오전9시	오전9시~ 정오	정오 ~오후3시	오후3시 ~오후6시	오후6시 ~오후9시	오후9시 ~자정	미정	합계
비율	1.7	12.1	24.7	29.8	10.6	7.1	4.8	2.0	7.1	100.0
빈도	12	83	170	205	73	49	33	14	49	688

## 8) 2010년 설 귀가 또는 여행후 출발예정일자

- 2010년 설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예정 일자는 설 다음날인 2월 15일(월) 출발이 4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설 당일인 2월 14일(일) 출발이 38.4%로 설 다음날에 귀성 계획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lt;그림 4-7&gt; 설 귀성 또는 여행후 출발예정일자의 분포(2010년)

## 9) 2월 14일 귀가 또는 여행후 출발예정 시간대

- 귀성 또는 여행후 출발일자가 비율이 가장 높은 2월 14일(설 당일)의 출발 시간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정오~오후 3시(30.7%)와 오후 3시~오후 6시(25.7%)에 출발하겠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귀경시에는 설 당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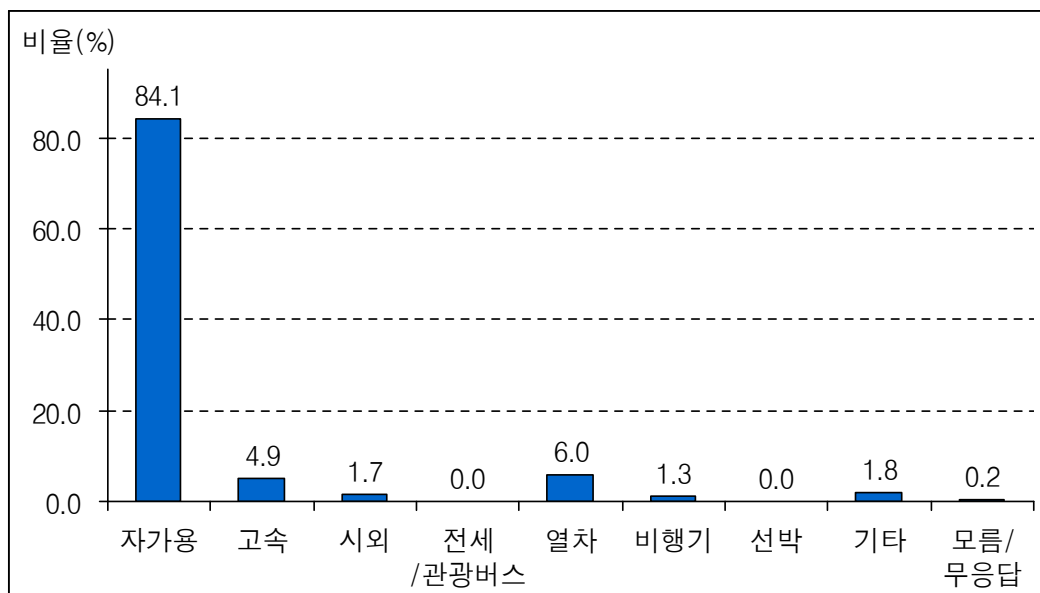
&lt;표 4-7&gt;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예정 시간대

단위: %, 명

구분	자정 ~오전3시	오전3시 ~오전6시	오전6시 ~오전9시	오전9시~ 정오	정오 ~오후3시	오후3시 ~오후6시	오후6시 ~오후9시	오후9시 ~자정	미정	합계
비율	0.2	0.8	1.7	14.9	30.7	25.7	11.5	7.3	7.3	100.0
빈도	1	4	9	78	160	134	60	38	38	522

## 10) 2010년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교통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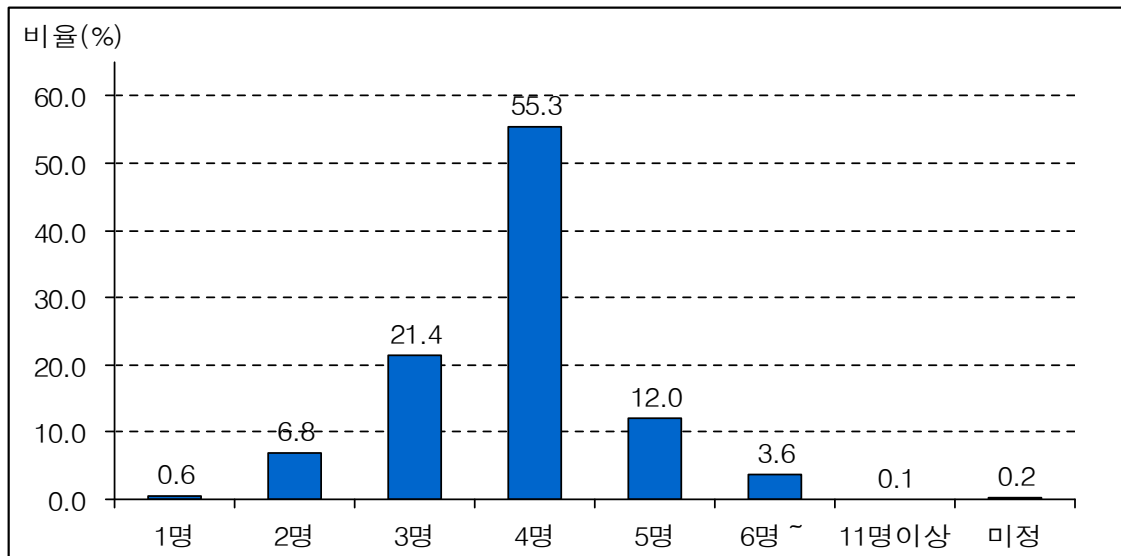
- 2010년 설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이 84.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용수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버스(고속버스, 시외버스, 전세/관광버스)가 6.6%, 열차(KTX 포함)가 6.0%로 나타남



&lt;그림 4-8&gt;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교통수단의 분포(2010년)

## 11) 2010년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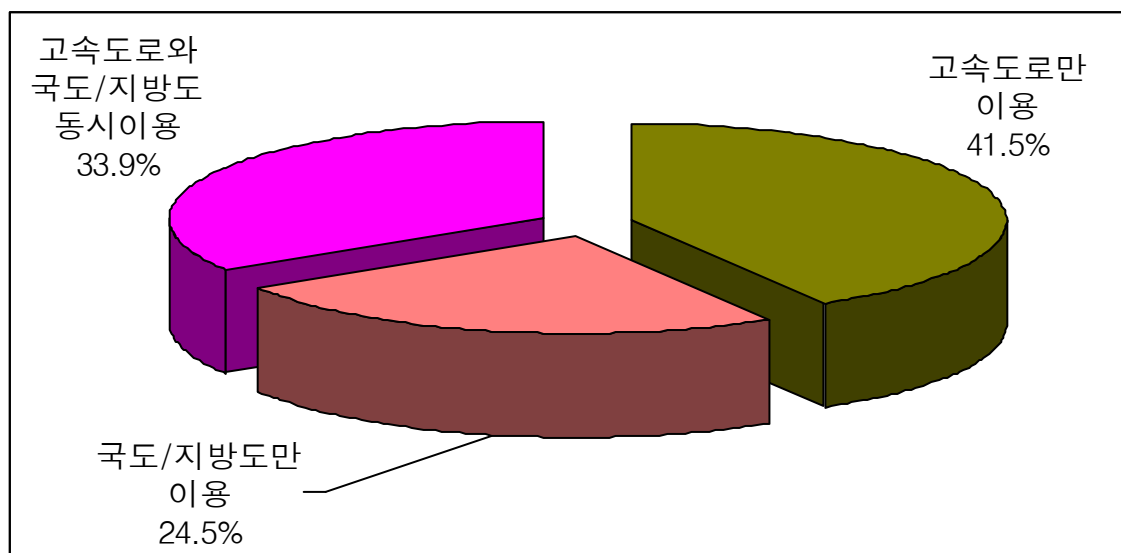
- 2010년 설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본인 포함)는 4명이 5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명이 21.4%, 5명 12.0%로 나타남



&lt;그림 4-9&gt;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의 분포(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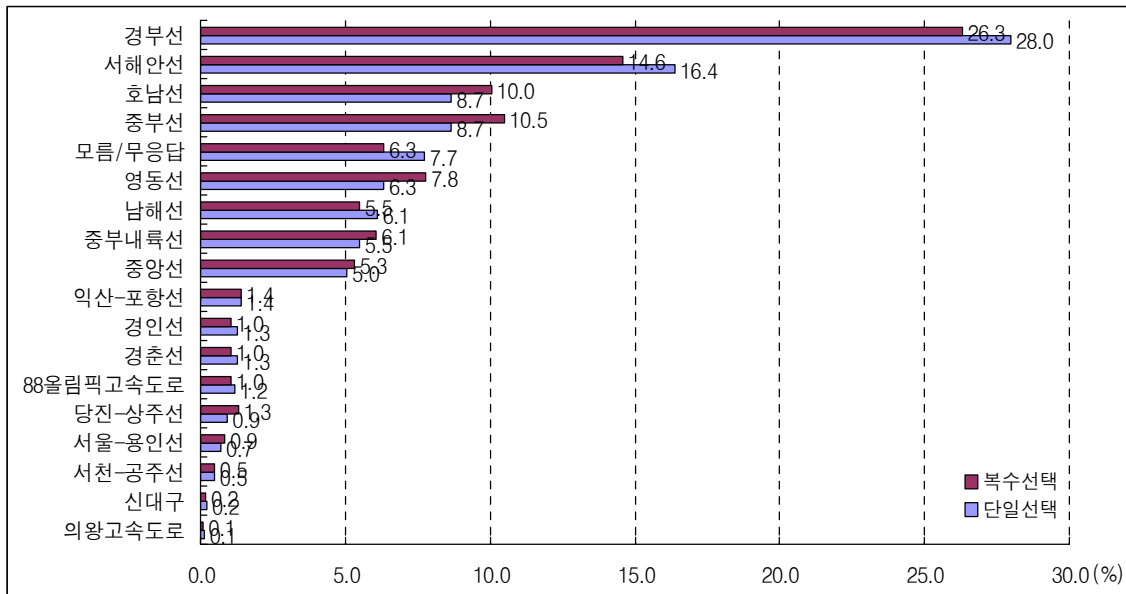
## 12) 2010년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도로

- 2010년 설 연휴기간의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도로는 고속도로만 이용할 경우가 41.5%, 고속도로와 국도/지방도 동시 이용할 경우는 33.9%, 국도/지방도만 이용은 24.5%로 고속도로 이용 통행이 전체의 75.4%의 높은 수준임



&lt;그림 4-10&gt;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도로의 분포(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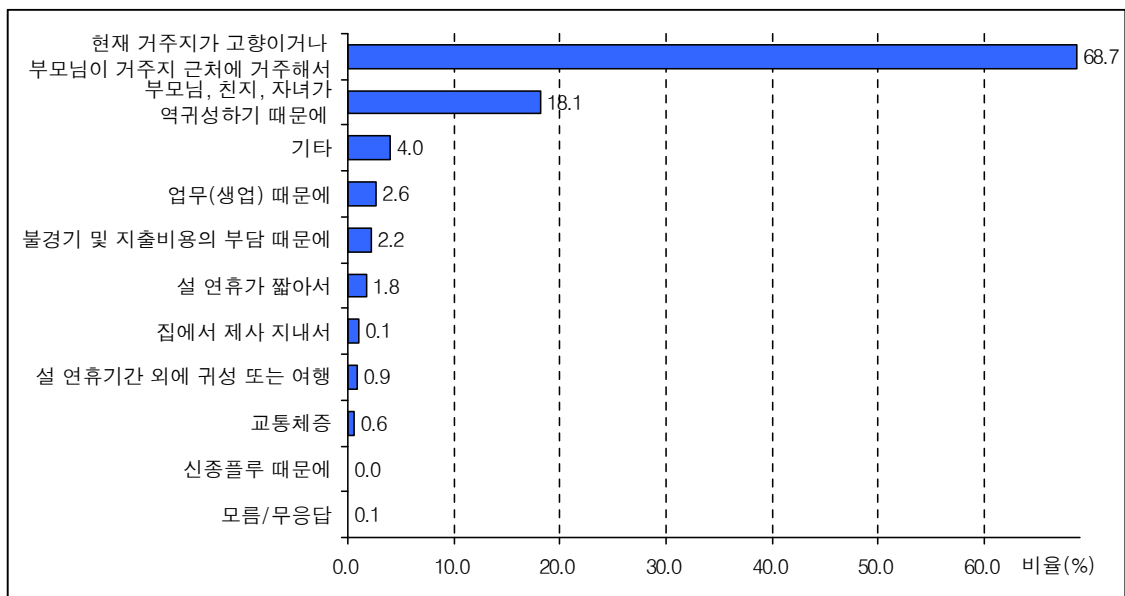
- 고속도로 이용자의 주 이용노선(단일선택)은 경부선이 28.0%로 가장 많이 이용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해안선이 16.4%, 중부선·서해안선이 8.7%의 순으로 나타남
- 또한 고속도로 이용노선 설문시 주 이용도로 뿐만 아니라, 이용할 모든 도로에 대해 복수 응답할 경우 경부선, 서해안선, 중부선이 각각 26.3%, 14.6%, 10.5%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11> 설 귀성 또는 여행시 고속도로 이용 예정 노선의 분포(2010년)

### 13) 2010년 설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없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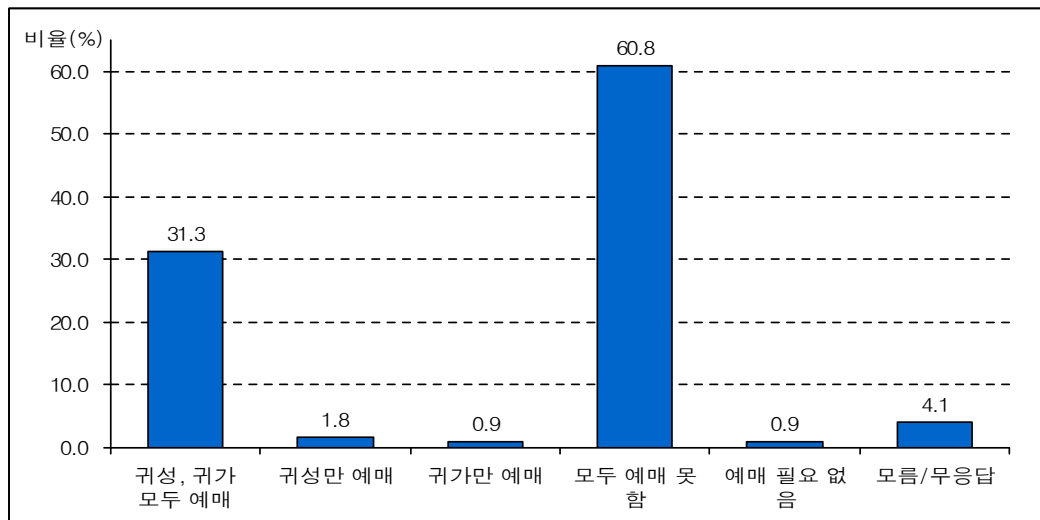
- 2010년 설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없는 이유는 응답자의 68.7%가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 거주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부모님, 친지, 자녀가 역귀성하기 때문에 18.1%, 업무(생업) 때문에 2.6%로 나타남



<그림 4-12> 설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없는 이유의 분포

## 14) 2010년 설 귀성 또는 여행시 대중교통 표 예매 여부 및 대체 교통수단

- 2010년 설 귀성 또는 여행시 대중교통 표 예매 여부는 모두 예매 못함이 60.8%, 귀성, 귀가 모두 예매가 31.3%로 나타남



- 대중교통 예매가 필요한 수단에 대해서만 예매율을 살펴보면 비행기의 경우 83.3%, 열차의 경우 48.7%, 고속버스의 경우 23.9%순으로 나타남

&lt;표 4-8&gt; 설 귀성 또는 여행시 대중교통 표 예매 여부 - 교통 수단별

단위: %,명

구 분		귀성, 귀가 모두 예매	귀성만 예매	귀가만 예매	모두 예매 못함	예매 필요없음	모름/ 무응답	합계 <sup>1)</sup>
고속버스	비율	20.9	3.0	-	70.1	1.5	4.5	100.0
	빈도	14	2	-	47	1	3	67
시외버스	비율	13.0	-	-	82.6	4.3	-	100.0
	빈도	3	-	-	19	1	-	23
전세/관광 버스	비율	-	-	-	-	-	-	-
	빈도	-	-	-	-	-	-	-
열차 (KTX포함)	비율	43.9	2.4	2.4	47.6	-	3.7	100.0
	빈도	36	2	2	39	-	3	82
비행기	비율	83.3	-	-	16.7	-	-	100.0
	빈도	15	-	-	3	-	-	18

주: 1) 설 귀성 또는 여행시 대중교통 표 예매 여부에 대한 설문은 대중교통 이용 예정자 한정 문항임

- 2010년 설 귀성 또는 여행시 대중교통 표 예매를 못할 경우 대체 교통수단 및 대체 방법으로는 예매 필요 없다가 25.3%로 높게 나타났으며, 고속버스로 교통수단을 대체할 것이라는 응답이 16.1%, 승용차가 15.2%로 나타났으며, 귀성/귀가를 포기하겠다는 응답은 1.4%로 나타남

<표 4-9> 설 귀성 또는 여행시 대중교통 표 예매를 못할 경우 대체 교통수단

단위: %, 명

구분	승용차	고속버스	시외버스	전세/관광버스	열차(KTX 포함)	비행기	선박	지하철	귀성/귀가를 포기	예매 필요 없다	모름/무응답	합계
비율	15.2	16.1	5.5	2.3	12.0	2.3	0.9	11.5	1.4	25.3	7.4	100.0
빈도	33	35	12	5	26	5	2	25	3	55	16	217

15) 설 연휴중 강설/강우 예보에 의한 계획 변화 여부

- 올해(2010년) 설 연휴기간에 강설/강우 등으로 인해 기상상태가 악화된다는 예보가 있을 경우 귀성 및 여행 계획 변화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계획했던 일정대로 귀성 또는 여행이 6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을 취소가 15.4%, 다른 날 또는 다른 시간대에 출발이 11.4%로 나타남. 즉, 기상상태에 따라서 귀성 및 여행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나 설 명절특성상 현 계획을 고수하겠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함

<표 4-10> 설 연휴중 강설/강우 예보에 의한 계획 변화 여부

단위: %, 명

구분	계획했던 일정대로 귀성 또는 여행	귀성 또는 여행계획을 취소	다른 날 또는 다른 시간대에 출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	모름/무응답	합계
비율	67.4	15.4	11.4	3.2	2.6	100.0
빈도	917	210	155	44	35	1,361

## 16) 2010년 설 귀성 및 귀가시 교통비용

- 설 연휴기간 중 귀성 및 귀가를 위한 왕복 교통비용은 작년(2009년)이 평균 약 10만 4천원, 올해(2010년) 약 10만 7천원이며, 올해(2010년) 교통비용은 작년(2009년)에 비해 약간 증가한 10만 7천원으로 나타남

&lt;표 4-11&gt; 설 귀성 및 귀가시 왕복 교통비용(연도별)

단위: %, 명, 천원

구 분		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합계	평균
2010년	비율	19.8	18.7	28.8	14.2	18.4	100.0	107.6
	빈도	273	258	397	196	253	1,377	
2009년	비율	20.3	19.5	28.4	13.4	18.4	100.0	104.1
	빈도	253	244	355	167	230	1,249	

## 17) 2010년 설 연휴기간 이외에 추가적인 휴가 계획 여부 및 휴가일 수

- 설 연휴기간 이외에 추가적인 휴가 계획이 있는 응답자는 1.3%(전체 6,800명 중 85명)였으며, 설 연휴 이전이 평균 1.3일, 설 연휴 이후가 평균 1.8일임
- 설 연휴 이전과 이후의 휴가일 수를 모두 고려한다면 평균 1.9일 정도의 추가적인 휴가를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남

&lt;표 4-12&gt; 설 연휴기간 이외에 추가적인 휴가 계획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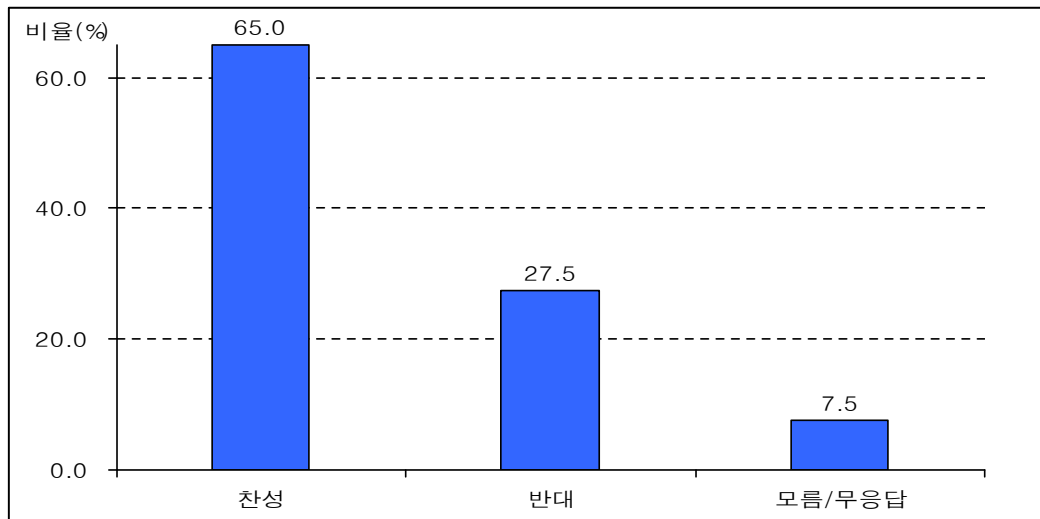
단위: %, 명, 일

구 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이상	모름/무응답	합계	평균
설 연휴 이전	비율	69.2	15.4	2.6	2.6	-	-	-	10.3	100.0	1.3
	빈도	27	6	1	1	-	-	-	4	39	
설 연휴 이후	비율	54.8	21.0	9.7	-	1.6	-	4.8	8.1	100.0	1.8
	빈도	34	13	6	-	1	-	3	5	62	
설 연휴 이전+이후 <sup>1)</sup>	비율	49.4	25.9	11.8	2.4	1.2	-	3.5	5.9	100.0	1.9
	빈도	42	22	10	2	1	-	3	5	85	

주: 1) 추가적인 휴가 계획일 수는 설 연휴 이전, 설 연휴 이후, 설 연휴 이전+이후 모두 응답한 경우로 구분됨 따라서 상기 교차분석표의 설 연휴 이전+이후의 휴가 계획일 수는 설 연휴 이전과 설 연휴 이후의 합계와는 별개의 결과로 해석해야 함

## 18) 명절 3일 연휴인 경우 5일 연휴 제도화 방안 인식

- 설 또는 추석 명절이 주말을 포함한 3일 연휴인 경우, 공휴일을 연장해 총 5일이 되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에 대한 인식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65.0%, 반대가 27.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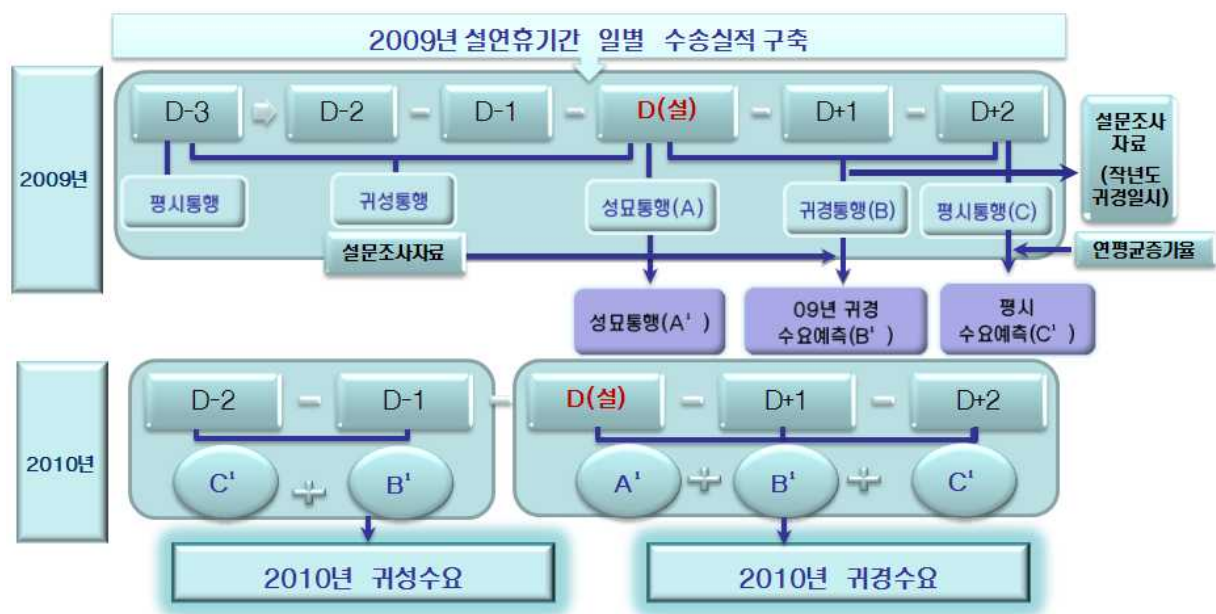


<그림 4-13> 명절 3일 연휴인 경우 5일 연휴 제도화 방안 인식

## 제2절 수요예측 방법론 및 수요예측 결과

### 1. 수요예측 방법론

-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의 교통수단별 수송실적 수집 및 수요예측기법은 하계휴가 및 추석 특별교통대책의 방법과 동일하며 올해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의 귀성 및 귀경수요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 '09년도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의 통행수요는 설연휴 이전일인 D-3일은 평상시 통행과 귀성통행이 혼재하며, D-2일부터 D일까지 귀성통행과 설 당일의 성묘통행과 귀경통행, D+1일은 귀경통행, D+2일은 귀경과 평시통행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함
  - D+2일은 귀경통행과 평상시 통행이 혼재하는데, 설문조사에서 산출되는 일자별 귀경비율을 이용하여 D+2일의 귀경통행을 산출하며, 나머지 통행을 평상시 통행인 것으로 가정함
- 이와 같이, 전년도 일별 수송실적과 설문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전년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의 평상시 통행, 귀성·귀경통행(역귀성 포함), 성묘통행, 친지방문통행 등으로 세분화한 후, 평상시 통행은 전년도 대비 올해의 연평균 증감률을 적용하며, 귀성 및 귀경통행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산출된 전년도 대비 올해의 귀성비율을 적용하고, 성묘통행 및 친지방문통행은 설문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산출함



<그림 4-14>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예측 방법

## 2. 수요예측 결과

- 올해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2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중 총 2,546만명(5,245만 통행), 1일평균 509만명(1,049만 통행)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됨. 수도권내 이동인원 포함시는 4,113만명(7,259만 통행), 일평균 705만명(1,452만 통행)인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전년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에 비해 9.1% 감소, 평시보다 100.9% 증가(1일 평균 기준)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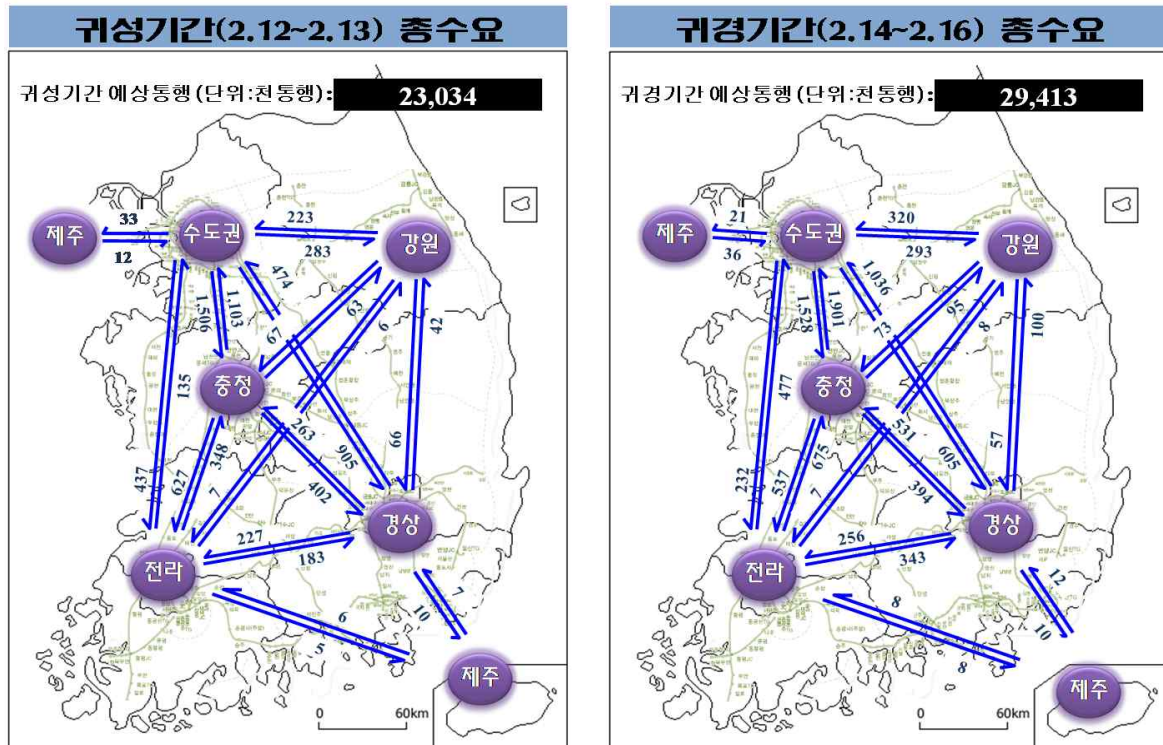
<표 4-13> 2010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수요 예측결과(전국)

단위: 천통행

구 분 교통수단	평시 1일 통 행 량	2.12~2.16 (5일간) 통행량			평시대비 (%)	전년대비 (%)
		1일 평균	총 통행	분담률(%)		
승 용 차	3,597	8,108	40,542	77.3	225.4	88.7
고속버스	105	178	888	1.7	169.5	94.2
시외·전세	1,146	1,651	8,257	15.7	144.1	100.3
철 도	282	463	2,313	4.4	164.2	91.9
항 공 기	50	52	258	0.5	104.0	95.5
여 객 선	41	38	188	0.4	92.7	101.8
합 계	5,221	10,489	52,446	100.0	200.9	90.9

주: 1) 승용차의 경우 고속도로로 한정하며, 평시 평균 재차인원은 1.71명(2005년 전국교통조사 결과 중 평일 평균재차인원 적용), 2010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평균 재차인원은 3.67명임  
 2) 수단별 수송실적 자료는 각 기관에서 수집하여 사용함  
 3) 전국의 통행수요를 산정하기 위해 2009년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1.23~1.28)의 수송실적현황과 설 연휴 통행패턴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계산한 통행량임

- 설 연휴기간 동안 예상되는 지역간 이동은 귀성시 2,303만 통행, 귀경시 2,941만 통행으로 나타남. 수도권 및 충청권 내부통행 및 수도권 ↔ 충청권간 통행이 679만 통행으로 전체 귀성통행의 29.5%이며, 귀경시는 813만 통행으로 전체 귀경통행의 27.7%인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및 충청권역의 고속도로 혼잡이 예상됨
- 귀성통행은 1월 12, 13일 2일간 발생하는 통행이며, 귀경통행은 1월 14, 15, 16일 3일간 발생하는 통행임



&lt;그림 4-15&gt; 설 연휴 귀성·귀경시 지역간 통행량(예측)

&lt;표 4-14&gt; 설 연휴 권역간 귀성 기종점통행량

단위: 천통행, %

출발지 \ 도착지	수도권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합계
수도권	4,186	283	1,506	437	905	33	7,349
	57.0	3.8	20.5	6.0	12.3	0.4	100.0
강원	223	561	67	7	66	0	924
	24.1	60.7	7.3	0.7	7.2	0.0	100.0
충청	1,103	63	1,255	627	402	3	3,453
	31.9	1.8	36.3	18.2	11.6	0.1	100.0
전라	135	6	348	1,208	183	5	1,886
	7.2	0.3	18.4	64.1	9.7	0.3	100.0
경상	474	42	263	227	8,378	10	9,394
	5.0	0.4	2.8	2.4	89.2	0.1	100.0
제주	12	0	1	6	7	0	27
	44.8	1.0	5.0	22.0	26.7	0.4	100.0
합계	6,133	955	3,441	2,513	9,941	51	23,034

주: 귀성통행은 1월 12일,13일(2일간) 통행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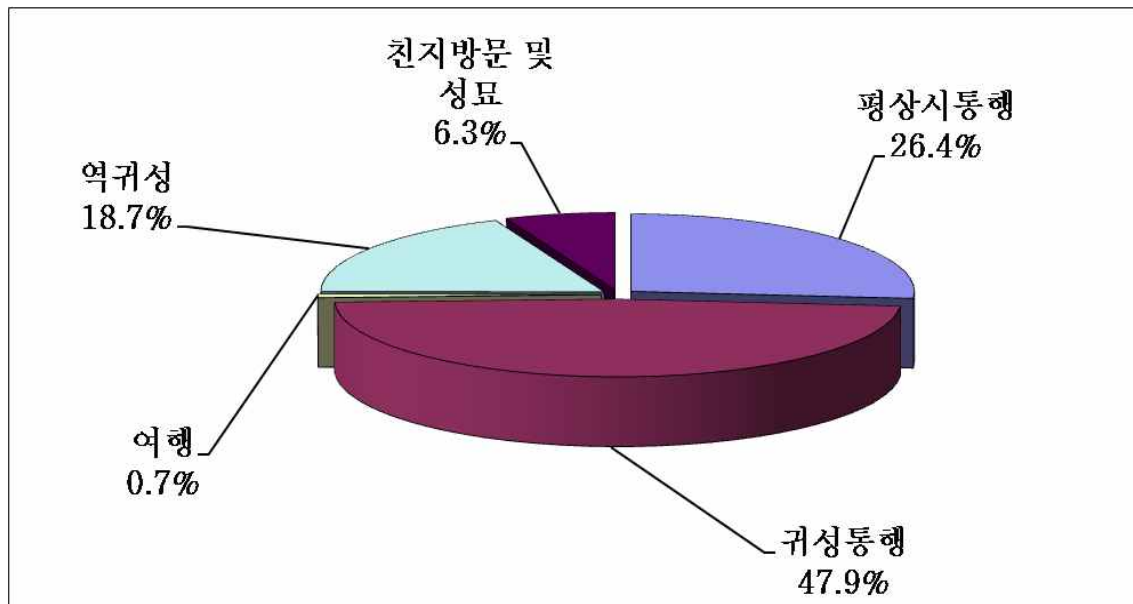
&lt;표 4-15&gt; 설 연휴 권역간 귀경 기종점통행량

단위: 천통행, %

출발지 \ 도착지	수도권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합계
수도권	4,705	293	1,528	232	605	21	7,384
	63.7	4.0	20.7	3.1	8.2	0.3	100.0
강원	320	778	73	7	57	0	1,236
	25.9	63.0	5.9	0.6	4.6	0.0	100.0
충청	1,901	95	1,596	537	394	2	4,525
	42.0	2.1	35.3	11.9	8.7	0.1	100.0
전라	477	8	675	1,803	343	8	3,314
	14.4	0.2	20.4	54.4	10.3	0.2	100.0
경상	1,036	100	531	256	10,958	10	12,891
	8.0	0.8	4.1	2.0	85.0	0.1	100.0
제주	36	0	4	8	12	2	62
	57.9	0.6	6.0	12.8	20.0	2.7	100.0
합계	8,474	1,275	4,407	2,843	12,370	44	29,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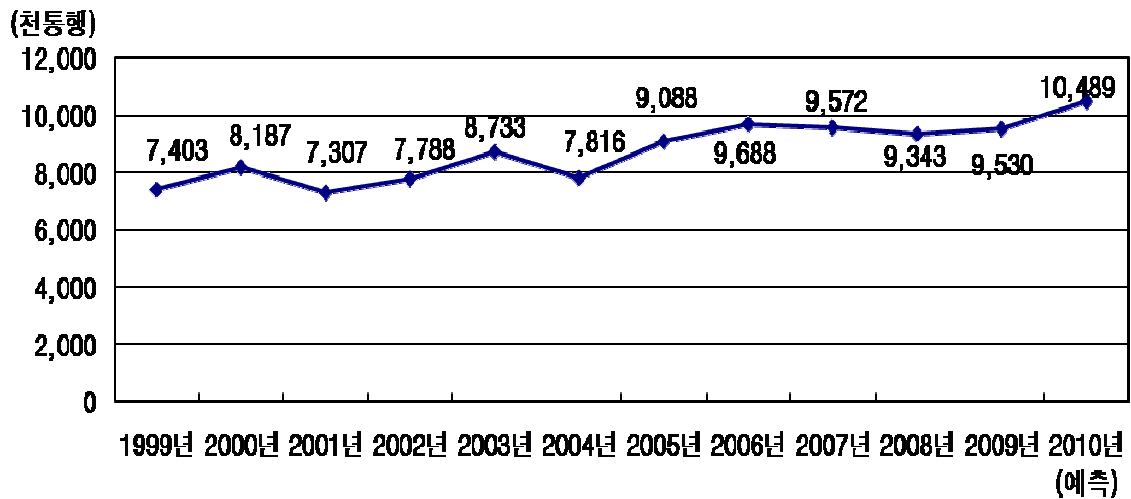
주: 귀경통행은 1월 14일~16일(3일간) 통행임

- 이동목적별로는 귀성 1,220만명(47.9%), 평상시 통행 673만명(26.4%), 역귀성 475만명(18.7%), 친지방문 및 성묘통행 159만명(6.3%), 여행 18만명(0.7%)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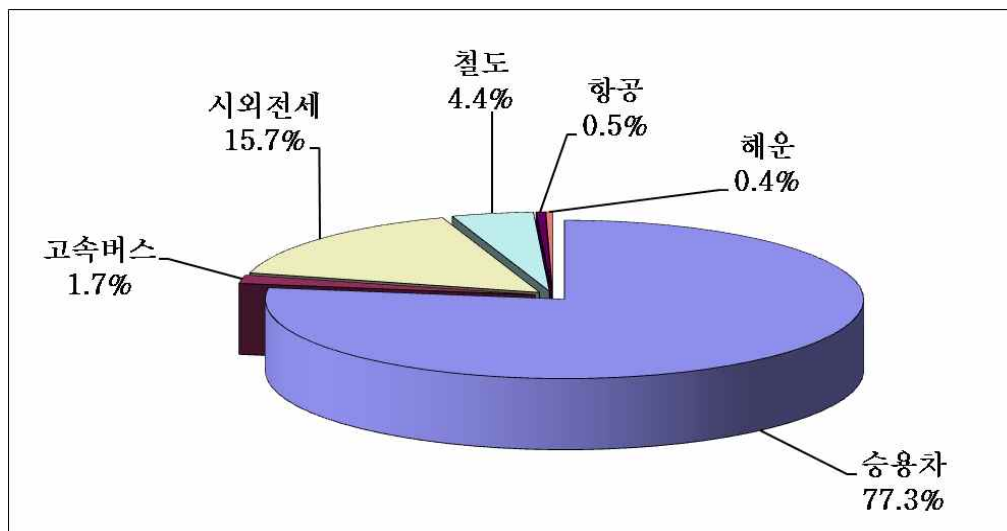
&lt;그림 4-16&gt; 설 연휴 목적별 이동인원 비율

-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이동인원은 경제여건, 연휴기간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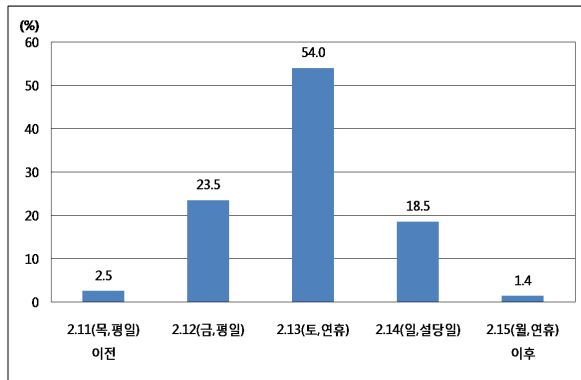
<그림 4-17> 연도별 설연휴 1일 평균 이동인원 추이(수도권 내 이동인원 제외)

- 설 연휴기간 중 귀성객이 이용할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가 77.3%, 시외·전세버스 15.7%, 철도 4.4%, 고속버스 1.7%, 항공기 0.5%, 해운이 0.4%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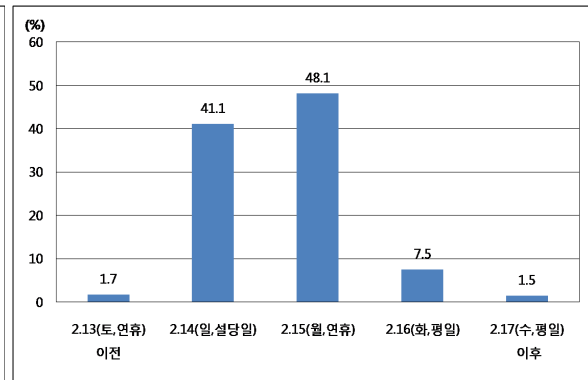


<그림 4-18> 설 연휴기간 중 교통수단별 분담률

- 금년 설은 연휴기간(3일)이 짧아 귀성길 및 귀경길의 교통 혼잡이 매우 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날짜별로 보면 귀성길은 2.13(토), 귀경길은 2.15일(월)에 귀성·귀경객 집중적으로 이동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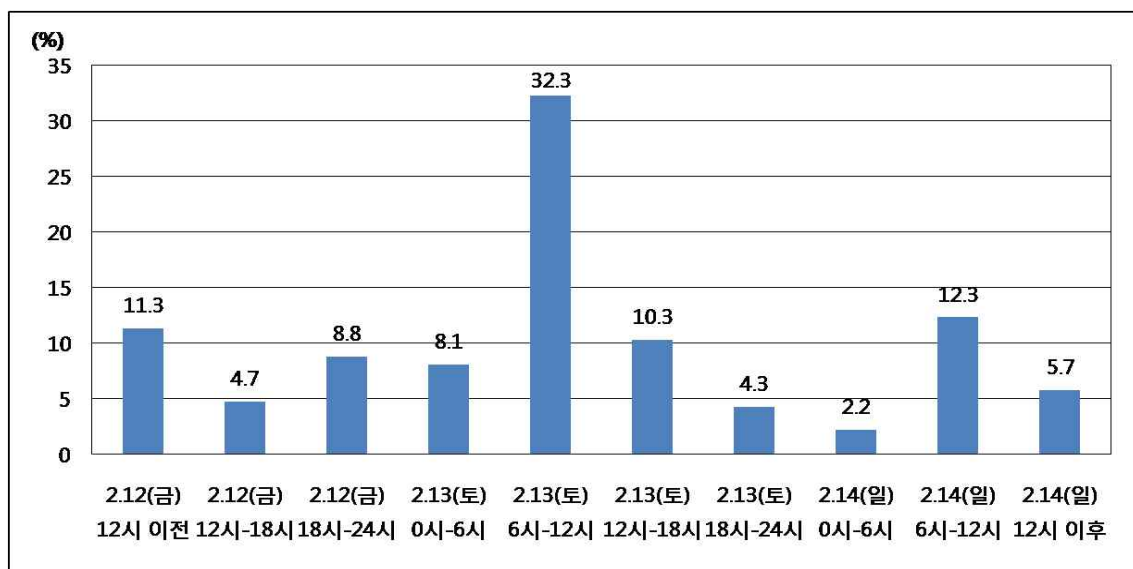
&lt;일자별 귀성객 비율&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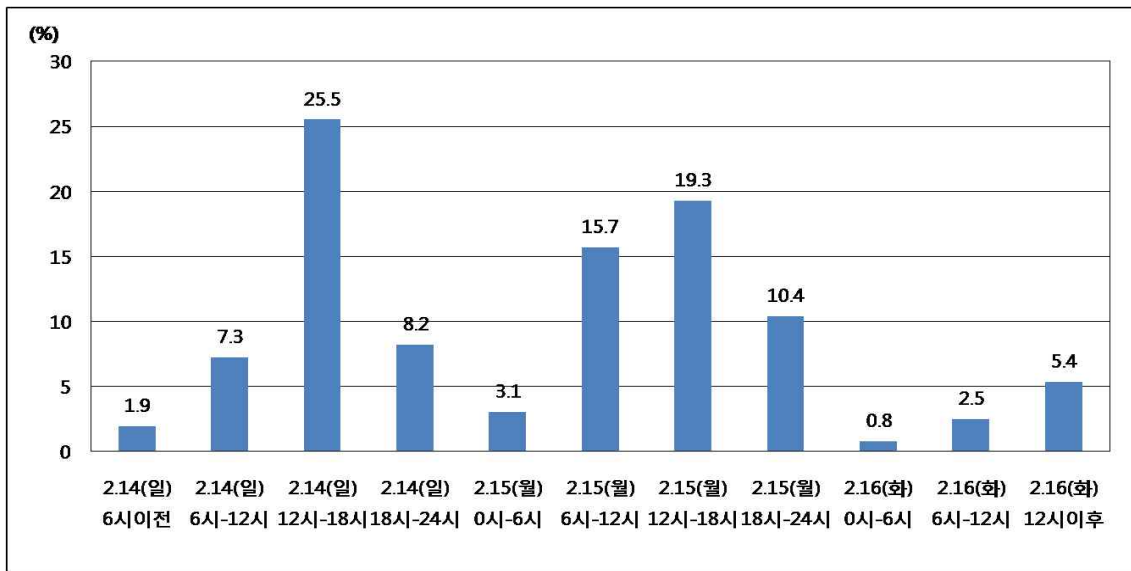
&lt;일자별 귀경객 비율&gt;

&lt;그림 4-19&gt; 설 연휴 일자별 귀성 및 귀경객 비율(전망)

-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한 시간대별 귀성·귀경 통행량의 집중도를 감안하면 설 하루전인 2월 13일 오전과 설 당일 오후 시간대의 교통 혼잡이 예상됨(그림 4-35, 4-3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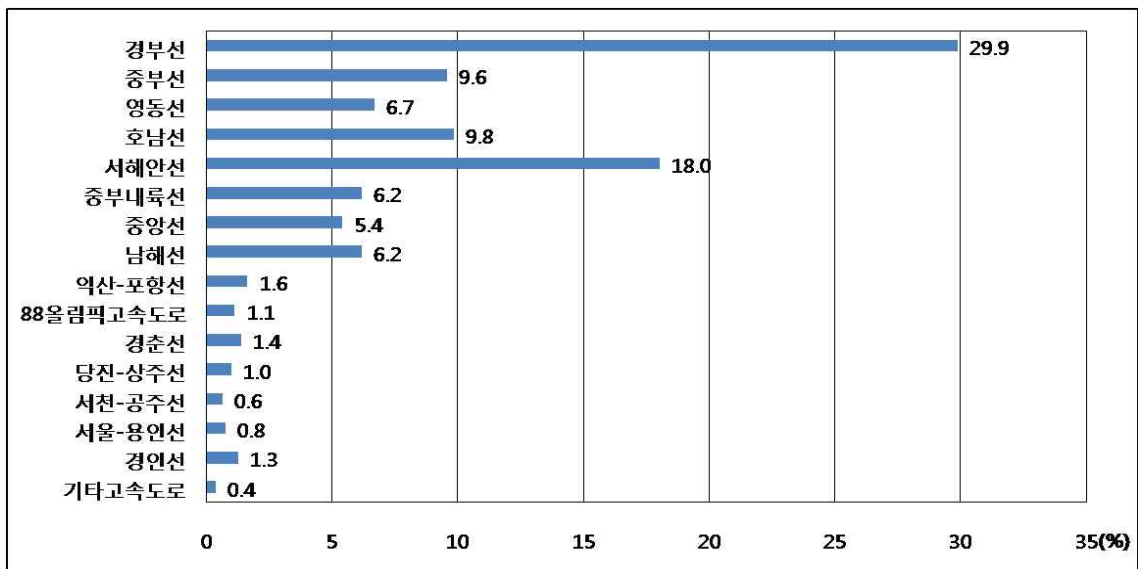


&lt;그림 4-20&gt; 설 연휴 출발일, 출발시간대별 귀성객 비율(전망)



<그림 4-21> 설 연휴 출발일, 출발시간대별 귀경객 비율(전망)

- 고속도로별로는 경부선이 29.9%로 가장 많이 이용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해안선 18.0%, 호남선 9.8%, 중부선 9.6% 순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4-22> 설 연휴 고속도로별 이용객 비율(전망)

## 제4절 사후 설문조사 수행 결과

### 1. 사후 설문조사 수행 결과<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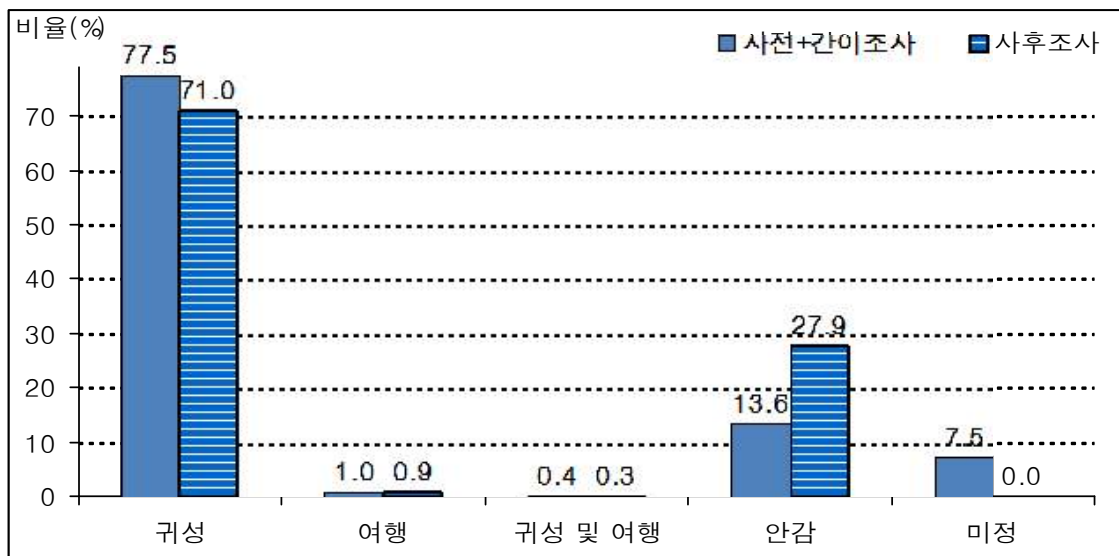
#### <결과요약>

- 올해(2010년) 설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을 다녀온 여부에 대하여 사후조사(n=800)을 통해 알아본 결과, 귀성의 경우는 71.0%, 여행의 경우 0.9%, 귀성 및 여행의 경우 0.3%로 나타남
  - 사전+간이 조사결과 : 귀성 77.5%, 여행 1.0%, 귀성 및 여행 0.4%
- 귀성 또는 여행 지역에 대한 사후조사 결과(n=577),영남권이 3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충청권이 19.9%, 호남권이 15.9% 순으로 나타남
  - 사전+간이 조사결과 : 영남권 29.2%, 충청권 20.3%, 호남권 17.3%
-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일자에 대한 사후조사 결과, 설 연휴 시작인 2월 13(토)에 출발한다는 응답이 53.6%로 높게 나타났으며, 2월 12일(금)에 출발한다는 응답이 23.7%, 설 당일인 2월 14일(일)에 출발한다는 응답이 18.4%로 나타남
  - 사전+간이 조사결과 : 설 전날인 2월 13일이 53.6%, 2월 12일(금) 23.6%, 설 당일인 2월 15일이 15.5%
- 귀가 또는 여행후 출발 일자에 대한 사후조사 결과, 설 다음날인 2월 15일(월)에 출발했다고 한 응답이 48.4%, 설 당일인 2월 14일(일) 출발이 38.3% 순으로 나타남
  - 사전+간이 조사결과 : 설 다음날인 2월 15일이 48.4%, 설 당일인 2월 14일이 37.6%
-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교통수단에 대한 사후조사 결과, 자가용이 85.4%로 이외 교통수단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외 교통수단의 경우 대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사전+간이 조사결과 : 승용차 84.0%, 버스 7.4%, 열차(KTX 포함) 5.9%
- 귀성 또는 여행시 고속도로 이용 노선에 대한 사후조사 결과, 경부선의 경우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해안선의 경우 16.8%, 중부선의 경우 11.5% 순으로 나타남
  - 사전+간이 조사결과 : 경부선 27.3%, 서해안선 17.9%, 중부선 8.9%

1) 사후 설문조사는 사전설문조사에서 귀성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사후변화율을 고려하기 위하여 귀성을 한다는 사람, 미정인 사람, 귀성을 하지 않는 사람 순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사후 설문조사 수행결과에서는 사후조사결과(n=800)와 사전조사 전체 응답자 중 사후조사에 응답한 표본결과(n=800)를 비교하여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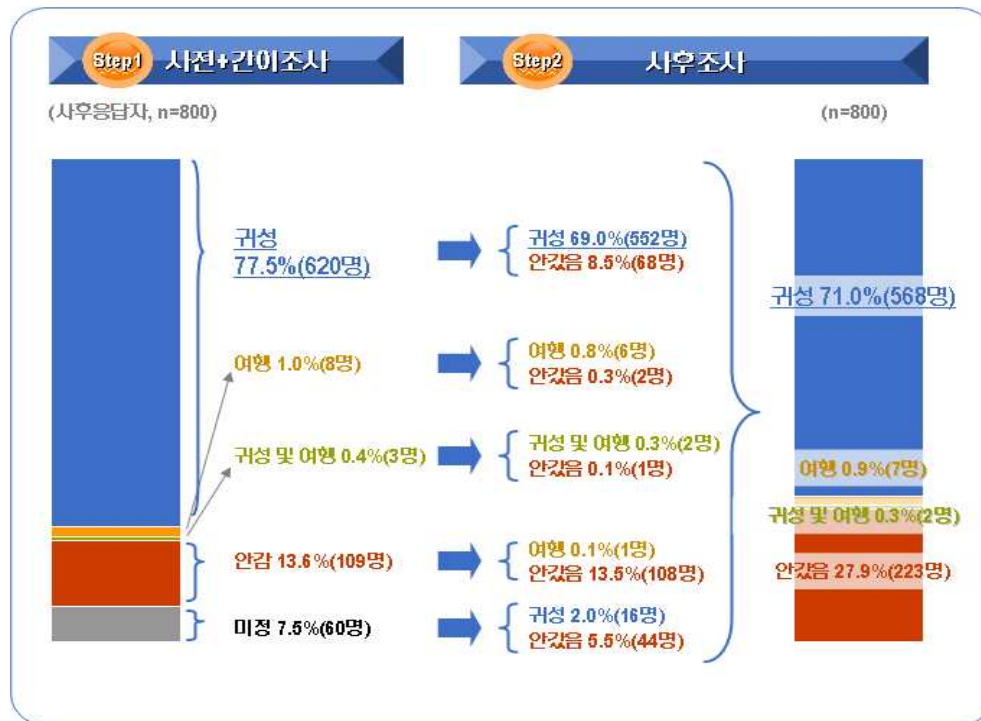
## 1)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

- 설 연휴기간 동안 실제로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에 대한 사후조사 결과, 귀성의 경우 71.0%로 사전조사 보다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행, 귀성 및 여행이 각각 다소 감소한 반면, 안감의 경우 27.9%로 사전조사시 13.6%에서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lt;그림 4-23&gt;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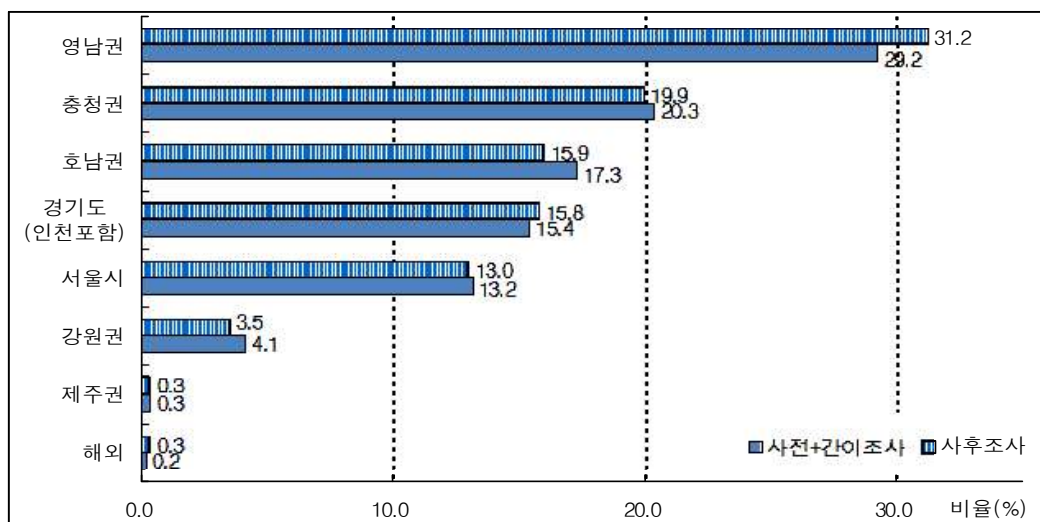
- 사전조사시 귀성을 계획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620명(77.5%)이었으나 사후조사 결과 552명(69.0%)이 귀성, 68명(8.5%)이 귀성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전조사시 안간다고 응답한 사람(109명, 13.6%) 중 대부분이(108명, 13.5%)이 귀성을 다녀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전조사시 미정인 응답자 60명(7.5%) 중 귀성이 16명(2.0%), 귀성 및 여행을 다녀오지 않은 안갔음의 경우가 44명(5.5%)로 나타남



<그림 4-24>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의 분포(사전+간이/사후 교차분석)

## 2) 설 귀성 또는 여행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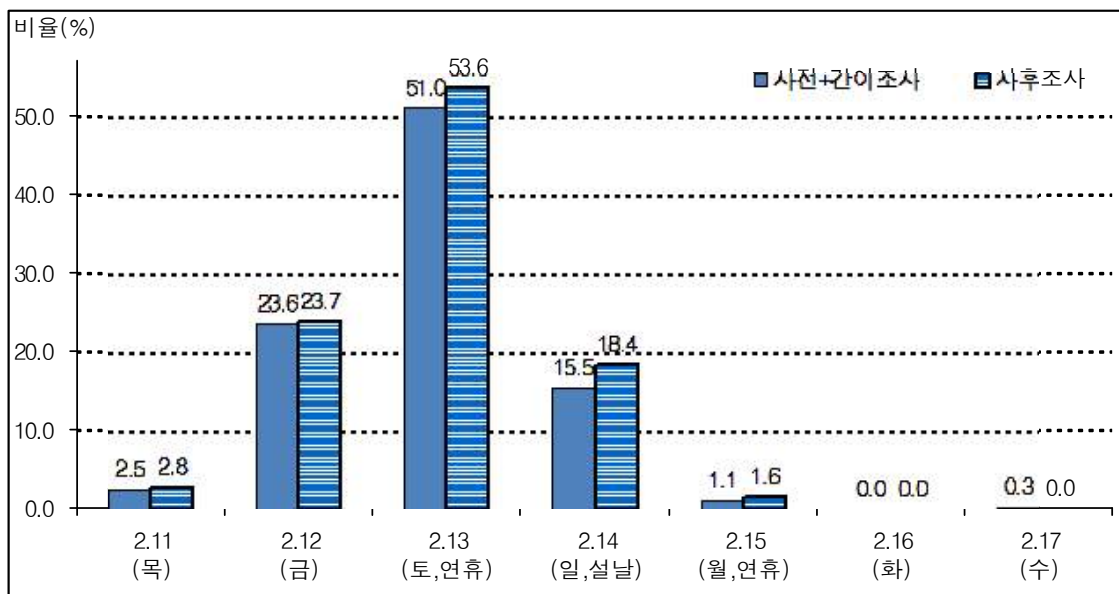
- 올해(2010년) 설 귀성 또는 여행 지역에 대한 사후조사 결과 사전조사시 호남권이 17.3%에서 15.9%로 감소(-1.4%), 강원권이 4.1%에서 3.5%로 감소(-0.6%)한 반면, 영남권의 경우 29.2%에서 31.2%로 증가(+2.0%), 경기도(인천포함)의 경우 15.4%에서 15.8%로 다소 증가(+0.4%)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25> 설 귀성 또는 여행 지역의 분포

## 3)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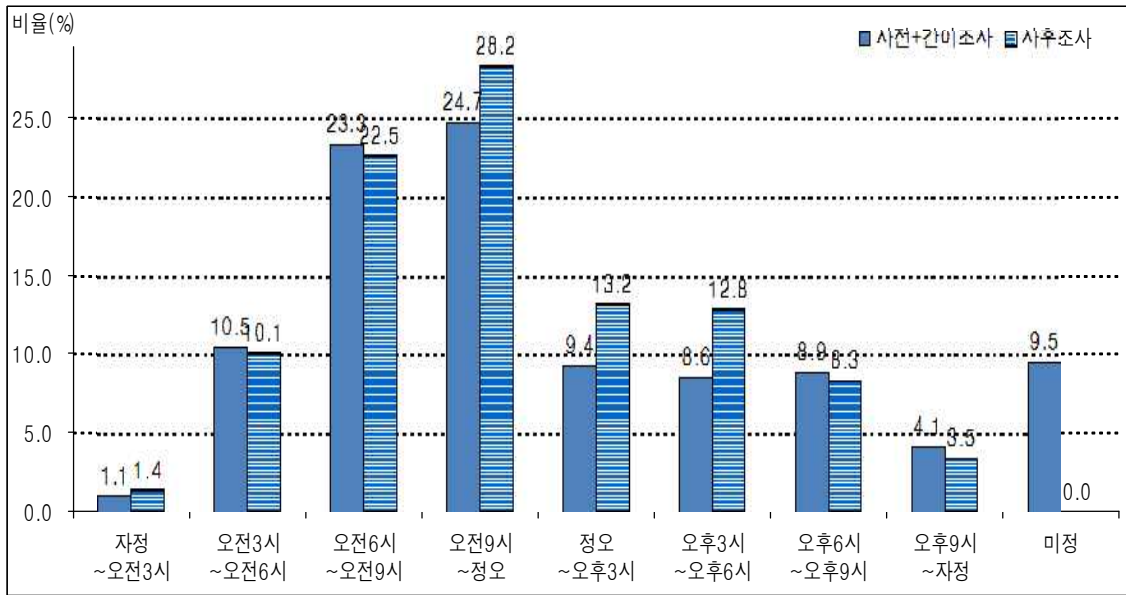
- 설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일자에 대한 사후조사 결과, 설 당일인 2월 14일(일)에 출발한다는 응답이 18.4%로 사전조사 15.5% 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월 13일(토) 출발이 53.6%로 사전조사 51.0%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lt;그림 4-26&gt;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일자의 분포

## 4)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시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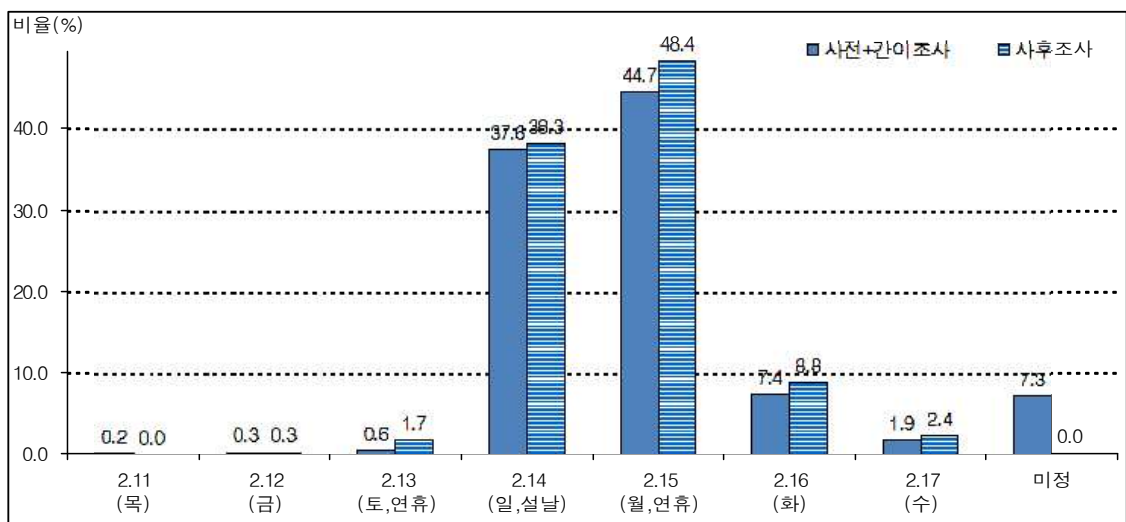
- 설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시간대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모두 오전 9시~정오가 24.7%, 2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오전 6시 ~ 오전 9시 역시 사전조사 23.3%, 사후조사 22.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사전조사 대비 사후조사의 시간대별 집중도가 강화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4-27>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시간대의 분포

#### 5) 설 귀가 또는 여행 후 출발 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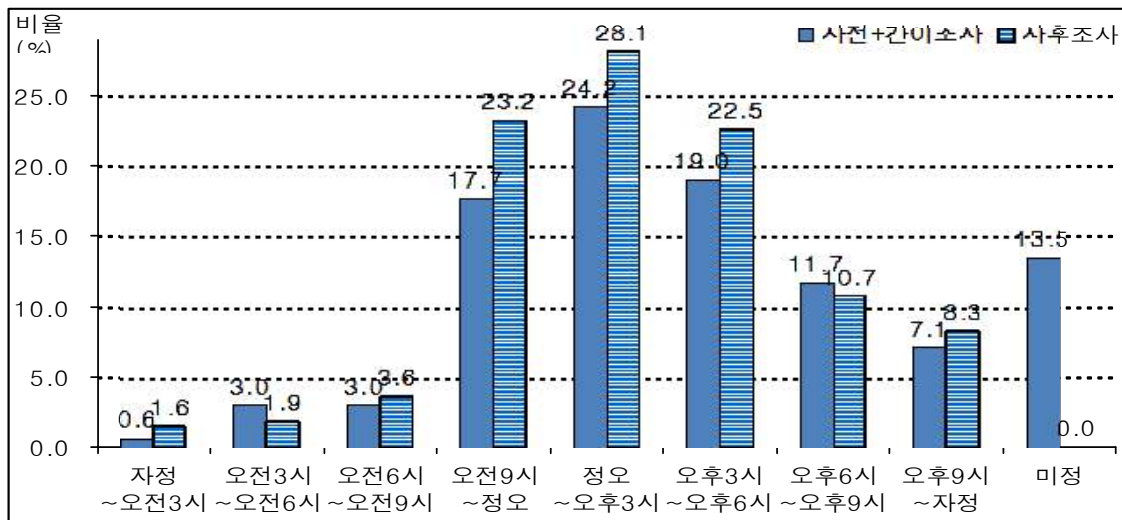
- 설 연휴기간 중 귀가 또는 여행후 출발 일자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모두 설 다음날인 2월 15일(월)에 출발한다는 응답이 44.7%와 4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설 당일인 2월 14일(일)이 사전조사에서는 37.8%, 사후조사에서는 38.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사전조사보다 사후조사에서 출발일자의 집중도는 강화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4-28> 설 귀가 또는 여행후 출발 일자의 분포

## 6) 설 귀가 또는 여행후 출발 시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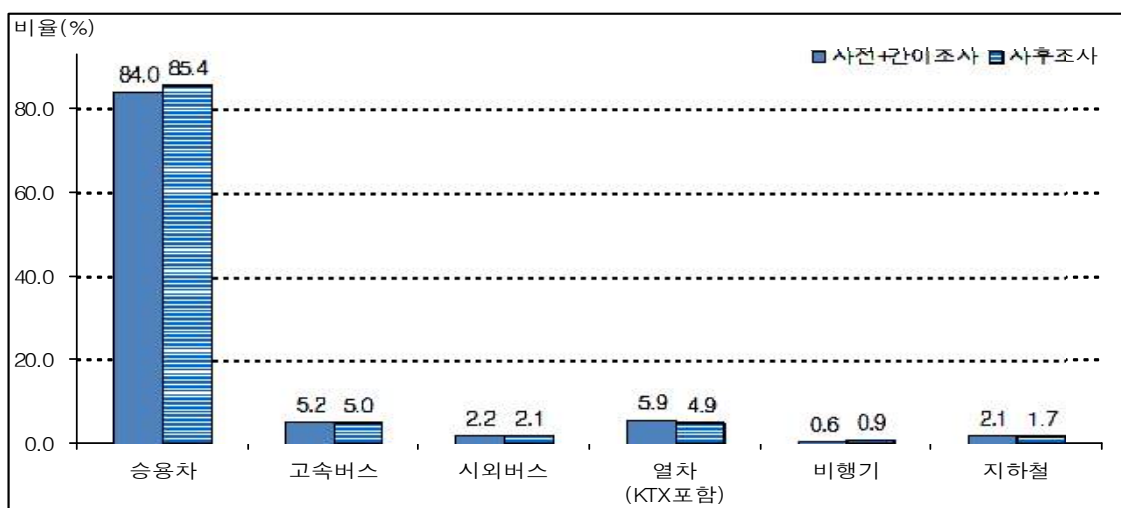
- 설 연휴기간 중 귀가 또는 여행후 출발 시간대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모두 정오 ~ 오후3시가 24.2%, 2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출발 시간대별 집중도는 사전조사시보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lt;그림 4-29&gt; 설 귀가 또는 여행후 출발 시간대의 분포

## 7)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교통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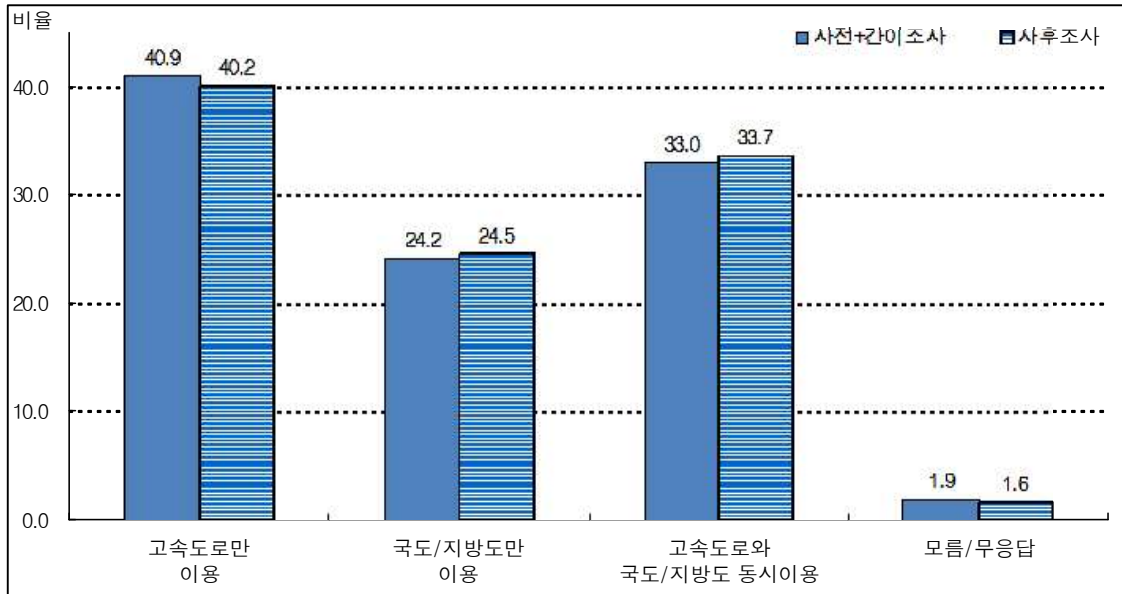
-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교통수단은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모두 승용차가 8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lt;그림 4-30&gt;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교통수단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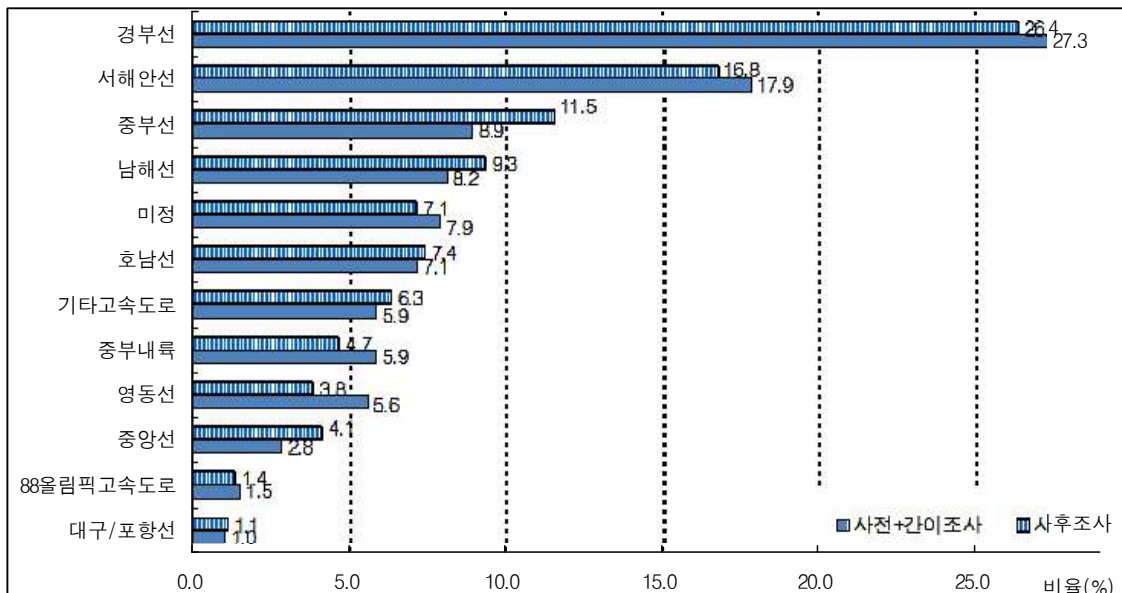
### 9)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도로

- 설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도로에 대한 조사 결과, 이용 도로별 응답률은 사전조사 결과와 대등한 수준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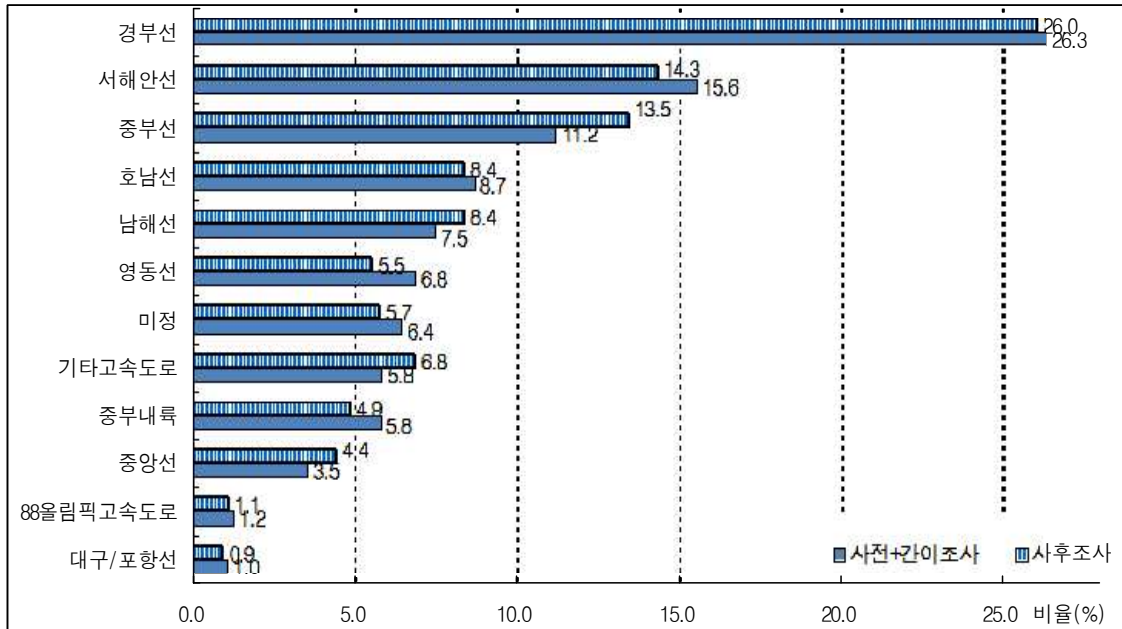
<그림 4-31>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도로의 분포

- 설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시 고속도로 주 이용 노선(단일선택)에 대한 조사 결과,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모두 경부선, 서해안선, 중부선, 남해선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4-32> 설 귀성 또는 여행시 고속도로 이용 노선의 분포

- 고속도로 이용자의 모든 이용노선을 중복선택하여 살펴본 결과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모두 경부선, 서해안선, 중부선, 호남선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4-33> 설 귀성 또는 여행시 고속도로 이용 노선의 분포(중복)

#### 10) 설 귀성 및 귀가시 교통비용

- 설 연휴기간 중 귀성 및 귀경을 위한 교통비용은 사전조사 사후조사 모두 10~20만원 미만의 응답이 28.7%와 2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설 연휴기간 중 귀성 및 귀가시 예상 교통비용은 사후조사에서는 9만 5천원으로 사전조사시 10만 2천원 대비 약 7천원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4-16> 설 귀성 및 귀가시 교통비용

단위: %, 명, 천원

구 분		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사전 미응답	모름/무응답	합계	평균
사전조사	비율	20.3	19.0	28.7	12.2	2.9	17.0	100.0	102.3
	빈도	128	120	181	77	18	107	631	
사후조사	비율	17.9	22.9	26.0	9.9	-	23.4	100.0	95.6
	빈도	103	132	150	57	-	135	577	

## 11) 설 연휴기간 이외에 추가적인 휴가 여부 및 휴가일 수

- 설 연휴기간 중 귀가 또는 여행후 출발 시간대에 대한 조사 결과, 사전조사에서는 51명이 추가적인 휴가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휴가일수도 평균 1.9일로 조사되었으나 사후조사에서는 67명이 평균 1.3일의 추가적인 휴가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사전조사시 보다 휴가일수는 줄어든 반면 추가적인 휴가를 이용한 사람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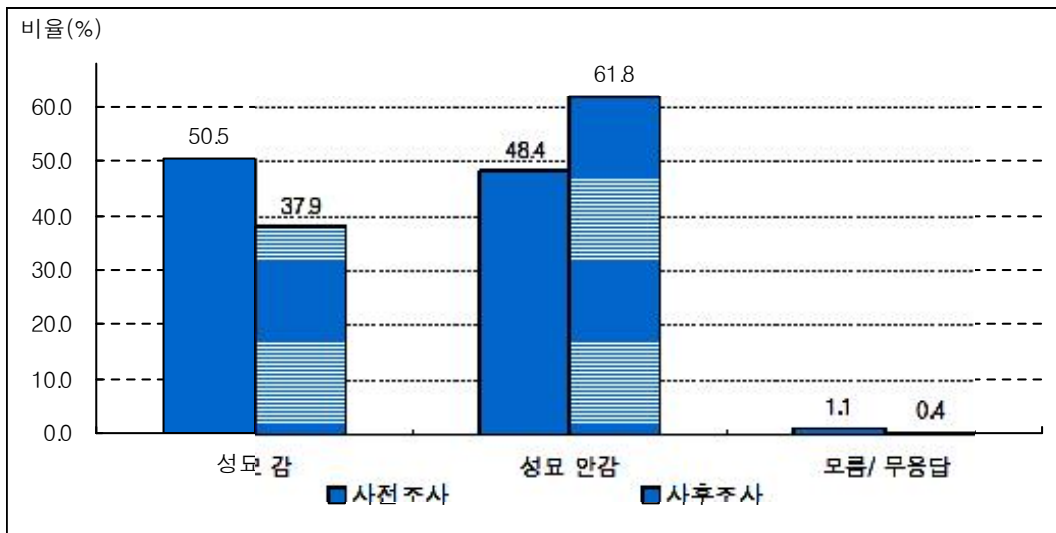
&lt;표 4-17&gt; 설 연휴기간 이외에 추가적인 휴가 계획일 수

단위: %, 명, 일

구 분			1일	2일	3일	4일	7일	모름/ 무응답	합계	평균
사전조사	설 연휴 이전	비율	20.7	6.9	-	3.4	-	69.0	100.0	1.6
		빈도	6	2	-	1	-	20	29	
	설 연휴 이후	비율	31.9	19.1	4.3	-	2.1	42.6	100.0	1.7
		빈도	15	9	2	-	1	20	47	
	설 연휴 이전+이후	비율	25.5	23.5	7.8	2.0	2.0	39.2	100.0	1.9
		빈도	13	12	4	1	1	20	51	
사후조사	설 연휴 이전	비율	95.8	4.2	-	-	-	-	100.0	1.0
		빈도	23	1	-	-	-	-	24	
	설 연휴 이후	비율	82.7	15.4	1.9	-	-	-	100.0	1.2
		빈도	43	8	1	-	-	-	52	
	설 연휴 이전+이후	비율	74.6	20.9	4.5	-	-	-	100.0	1.3
		빈도	50	14	3	-	-	-	67	

## 12) 설 연휴기간 중 성묘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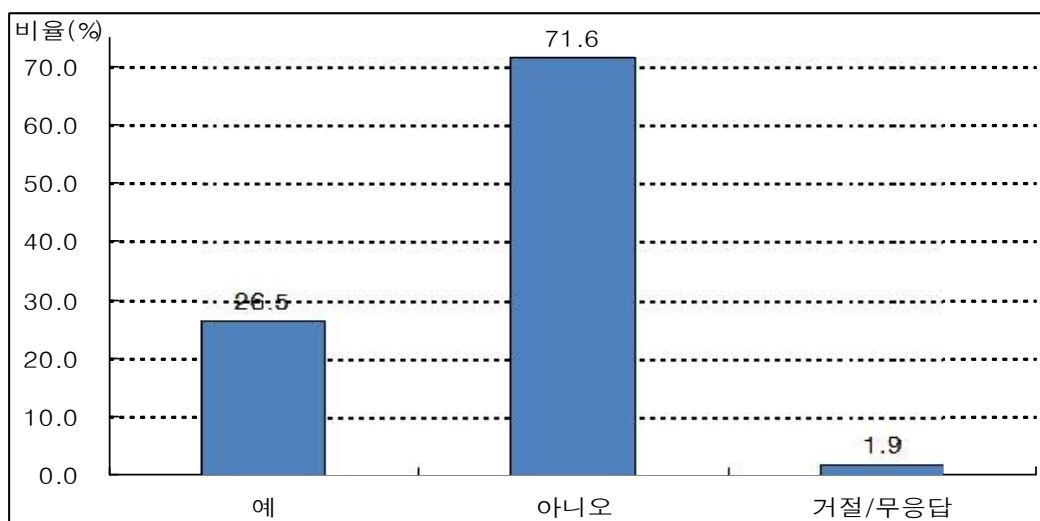
- 설 연휴기간 중 성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사전조사시 50.5%가 성묘를 다녀올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로 성묘를 다녀온 사람 37.9%인 것으로 나타남



&lt;그림 4-34&gt; 설 연휴기간 중 성묘여부

## 13) 설 귀성 및 귀가시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사후조사만 실시)

- 설 연휴기간 중 귀성 및 귀가시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이용했다는 응답은 26.5%로 나타났으며,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71.6%로 나타남



&lt;그림 4-35&gt; 설 귀성 및 귀가시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 설 연휴기간 중 귀성 및 귀가서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에 대하여 교통수단별로 살펴본 결과, 자가용의 경우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이용했다는 응답이 29.0%로 전체 평균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대중교통 이용자 중 고속버스 이용자의 20.7%가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이용했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수단은 10% 내외 수준임
- 따라서, 고속도로 이용율이 높고 노선 및 시간대 선택이 자유로운 수단에서 교통상황 정보를 활용한 경우가 많았음

<표 4-18>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여부 - 교통수단별

단위: %, 명

구 분		예	아니오	거절/무응답	합계
자가용	비율	29.0	68.8	2.2	100.0
	빈도	143	339	11	493
고속버스	비율	20.7	79.3	-	100.0
	빈도	6	23	-	29
시외버스	비율	8.3	91.7	-	100.0
	빈도	1	11	-	12
열차 (KTX포함)	비율	10.7	89.3	-	100.0
	빈도	3	25	-	28
비행기	비율	-	100.0	-	100.0
	빈도	-	5	-	5
지하철	비율	-	100.0	-	100.0
	빈도	-	10	-	10
합 계	비율	26.5	71.6	1.9	100.0
	빈도	153	413	11	577

## 제5절 사후평가

### 1. 수송실적 자료 수집

- 사후평가는 설연휴 특별교통대책의 시행효과를 개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전산화가 이루어진 부분에 한해 자료수집이 가능한 실정임
- 수송실적 수집 자료
  - 2010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5일간; 2010년 2월 12일(금)~2월 16일(화))의 일별 출발·도착지별 여객 수송실적 및 일별 총 수송실적
- 수송실적 자료 수집 기간
  - 수송실적 자료 수집 기간 : 2010년 2월 17일(수)~2월 22일(월)
- 2010년 설 연휴 수송실적자료 수집

수단	수집자료
승용차	한국도로공사의 TCS 자료 활용
버스	고속버스 :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자료 활용
	시외버스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자료 활용
	전세버스 :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자료 활용
철도 및 지하철	한국철도공사, (주)한국스마트카드 자료 활용
항공	한국공항공사 자료 활용
해운	한국해운조합 자료 활용

## 2. 사후평가

- 2008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약 4,419만 통행(시외전세버스 제외)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제 약 4,858만 통행(시외전세버스 제외)이 이동하여 약 9.0%의 오차율을 보임
- 수단별로 살펴보면 해운의 경우 22.4%로 가장 큰 오차율을 보였으며, 항공의 경우 12.5%의 오차율을 보였으나, 전체 대중교통수단의 분담율은 실측치 기준 7.5%로서 실제 통행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치는 영향은 적었음

<표 4-19> 설 연휴 통행량 예측 결과 비교

구분	실적(천통행)			수요예측(천통행)			오차율(%)
	승용차	대책기간	분담율	일평균	대책기간	분담율	
승용차	8,982	44,912	92.5	8,108	40,542	91.7	-9.7
고속버스	180	900	1.9	178	888	2.0	-1.4
철도	446	2,229	4.6	463	2,313	5.2	3.8
항공기	59	295	0.6	52	258	0.6	-12.5
여객선	48	242	0.5	38	188	0.4	-22.4
합계	9,716	48,579	100.0	8,838	44,190	100.0	-9.0

주: 1) 승용차 통행량에는 수도권 개방식 요금소 통행량 제외

2) 전세버스 및 시외버스의 경우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료 수집에 기한이 소요되어 수송실적을 수집하지 못함

### 가. TCS 자료를 이용한 승용차의 통행의 예측·실측 결과 비교

- 교통수요예측 결과를 세부적으로 평가하기위해 수송실적 기준 분담율이 가장 높은 승용차 수단의 통행수요 예측결과와 한국도로공사의 TCS 자료를 비교 검토함

## 1) 통행수요 예측치

## ○ 귀성통행량(승용차)

- 승용차의 귀성 통행량은 전국 약 463만대로 예측되었으며, 전체 통행량 중 경상권에서 출발하는 통행량이 44.0%, 경상권으로 도착하는 통행량이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각 권역별 발생통행량 대비 내부통행량의 비율을 살펴보면 타 권역에 비해 경상권이 92.1%로 내부통행량이 높게 나타남

&lt;표 4-20&gt; 설 연휴 귀성통행량 예측치(승용차 개방식 요금소 제외)

단위: 대

구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합계
수도권	873,029	54,185	270,533	79,407	137,435	1,414,590
강원권	35,863	115,480	14,503	1,309	14,192	181,346
충청권	174,624	12,948	262,954	114,377	77,865	642,766
전라권	17,312	1,072	51,312	247,714	35,391	352,801
경상권	57,376	8,255	47,014	48,413	1,876,914	2,037,971
합계	1,158,205	191,940	646,315	491,218	2,141,796	4,629,475

주: 귀성통행량은 2월 12일~13일 2일간의 통행량을 의미

## ○ 귀경통행량(승용차)

- 승용차의 귀경 통행량은 전국 약 642만대로 예측되었으며, 전체 통행량 중 경상권에서 출발하는 통행량이 46.9%, 경상권으로 도착하는 통행량이 6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각 권역별 발생통행량 대비 내부통행량의 비율을 살펴보면 타 권역에 비해 경상권이 87.9%로 내부통행량이 높게 나타남

&lt;표 4-21&gt; 설 연휴 귀경통행량 예측치(승용차 개방식 요금소 제외)

단위: 대

구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합계
수도권	1,048,065	54,655	280,655	40,445	85,792	1,509,612
강원권	66,841	171,238	17,016	1,459	12,443	268,997
충청권	372,277	22,083	356,363	87,015	84,250	921,988
전라권	83,145	1,685	144,763	398,379	80,941	708,912
경상권	167,733	22,874	115,136	57,978	2,644,259	3,007,980
합계	1,738,061	272,534	913,933	585,276	2,907,686	6,417,490

주: 귀경통행량은 2월 14일~16일 3일간의 통행량을 의미

## 2) 수송실적 실측치

## ○ 귀성통행량(승용차)

- 승용차의 귀성 통행량은 전국 약 452만대로 추정되었으며, 전체 통행량 중 경상권에 출발하는 통행량이 38.9%, 경상권으로 도착하는 통행량이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각 권역별 발생통행량 대비 내부통행량의 비율을 살펴보면 타 권역에 비해 경상권이 90.8%로 내부통행량이 높게 나타남

&lt;표 4-22&gt; 설 연휴 귀성통행량 실측치(승용차 개방식 요금소 제외)

단위: 대

구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합계
수도권	849,004	85,012	283,936	86,501	141,297	1,445,750
강원권	36,340	114,440	9,692	894	20,034	181,400
충청권	169,943	10,134	386,388	114,237	86,042	766,744
전라권	18,583	675	47,600	266,845	29,647	363,350
경상권	55,069	6,958	48,850	50,212	1,596,677	1,757,766
합계	1,128,939	217,219	776,466	518,689	1,873,697	4,515,010

주: 귀성통행량은 2월 12일~13일 2일간의 통행량을 의미

## ○ 귀경통행량(승용차)

- 승용차의 귀경 통행량은 전국 약 775만대로 추정되었으며, 전체 통행량 중 경상권에서 출발하는 통행량이 41.2%, 경상권으로 도착하는 통행량이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각 권역별 발생통행량 대비 내부통행량의 비율을 살펴보면 타 권역에 비해 경상권이 87.3%로 내부통행량이 높게 나타남

&lt;표 4-23&gt; 설 연휴 귀경통행량 실측치(승용차 개방식 요금소 제외)

단위: 대

구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합계
수도권	1,421,798	92,415	336,654	43,087	95,789	1,989,743
강원권	122,191	192,422	12,524	1,334	13,464	341,935
충청권	484,869	20,790	660,656	102,362	94,099	1,362,776
전라권	112,662	1,485	181,357	482,390	85,256	863,150
경상권	200,874	16,057	127,580	62,103	2,788,854	3,195,468
합계	2,342,394	323,169	1,318,771	691,276	3,077,462	7,753,072

주: 귀경통행량은 2월 14일~16일 3일간의 통행량을 의미

## 3) 평가결과

## ○ 귀성통행량 평가(예측치/실측치)

- 총량적으로는 실측치의 예측치의 비율이 102.5%로 비교적 정확도가 높은 편이었으나, 지역적으로 보면 충청권과 경상권의 출발/도착 통행에서 15~17%범위의 오차를 보이고 있음. 이는 2009년 폭설로 인한 해당 지역의 통행량 감소분이 2010년 설연휴 통행수요예측 부문에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 지역간 통행에서는 전라권 ↔ 강원권의 통행이 양방향 평균 약 52% 정도 과다추정되었으며 강원권 ↔ 충청권의 통행이 약 38% 정도 과다추정되었으나, 실제 해당지역간 통행량은 전체 통행량의 3% 내외로 실제 통행량에서는 큰 차이는 없음

&lt;표 4-24&gt; 설 연휴 귀성통행량 평가(예측치/실측치\_승용차 개방식 요금소 제외)

단위: %

구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합계
수도권	102.8	63.7	95.3	91.8	97.3	97.8
강원권	98.7	100.9	149.6	146.4	70.8	100.0
충청권	102.8	127.8	68.1	100.1	90.5	83.8
전라권	93.2	158.8	107.8	92.8	119.4	97.1
경상권	104.2	118.6	96.2	96.4	117.6	115.9
합계	102.6	88.4	83.2	94.7	114.3	102.5

주: 귀성통행량은 2월 12일~13일 2일간의 통행량을 의미

## ○ 귀경통행량 평가(예측치/실측치)

- 귀경통행의 경우, 전반적으로 예측치가 실측치에 비해 과소추정된 것으로 조사됨. 총량적으로는 약 17%의 오차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충청권이 32%, 수도권이 35%정도 과소추정 되었음. 지역간 통행에서 충청권 → 충청권의 예측치가 실측치보다 46.1% 작게 예측되어 실측치와 큰 차이를 보였음

&lt;표 4-25&gt; 설 연휴 귀경통행량 평가(예측치/실측치\_승용차 개방식 요금소 제외)

단위: %

구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합계
수도권	73.7	59.1	83.4	93.9	89.6	75.9
강원권	54.7	89.0	135.9	109.4	92.4	78.7
충청권	76.8	106.2	53.9	85.0	89.5	67.7
전라권	73.8	113.5	79.8	82.6	94.9	82.1
경상권	83.5	142.5	90.2	93.4	94.8	94.1
합계	74.2	84.3	69.3	84.7	94.5	82.8

주: 귀경통행량은 2월 14일~16일 3일간의 통행량을 의미

##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

제1절 결론

제2절 향후 과제



##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 제1절 결론

- 본 과업은 여름휴가, 추석연휴, 설연휴 기간 동안 평시와 달리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수단별 특별수송수요를 예측하여 각 기간별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 특별수송기간별 교통수요특성
  - 여름휴가 기간은 주5일근무제의 확대, 고부가가치 산업화에 따른 휴가기간의 증가 등에 따라 여행인구가 전년대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추석연휴 기간에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전년 대비하여 귀성 목적통행뿐 아니라 여행인구가 다소 감소하여 연휴기간동안의 총 수송수요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함
  - 설연휴 기간은 전년도에는 귀성시 폭설의 여파로 통행량이 다소 감소되었고, 올해는 강원도 및 충청도 일부지역에만 폭설의 영향이 있어 전체적인 통행량은 다소 증가되었으나 갓길차로 운행 추가허용, 휴게소 진출입 관리강화, 우회도로 이용유도 등으로 교통소통은 대체로 원활하였음
- 교통수요예측방법
  - 2009년도 사업은 2008년도 사업에서 적용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전년도 특별교통대책기간의 수송실적과 사전 설문조사결과에 근거하여 평시 통행과 특별(연휴, 휴가 등) 통행을 구분, 교통수요를 예측함
  - 추석 및 설 연휴 특별교통수요 예측을 위해서는 통행 목적을 평상시 통행, 귀성·귀경통행(역귀성 포함), 성묘통행, 친지방문통행 등으로 세분화하여 예측함. 즉, 평상시 통행은 전년도 대비 올해의 연평균 증감률을 적용하였으며, 귀성 및 귀경통행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산출된 전년도 대비 올해의 귀성비율을 적용하고 성묘통행 및 친지방문통행은 설문조사 응답결과를 이용하여 산출함
  - 공간적 단위로는 귀성, 귀경 수요 제공시 전국을 10개 권역(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기종점 통행량을 구축하였으며, 권역간 이동수요는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권)으로 제시하였음

### ○ 수요예측 평가결과

- 특별교통대책기간 이후 특별교통대책 추진결과보고에서 특별교통수요예측결과와 각 수단별 수송실적 집계자료에 의거한 총 수송인원 및 이용차량대수를 비교하여 평가함
  - 여름휴가의 경우 승용차 대수 기준 4.6%의 오차율을 보였으며, 추석연휴의 경우는 대중교통(시외전세버스 제외) 기준 4.1%, 승용차 대수 기준 7.7%의 오차율을, 설 연휴의 경우 시외전세버스를 제외한 전체수단 기준 9.0%의 오차율을 보임
- 보다 세분화된 교통수요예측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교통수단 중 분담률이 가장 높은 승용차의 예측치와 연휴기간동안 TCS 통행량 자료를 실측치로 활용하여 분석함
  - 설연휴기간 대상으로 귀성의 경우 2.5%의 오차율, 귀경의 경우 17.2%의 오차율을 보임

### ○ 사후설문 조사 시행

- 2009년 사업에서는 특별교통대책기간 이전에 시행된 사전설문조사결과와 실제 통행상태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후설문조사를 실시함
- 사후 설문조사 대상자는 사전 설문조사 대상자 중 실제로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를 기준<sup>1)</sup>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함. 전반적으로 귀성 또는 휴가계획이 계획이 없던 경우에서 변경된 경우는 설 및 추석 연휴기간에는 3%미만, 여름휴가기간에는 7% 미만이었으나, 계획이 있었으나 취소한 경우는 설 및 추석 기간이 11~20%, 여름휴가기간이 27% 정도로 사전설문조사에 따른 수요예측시 향후 변경가능성을 감안하여 수요를 예측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1) 추석연휴에는 귀성계획이 있는 대상자와 귀성계획이 없는 대상자의 응답비율에 비례하도록 사후설문조사를 설계하여, 귀성하지 않은 사람의 계획변경여부를 파악함

## 제2절 향후 과제

- 효과적인 특별교통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통행특성 예측이 필수적임. 이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설문조사(sample size)의 한계 및 짧은 조사시기의 한계 등을 극복할 수 있는 통행수요 예측모형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특별교통수요에서 발견되는 통행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요 예측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초자료를 상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 고속도로 및 국도 교통량조사 자료를 활용한 새로운 수요예측방법을 개발하여 기존 수요예측방법론을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과거의 통행수요 예측치와 고속도로 TCS 자료와 같은 수송실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예측모형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 특별교통대책기간별 설문조사 중 사전 및 간이조사로 구분된 방법을 수정하여 보다 유의미한 표본추출이 가능하도록 조사방법론을 합리화 하며,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경우 항목을 조정함
- 예측된 통행수요를 보다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특별교통대책 수립시 활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및 활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또한, 통행예측 및 교통대책에 대한 피드백(feed back)과정을 통해 수요예측방법론 및 기초자료 조사방법에 대한 업데이트가 요구됨

## 부 록

---

- A. 하계휴가 통행특성 분석을 위한 설문지
- B. 추석 연휴기간 통행특성 분석을 위한  
설문지
- C. 설 연휴기간 통행특성 분석을 위한 설문지
- D. 언론보도자료 정리
- E. 참고문헌



**【2009년도 하계 휴가기간 중 통행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해양부 조사상담원 000입니다. 저희 국토해양부에서는 여름 휴가철 교통대책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단지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협조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1. 귀하 또는 귀택에서는 작년(2008년)에 여름 휴가여행을 다녀오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그럼, 작년(2008년) 여름 휴가여행은 언제쯤 다녀오셨습니까?  
① 7월 이전                      ② 7월 초순                      ③ 7월 중순                      ④ 7월 하순  
⑤ 8월 초순                      ⑥ 8월 중순                      ⑦ 8월 하순                      ⑧ 9월 이후
3. (문3의 ‘②아니오’, ‘③미정’ 응답자에게만 질문) 그럼, 여름 휴가여행 계획이 없거나 미정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미정
4. (문3의 ‘②아니오’, ‘③미정’ 응답자에게만 질문) 그럼, 여름 휴가여행 계획이 없거나 미정인 이유는 무엇입니까?(응답 후 문16번으로 이동)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② 휴가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③ 자녀 학업상의 이유로  
④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⑤ 기타( )
5. 그럼, 올해(2009년) 여름 휴가여행은 언제쯤 가실 예정입니까?  
① 06.29(월)~07.04(토)    ② 07.05(일)~07.11(토)    ③ 07.12(일)~07.18(토)  
④ 07.19(일)~07.25(토)    ⑤ 07.26(일)~08.01(토)    ⑥ 08.02(일)~08.08(토)  
⑦ 08.09(일)~08.15(토)    ⑧ 08.16(일)~08.22(토)    ⑨ 08.23(일)~08.31(월)    ⑩ 9월 이후
6. 올해(2009년) 여름 휴가여행은 며칠간 다녀오실 계획이십니까?  
① 당일    ② 1박 2일    ③ 2박 3일    ④ 3박 4일    ⑤ 4박 5일    ⑥ 6일 이상    ⑦ 미정

7. 본인을 포함해서 올해(2009년) 여름 휴가여행을 함께 가실 분은 모두 몇 명입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⑦ 7명 ⑧ 8명 ⑨ 9명 ⑩ 10명 이상

8. 귀하 또는 귀댁에서는 작년(2008년) 여름 휴가여행을 어느 지역으로 다녀 오셨습니까?

8-1. 그럼, 올해(2009년) 여름 휴가여행을 어느 지역으로 떠나실 예정입니까?

국내인 경우 :

- ① 동해안권 : 강릉, 경포대, 주문진, 속초, 울릉도 등
- ② 서해안권 : 인천, 목포, 보길도, 대천, 안면도, 변산반도, 영종도, 홍도, 흑산도 등
- ③ 남해안권 : 여수, 부산, 한려수도, 거제도, 해남, 땅끝마을 등
- ④ 강원내륙권 : 설악산, 오대산, 평창, 동강, 영월, 정선, 원주, 치악산, 춘천 등
- ⑤ 충청내륙권 : 화양계곡, 청주, 충주, 대전, 유성, 속리산, 온양, 공주, 부여 등
- ⑥ 영남내륙권 : 문경새재, 경주, 포항, 울산, 백양사, 무주구천동 등
- ⑦ 호남내륙권 : 광주, 부안, 고창, 선운사, 지리산 등
- ⑧ 수도권 : 서울, 양평, 가평, 양수리, 포천 등
- ⑨ 제주도 : 제주도 일원

해외인 경우 :

- ⑩ 동남아 ⑪ 일본 ⑫ 중국 ⑬ 남태평양 ⑭ 미주 ⑮ 유럽 ⑯ 기타

9. 귀하 또는 귀댁에서는 작년(2008년) 여름 휴가여행시 주로 이용하셨던 교통 수단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자가용 ② 승합차 ③ 고속버스 ④ 시외버스 ⑤ 전세/관광버스
- ⑥ 열차(무궁화, 새마을, 관광열차) ⑦ 고속철도 ⑧ 비행기 ⑨ 선박 ⑩ 기타

9-1. 그럼, 올해(2009년) 여름 휴가여행시 이용하실 주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자가용, 승합차 2대 이상인 경우 차량대수 기입)

① 자가용      ② 승합차      (문10으로 이동)

③ 고속버스 ④ 시외버스 ⑤ 전세/관광버스  
⑥ 열차(무궁화, 새마을 등) ⑦ 고속철도 ⑧ 비행기 ⑨ 선박 ⑩ 기타      (문11로 이동)

10. (문9-1. '①자가용' 및 '②승합차' 응답자에게만 질문) 올해(2009년) 여름 휴가여행시 어떤 도로를 이용하실 계획이십니까?

- ① 고속도로만 이용      ② 국도/지방도만 이용(문11로 이동)
- ③ 고속도로와 국도/지방도를 동시에 이용

10-1. 그럼, 고속도로 이용시 어떤 노선을 이용하실 예정입니까? 가장 많이(길게) 이용할 노선을 순서대로 말씀해 주세요.

- ① 경부선 ② 중부선 ③ 영동선 ④ 호남선 ⑤ 서해안선 ⑥ 중부내륙  
⑦ 중앙선 ⑧ 남해선 ⑨ 대구-포항 ⑩ 88 올림픽고속도로 ⑪ 기타

11. 귀하 또는 귀하의 작년(2008년) 여름휴가 지출 비용과 올해(2009년) 예상되는 여름휴가 지출 비용을 각각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      만원 , 작년 :      만원

12. 만약, 사전에 계획한 여름휴가 기간에 폭염 또는 무더위 같은 기상상태이거나 기상예보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계획했던 일정대로 여행 ② 여행계획을 취소 ③ 여행지역을 변경  
④ 일정계획을 앞당김 ⑤ 일정계획을 뒤로 미룸 ⑥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  
⑦ 기타(                      )

13. 그럼, 사전에 계획한 여름휴가 기간에 폭우 또는 장마 같은 기상상태이거나 기상예보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계획했던 일정대로 여행 ② 여행계획을 취소 ③ 여행지역을 변경  
④ 일정계획을 앞당김 ⑤ 일정계획을 뒤로 미룸 ⑥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  
⑦ 기타(                      )

14. 귀하께서는 평소 여름휴가 기간 중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이용하십니까?

- ①예                                      ②아니오(문15로 이동)

14-1. (문14. ‘①예’ 응답자에게만 질문) 그럼,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고 있습니까?(교통정보 수신처) (단수응답)

- ① 인터넷 ② 핸드폰/전화(ARS) ③ 라디오 ④ TV : 자막방송  
⑤ TV : 정규방송 ⑥ 신문 ⑦ 도로 전광판 ⑧ 네비게이션  
⑨기타(                      )

15. 만약, 출발전 목적지의 교통정체가 심할 것이라는 정보를 접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변함없음 ② 여행의 취소 ③ 출발일자 변경 ④ 출발시간 변경  
⑤ 여행지 변경 ⑥ 이용수단 변경 ⑦ 주 이용도로 변경 ⑧ 우회도로 이용  
⑨ 기타(                      )

16. 귀하의 현재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자영업 (종업원 9인이하 상점 운영 및 후원 등)등
- ② 판매/영업 서비스직(세일즈맨, 점원 등)
- ③ 기능/작업직 (생산직 종사자 등)
- ④ 사무/기술직 (과장 이하 회사원, 공무원 등)
- ⑤ 경영/관리직 (종업원 10인 이상 운영/부장급 이상 등)
- ⑥ 자유/전문직 (교수, 판사, 의사, 약사 등)
- ⑦ 농업/임업/어업/축산업
- ⑧ 전업주부
- ⑨ 학생
- ⑩ 무직
- ⑪ 기타

설문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약 1주일 후 또는 1개월 후, 사후조사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사후조사 때에도 꼭!! 조사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그럼, 올해(2009년) 여름 휴가여행은 며칠간 다녀오셨습니까?(또는 다녀올 계획이십니까?)

① 당일 ② 1박 2일 ③ 2박 3일 ④ 3박 4일 ⑤ 4박 5일 ⑥ 6일 이상

- 4-1. (문4에서 응답된 보기항목과 리스트상의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휴가일정 기간이 △△△이라고 응답하셨었는데, 일정 기간이 변경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정 증가시

① 생업(사업)상의 문제가 해결됨 ② 휴가비용 문제가 해결됨 ③ 자녀 학업 문제가 해결됨  
④ 혼잡한 교통 문제가 해결됨 ⑤ 기상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⑥ 기타( )

일정 감소시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② 휴가비용이 부담됐기 때문에 ③ 자녀 학업상의 이유로  
④ 교통이 혼잡했기 때문에 ⑤ 기상여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⑥ 기타( )

5. 본인을 포함해서 올해(2009년) 여름 휴가여행을 함께 가셨던(또는 함께 가실) 분은 모두 몇 명입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⑦ 7명 ⑧ 8명 ⑨ 9명 ⑩ 10명 이상

- 5-1. (문5에서 응답된 보기항목과 리스트상의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동행인원이 △△△명이라고 응답하셨었는데, 동행인원 수가 변경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원수 증가시

① 생업(사업)상의 문제가 해결됨 ② 휴가비용 문제가 해결됨 ③ 자녀 학업 문제가 해결됨  
④ 혼잡한 교통 문제가 해결됨 ⑤ 기상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⑥ 기타( )

인원수 감소시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② 휴가비용이 부담됐기 때문에 ③ 자녀 학업상의 이유로  
④ 교통이 혼잡했기 때문에 ⑤ 기상여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⑥ 기타( )

6. 올해(2009년) 여름 휴가여행은 어느 지역으로 다녀 오셨습니까?

국내인 경우 :

- ① 동해안권 : 강릉, 경포대, 주문진, 속초, 울릉도 등  
② 서해안권 : 인천, 목포, 보길도, 대천, 안면도, 변산반도, 영종도, 홍도, 흑산도 등  
③ 남해안권 : 여수, 부산, 한려수도, 거제도, 해남, 땅끝마을 등  
④ 강원내륙권 : 설악산, 오대산, 평창, 동강, 영월, 정선, 원주, 치악산, 춘천 등  
⑤ 충청내륙권 : 화양계곡, 청주, 충주, 대전, 유성, 속리산, 온양, 공주, 부여 등  
⑥ 영남내륙권 : 문경새재, 경주, 포항, 울산, 백양사, 무주구천동 등

⑦ 호남내륙권 : 광주, 부안, 고창, 선운사, 지리산 등

⑧ 수도권 : 서울, 양평, 가평, 양수리, 포천 등

⑨ 제주권 : 제주도 일원

해외인 경우 :

⑩ 동남아 ⑪ 일본 ⑫ 중국 ⑬ 남태평양 ⑭ 미주 ⑮ 유럽 ⑯ 기타

6-1. (문6에서 응답된 보기항목과 리스트상의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여름 휴가여행 지역이 변경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휴가비용의 부담 때문에                      ② 여행일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③ 숙박 예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④ 동행인원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⑤ 기상여건 때문에                      ⑥ 교통정체 때문에            ⑦ 기타(            )

7. 올해(2009년) 여름 휴가여행시 주로 이용하셨던(또는 주로 이용하실)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자가용            ② 승합차            (문8로 이동)

③ 고속버스④ 시외버스⑤ 전세/관광버스  
⑥ 열차(무궁화, 새마을 등) ⑦ 고속철도 ⑧ 비행기 ⑨ 선박 ⑩ 기타            (문10으로 이동)

7-1. (문7에서 응답된 보기항목과 리스트상의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주요 교통수단이 변경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휴가비용의 부담 때문에                      ② 여행일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③ 여행지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④ 숙박 예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⑤ 동행인원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⑥ 기상여건 때문에                      ⑦ 교통정체 때문에  
⑧ 대중교통 예약을 못했기 때문에            ⑨ 기타(            )

8. (문7. '①자가용' 및 '②승합차' 응답자에게만 질문) 올해(2009년) 여름 휴가여행시 어떤 도로를 이용하셨습니다?(또는 이용할 예정이십니까?)

- ① 고속도로만 이용                      ② 국도/지방도만 이용(문11로 이동)  
③ 고속도로와 국도/지방도를 동시에 이용

8-1. (문8에서 응답된 보기항목과 리스트상의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이용 도로가 변경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②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③ 여행지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④ 기타(            )

9. 그럼, 고속도로 이용시 어떤 노선을 이용하셨습니까?(또는 이용할 예정이십니까?)

- ① 경부선 ② 중부선 ③ 영동선 ④ 호남선 ⑤ 서해안선 ⑥ 중부내륙  
⑦ 중앙선 ⑧ 남해선 ⑨ 대구-포항 ⑩ 88 올림픽고속도로 ⑪ 기타

9-1. (문9에서 응답된 보기항목과 리스트상의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이용 노선이 변경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②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③ 여행지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④ 기타( )

10. 귀하 또는 귀댁의 올해(2009년) 여름휴가시 지출(또는 지출 예정인) 비용은 총 얼마나 되나요? ( )만원

10-1. (문10에서 응답된 보기항목과 리스트상의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출 비용이 증가(또는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용 증가시

- ①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② 여행일정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③ 여행지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④ 동행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⑤ 이용 교통수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⑥ 기타( )

비용 감소시

- ① 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② 여행일정이 단축되었기 때문에  
③ 여행지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④ 동행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⑤ 이용 교통수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⑥ 기타( )

11. 마지막으로 귀하의 현재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자영업 (종업원 9인 이하 상점 운영 및 후원 등) 등  
② 판매/영업 서비스직(세일즈맨, 점원 등)  
③ 기능/작업직 (생산직 종사자 등)  
④ 사무/기술직 (과장 이하 회사원, 공무원 등)  
⑤ 경영/관리직 (종업원 10인 이상 운영/부장급 이상 등)  
⑥ 자유/전문직 (교수, 판사, 의사, 약사 등)  
⑦ 농업/임업/어업/축산업  
⑧ 전업주부  
⑨ 학생  
⑩ 무직  
⑪ 기타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B. 추석 연휴기간 통행특성 분석을 위한 설문지

가. 추석 사전조사

### 『2009년도 추석 연휴기간 중 통행행태 조사』

조사지역:    시/도    구    동/읍/면    조사일자 : \_\_\_\_월 \_\_\_\_일    조사자: \_\_\_\_\_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해양부 조사상담원 000입니다. 저희 국토해양부에서는 추석 연휴기간 교통대책수립을 위한 설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단지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협조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1. 귀하 또는 귀댁에서는 작년(2008년) 추석 연휴에 귀성(또는 여행)을 다녀오셨습니까?

① 귀성    ② 여행    ③ 귀성 및 여행    ④ 안갔음(문4로 이동)

2. 그럼, 작년(2008년) 추석연휴 때 귀성 및 귀경은 언제 하셨습니까?

귀성시

① 연휴기간 이전    ② 연휴기간 내    ③ 연휴기간 이후

귀가시

① 연휴기간 이전    ② 연휴기간 내    ③ 연휴기간 이후

3. 귀하 또는 귀댁에서 작년(2008년) 귀성(또는 여행) 및 귀가시 주로 이용하셨던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자가용                                  ② 고속버스                                  ③ 시외버스                                  ④ 전세/관광버스  
⑤ 열차(고속철도 포함)                  ⑥ 비행기                                  ⑦ 선박    ⑧ 기타

4. 귀하 또는 귀댁에서는 올해(2009년)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또는 여행) 계획이 있습니까?

① 귀성                                  ② 여행                                  ③ 귀성 및 여행                                  (문7로 이동)

④ 없다(문5로 이동)    ⑤ 미정(문18로 이동)

5. (문4의 '④ 없다' 응답자에게만 질문) 그럼,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또는 여행) 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현재 거주지가 고향은 아니지만, 부모님(또는 친지들)이 역귀성하기 때문에(문6으로 이동)

②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 거주해서

③ 지출비용의 부담 때문에

④ 업무(생업) 때문에

⑤ 추석 연휴기간 외에 귀성(또는 여행) ⑥ 추석 연휴가 짧아서

⑦ 경기가 안 좋아서

⑧ 신종플루 때문에

⑨ 교통혼잡 때문에

⑩ 기타( )

(문18로 이동)

6. (문5의 '①부모님(또는 친지들)의 역귀성' 응답자에게만 질문) 다른 가족들이 역귀성을 하신다면 어느 지역에서 오실 예정입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도

⑨ 강원도

⑩ 충청북도

⑪ 충청남도

⑫ 전라북도

⑬ 전라남도 ⑭ 경상북도

⑮ 경상남도

⑯ 제주도

7. 귀성(또는 여행)의 출발 날짜는 대략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① 9.30(수, 평일) 이전

② 10.1(목, 평일)

③ 10.2(금, 추석연휴)

④ 10.3(토, 추석당일)

⑤ 10.4(일, 추석연휴)

⑥ 10.5(월, 평일)

⑦ 10.6(화, 평일)

⑧ 10.7(수, 평일) 이후

⑨ 미정

8. 귀성 또는 여행가실 때, 출발 시간은 대략 몇 시쯤으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① 0시~오전6시

② 오전6시~오전9시

③ 오전9시~오후12시

④ 오후

12시~오후6시

⑤ 오후6시~오후9시

⑥ 오후9시~자정

⑦ 미정

9. 그럼, 귀가시(또는 여행 후) 돌아올 날짜는 대략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① 9.30(수, 평일) 이전

② 10.1(목, 평일)

③ 10.2(금, 추석연휴)

④ 10.3

(토, 추석당일) ⑤ 10.4(일, 추석연휴)

⑥ 10.5(월, 평일)

⑦ 10.6(화, 평일)

⑧ 10.7(수, 평일) 이후 ⑨ 미정

10. 귀가시(또는 여행 후) 돌아올 때, 출발 시간은 대략 몇 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① 0시~오전6시

② 오전6시~오전9시

③ 오전9시~오후12시

④ 오후12시~오후6시

⑤ 오후6시~오후9시

⑥ 오후9시~자정

⑦ 미정

11. 귀택에서는 본인을 포함해서 귀성(또는 여행)을 함께 가실 분은 모두 몇 명입니까?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⑦ 7명      ⑧ 8명      ⑨ 9명      ⑩ 10명      ⑪ 기타(    명)

12. 올해(2009년) 추석 연휴에 귀성 또는 여행은 어느 지역으로 다녀오실 계획입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도      ⑨ 강원도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도      ⑰ 동남아      ⑱ 중국  
⑲ 일본      ⑳ 유럽      ㉑ 미주      ㉒ 남태평양      ㉓ 기타(            )

13. 귀하 또는 귀택에서 귀성(또는 여행) 및 귀가시 주로 이용하실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① 자가용(문 14로 이동)

- |               |        |                         |
|---------------|--------|-------------------------|
| ② 고속버스        | ③ 시외버스 | ④ 전세/관광버스               |
| ⑤ 열차(고속철도 포함) | ⑥ 비행기  | ⑦ 선박    ⑧ 기타 (문16으로 이동) |

14. (문13. '① 자가용' 응답자에게만 질문) 귀성(또는 여행)시 어떤 도로를 이용하실 예정입니까?

- ① 고속도로만 이용      ② 국도/지방도만 이용(문17로 이동)  
③ 고속도로와 국도/지방도를 동시에 이용

15. 그럼, 고속도로 이용시 어떤 노선을 이용하실 예정입니까?(문17로 이동)

- ① 경부선      ② 중부선      ③ 영동선      ④ 호남선(천안-논산선)      ⑤ 서해안선  
⑥ 중부내륙선      ⑦ 중앙선      ⑧ 남해선      ⑨ 익산-포항선      ⑩ 88올림픽고속도로  
⑪ 경춘선      ⑫ 당진-상주선      ⑬ 서천-공주선      ⑭ 기타

16. (문13. '②고속버스' ~ '⑧기타' 응답자에게만 질문) 귀성(또는 여행)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 표를 예매하셨습니다가?

- ① 귀성, 귀경 모두 예매      ② 귀성만 예매      ③ 귀경만 예매      ④ 모두 예매 못함

16-1. 만약 귀성/귀경시 표를 예매하지 못할 경우, 대체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① 자가용      ② 시외/전세버스      ③ 귀성/귀경을 포기      ④ 기타(            )

17. 귀하 또는 귀택에서는 작년(2008년) 귀성 및 귀경을 위한 교통비용은 얼마 지불하셨으며, 올해는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 작년(2008년) (            )만원, 올해(2009년) (            )만원

18. 귀하 또는 귀댁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에 성묘를 가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9. 귀하 또는 귀댁에서는 올해 추석의 귀성 및 귀경을 위해 연휴기간 이외에 추가적인 휴가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① 아니오

② 예

19-1. (문19. ‘②예’를 응답자에게만 질문)그럼, 계획하신 휴가일 수를 추석연휴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세요.

추석연휴 이전( )일, 추석연휴 이후( )일

특별교통대책이란, 정부에서 명절(설, 추석) 또는 하계 등 교통량이 급변하는 기간 중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여객 이동 상황 및 안전 수송 지도, 교통 불편 처리, 교통 사고 신속대처, 우회도로 안내 등을 수행하는 것임.

20. 귀하는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설문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21.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특별교통대책에 관한 제안이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22. 실례지만 귀댁의 가족은 본인을 포함해서 총 몇 분이십니까? ( 총        명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나. 추석 간이조사

## 『2009년도 추석 연휴기간 중 통행행태 간이 설문조사』

조사지역: 시/도 구 동/읍/면 조사일자 : \_\_\_\_월 \_\_\_\_일 조사자: \_\_\_\_\_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해양부 조사상담원 000입니다. 저희 국토해양부에서는 추석 연휴기간 교통대책수립을 위한 설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난 주에 설문 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에 응답해 주신 설문항목에 대하여 몇 가지만 확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협조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1. 귀하 또는 귀댁에서는 올해(2009년)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또는 여행) 계획이 있으십니까?

☐ ① 귀성      ☐ ② 여행      ☐ ③ 귀성 및 여행 (문3으로 이동)

☐ ④ 없다(문2로 이동 후 설문조사 종료)      ☐ ⑤ 미정(설문조사 종료)

2. (문1의 '④ 없다' 응답자에게만 질문) 그럼,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또는 여행) 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단수)

☐ ① 현재 거주지가 고향은 아니지만, 부모님(또는 친지들)이 역귀성하기 때문에

☐ ②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 거주해서

☐ ③ 지출비용의 부담 때문에

☐ ④ 업무(생업) 때문에

☐ ⑤ 추석 연휴기간 외에 귀성(또는 여행)      ☐ ⑥ 추석 연휴가 짧아서

☐ ⑦ 경기가 안 좋아서

☐ ⑧ 신종플루 때문에

☐ ⑨ 교통혼잡 때문에

☐ ⑩ 기타

3. 귀성(또는 여행)의 출발 날짜는 대략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 ① 9.30(수, 평일) 이전

☐ ② 10.1(목, 평일)

☐ ③ 10.2(금, 추석연휴)

☐ ④ 10.3(토, 추석당일)

☐ ⑤ 10.4(일, 추석연휴)

☐ ⑥ 10.5(월, 평일)

☐ ⑦ 10.6(화, 평일)

☐ ⑧ 10.7(수, 평일) 이후

☐ ⑨ 미정

4. 귀성 또는 여행가실 때, 출발 시간은 대략 몇 시쯤으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 ① 0시~오전6시

☐ ② 오전6시~오전9시

☐ ③ 오전9시~오후12시

☐ ④ 오후12시~오후6시

☐ ⑤ 오후6시~오후9시

☐ ⑥ 오후9시~자정

☐ ⑦ 미정

5. 그럼, 귀가시(또는 여행 후) 돌아올 날짜는 대략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① 9.30(수, 평일) 이전      ② 10.1(목, 평일)      ③ 10.2(금, 추석연휴)  
 ④ 10.3(토, 추석당일)      ⑤ 10.4(일, 추석연휴)      ⑥ 10.5(월, 평일)  
 ⑦ 10.6(화, 평일)      ⑧ 10.7(수, 평일) 이후      ⑨ 미정
6. 귀가시(또는 여행 후) 돌아올 때, 출발 시간은 대략 몇 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① 0시~오전6시      ② 오전6시~오전9시      ③ 오전9시~오후12시      ④ 오후12시~오후6시  
 ⑤ 오후6시~오후9시      ⑥ 오후9시~자정      ⑦ 미정
7. 귀댁에서는 본인을 포함해서 귀성(또는 여행)을 함께 가실 분은 모두 몇 명입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⑦ 7명      ⑧ 8명      ⑨ 9명      ⑩ 10명      ⑪ 기타(    명)
8. 올해(2009년) 추석 연휴에 귀성 또는 여행은 어느 지역으로 다녀오실 계획입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도      ⑨ 강원도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도      ⑰ 동남아      ⑱ 중국  
 ⑲ 일본      ⑳ 유럽      ㉑ 미주      ㉒ 남태평양      ㉓ 기타(            )
9. 귀하 또는 귀댁에서 귀성(또는 여행) 및 귀가시 주로 이용하실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자가용(문 10으로 이동)  

② 고속버스	③ 시외버스	④ 전세/관광버스
⑤ 열차(고속철도 포함)	⑥ 비행기	⑦ 선박    ⑧ 기타 (문12로 이동)
10. (문9. '①자가용' 응답자에게만 질문) 귀성(또는 여행)시 어떤 도로를 이용하실 예정입니까?  
 ① 고속도로만 이용      ②국도/지방도만 이용(설문조사 종료)  
 ③고속도로와 국도/지방도를 동시에 이용
11. 그럼, 고속도로 이용시 어떤 노선을 이용하실 예정입니까? 가장 많이(길게) 이용할 노선을 순서대로 말씀해 주세요.(복수응답)  
 ① 경부선      ② 중부선      ③ 영동선      ④ 호남선(천안-논산선)      ⑤ 서해안선  
 ⑥ 중부내륙선      ⑦ 중앙선      ⑧ 남해선      ⑨ 익산-포항선      ⑩ 88올림픽고속도로  
 ⑪ 경춘선      ⑫ 당진-상주선      ⑬ 서천-공주선      ⑭ 기타

12. (문9. '②고속버스' ~ '⑧기타' 응답자에게만 질문) 귀성(또는 여행)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 표를 예매하셨습니까?

- ① 귀성, 귀경 모두 예매    ② 귀성만 예매    ③ 귀경만 예매    ④ 모두 예매 못함

12-1. 만약 귀성/귀경시 표를 예매하지 못할 경우, 대체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① 자가용    ② 시외/전세버스    ③ 귀성/귀경을 포기    ④기타(                      )

-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다. 추석 사후조사

## 『2009년 추석 연휴기간 중 통행행태 사후 조사』

조사지역: 시/도 구 동/읍/면 조사일자: \_\_\_\_월 \_\_\_\_일 조사자: \_\_\_\_\_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해양부 조사상담원 000입니다. 저희 국토해양부에서는 추석 연휴기간 교통대책수립을 위한 설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달 추석 연휴 통행행태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달 응답해 주신 설문항목에 대하여 몇 가지만 확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협조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1. (사전조사에서 응답 받은) 올해(2009년)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 및 여행 계획 여부

- ① 귀성    ② 여행    ③ 귀성 및 여행    ④ 없다    ⑤ 미정

2. 귀하 또는 귀댁에서는 올해(2009년)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또는 여행)을 다녀오셨습니까?

- ① 귀성    ② 여행    ③ 귀성 및 여행    (문5로 이동)

④ 없다(문3 또는 문4로 이동)(※ 문3 - 문1:④없다⑤미정,문2:④안갔음 / 문4 - 문1:①귀성,문2:④안갔음)

3. (문1의 '④없다', '⑤미정'문2의 '④안갔음' 응답자에게만)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단수)

- ① 현재 거주지가 고향은 아니지만, 부모님(또는 친지들)이 역귀성하기 때문에(문3-1로 이동)  
 ②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 거주해서  
 ③ 지출비용의 부담 때문에    ④ 업무(생업) 때문에    ⑤ 추석 연휴기간 외에 귀성(또는 여행)  
 ⑥ 추석 연휴가 짧아서    ⑦ 경기가 안 좋아서    ⑧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⑨ 교통혼잡 때문에    ⑩ 교통편을 마련하지 못해서    ⑪ 자녀 학업상의 이유  
 ⑫ 기상여건 때문에    ⑬ 기타 (            )

3-1. (문3의 '①부모님(또는 친지들)의 역귀성' 응답자에게만 질문) 다른 가족들이 귀성 시 어느 지역에서 귀댁으로 귀성하엿습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도    ⑨ 강원도    ⑩ 충북    ⑪충남    ⑫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도

4. (문1의 '①,②,③ 귀성 또는 여행' 응답 문2 '④ 안갔음' 으로 변경된 응답자에게만 질문) 그럼,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을 취소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 ① 부모님(또는 친지들)이 역귀성하기 때문에(문4-1로 이동)  
 ② 부모님(또는 친지들)이 거주지 근처로 이사와서 ③ 지출비용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④ 업무(생업) 때문에 ⑤ 추석 연휴기간 외에 귀성 또는 여행을 하려고  
 ⑥ 추석 연휴가 짧아서 ⑦ 경기가 악화되어서  
 ⑧ 신종 인플루엔자의 위험이 증가되어서 ⑨ 교통소통상황이 나빠져서  
 ⑩ 자녀 학업상의 이유 ⑪ 기상여건이 나빠졌기 때문에 ⑫ 기타 ( )

4-1. (문4의 '①부모님(또는 친지들)의 역귀성' 응답자에게만 질문) 다른 가족들이 귀성 시 어느 지역에서 귀택으로 귀성하엿습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도 ⑨ 강원도 ⑩ 충북 ⑪충남 ⑫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도

5. (문1의 '④ 없다' , '⑤미정' 응답 문2 '①,②,③ 귀성 또는 여행'으로 변경된 응답자에게만 질문) 그럼,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셨는데, 계획이 달라진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 ① 부모님(또는 친지들)이 역귀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② 교통편을 마련하여 ③ 지출비용의 부담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④ 업무(생업)상의 이유가 해결되어서  
 ⑤ 추석 연휴기간 외에 귀성(또는 여행)하지 못하여  
 ⑥ 추석 연휴에 추가로 휴가를 신청하여 ⑦ 경기가 회복되어서  
 ⑧ 신종 인플루엔자의 위험이 해소되어 ⑨ 교통소통이 원활하여  
 ⑩ 기상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⑪ 기타 ( )

6. 올해(2009년) 추석 연휴에 귀성 또는 여행은 어느 지역으로 다녀오셨습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도 ⑨ 강원도 ⑩ 충북 ⑪충남 ⑫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도 ⑰ 동남아 ⑱ 중국  
 ⑲ 일본 ⑳ 유럽 ㉑ 미주 ㉒ 남태평양 ㉓ 기타(\_\_\_\_\_)

6-1. (문6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귀성 또는 여행 지역이 △△△라고 하셨는데, 귀성 또는 여행지역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부모님이 거주지를 변경해서 | ② 귀성(또는 여행) 다녀오는 순서를 변경해서 |
| ③ 추석 연휴가 짧기 때문에  | ④ 친가 또는 처가 중 한곳만 다녀와서     |
| ⑤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 ⑥ 지출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
| ⑦ 교통편 예매로 인하여    | ⑧ 기상여건 때문에                |
| ⑨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 ⑩ 기타 ( )                  |

7. 귀성(또는 여행)의 출발 날짜는 언제였습니까? (? 2009년도 추석 연휴 : 10.2(금) ~ 10.4(일))

- |                  |                  |                 |
|------------------|------------------|-----------------|
| ① 9.30(수, 평일) 이전 | ② 10.1(목, 평일)    | ③ 10.2(금, 추석연휴) |
| ④ 10.3(토, 추석당일)  | ⑤ 10.4(일, 추석연휴)  | ⑥ 10.5(월, 평일)   |
| ⑦ 10.6(화, 평일)    | ⑧ 10.7(수, 평일) 이후 |                 |

7-1. (문7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출발 날짜가 △△△라고 하셨는데, 귀성시 출발 날짜가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 ② 지출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          |
| ③ 자녀 학업상의 이유로  | ④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          |
| ⑤ 교통편 예매로 인하여  | ⑥ 기상여건 때문에       | ⑦ 기타 ( ) |

8. 귀성 또는 여행가실 때, 출발 시간은 대략 몇 시쯤이었습니까?

- |             |             |             |
|-------------|-------------|-------------|
| ① 자정~오전3시   | ② 오전3시~오전6시 | ③ 오전6시~오전9시 |
| ④ 오전9시~정오   | ⑤ 정오~오후3시   | ⑥ 오후3시~오후6시 |
| ⑦ 오후6시~오후9시 | ⑧ 오후9시~자정   |             |

8-1. (문8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출발 시간이 △△△라고 하셨는데, 귀성시 출발시간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 ② 자녀 학업상의 이유로 | ③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
| ④ 교통정보 확인후 출발하여 | ⑤ 교통편 예매로 인하여 | ⑥ 일행의 시간에 맞추려고 |
| ⑦ 기상여건 때문에      | ⑧ 기타 ( )      |                |

9. 귀성(또는 여행)후 귀가 날짜는 언제였습니까?

- |                  |                  |                 |
|------------------|------------------|-----------------|
| ① 9.30(수, 평일) 이전 | ② 10.1(목, 평일)    | ③ 10.2(금, 추석연휴) |
| ④ 10.3(토, 추석당일)  | ⑤ 10.4(일, 추석연휴)  | ⑥ 10.5(월, 평일)   |
| ⑦ 10.6(화, 평일)    | ⑧ 10.7(수, 평일) 이후 |                 |

9-1. (문9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귀하 날씨가 △△△라고 하셨는데, 귀성후 귀가날짜가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② 지출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③ 자녀 학업상의 이유로                      ④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⑤ 교통편 예매로 인하여                      ⑥ 기상여건 때문에                      ⑦ 기타 (                      )

10. 귀성 또는 여행후, 출발 시간은 대략 몇 시쯤이었습니까?

- ① 자정~오전3시                      ② 오전3시~오전6시                      ③ 오전6시~오전9시  
 ④ 오전9시~정오                      ⑤ 정오~오후3시                      ⑥ 오후3시~오후6시  
 ⑦ 오후6시~오후9시                      ⑧ 오후9시~자정

10-1. (문10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귀하 출발 시간이 △△△라고 하셨는데, 귀하 출발 시간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② 자녀 학업상의 이유로    ③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④ 교통정보 확인후 출발하여    ⑤ 교통편 예매로 인하여    ⑥ 일행의 시간에 맞추려고  
 ⑦ 기상여건 때문에                      ⑧ 기타 (                      )

11. 귀택에서는 본인을 포함해서 귀성(또는 여행)을 함께 하신 분은 모두 몇 명입니까?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⑦ 7명                      ⑧ 8명                      ⑨ 9명                      ⑩ 10명                      ⑪ 기타(                      명)

12. 귀하 또는 귀택에서 귀성(또는 여행) 및 귀가시 주로 이용하신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① 자가용(문 13으로 이동)

- |               |        |                        |
|---------------|--------|------------------------|
| ② 고속버스        | ③ 시외버스 | ④ 전세/관광버스              |
| ⑤ 열차(고속철도 포함) | ⑥ 비행기  | ⑦ 선박    ⑧ 기타 (문15로 이동) |

12-1. (문12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이용 교통수단이 △△△라고 하셨는데, 귀성 또는 여행시 주로 이용하신 교통수단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일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② 지출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③ 귀성/여행지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④ 동행인원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⑤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⑥ 대중교통 예매를 못했기 때문에  
 ⑦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⑧ 기상여건 때문에                      ⑨ 기타 (                      )



17. 귀하 또는 귀댁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에 성묘를 다녀오셨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8.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추석 연휴 귀성 계획에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9.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교통과 관련하여 불편사항이나 편리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19-1.불편사항( )

19-2.편리사항( )

-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C. 설 연휴기간 통행특성 분석을 위한 설문지

가. 설날 사전조사

### 『2010년 설 연휴기간 중 통행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조사지역: 시/도 구 동/읍/면 조사일자 : \_\_\_\_월 \_\_\_\_일 조사자: \_\_\_\_\_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토해양부 조사상담원 000입니다. 저희 국토해양부에서는 설 연휴기간 교통대책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단지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협조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1. 귀하 또는 귀댁에서는 2009년 설 연휴에 귀성 또는 여행을 다녀오셨습니까?

① 귀성      ② 여행      ③ 귀성 및 여행

☐ ④ 안갔음 (문1-1로 이동)

1-1. 그럼, 2009년 설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을 다녀오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설문 응답 후 문4로 이동)

① 설 연휴중 폭설로 인해    ② 부모님, 친지, 자녀의 역귀성 때문에    ③기타(                      )

2. (문1의 ‘① 귀성’, ‘② 여행’, ‘③ 귀성 및 여행’ 응답자에게만 질문) 그럼, 2009년 설연휴 때 귀성 및 귀가는 언제 하셨습니까?

귀성시

① 연휴기간 이전                      ② 연휴기간 내                      ③ 연휴기간 이후

귀가시

① 연휴기간 이전                      ② 연휴기간 내                      ③ 연휴기간 이후

3. 귀하 또는 귀댁에서 작년(2009년) 귀성 또는 여행 및 귀가시 주로 이용하셨던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자가용                      ②고속버스                      ③시외버스                      ④전세/관광버스  
⑤열차(고속철도 포함)    ⑥비행기                      ⑦선박                      ⑧기타

4. 귀하 또는 귀댁에서는 올해(2010년) 설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있으십니까?

① 귀성      ② 여행      ③ 귀성 및 여행      (문7로 이동)

④ 없다(문5로 이동)      ⑤ 미정(문20으로 이동)

5. (문4의 ‘④ 없다’ 응답자에게만 질문) 그럼, 설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① 부모님, 친지, 자녀가 역귀성하기 때문에(문6으로 이동)

②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 거주해서

③ 불경기 및 지출비용의 부담 때문에      ④ 업무(생업) 때문에

⑤ 설 연휴기간 외에 귀성 또는 여행      ⑥ 설 연휴가 짧아서

⑦ 신종플루 때문에      ⑧ 기타(      )

(문20으로 이동)

6. (문5의 ‘①부모님, 친지, 자녀가 역귀성’ 응답자에게만 질문) 다른 가족들이 역귀성을 하신다면 어느 지역에서 오실 예정입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도      ⑨ 강원도      ⑩ 충북      ⑪충남      ⑫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도

7. 귀성 또는 여행의 출발 날짜는 대략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① 2.11(목,평일)이전      ② 2.12(금,평일)      ③ 2.13(토,설연휴)

④ 2.14(일,설당일)      ⑤ 2.15(월,설연휴)      ⑥ 2.16(화,평일)

⑦ 2.17(수,평일)이후      ⑧ 미정

8. 귀성 또는 여행가실 때, 출발 시간은 대략 몇 시쯤으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① 0시(자정)~오전3시      ② 오전3시~오전6시      ③ 오전6시~오전9시

④ 오전9시~오후12시(정오)      ⑤ 오후12시(정오)~오후3시      ⑥ 오후3시~오후6시

⑦ 오후6시~오후9시      ⑧ 오후9시~0시(자정)      ⑨ 미정(문11로 이동)

9. 그럼, 귀가시(또는 여행 후) 돌아올 날짜는 대략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① 2.11(목,평일)이전      ② 2.12(금,평일)      ③ 2.13(토,설연휴)

④ 2.14(일,설당일)      ⑤ 2.15(월,설연휴)      ⑥ 2.16(화,평일)

⑦ 2.17(수,평일)이후      ⑧ 미정

10. 귀가시(또는 여행 후) 돌아올 때, 출발 시간은 대략 몇 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 ① 자정~오전3시      ② 오전3시~오전6시      ③ 오전6시~오전9시  
 ④ 오전9시~정오      ⑤ 정오~오후3시      ⑥ 오후3시~오후6시  
 ⑦ 오후6시~오후9시      ⑧ 오후9시~자정  
 ⑨ 미정 (문11으로 이동)

11. (문 8또는 문10의 ‘⑨ 미정’ 응답자에게만 질문) 귀성/여행 또는 귀가시 출발 시간이 아직 미정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교통정보를 확인한 후 돌아올 시간을 정하려고    ② 일행의 시간에 맞추려고  
 ③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④ 기타( )

12. 올해(2010년) 설 연휴에 귀성 또는 여행은 어느 지역으로 다녀오실 계획입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도      ⑨ 강원도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도

13. 귀하 또는 귀댁에서 귀성 또는 여행 및 귀가시 주로 이용하실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① 자가용(문 14로 이동)

- ② 고속버스      ③ 시외버스      ④ 전세/관광버스  
 ⑤ 열차(고속철도 포함)    ⑥ 비행기      ⑦ 선박      ⑧ 기타 (문16으로 이동)

14. (문13. ‘①자가용’ 응답자에게만 질문) 귀댁에서는 본인을 포함해서 귀성 또는 여행을 함께 가실 분은 모두 몇 명입니까?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⑦ 7명      ⑧ 8명      ⑨ 9명      ⑩ 10명      ⑪ 기타(    명)

15. (문13. ‘①자가용’ 응답자에게만 질문) 귀성 또는 여행시 어떤 도로를 이용하실 예정입니까?

- ① 고속도로만 이용      ② 국도/지방도만 이용(문17로 이동)  
 ③ 고속도로와 국도/지방도를 동시에 이용

15-1. 그럼, 고속도로 이용시 어떤 노선을 이용하실 예정입니까? 가장 많이(길게) 이용할 노선을 순서대로 말씀해 주세요.(복수응답)(설문 응답 후 문17로 이동)

- ① 경부선      ② 중부선    ③ 영동선    ④ 호남선(천안-논산선) ⑤ 서해안선  
 ⑥ 중부내륙선 ⑦ 중앙선    ⑧ 남해선    ⑨ 익산-포항선      ⑩ 88올림픽고속도로  
 ⑪ 경춘선      ⑫ 당진-상주선      ⑬ 서천-공주선      ⑭ 기타

16. (문13. '②고속버스' ~ '⑧ 기타' 응답자에게만 질문) 귀성 또는 여행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 표를 예매하셨습니까?

- ① 귀성, 귀가 모두 예매    ② 귀성만 예매      ③ 귀가만 예매  
 ④ 모두 예매 못함      ⑤ 기타(      )

16-1. (문13. '②고속버스' ~ '⑧ 기타' 응답자에게만 질문) 평소 귀성/귀가시 표를 예매하지 못할 경우, 대체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① 자가용      ②고속버스    ③시외버스      ④전세/관광버스  
 ⑤열차(고속철도 포함) ⑥비행기    ⑦ 선박    ⑧ 귀성/귀가를 포기    ⑨기타(      )

17. 설 연휴 기간동안 눈이나 비 등으로 기상상태가 악화된다는 예보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계획했던 일정대로 귀성 또는 여행      ② 귀성 또는 여행계획을 취소  
 ③ 다른 날 또는 다른 시간대에 출발      ④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    ⑤ 기타(      )

18. 귀하 또는 귀댁에서 작년(2009년) 귀성 및 귀가를 위한 교통비용은 얼마 지불하셨으며, 올해(2010년)는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2009년 설연휴 (      )만원, 2010년 설연휴 (      )만원

19. 귀하 또는 귀댁에서는 올해(2010년) 설의 귀성 및 귀가를 위해 연휴기간 이외에 추가적인 휴가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 ① 예(문19-1로 이동)  
 ② 아니오(문20번으로 이동)

19-1. 그럼, 계획하신 휴가일 수를 설연휴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세요.

설연휴 이전(      )일, 설연휴 이후(      )일

20. 귀하 또는 귀댁에서는 설 연휴 기간에 성묘를 가십니까?

- ① 예(문20-1로 이동)      ② 아니오(문21로 이동)

20-1. (문20. '㉠ 예' 응답자에게만 질문) 그럼, 성묘를 위해서 어디로 가십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도      ⑨ 강원도      ⑩ 충북      ⑪충남      ⑫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도

21. 귀하께서는 3일 연휴의 경우 설 혹은 추석연휴 기간을 최소 5일이 되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      ② 반대

-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나. 설날 간이조사

## 『2010년 설 연휴기간 중 통행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조사지역: 시/도 구 동/읍/면 조사일자 : \_\_\_\_월 \_\_\_\_일 조사자: \_\_\_\_\_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해양부 조사상담원 000입니다. 저희 국토해양부에서는 설 연휴기간 교통대책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난주에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지난주에 응답해 주신 설문항목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 질문을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협조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1. 귀하 또는 귀댁에서는 올해(2010년) 설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있으십니까?

① 귀성      ② 여행      ③ 귀성 및 여행      (문7로 이동)

④ 없다(문5로 이동)      ⑤ 미정(설문조사 종료)

2. (문1의 ‘④ 없다’ 응답자에게만 질문) 그럼, 설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① 부모님, 친지, 자녀가 역귀성하기 때문에(문3으로 이동)

②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 거주해서

③ 불경기 및 지출비용의 부담 때문에      ④ 업무(생업) 때문에

⑤ 설 연휴기간 외에 귀성 또는 여행      ⑥ 설 연휴가 짧아서

⑦ 신종플루 때문에      ⑧ 기타( )      (설문조사 종료)

3. (문5의 ‘①부모님, 친지, 자녀가 역귀성’ 응답자에게만 질문) 다른 가족들이 역귀성을 하신다면 어느 지역에서 오실 예정입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도      ⑨ 강원도      ⑩ 충북      ⑪충남      ⑫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도

4. 귀성 또는 여행의 출발 날짜는 대략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① 2.11(목,평일)이전      ② 2.12(금,평일)      ③ 2.13(토,설연휴)

④ 2.14(일,설당일)      ⑤ 2.15(월,설연휴)      ⑥ 2.16(화,평일)

⑦ 2.17(수,평일)이후      ⑧ 미정

5. 귀성 또는 여행가실 때, 출발 시간은 대략 몇 시쯤으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 ① 자정~오전3시    ② 오전3시~오전6시    ③ 오전6시~오전9시  
 ④ 오전9시~정오    ⑤ 정오~오후3시    ⑥ 오후3시~오후6시  
 ⑦ 오후6시~오후9시    ⑧ 오후9시~자정  
 ⑨ 미정(문9, 문10을 질문한 후 문8로 이동)

6. 그럼, 귀가시(또는 여행 후) 돌아올 날짜는 대략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 ① 2.11(목,평일)이전    ② 2.12(금,평일)    ③ 2.13(토,설연휴)  
 ④ 2.14(일,설당일)    ⑤ 2.15(월,설연휴)    ⑥ 2.16(화,평일)  
 ⑦ 2.17(수,평일)이후    ⑧ 미정

7. 귀가시(또는 여행 후) 돌아올 때, 출발 시간은 대략 몇 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 ① 자정~오전3시    ② 오전3시~오전6시    ③ 오전6시~오전9시  
 ④ 오전9시~정오    ⑤ 정오~오후3시    ⑥ 오후3시~오후6시  
 ⑦ 오후6시~오후9시    ⑧ 오후9시~자정    ⑨ 미정(문11로 이동)

8. (문5의 ‘⑨ 미정’ 또는 문10의 ‘⑨ 미정’ 응답자에게만 질문) 귀성/여행 또는 귀가시 출발 시간이 아직 미정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교통정보를 확인한 후 돌아올 시간을 정하려고    ② 일행의 시간에 맞추려고  
 ③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④ 기타(    )

9. 올해(2010년) 설 연휴에 귀성 또는 여행은 어느 지역으로 다녀오실 계획입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도    ⑨ 강원도    ⑩ 충북    ⑪충남    ⑫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도

10. 귀하 또는 귀댁에서 귀성 또는 여행 및 귀가시 주로 이용하실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① 자가용(문 11로 이동)

- |               |        |                         |
|---------------|--------|-------------------------|
| ② 고속버스        | ③ 시외버스 | ④ 전세/관광버스               |
| ⑤ 열차(고속철도 포함) | ⑥ 비행기  | ⑦ 선박    ⑧ 기타 (문13으로 이동) |

11. (문10. ‘①자가용’ 응답자에게만 질문) 귀댁에서는 본인을 포함해서 귀성 또는 여행을 함께 가실 분은 모두 몇 명입니까?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⑦ 7명    ⑧ 8명    ⑨ 9명    ⑩ 10명    ⑪ 기타(    명)

12. (문10. ‘①자가용’ 응답자에게만 질문) 귀성 또는 여행시 어떤 도로를 이용하실 예정입니까?

- ① 고속도로만 이용      ②국도/지방도만 이용(문14로 이동)  
③고속도로와 국도/지방도를 동시에 이용

12-1. 그럼, 고속도로 이용시 어떤 노선을 이용하실 예정입니까? 가장 많이(길게) 이용할 노선을 순서대로 말씀해 주세요.(복수응답)(설문 응답 후 문14로 이동)

- ① 경부선      ② 중부선      ③ 영동선      ④ 호남선(천안-논산선)      ⑤ 서해안선  
⑥ 중부내륙선      ⑦ 중앙선      ⑧ 남해선      ⑨ 익산-포항선      ⑩ 88올림픽고속도로  
⑪ 경춘선      ⑫ 당진-상주선      ⑬ 서천-공주선      ⑭기타

13. (문10. ‘②고속버스’ ~ ‘⑧ 기타’ 응답자에게만 질문) 귀성 또는 여행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 표를 예매하셨습니다가?

- ① 귀성, 귀가 모두 예매      ② 귀성만 예매      ③ 귀가만 예매  
④ 모두 예매 못함      ⑤ 기타( )

13-1. (문10. ‘②고속버스’ ~ ‘⑧ 기타’ 응답자에게만 질문) 평소 귀성/귀가시 표를 예매하지 못할 경우, 대체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① 자가용      ②고속버스      ③시외버스      ④전세/관광버스  
⑤열차(고속철도 포함)      ⑥비행기      ⑦ 선박      ⑧ 귀성/귀가를 포기      ⑨기타( )

14. 설 연휴 기간동안 눈이나 비 등으로 기상상태가 악화된다는 예보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계획했던 일정대로 귀성 또는 여행      ② 귀성 또는 여행계획을 취소  
③ 다른 날 또는 다른 시간대에 출발      ④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      ⑤ 기타( )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다. 설날 사후조사

## 『2010년 설 연휴기간 중 통행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조사지역: 시/도 구 동/읍/면 조사일자: \_\_\_\_월 \_\_\_\_일 조사자: \_\_\_\_\_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토해양부 조사상담원 000입니다. 저희 국토해양부에서는 설 연휴기간의 교통대책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협조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문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1. (사전 및 간이조사에서 응답 받은) 올해(2010년) 설 연휴기간 중 귀성 및 여행 계획 여부.

① 귀성② 여행③ 귀성 및 여행④ 없다 ⑤ 미정

2. 귀하 또는 귀댁에서는 올해(2010년) 설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을 다녀오셨습니까?

① 귀성 ② 여행 ③ 귀성 및 여행 (문5로 이동)

④ 안갔음(※ 문1:④,⑤ 또는 문2:④ 응답자 문3으로 이동, 문1:①,②,③ 또는 문2:④ 응답자 문4로 이동)

3. (문1의 ‘④없다’, ‘⑤미정’(문2의 ‘④안갔음’ 응답자에게만) 설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단수)

① 부모님, 친지, 자녀가 역귀성했기 때문에(문3-1로 이동)

②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 거주해서  
 ③ 불경기 및 지출비용의 부담 때문에 ④ 업무(생업) 때문에  
 ⑤ 설 연휴기간 외에 귀성 또는 여행 ⑥ 설 연휴가 짧아서  
 ⑦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⑧ 교통혼잡 때문에  
 ⑨ 교통편을 마련하지 못해서 ⑩ 자녀 학업상의 이유  
 ⑪ 기상여건 때문에 ⑫ 기타( )

(문17로 이동)

- 3-1. (문3의 ‘①부모님, 친지, 자녀의 역귀성’ 응답자에게만 질문) 다른 가족들이 역귀성 시 어느 지역에서 귀댁으로 귀성하였습니까?(응답 후 문 17로 이동)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도 ⑨ 강원도 ⑩ 충북 ⑪충남 ⑫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도

4. (문1의 ‘①,②,③ 귀성 또는 여행’ 응답 (문2 ‘④ 안갔음’ 으로 변경된 응답자에게만 질문) 그럼, 설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계획을 취소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단수)

① 부모님, 친지, 자녀가 역귀성했기 때문에(문4-1로 이동)

- |                                   |              |
|-----------------------------------|--------------|
| ②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 거주해서 |              |
| ③ 불경기 및 지출비용의 부담 때문에              | ④ 업무(생업) 때문에 |
| ⑤ 설 연휴기간 외에 귀성 또는 여행              | ⑥ 설 연휴가 짧아서  |
| ⑦ 신종 인플루엔자의 위험이 증가됐기 때문에          | ⑧ 교통혼잡 때문에   |
| ⑨ 교통편을 마련하지 못해서                   | ⑩ 자녀 학업상의 이유 |
| ⑪ 기상여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 ⑫ 기타( )      |

(문17로 이동)

- 4-1. (문4의 ‘①부모님, 친지, 자녀의 역귀성’ 응답자에게만 질문) 다른 가족들이 역귀성 시 어느 지역에서 귀택으로 귀성하였습니까?(응답 후 문 17로 이동)

- |      |       |       |       |      |      |
|------|-------|-------|-------|------|------|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⑤ 광주 | ⑥ 대전 |
| ⑦ 울산 | ⑧ 경기도 | ⑨ 강원도 | ⑩ 충북  | ⑪충남  | ⑫전북  |
| ⑬ 전남 | ⑭ 경북  | ⑮ 경남  | ⑯ 제주도 |      |      |

5. (문1의 ‘④ 없다’, ‘⑤미정’ 응답( 문2 ‘①,②,③ 귀성 또는 여행’으로 변경된 응답자에게만 질문)그럼, 지난달 조사시 설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 계획 없다가 귀성 또는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응답하셨는데, 계획이 달라진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단수)

- ① 부모님, 친지, 자녀가 역귀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② 경기 해소 또는 지출비용의 부담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③ 업무(생업)상의 이유가 해결되서  
 ④ 설 연휴기간 외에 귀성 또는 여행하지 못하여  
 ⑤ 설 연휴에 추가로 휴가를 신청하여  
 ⑥ 신종 인플루엔자의 위험이 해소되어  
 ⑦ 교통소통이 원활하여  
 ⑧ 교통편을 마련해서  
 ⑨ 자녀 학업상의 이유가 해결되서  
 ⑩ 기상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⑪ 기타( )

6. 올해(2010년) 설 연휴에 귀성 또는 여행은 어느 지역으로 다녀오셨습니까?

- |      |       |       |       |      |      |
|------|-------|-------|-------|------|------|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⑤ 광주 | ⑥ 대전 |
| ⑦ 울산 | ⑧ 경기도 | ⑨ 강원도 | ⑩ 충북  | ⑪충남  | ⑫전북  |
| ⑬ 전남 | ⑭ 경북  | ⑮ 경남  | ⑯ 제주도 |      |      |



9-1. (문9의 응답과 사전 및 간이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귀가 날짜가 △△△라고 하셨는데, 귀성후 귀가 날짜가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② 지출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③ 자녀 학업상의 이유로  
 ④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⑤ 교통편 예매로 인하여    ⑥ 기상여건 때문에  
 ⑦ 기타(                      )

10. 귀가시 또는 여행후 돌아올 때 출발 시간은 대략 몇 시쯤이었습니까?

- ① 자정~오전3시                      ② 오전3시~오전6시                      ③ 오전6시~오전9시  
 ④ 오전9시~정오                      ⑤ 정오~오후3시                      ⑥ 오후3시~오후6시  
 ⑦ 오후6시~오후9시                      ⑧ 오후9시~자정

10-1. (문10의 응답과 사전 및 간이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귀가시 출발 시간이 △△△라고 하셨는데, 귀가시 출발 시간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② 자녀 학업상의 이유로    ③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④ 교통정보 확인후 출발하여    ⑤ 교통편 예매로 인하여    ⑥ 일행의 시간에 맞추려고  
 ⑦ 기상여건 때문에    ⑧ 기타(                      )

11. 귀하 또는 귀댁에서 귀성/여행 또는 귀가시 주로 이용하신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① 자가용(문 12로 이동)

- |               |        |                        |
|---------------|--------|------------------------|
| ② 고속버스        | ③ 시외버스 | ④ 전세/관광버스              |
| ⑤ 열차(고속철도 포함) | ⑥ 비행기  | ⑦ 선박    ⑧ 기타 (문14로 이동) |

11-1. (문11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이용 교통수단이 △△△라고 하셨는데, 귀성 또는 여행시 주로 이용하신 교통수단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일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② 지출비용이 부담되기 때문  
 ③ 귀성/여행지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④ 동행인원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⑤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⑥ 대중교통 예매를 못했기 때문에  
 ⑦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⑧ 기상여건 때문에    ⑨ 기타(                      )

12. (문11. '①자가용' 응답자에게만 질문) 귀성 또는 여행시 어떤 도로를 이용하셨습니까?

- ① 고속도로만 이용    ②국도/지방도만 이용(문14로 이동)  
 ③고속도로와 국도/지방도를 동시에 이용

13. 그럼, 고속도로 이용시 어떤 노선을 이용하셨습니까? 가장 많이(길게) 이용한 노선을 순서대로 말씀해 주세요.(복수응답)

- ① 경부선      ② 중부선    ③ 영동선    ④ 호남선(천안-논산선)    ⑤ 서해안선  
 ⑥ 중부내륙선 ⑦ 중앙선    ⑧ 남해선    ⑨ 익산-포항선      ⑩ 88올림픽고속도로  
 ⑪ 경춘선      ⑫ 당진-상주선      ⑬ 서천-공주선      ⑭ 서울용인고속도로  
 ⑮ 기타(                      )

13-1. (문13의 응답과 사전 및 간이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이용 노선이 △△△라고 하셨는데, 귀성 또는 여행시 주로 이용하신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교통 체증 상황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②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③ 귀성 또는 여행지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④ 기타(                      )

14. 귀하 또는 귀댁에서는 올해 설의 귀성 및 귀경을 위해 연휴기간 이외에 추가적인 휴가가 있으셨습니까?

- ① 예(문14-1로 이동)  
 ② 아니오(문 15로 이동)

14-1. 그럼, 추가적인 휴가일 수를 설 연휴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세요.  
 설연휴 이전(\_\_\_\_)일, 설연휴 이후(\_\_\_\_)일

15. 귀하 또는 귀댁에서는 올해 귀성 및 귀경을 위한 교통비용으로 얼마를 지불하셨습니까?  
 (교통비용은 왕복 기준, ‘자가용(유류비+고속도로통행요금)’, ‘기타’(대중교통비 포함))  
 (                      )만원

15-1. (문15의 응답과 사전 및 간이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귀성 및 귀경시 교통비용이 △△△라고하셨는데, 귀성 및 귀경을 위한 교통비용이 변화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물가가 상승(또는 하락)했기 때문에  
 ② 귀성/여행 일정이 연장(또는 단축)되었기 때문에  
 ③ 귀성/여행 지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④ 동행인원이 증가(또는 감소)했기 때문에  
 ⑤ 이용 교통수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⑥ 기타(                      )

16. 귀하 또는 귀댁에서는 설 연휴기간 귀성/귀경시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이용하셨습니까?

- ① 예(문16-1로 이동)      ② 아니오(설문조사 종료)

16-1. (문16. ‘① 예’ 응답자에게만 질문) 설 연휴기간 교통상황 안내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보통    ④ 약간 도움이 되었다    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6-2. (문16. ‘① 예’ 응답자에게만 질문) 그럼,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어디에서 얻으셨습니까?

- ① 인터넷 사이트    ② 공중파 방송    ③ 이동통신사 교통정보    ④ ARS 전화  
⑤ 무선인터넷(트위터 등)    ⑥ 도로전광판    ⑦ 네이게이션    ⑧ 기타(    )

17. 귀하 또는 귀댁에서는 설 연휴 기간에 성묘를 다녀오셨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7-1. (문17. ‘① 예’ 응답자에게만 질문) 그럼, 성묘를 위해서 어디로 다녀오셨습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도    ⑨ 강원도    ⑩ 충북    ⑪충남    ⑫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도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D. 언론보도 정리

### 가. 2009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 TV뉴스 : 5건, 신문/인터넷뉴스 : 27건, 총 32건 언론보도

일자	언론사	뉴스제목
2009-07-10	매일경제	올여름 휴가 동해안으로 몰린다
2009-07-10	아시아경제	피서객' 가장 많이 몰리는 시기는?
2009-07-10	한국경제	여름휴가 7월 26일~8월 1일 가장 혼잡 예상...교통연구원 설문
2009-07-10	머니투데이	"올여름 휴가 7월말~8월초 동해안으로 몰려"
2009-07-10	MBN	올여름 휴가 7월26~8월1일 집중...동해안 혼잡
2009-07-10	파이낸셜뉴스	피서객 7.26~8.1에 집중..도로 34곳 개통
2009-07-10	연합뉴스	올 여름휴가 7월26일~8월1일 절정<국토부 조사>
2009-07-10	연합뉴스	올 여름휴가 7월26일~8월1일 절정<국토부 조사>
2009-07-10	오토타임즈	휴가여행 7월26일~8월1일 집중
2009-07-10	쿠키뉴스	여름휴가 7.26~8.1 가장 붐빌듯
2009-07-10	파이낸셜뉴스	피서객 7월26일~8월1일 집중
2009-07-10	YTN	올 여름 휴가 7월26일~8월1일 절정
2009-07-10	서울경제	휴가 '7월말~8월초 동해안' 몰려
2009-07-10	국민일보	여름휴가 7월 마지막주 '절정'
2009-07-11	제주일보	휴가철 제주노선 항공편 증편
2009-07-11	강원일보	"여름 휴가는 역시 동해안이 최고"
2009-07-11	서울신문	여름휴가 차량 7월 마지막주 몰릴 듯
2009-07-11	파이낸셜뉴스	피서객 7월26일~8월1일 집중
2009-07-11	MBC	휴가철 7월 마지막 주 '절정'
2009-07-13	KTV한국정책방송	여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시행
2009-07-15	이데일리	7월말~8월초 휴가차량 몰려요
2009-07-15	연합뉴스	즐거운 휴가! 고속도로와 함께
2009-07-15	머니투데이	휴가철 서울-강릉간 영동고속도로 6시간 소요 예상
2009-07-15	데이터뉴스	7월말~8월초, 서울-피서지 평소보다 2시간 ↑
2009-07-16	연합뉴스	올 해 휴가도 강원권으로 가자!
2009-07-24	부산일보	고속도로, 31일~내달 2일 '휴가 체증'
2009-07-26	헤럴드 생생뉴스	휴가철 고속도로 혼잡갯터미로 정체시간 줄여볼까
2009-07-10	대한민국경제포털	09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2009-07-10	뉴스와이어	휴가 7월 26일~8월 1일 집중
2009-07-10	BBS	여름휴가 7월 마지막 주 절정..휴가가구비율은 지난해보다 6% 줄어
2009-07-10	남양주타임즈	[휴가] 26~8.1 집중... 동해안 '최다'
2009-07-15	교통신문	이달 마지막 주 바캉스 피크

## 나. 2009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 TV뉴스 : 7건, 신문/인터넷뉴스 : 58건, 총 65건 언론보도

일자	언론사	뉴스제목
2009-09-24	아시아경제	추석 귀성길 2일 오전, 귀경길 3일 오후 가장 혼잡
2009-09-24	이데일리	추석귀성 10월2일 오전이 가장 혼잡
2009-09-24	파이낸셜뉴스	추석 귀경·귀경길 10월2일 오전·3일 오후 피하세요
2009-09-24	korea.kr	귀성 2일 오전, 귀경 3일 오후 가장 혼잡
2009-09-24	부산일보	부산~서울 최대 8시간 40분
2009-09-24	머니투데이	귀성길 2일 오전, 귀경길 3일 오후 가장 혼잡
2009-09-24	연합뉴스	귀성 2일 오전, 귀경 3일 오후 가장 혼잡
2009-09-24	뉴스핍	정부, 연휴기간 '추석특별교통대책' 시행
2009-09-24	뉴스토마토	귀성 2일 오전, 귀경 3일 오후 가장 혼잡
2009-09-24	뉴시스	귀성 2일 오전, 귀경 3일 오후 가장 혼잡
2009-09-24	mbn	귀성 2일 오전, 귀경 3일 오후 가장 혼잡
2009-09-24	이데일리	추석 연휴 '10월 2일 오전' 최고 혼잡 예상
2009-09-24	연합뉴스	<그래픽> 추석 귀성·귀경 교통상황 예측
2009-09-24	노컷뉴스	귀성 2일 오전, 귀경 3일 오후 가장 혼잡
2009-09-24	연합뉴스	<그래픽> 추석 연휴 고속도로 진입 조절 영업소
2009-09-24	한국경제TV	추석 귀성길 2일 오전, 귀경길 3일 오후 가장 혼잡
2009-09-24	연합뉴스	귀성 2일 오전, 귀경 3일 오후 가장 혼잡
2009-09-24	파이낸셜뉴스	고향가는 길, 2일 6~12시 혼잡
2009-09-24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귀성길 2일 오전, 귀경길 3일 오후 가장 혼잡
2009-09-24	한국재경신문	귀성길 2일 오전, 귀경길 3일 오후 가장 혼잡
2009-09-24	오토타임즈	귀성길 2일 오전, 귀경길 3일 오후 가장 혼잡할 듯
2009-09-24	MBC	귀성길 2일 오전, 귀경 3일 오후 가장 혼잡
2009-09-24	매일경제	귀성길 2일 오전, 귀경길 3일 오후 가장 혼잡
2009-09-24	시사서울	귀성길 2일 오전, 귀경길 3일 오후 가장 혼잡
2009-09-24	매일경제	추석 귀성 2일 오전 가장 막혀
2009-09-24	SBS	추석 귀성 2일 오전·귀경 3일 오후 가장 혼잡
2009-09-24	국민일보	귀성—10월2일·귀경—10월3일 가장 '혼잡'
2009-09-24	연합뉴스	귀성길 1일 저녁, 귀경길 3일 저녁 가장 혼잡
2009-09-24	헤럴드	귀성길·귀경길 피해야할 시간은?
2009-09-24	모닝뉴스	秋夕 귀성길 2일 오전, 귀경길 3일 오후 가장 혼잡
2009-09-24	세계일보	'짧은 추석연휴' 고속도로 혼잡 극심할 듯
2009-09-24	아시아투데이	추석고향길..귀성 2일 오전, 귀경 3일 오후 가장 혼잡
2009-09-24	한국일보	귀성길 2일 오전·귀경길 3일 오후 피하세요
2009-09-25	대전일보	추석연휴 서울-대전 최대 예상 소요시간
2009-09-25	서울신문	화성 팔탄구간 등 국도12곳 임시개통
2009-09-25	뉴스천지	귀성길 2일 오전, 귀경길 3일 오후 가장 혼잡
2009-09-25	MBC	추석 귀성길, 2일 오전·귀경 3일 오후 가장 혼잡
2009-09-25	아시아투데이	귀성길 2일 오전-귀경길 3일 오후 피하세요
2009-09-25	디지털타임스	추석 귀성길 2일 오전 피하세요
2009-09-25	수원일보	귀성 2일 오전·귀경 3일 오후 '꽉'
2009-09-25	KTV 한국정책방송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

일자	언론사	뉴스제목
2009-09-25	부산일보	부산~서울 최대 8시간 40분
2009-09-25	매일신문	귀향 2일 오전, 귀가 3일 오후 '혼잡'
2009-09-25	내일신문	귀성 2일 오전, 귀경 3일 오후 가장 혼잡
2009-09-25	아이비타임즈	귀성 2일 오전, 귀경 3일 오후 가장 혼잡
2009-09-25	포커스신문	2일 오전·3일 오후 피하세요
2009-09-25	뉴스엔	올 추석 귀성길 10월2일 오전, 귀경길 3일 오후 '교통지옥' 각오해야
2009-09-25	오토타임즈	추석대비 옛 구마고속도 남대구~화원 조기 확장
2009-09-25	노컷뉴스	추석연휴 경남지역 고속도로 정체 '극심' 예상
2009-09-28	뉴시스	TBN, 24시간 추석 교통특별방송
2009-09-28	연합뉴스	안전하게 고향 가는 길, TBN과 함께
2009-09-28	쿠키뉴스	추석 귀향길 '고생길' 안 되려면
2009-09-28	뉴시스	한가위 귀성길, 서울-광주 최대 7시간 소요
2009-09-28	한국재경신문	추석연휴 귀성·귀경길, 이날은 피하라
2009-09-29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버스 3~4일 막차 새벽2시까지
2009-09-29	이뉴스투데이	추석연휴 2일 오전, 3일 오후 가장 혼잡
2009-09-30	파이낸셜뉴스	귀성길 2일 오전·귀경길 3일 오후 피하세요
2009-09-30	국민일보	한가위 情 & 樂 그리운 고향길~'우회길' 알고가면 뚫린다
2009-09-30	경인일보	추석 여객선운항 9.3% 확대
2009-10-01	중앙일보	막히는 고향길, 돌아갈까 새 길 따라 갈까
2009-10-01	파이낸셜뉴스	귀성길 2일 오전·귀경길 3일 오후 피하세요
2009-10-01	MBC	오후부터 본격 귀성행렬 시작
2009-10-01	연합뉴스	"그래도 한가위는 고향서"...민족대이동 시작
2009-10-01	연합뉴스	"그래도 한가위는 고향서"...민족대이동 시작
2009-10-01	아시아투데이	"한가위는 고향서"...민족대이동 시작
2009-10-01	한국일보	귀성 인구 줄었지만 연휴 짧아 곳곳 정체

#### 다. 2010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 TV뉴스 : 5건, 신문/인터넷뉴스 : 41건, 총 46건 언론보도

일자	언론사	뉴스제목
2010-02-04	연합뉴스	귀성 13일 오전·귀경 14일 오후 가장 혼잡
2010-02-04	헤럴드 생생뉴스	올해 설 연휴, 2546만명 이동" 예상...전년比 10%
2010-02-04	한국경제	설 연휴 2,546만명 대이동... 13~14일 가장 혼잡
2010-02-04	뉴스천지	설 명절 13일 오전·14일 오후 가장 혼잡
2010-02-04	공감코리아	설연휴 2,546만명 이동, 작년대비 10.1% 증가
2010-02-04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설 귀성 13일 오전·귀경 14일 오후 가장 혼잡
2010-02-04	서울파이낸스	설 귀성 13일 오전·귀경 14일 오후 "피해라"
2010-02-04	연합뉴스	설 귀성·귀경 교통상황 예측
2010-02-04	노컷뉴스	설 이동인구 사상최대...최악의 교통 혼잡 예상
2010-02-04	mbn매일경제	설 귀성길 13일 오전·귀경길 14일 오후 '가장 혼잡'
2010-02-04	헤럴드 생생뉴스	설 연휴 "귀성 13일오전-귀경 14일오후" 피하세요!
2010-02-04	mbn	설 귀성길 13일 오전·귀경길 14일 오후 '가장 혼잡'
2010-02-04	뉴스한국	짧은 설 연휴, 고속도로 정체 피하려면?
2010-02-04	시티신문	귀성 13일 오전 귀경 14일 오후 피해서 가세요

일자	언론사	뉴스제목
2010-02-04	한국일보	귀성 13일 오전·귀경 14일 오후 피해요
2010-02-04	SBS	설 연휴 짧아 '혼잡'할 듯... "13·14일 가장 극심"
2010-02-04	파이낸셜뉴스	귀성 13일 오전·귀경 14일 오후 가장 혼잡
2010-02-04	한국경제	설 연휴 교통 13~14일 가장 혼잡
2010-02-04	서울경제	귀성길 13일 오전, 귀경길 14일 오후 "설설 긴다"
2010-02-04	한국경제	설 연휴 교통 13~14일 가장 혼잡
2010-02-04	세계일보	설 귀성 13일 오전·귀경 14일 오후 가장 혼잡
2010-02-04	한겨레	13일 오전·15일 오후 피하세요
2010-02-04	뉴스와이어	설 연휴 2,546만명 이동...작년대비 10.1% 증가
2010-02-04	조세일보	귀성 13일 오전·귀경 14일 오후 가장 혼잡
2010-02-04	뉴데일리	2546만명 대이동...설 귀성길, 13일 오전 가장 혼잡
2010-02-04	OBS뉴스	설 귀성길 13일 오전·귀경길 14일 오후 혼잡
2010-02-04	경인일보	귀성 13일 오전·귀경 14일 오후 가장 혼잡
2010-02-05	대전일보	귀성 13일 오전·귀경 14일 오후 가장 혼잡
2010-02-05	서울신문	설 귀성·귀경길 전망...13일 오전·14일 오후 피하세요
2010-02-05	아시아투데이	귀성길 13일 오전·귀경길 14일 오후 피하세요
2010-02-05	부산일보	설 귀성길 13일 오전 가장 혼잡
2010-02-05	내일신문	귀성 13일 오전 가장 혼잡
2010-02-08	공감코리아	짧은 연휴 긴 귀성길... "막혀도 느긋하게"
2010-02-10	일간스포츠	꽉 막힌 길 '13일 오전 귀성·14일 오후 귀경' 피하세요
2010-02-10	브레이크뉴스	귀성길 소통과 안전운전을 바라며
2010-02-10	매일경제	귀성길 13일 오전, 귀경길 14일 오후 혼잡 예상
2010-02-10	한겨레	교통정보와 함께하는 고향길, 정체야 물렸거라
2010-02-10	매일경제	귀성길 13일 오전, 귀경길 14일 오후 혼잡 예상
2010-02-11	헤럴드경제	[설맞이 情마중]한남대교 남단~신탄진 나들목 버스전용차로 실시
2010-02-11	헤럴드경제	[설맞이 情마중]차 막히고 길 멀어도...고향집 생각에 마음은 '훈훈'
2010-02-11	서울경제	귀성-13일 오전, 귀경-14일 오후 피하세요
2010-02-11	파이낸셜뉴스	가장 붐비는 시간, 귀성 13일 오전·귀경 14일 오후
2010-02-11	국민일보	귀성 2월13일 오전·귀경 14일 오후 피하세요
2010-02-11	경인일보	고향 가는길·교통정보
2010-02-12	서울투데이	설 연휴 2,546만명 이동...작년대비 10.1% 증가 '사상 최대'
2010-02-13	스포츠한국	막히면 우회도로로 "여유갖고 운전하세요"

#### 라. 특별교통대책기간별 언론보도 종합정리

구분	TV뉴스	신문/인터넷뉴스	합계
2009년 하계휴가	5	27	32
2009년 추석 특별교통관리대책	7	58	65
2010년 설 특별교통관리대책	5	41	46

## E. 참고문헌

1. 한국도로공사, “명절(설, 추석) 연휴기간 교통패턴분석”, 2008.2
2. 유정훈(2008), “지점과 구간기반자료를 활용한 실시간 통행시간 추정 모형”, 한국도로학회지, 제10권 제1호, pp.155~164
3. 한국도로공사, “특송기간 교통관리전략 개발 워크샵 결과보고서”, 2007
4.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 “2007년 국가교통DB구축사업 중 특별연휴기간 통행특성 분석”, 2008
5.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 “2008년 국가교통수요조사 및 DB구축사업 중 특별교통관리대책 관련자료 조사”, 2009
6. 도시고속도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martway.seoul.go.kr>)
7.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http://www.freeway.co.kr>
8.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 홈페이지, <http://www.dbeway.co.kr/its>
9.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홈페이지, <http://www.seoulbeltway.co.kr>
10. 신공항하이웨이(주) 홈페이지, <http://www.hiway21.co.kr>
11.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http://www.sisul.or.kr>
12.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bus.or.kr>
13.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http://www.kobus.co.kr>